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 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와 책임은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박사학위논문

한·중 동사분류와 결합제약 대조 연구

-어휘상과 통사적 구성 형식의 실현 양상을 중심으로-



한성대학교 대학원

한국어문학과

한국어교육전공

이승희

박사 학위 논문
지도교수 고창수

한·중 동사분류와 결합제약 대조 연구

-어휘상과 통사적 구성 형식의 실현 양상을 중심으로-

A Comparative study on the Categorization of verbs and
Combination constraints in Korean and Chinese: Focused on
the Lexical aspect and Realization pattern of Syntactic
configuration formats

2015년 12월 일

한성대학교 대학원
한국어문학과
한국어교육전공
이승희

박사학위논문
지도교수 고창수

한·중 동사분류와 결합제약 대조 연구

-어휘상과 통사적 구성 형식의 실현 양상을 중심으로-

A Comparative study on the Categorization of verbs and
Combination constraints in Korean and Chinese: Focused on
the lexical aspect and realization pattern of syntactic
configuration formats

위 논문을 문학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5년 12월 일

한성대학교 대학원
한국어문학과
한국어교육전공
이승희

국 문 초 록

한·중 동사분류와 결합제약 대조 연구

-어휘상과 통사적 구성 형식의 실현 양상을 중심으로-

한성대학교 대학원

한국어문학과

한국어교육 전공

이 승 희

본고는 한국어와 중국어의 동사를 상적 특성에 따라 어휘상을 분류한 후, 분류된 동사 부류와 통사적 구성형식의 상 실현 양상을 비교 및 대조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상의 범주가 크게 문법상과 어휘상으로 나뉘고, 이 둘의 상호작용에 의해 상이 실현된다는 점에는 반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문법상의 범주와 어휘상의 범주, 문법상 표지 문제 등으로 인하여 한국어와 중국어의 상이 완벽하게 대응하기는 어렵다. 또한 한국어와 중국어 모두 문법상의 범주에 이견이 많고 상 표지로 발달해가는 과정의 과도기적 특성으로 인해 이들의 범주적 지위를 확정하기는 더욱 어렵다. 이에 본고는 어휘상과 통사적 구성 형식을 기저로 하여 한국어와 중국어에서 상의 실현 양상을 대조 분석하였다.

2장에서는 문법상에서 어휘상을 함께 다루어야 하는 당위성을 언급하고, Vendler(1967), Smith(1997)에서 고찰한 상 연구가 한국어와 중국어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았다. 어휘상은 동사를 대상으로 의미적 자질을 [상태성], [지속성], [완성성]으로 분류하여 다루었다. 어휘상의 자질적 특성으로 인해 통사적 구성 형식과의 결합 시 새로운 상이 실현된다.

3장에서는 어휘상의 유형 분석과 통사적 구성 형식의 상적 의미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어휘상 유형 분석에서는 시간구조 도식, 시간적 특성,

통사론적·의미론적 특성을 상 자질과 연관하여 다루었다. 상태동사에서는 [상태성], [지속성]의 특성으로 상태성의 정도에 따른 한·중 상태동사의 차이에 대하여 다루었다. 순간동사에서는 [동태성], [순간성], [-완성성]의 특성으로 인한 완성성의 조건과 완성성과 관계되는 문제의 해결방안에 대해 다루었다. 달성동사에서는 [동태성], [순간성], [완성성]의 특성으로 어휘적 초점이 상태변화에 있는지 혹은 결과상태에 있는지에 대해 다루었다. 행위동사는 [동태성], [지속성], [-완성성]의 특성으로 내부단계의 동질성 문제와 한국어와 중국어에서 각기 다르게 쓰이는 단계성에 대해 다루었다. 완수동사는 [동태성], [지속성], [완성성]의 특성으로 움직임이 있는 동사를 분류하는 자질로서의 결과성에 대해 다루었다. 또한 이들과 결합제약을 다루게 될 통사적 구성 형식 또한 상적 자질의 특성으로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통하여 한·중 두 언어에서 상 실현에 의한 일정한 대응 관계를 설명할 수 있었다.

4장에서는 어휘상에 따라 통사적 구성 형식의 상이 실현되는 구체적 양상을 살펴보았다. 통사적 구성 형식으로 한국어는 완결상으로 ‘-었-’과 ‘-었었-, -은 일/적이 있-’을 다루고, 시간의 흐름에 따른 동작 발달 단계는 예정의 ‘-게 되-, -려고 하-’, 기동의 ‘-어 지-’, 진행의 ‘-고 있-’, 향진의 ‘-어 가/오-’, 종결의 ‘-어 버리-, -어 놓/두-’, 지속의 ‘-어 있-’을 다루었다. 중국어는 완결상으로 ‘了’와 ‘過’를 다루고, 시간의 흐름에 따른 동작 발달 단계는 예정의 ‘將要’, 기동의 ‘起來’, 진행의 ‘在’, 향진의 ‘下去, 下來’, 종결의 ‘掉, 着, 完’, 지속의 ‘着’을 다루었다. 이에 따라 상의 의미가 달라지는 요인과 그 영향을 말뭉치를 통하여 고찰하였다.

5장 결론에서는 어휘상에 따라 상의 실현 양상이 달라지는 양상을 표로 정리하여 제시하고, 한국어교육에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마무리를 지었다.

【주요어】 한국어, 중국어, 상, 어휘상, 문법상, 동사분류, 상 자질, 완결상, 비완결상, 예정상, 기동상, 향진상, 진행상, 지속상, 대조분석

목 차

| | |
|--------------------------------------|-----|
| 제 1 장 서 론 | 1 |
| 1.1 연구 목적 | 1 |
| 1.2 연구 방법 및 대상 | 7 |
| 1.3 논의의 구성 | 14 |
| 1.4 한·중 대조 선행 연구 | 16 |
| 제 2 장 어휘상과 문법상에 관련된 이론적 배경 | 32 |
| 2.1 어휘상의 개념과 체계 | 32 |
| 2.2 문법상 개념과 체계 | 46 |
| 2.3 어휘상을 구성하는 자질 | 52 |
| 제 3 장 어휘상 유형 분석과 통사적 구성 형식의 상적 의미 분석 | 62 |
| 3.1 한·중 어휘상 유형 분석 | 62 |
| 3.1.1 상태동사 | 62 |
| 3.1.2 순간동사 | 68 |
| 3.1.3 달성동사 | 77 |
| 3.1.4 행위동사 | 79 |
| 3.1.5 완수동사 | 90 |
| 3.2 한국어의 통사적 구성 형식에 관한 상 분석 | 96 |
| 3.2.1 완결상 | 96 |
| 3.2.1.1 ‘-었-’ | 96 |
| 3.2.1.2 ‘-었었-’ | 102 |
| 3.2.2 동작 발달 단계상 | 104 |

| | |
|---|------------|
| 3.2.2.1 BS 단계의 예정상 | 105 |
| 3.2.2.2 S 단계의 기동상 | 109 |
| 3.2.2.3 M 단계의 진행상과 향진상 | 111 |
| 3.2.2.3.1 진행상 | 113 |
| 3.2.2.3.2 향진상 | 116 |
| 3.2.2.4 F 단계의 종결상 | 120 |
| 3.2.2.5 AF 단계의 지속상 | 125 |
| 3.3 중국어의 통사적 구성 형식에 관한 상 분석 | 128 |
| 3.3.1 완결상과의 결합제약 | 128 |
| 3.3.1.1 ‘了’ | 129 |
| 3.3.1.2 ‘過’ | 132 |
| 3.3.2 동작 발달 단계상과의 결합제약 | 134 |
| 3.3.2.1 BS 단계의 예정상 | 136 |
| 3.3.2.2 S 단계의 기동상 | 138 |
| 3.3.2.3 M 단계의 진행상과 향진상 | 140 |
| 3.3.2.3.1 진행상 | 141 |
| 3.3.2.3.2 향진상 | 147 |
| 3.3.2.4 F 단계의 종결상 | 149 |
| 3.3.2.5 AF 단계의 지속상 | 159 |
| 제 4 장 한·중 어휘상에 따른 상의 실현 양상 | 164 |

| | |
|--|-----|
| 4.1 상태동사의 상 실현 양상 | 164 |
| 4.1.1 완결상 실현 양상 | 165 |
| 4.1.1.1 ‘-였-’과 ‘了’ | 165 |
| 4.1.1.2 ‘-였었-, -은 일/적이 있-’과 ‘-過’ | 167 |
| 4.1.2 동작의 발달 단계에 따른 상 실현 양상 | 168 |
| 4.1.2.1 ‘-게 되-/–려고 하-’와 ‘將要’ | 168 |
| 4.1.2.2 ‘-여 지-’와 ‘起來’ | 169 |

| | |
|-------------------------------------|-----|
| 4.1.2.3 ‘-고 있-’과 ‘正/在/正在’ | 172 |
| 4.1.2.4 ‘-어 가-’와 ‘下去’ | 174 |
| 4.1.2.5 ‘-어 버리-, 어 놓/두-’와 ‘掉/ 着/ 完’ | 175 |
| 4.1.2.6 ‘-어 있-’과 ‘着’ | 176 |
| 4.2 순간동사의 상 실현 양상 | 178 |
| 4.2.1 완결상 실현 양상 | 178 |
| 4.2.1.1 ‘-었’, ‘了’ | 178 |
| 4.2.1.2 ‘-었었-, -은 일/적이 있-’와 ‘-過’ | 179 |
| 4.2.2 동작의 발달 단계에 따른 상 실현 양상 | 180 |
| 4.2.2.1 ‘-게 되-/–려고 하-’와 ‘將要’ | 180 |
| 4.2.2.2 ‘-어 지-’와 ‘起來’ | 183 |
| 4.2.2.3 ‘-고 있-’과 ‘正/在/正在’ | 184 |
| 4.2.2.4 ‘-어 가-’와 ‘下去’ | 185 |
| 4.2.2.5 ‘-어 버리-, 어 놓/두-’와 ‘掉/ 着/ 完’ | 185 |
| 4.2.2.6 ‘-어 있-’과 ‘着’ | 187 |
| 4.3 달성동사의 상 실현 양상 | 189 |
| 4.3.1 완결상 실현 양상 | 189 |
| 4.3.1.1 ‘-었-’과 ‘了’ | 189 |
| 4.3.1.2 ‘-었었-, -은 일/적이 있-’과 ‘-過’ | 190 |
| 4.3.2 동작의 발달 단계에 따른 상 실현 양상 | 192 |
| 4.3.2.1 ‘-게 되-/–려고 하-’와 ‘將要’ | 192 |
| 4.3.2.2 ‘-어 지-’와 ‘起來’ | 193 |
| 4.3.2.3 ‘-고 있-’과 ‘正/在/正在’ | 195 |
| 4.3.2.4 ‘-어 가-’와 ‘下去’ | 197 |
| 4.3.2.5 ‘-어 버리-, 어 놓/두-’와 ‘掉/着/完’ | 197 |
| 4.3.2.6 ‘-어 있-’과 ‘着’ | 199 |
| 4.4 행위동사의 상 실현 양상 | 203 |
| 4.4.1 완결상 실현 양상 | 203 |
| 4.4.1.1 ‘-었’과 ‘了’ | 203 |

| | |
|---|------------|
| 4.4.1.2 ‘-었었-, -은 일/적이 있-’과 ‘-過’ | 204 |
| 4.4.2 동작의 발달 단계에 따른 상 실현 양상 | 205 |
| 4.4.2.1 ‘-게 되-/려고 하-’와 ‘將要’ | 205 |
| 4.4.2.2 ‘-어 지-’와 ‘起來’ | 206 |
| 4.4.2.3 ‘-고 있-’과 ‘正/在/正在’ | 206 |
| 4.4.2.4 ‘-어 가-’와 ‘下去’ | 210 |
| 4.4.2.5 ‘-어 버리-, 어 놓/두-’와 ‘掉/着/完’ | 211 |
| 4.4.2.6 ‘-어 있-’과 ‘着’ | 214 |
| 4.5 완수동사의 상 실현 양상 | 217 |
| 4.5.1 완결상 실현 양상 | 217 |
| 4.5.1.1 ‘-었’과 ‘了’ | 217 |
| 4.5.1.2 ‘-었었-, -은 일/적이 있-’과 ‘-過’ | 218 |
| 4.5.2 동작의 발달 단계에 따른 상 실현 양상 | 218 |
| 4.5.2.1 ‘-게 되-/려고 하-’와 ‘將要’ | 218 |
| 4.5.2.2 ‘-어 지-’와 ‘起來’ | 219 |
| 4.5.2.3 ‘-고 있-’과 ‘正/在/正在’ | 220 |
| 4.5.2.4 ‘-어 가-’와 ‘下去’ | 220 |
| 4.5.2.5 ‘-어 버리-, -어 놓-, -어 두-’와 ‘掉/着/完’ | 222 |
| 4.5.2.6 ‘-어 있-’과 ‘着’ | 223 |
| 제 5 장 결론 | 225 |
| 5.1 연구내용 요약 및 정리 | 228 |
| 5.2 한국어교육 활용 방안 | 236 |
| 참고문헌 | 237 |
| ABSTRACT | 258 |

표 목 차

| | |
|--|-----|
| <표1> 상의 이분론(二分論) | 3 |
| <표2> 상과 시제에 관한 한·중 대조 주제별 논문(1992~2014년) | 28 |
| <표3> Smith(1997:20)의 어휘상 분류 | 43 |
| <표4> 순간동사와 달성동사의 ‘순간’의 양상 | 72 |
| <표5> 하위자질로서의 결과성 유무 | 92 |
| <표6> 상태동사의 상 실현 양상 | 228 |
| <표7> 순간동사의 상 실현 양상 | 230 |
| <표8> 달성동사의 상 실현 양상 | 231 |
| <표9> 행위동사의 상 실현 양상 | 232 |
| <표10> 완수동사의 상 실현 양상 | 234 |

그 림 목 차

| | |
|---------------------------------|-----|
| <그림1> Vendler(1967:99–106)의 어휘상 | 39 |
| <그림2> Vendler(1967)의 어휘상 수정 | 41 |
| <그림3> 상태동사의 시간 도식 | 62 |
| <그림4> 순간동사의 시간 도식 | 68 |
| <그림5> 달성동사의 시간 도식 | 77 |
| <그림6> 행위동사의 시간 도식 | 79 |
| <그림7> 완수동사의 시간 도식 | 90 |
| <그림8> BS 단계의 예정상 | 106 |
| <그림9> S 단계의 기동상 | 110 |
| <그림10> M 단계의 진행상과 향진상 | 112 |
| <그림11> F 단계의 종결상 | 120 |
| <그림12> AF 단계의 지속상 | 125 |
| <그림13> BS 단계의 예정상 | 137 |
| <그림14> S 단계의 기동상 | 139 |
| <그림15> M 단계의 진행상과 향진상 | 140 |
| <그림16> F 단계의 종결상 | 149 |
| <그림17> AF 단계의 지속상 | 160 |

제 1 장 서 론

1.1 연구 목적

본고는 한국어와 중국어의 동사를 상적 특성에 따라 어휘상을 분류한 후, 분류된 동사 부류와 통사적 구성형식과의 상 실현 양상을 비교 및 대조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통사적 구성 형식은 어떠한 동사와 결합 하는지에 따라 문법적 표지가 지닌 상의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어휘상은 반드시 언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문법상이 형태가 뚜렷하여 표지로서 사용할 수 있는 것에 비해 어휘상은 상적 의미가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동사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문법상의 부수적 요소로 다루어질 뿐 독립적 영역으로 연구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고는 한국어의 상적 특성에 따른 동사의 분류를 통해 상의 실현 양상을 고찰함은 물론 한국어와 동일하게 동사에 여러 가지 형태소를 첨가하여 문법적 표지로 사용하는 중국어와의 비교 및 대조를 통해 유사점과 차이점을 파악하여 한국어와 중국어의 상의 실현양상을 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상 표지 기능에 있어 한국어는 ‘-고 있-’이 진행상과 지속상의 표지로 사용되며 이들의 의미는 결합하는 동사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나 중국어는 한국어보다는 좀 더 분화되어 진행상은 ‘在’로, 지속상은 ‘着’로 서로 다른 상 표지를 사용한다. 상 자질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동사 분류와 통사적 구성형식과의 실현 양상이 도출되면 문장 층위에서 상의 변화가 발생하는 요인과 동일한 통사적 구성형식이 다른 의미로 쓰이는 것에 대한 타당한 이유를 제공할 수 있다.

- (1) 가. 우리 팀이 이기고 있다.
나. 나는 그 상황을 알고 있다.

(1)은 동사에 ‘-고 있-’이 결합한 형태이다. 동일한 통사적 구성형식임에도 불구하고 (1가)에 쓰인 ‘-고 있-’은 진행을 나타내고 (1나)에 쓰인 ‘-고 있-’은 결과 상태의 지속을 나타낸다. 따라서 (1)을 중국어로 바꾸어 보면 동일한 ‘-고 있-’이라도 상적 의미에 맞게 (2)와 같이 다른 표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2) 가. 我们队在贏.

나. 我知道着那件事情。

(2가)는 진행을 나타내는 ‘在’가 동사 앞에 쓰였으며, (2나)는 지속의 나타내는 ‘着’이 동사 뒤에 쓰였다. 그러나 ‘-고 있-’이 진행을 나타내는지, 지속을 나타내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다면 (3)과 같이 표현할 수도 있다.

(3) 가. *我們队贏着.

나. *我在知道那件事情。

(3가)에 쓰인 지속의 의미 ‘着’과 (3나)에 쓰인 진행의 의미 ‘在’는 모두 비문이 된다. (3)의 문장이 비문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동사 ‘贏(이기다)’이 가지고 있는 순간성 자질이 지속의 의미를 나타내는 ‘着’과 충돌하고, 동사 ‘知道(알다)’가 가지고 있는 상태성 자질이 진행의 의미와 충돌하기 때문이다. 또한 (1)에 사용된 동일 형태의 ‘-고 있-’이 서로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는 이유 역시 동사가 내재적으로 지니고 있는 상적 특성이 문법상 자질과의 결합관계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이처럼 어휘상은 상 표지와의 결합에 있어 상당한 의미를 제공해 준다.¹⁾

한국어와 중국어의 대조 연구는 두 언어의 유형적 차이로 인해 크게 주

1) 한국어나 중국어 모두 동사와 형용사가 차지하는 통사적 위치는 거의 비슷하다. 즉 영어는 명사와 형용사가 서술어에 올 때 계사가 사용되지만, 한국어와 중국어는 명사에서만 계사가 사용된다. 이 점에서 형용사를 일종의 상태 동사로 보는 경향이 있다. 어휘상을 다루는 입장에서는 동사와 형용사를 모두 동사로 치칠하는 것이 어휘상을 하나의 체계에서 다루는 데 유리하므로 앞으로는 동사와 형용사를 일괄하여 동사로 치칠하겠다.

목받지 못한 점이 있었다. 그러나 한국어의 보조동사나 중국어의 보어의 유사성은 일찍부터 연구의 대상이 되었다. 한국어는 시제와 상이 어미나 보조동사의 결합에 의존하는 반면 중국어는 고립어의 특성상 어미 표현보다는 부사나 보어와 같은 문법 기체를 사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어의 보조동사와 중국어의 결과보어는 기대 이상의 유사성을 보이기 때문에 여러 학자들이 대조의 대상으로 삼았다. 즉 한국어와 중국어의 대조 연구에서 시제와 상 범주의 대조는 주요한 흐름이 되어 왔다.

이러한 유사성과 차이점의 대비는 결국 동사의 어휘 분류 문제까지 조명해야 한다. 한국어와 중국어는 본래 시제와 상이 확연히 구별되는 언어가 아니며, 일찍부터 언어의 교섭 중에 두 언어 사이의 의미적 유사성이 강조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각각의 어휘상은 문법상이나 문장의 다른 성분, 심지어 양태범주와의 제약이 발견되기 때문에 문법 연구의 주요한 대상이 될 수 있다. 어휘상 논의에서 상황의 내적인 모습은 사용된 동사구의 의미 자질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 자질 중 시간적인 양상에 관여하는 자질을 상적 특성(aspectual character)이라 한다. 상적 특성에 따른 동사의 분류는 동사구와 다른 문장 성분(시간 부사어, 상 표지 등) 간의 공기제약(occurrence restriction)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 주며, 동사구와 통합관계에 있는 상 표지나 보조용언의 의미를 보다 정확히 이해할 수 있게 해 준다.

상 연구는 문법 표지와 관련된 문법 범주로서의 상에 관한 연구와 상적 의미 자질과 관련된 의미 범주로서의 상에 관한 연구로 양분될 수 있다²⁾.

2) 상(aspect)이란 용어는 문법 범주로서의 상과 의미 범주로서의 상을 모두 포괄하는 넓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고 문법 범주로서의 상만을 가리키는 좁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문법범주와 의미범주의 두 영역을 확실히 구분해 주기 위해 제안된 이분론(二分論)의 용어는 다음과 같다.

<표1> 상의 이분론(二分論)

| | 문법범주 | 의미자질범주 |
|-----|-------------------------|----------------------------|
| (가) | 좁은 의미의 ‘상(aspect)’ | 상적 특성(aspectual character) |
| (나) | 문법상(grammatical aspect) | 어휘상(lexical aspect) |

문법 범주로서의 상은 선어말어미나 일부 보조용언 등과 문법적 의미를 갖는 상 형태들의 상적 기능에 관한 연구이고, 의미 범주로서의 상은 어휘적 요소에 관련된 사태의 시간적 구성에 관한 연구이다. 의미 범주로서의 상은 문법범주로서의 상에 비해 중심적 주제로 다루어진 경우가 매우 적다. 뿐만 아니라 그 관심 범위가 상 형태의 의미 기능을 밝히는 데 있어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제에만 한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아직까지 부수적 위치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상의 두 가지 유형인 어휘상(lexical aspect)과 문법상(grammatical aspect)의 분류에 기반을 두고 논의를 진행하였다. 상 범주로서 어휘상의 존재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도 있으나³⁾ 문장의 상을 결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되는 것이 바로 동사의 어휘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어휘상을 배제한 문장의 상에 대한 연구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기도 한다(김윤신 2006:33). 한국어 상에 대한 논의에 있어 ‘중의성’이라는 이름으로 설명되어 온 ‘–고 있다’와 같은 문법상의 상적 의미의 차이는 어휘상 존재에 대한 분명한 증거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 | | |
|-----|-----------------------|--|
| (다) | 동작상(動作相, 동작의 양상) | 동작류(aktionsart) |
| (라) | 관점상(viewpoint aspect) | 상황상(situation aspect), 상황유형(situation type) |
| (마) | 복합상 | 어휘상 |

위의 표에서 (가)는 국어의 상 연구에서 가장 널리 통용되는 용어로, ‘상적 특성’은 Lyons(1977나)의 용어이나 한국어학계에서는 ‘상적 속성’(이재성 2001; 이호승 1997)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나)는 상 형태가 주로 문법적 의미를 갖고, 상적 특성은 어휘적 요소에 의해 실현된다는 점을 강조한 용어이다. (다)는 고영근(2009)의 용어로 “漢字 한 글자를 가지고 학술용어로 삼는 것은 한국어의 용법에 맞지 않다(2009:19).”는 지적에서 나온 용어이다. (라)는 Smith(1983, 1986, 1991)에서 제안된 용어로 두 영역의 개념적 특성의 차이를 강조한 용어인데, 한동완(1991), 김종도(1993), 이호승(1997), 우창현(20030), 박소영(2004) 등에서 사용되었다. (마)는 조민정(2007)의 용어로 복합상은 문법 형식의 상적 해석은 어휘상과 관련되어 이루어짐을 강조하는 의미로 쓰였다. 이 외에도 문법 범주는 좁은 의미로서의 상(aspect)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의미범주만 어휘상을 사용하는 학자로는 김윤신(2006), 이선웅(2007) 등이 있다. 또한 문법범주와 의미범주를 모두 포함하는 용어로는 박덕유(2007)의 ‘동사상(動詞相: verbal aspect)’이 있다. 본고는 상의 하위분류로 문법상과 어휘상의 용어를 사용한다.

3) 김성화(2003:15)는 “동사가 지닌 의미 자질이나 어휘 의미는 의미론의 대상은 될 수 있어도 상 범주의 대상은 될 수 없으며, 다만 상 범주와의 결합에 어떤 제약성을 부여할 따름이다”라고 어휘상의 존재에 회의적이었다.

다음 (4)의 다섯 문장에서 드러나는 의미의 차이는 ‘-고 있다’가 결합하는 어휘상으로 설명할 수 있다.

(4) 가. 철수가 뛰고 있다.

나. 철수가 집을 짓고 있다.

다. 철수가 알고 있다

라. 아이를 업고 있다.

마. 기차가 도착하고 있다.

(4가)는 ‘철수가 뛰고 있는 동작’의 계속을, (4나)는 ‘집을 짓고 있는 과정’의 계속을 의미한다. (4다)는 ‘알게 된’ 결과 상태의 지속으로 이는 ‘아는 과정’의 계속이 아니다. (4라)는 ‘업는 과정’의 계속과 ‘업는 동작을 하고 난 후’의 결과 상태의 지속을 모두 나타낼 수 있다. (4마)는 ‘도달하는 사건 전체’의 반복으로 해석할 수 있다. 위의 예문에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문법상에 해당하는 ‘-고 있-’이 결합하는 어휘상에 따라 각각 다른 상적인 의미해석을 갖는다는 사실이다.⁴⁾

한국어 동사의 상에 대한 연구에서 중요한 문제로 취급되어 온 ‘-고 있다’의 성격을 다르게 구분하는 논의는 두 가지 관점이 있다. 하나는 동사구의 의미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통사적 결합제약에 의해 하나의 상 표지가 여러 의미 기능을 가진다고 설명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상 표지가 결합하는 동사구의 특성에 따라 상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기술하는 것이다.

그러나 상적 특성에 따른 동사의 분류와 관련된 연구는 하나의 동사가 지시하는 상황이 담화 기능적 접근이나 화용론적 접근에 따라 달리 인식되고, 한 문장 내에서 상적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상 변화 요인이 문맥상황에 따라 달리 출현하여 어휘상을 확실하게 밝혀내는 데 어려움을 준다. 이는 동사 분류 시 사용되는 의미 자질의 조건과 제약에 있어서 연구자마

4) 옥태권(1988:111)은 “결합하는 동사에 따라서 ‘-고 있다’의 구성과 의미가 각각 다른 상적인 의미해석을 갖는다”고 하였으며, 조민정(2007: 194)는 “서로 다른 문맥에서 ‘-고 있다’의 구체적인 의미는 결합되는 동사구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고 하였다.

다 의견이 다른 점에서도 알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본 연구는 동사가 지닌 서술어로서의 고유한 내재적 상적 의미를 규명하기 위해 다음을 고찰하였다.

첫째, 상황의 내적인 모습은 동사구의 의미 자질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의미 자질 중 시간적 양상에 관련하는 자질을 상적 특성(aspectual character)이라 부른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어와 중국어 동사의 의미 자질인 상적 특성’의 차이를 ‘어휘상’이라 지시하고, 상적 특성에 따른 한국어와 중국어의 기존 동사 분류를 살핀 후, 그 체계를 검토·비판하였다.

둘째, 기존의 어휘상 연구에 기반하여 어휘가 가지는 자질 조합의 관점에서 한국어 동사의 어휘상과 중국어 동사의 어휘상을 재분류하여 한·중의 동사를 포괄할 수 있는 동사 분류의 틀을 제안하였다. 이를 토대로 다섯 가지 동사구에서 상 변화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상 변화 요인은 ‘주어와 목적어 논항, 부가어, 양화, 동사의 의미 변화’ 등으로 제한하였다.

셋째, 재분류된 어휘상이 문법상 혹은 한국어 보조동사상이나 중국어 단계상과 어떤 제약으로, 어떻게 결합하는지 체계적으로 대조하였다.

1.2 연구 방법 및 대상

이 연구는 의미론적 측면의 어휘상과 통사적 구성의 결합제약을 상 차질을 이용하여 분석하는 것이므로 화용론적인 접근은 논의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언급한다. 어휘상에 대한 논의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아래와 같이 ‘일반화(generalization)’나 ‘의미 확장(extension)’이 일어나는 경우이다.

(5) 가. 아이가 밥 한 공기를 먹다.

나. 마라톤에서 1등을 먹다.

(6) 가. 아이가 밥을 먹고 있다.

나. *마라톤에서 일등을 먹고 있다.

(7) 가. 아이가 한 시간 동안 밥 한 공기를 먹고 있다.

나. *마라톤에서 한 시간 동안 1등을 먹고 있다.

위의 예문에서 (5나)의 의미는 (5가)의 의미에서 ‘먹다’의 의미가 확대되어 단어가 보다 넓은 의미 영역을 가지게 되는 ‘의미의 일반화’이다. (6가)의 ‘밥을 먹다’는 [지속성]으로 ‘-고 있다’와 결합 시 ‘동작의 진행’을 나타낸다. 반면에 (6나)의 ‘일등을 먹다’는 [순간성]을 가져 동작의 진행을 나타내는 ‘-고 있다’와의 결합에 제약을 받는다. 또한 시간 부사어와의 공기 제약도 달라져 (7가)는 ‘-T시간 동안’과 결합하지만, (7나)는 ‘-T시간 동안’과의 결합에 제약을 받는다. 의미가 확장되어 ‘먹다’가 지시하는 대상이 달라지면 상 표지 ‘-고 있다’와의 결합여부가 달라진다.

(8) 가. 기차가 역에 도착하다.

나. 기차가 역에 들어오다.

(9) 가. *기차가 한 시간 동안 역에 도착하다.

나. 기차가 한 시간 동안 역에 들어오다.

위의 예문에서 (8나)의 의미는 (8가)의 의미에서 ‘도착하다’로 의미가 확장된 문장이다. ‘도착하다’의 의미를 과정으로 확장하여 인식할 경우 ‘기차가 역에 도달하다’의 의미가 아닌 ‘기차가 역으로 들어오다’로 잘못 해석된다. 이에 ‘도착하다’의 의미가 ‘들어오다’라는 의미로 확장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9가)의 ‘도착하다’는 순간의 동작을 나타내므로 럼 ‘-동안’의 부사어와 공기할 수 없으나, (9나)의 ‘들어오다’는 선행하는 동사구가 나타내는 행위의 지속이나 진행을 의미하므로 ‘-동안’ 부사어와의 공기가 자연스럽다. 이러한 차이는 ‘동안’이 사건의 변화를 순간적으로 나타내는 비지속의 사건을 나타내는 동사와는 공기하지 못하고, 지속성을 갖는 사건을 나타내는 동사와는 공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문제로 인하여 본 연구는 동사 의미의 일반화와 의미 확장은 논의의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어휘상 분류의 분석 단위는 동사 층위가 아니고, 최소 논항을 가진 동사구로 한다. 통사 단위를 동사로 한정할 경우에 다의어는 어휘 의미를 구별하는 기본적 논항이 포함되지 않아 상적 속성을 밝히기 어렵다. 더 나아가 문장 층위에서 어휘상의 분류가 이루어지면 동사의 고유한 내적 시간 구성을 밝히는 일이 어렵다. 만일 문장 안에 있는 모든 요소들을 포함시켜 어휘상을 분류한다면 동사 고유의 상적 속성을 파악하는 데 오히려 어려움이 따른다. 아래의 예문을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10) 가. (날씨가) 차다.

나. (공을) 차다.

(11) 가. (옷에 흙이) 묻다.

나. (뒷마당에 죽은 병아리를) 묻다.

- (12) 가. (엄마가 유모차를) 밀다.
나. (엄마가 유모차를 문까지) 밀다.

위의 예문에서 (10가)의 ‘날씨가 차다’는 상태동사이고, (10나)의 ‘공을 차다’는 순간동사에 속한다. (11가)의 ‘묻다’는 달성동사가 되고, (11나)의 ‘묻다’는 완수동사가 된다. (12가)의 동사 ‘밀다’는 최종점이 없는 행위동사이나, (12나)는 ‘문까지’라는 부사어로 최종점을 주어 완수동사가 되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어휘상 분류의 기본 단위는 통사로 하지만 어휘 의미를 구별하는 기본적 논항은 포함될 수밖에 없다.

Comrie(1976:46)에서도 “인위적으로 최종점을 부가하여 [완성성]을 만들지 못하는 동사는 없다”라고 할 정도로 완수동사는 문장 내에서 필수논항 외에도 시간부사구, 전치사구에 의해 만들어질 수 있다. 그리고 이들 요소들은 모두 최종점을 부여할 수 있는가와 관련이 있다.

어휘상의 분류에 있어 최종점의 유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동태성과 상태성의 자질 여부는 별다른 이견이 없을 만큼 합의된 바가 있으나 완성성은 연구자마다 사용하는 정의와 그 범주가 다르다. 완성성의 주요 쟁점으로 최종점 도착 후 결과 상태를 포함하여 완성성의 범주로 볼지, 최종점 도착 여부만 가지고 완성성의 범주로 볼지 연구자마다 이견이 있지만 최종점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은 공통된다. 그러므로 어휘상의 분류에 있어 완성성을 이루는 최종점의 존재 여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아래의 예문에서 최종점에 따라 어휘상이 어떻게 달라지는 살펴보자.

- (13) 가. 그는 편지를 썼다.
나. 他写了信了。
- (14) 가. 그는 편지 한 통을 썼다.
나. 他写了一封信。

(13)와 (14)은 동일한 동사 ‘쓰다(写)’를 이용해 문장이 완성되었다.

Vendler(1967)의 분류에 의하면 (13)의 ‘쓰다(写)’는 행위동사로 분류되고, (14)의 ‘쓰다(写)’는 완수동사로 분류된다. 동일한 동사가 이처럼 다른 어휘상으로 분류되는 이유와 그 의미는 무엇인가? (13)은 동사 ‘쓰다(写)’에 의해 쓰는 동작이 표현되었을 뿐, 편지를 다 쓰게 될 순간, 즉 ‘최종점’에 대한 의미는 전달되지 않는다. 따라서 [비완성성]의 상황을 표현하고 있다. 반면에 (14)의 동사구 ‘편지 한 통을 쓰다(写了一封信)’에서는 ‘쓰는 동작’이 끝나는 최종점이 명시되어 있다. 이 동작은 편지를 ‘한 통 써야 완성’된 것이므로 ‘한 통(一封)’이 최종점이 된다. 즉, (14)는 동사구 자체가 [완성성]에 대한 언급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어휘상은 목적어의 부가에 의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어휘상의 최소 단위는 동사 충위가 아닌 동사구 충위여야만 가능하다.

그러나 완성성의 유무는 동일한 동사라도 필수 논항 외에 필수 논항의 단수와 복수, 전치사구(PP), 시간부사구에 의해서도 달라진다. 이러한 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어휘상을 분류하면 다른 문장 성분들로 인해 동사가 지니고 있는 고유의 상 자질이 변화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논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Smith(1997: 4, 41)의 예문으로 확인해 보자.

(15) 가. Edward smoked cigarettes. [비완성성]

나. Edward smoked a cigarette. [완성성]

(16) 가. Famous movie stars discovered that little spa for
years. [비완성성]

나. A famous movie star discovered that little spa. [완성성]

(17) 가. Mary walked in the park. [비완성성]

나. Mary walked to school. [완성성]

(18) 가. Mary walked in the park for an hour. [비완성성]

나. Mary built the sandcastle in an hour. [완성성]

(15가)와 (15나)는 동일한 동사 ‘smoke’가 사용되었다. 그러나 (15가)는 NP가 복수목적어이므로 [완성성]을 가지지 못하고, (15나)는 단수목적어로 인해 [완성성]을 가지고 있다. (16가)와 (16나)는 동일한 동사 ‘discover’가 사용되었다. 그러나 (16가)는 복수주어로 인해 [완성성]을 가지지 못하고, (16나)는 단수주어로 인해 [완성성]을 가진다.

(17가)와 (17나)에서 동일하게 쓰인 ‘walk’는 원래 [완성성]을 갖지 못하는 행위동사이다. (17가)의 ‘in the park’과 같이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구(locative complement)와 쓰이면 그 장소에서 행위가 계속 지속되는 것을 나타낼 뿐 이 역시 이후 동작의 끝 여부는 알 수 없다. 반면에 (17나)의 ‘to school’과 같이 방향을 나타내는 부사구(directional complement)는 방향의 목적지인 ‘school’에 도착하면 완성이 되는 행위이므로 [완성성]을 가지고 있다.

(18가)는 ‘for 시간 부사구(~동안)’와 결합하여 [완성성]을 가지지 못하는 원래의 자질을 그대로 유지한다. 원래 ‘walk’가 최종점이 없는 행위동사이므로 ‘for 시간 부사구’와 결합하여 그 시간 동안 행위를 하고 있는 지속을 나타낼 뿐 그 이후 동작의 끝 여부는 여전히 알 수 없다. 반면에 (18나)에서 ‘build’는 ‘10분’이 되면 완성이 되는 행위이므로 [완성성]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이 동일한 동사가 사용되어도 목적어에 따라 [완성성]의 유무가 달라지고, [완성성]의 유무가 달라지면 어휘상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상적 특성은 동사보다는 동사구에 적용되어야 하며 동사의 의미를 구별하기 위한 기본 목적어 외에 다른 부가적 성분들은 가급적 배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Depraetere(1995)는 완수동사를 분류하기 위해서 ‘잠재적인 종결점’(potential endpoints)의 유무는 ‘[종결성(telicity)]’으로 나타내고, ‘실제적인 시간적 경계’(actual temporal boundary)의 유무는 [경계성(boundedness)]으로 나타내었다.

Depraetere(1995)의 의견에 따르면 (18가)는 ‘for an hour’에 의해서 [경계성]을 갖는다. 또한 “문장의 상은 개별동사에 적용되는 것보다는 동사구나 문장에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Verkuyl 1972, 1989; Comrie

1976, Dowty 1979, Mourelatos 1981)는 점을 인식하고 동일한 동사라도 논항(주어나 목적어), 시간부사구, 전치사구(PP) 등에 의해 상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은 전체 문장의 합성적 의미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본고는 이 두 가지 입장을 절충하여 최소한의 논항으로 동사를 분류한다. 다만 어휘상과의 결합제약에 있어 필요한 경우 논항(주어나 목적어), 시간부사구, 전치사구(PP) 등을 함께 살펴볼 것이다.

어휘상 연구의 대상이 되는 어휘목록은 한국어를 기준으로 한다. 한국어를 중심으로 중국어를 대조하는 한·중 대조 연구이기 때문이다. 문장에서의 상 해석은 화용론적 논의를 결부시켜 진행해야 하지만 어휘상 분석의 기본 입장이 어휘 의미론과 통사론에 기반하므로 화용론적 접근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언급한다. 본 연구의 대상으로 한국어와 중국어 어휘는 사용빈도가 높은 기본 상용동사를 중심으로 하였으며, 이들과 결합하는 통사적 구성 형식과의 결합양상은 국립국어원의 말뭉치 용례와 北京大學中國語言學研究中心에서 확인하였다. 특히 한국어와 중국어의 어휘상 분류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심리동사를 추가하여 동사 전반에 걸친 상실현 양상을 조명하고자 했다.

중국어 심리 용언의 연구 대상 선정은 한국어 심리용언에 대응되는 뜻을 가진 용언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한국어 심리용언이 경험주의 심리상태를 서술한 것인 만큼 중국어의 심리용언은 ‘심리상태 동사’와 ‘심리형용사’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이 부분에서는 김건희(2011)에서 제시된 형용사 유형 목록 중에서 『漢語水平詞匯與漢字等級大綱』(國家漢語水平考試委員會, 2001)에 포함되어 있는 어휘를 우선으로 하여 한국어 심리동사의 대조 대상이 되는 중국어 심리용언을 선정하였다.

한국어 심리 용언에 대응되는 중국어 어휘가 구 또는 성어에 해당하는 구조는 형용사나 동사와는 다른 통사적 특징을 가지므로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예를 들면 ‘궁금하다’의 중국어 대응어는 ‘想知道’이다. 이는 ‘想(−고 싶다) + 知道(알다)’의 구조이므로 하나의 용언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기막히다’처럼 중국어 대응어가 ‘了不起, 厉害, 不得了, 超好’ 등

으로 의미가 문장 속에서 문맥이나 담화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나, ‘서럽다’ 등의 중국어 대응어로 ‘伤心’처럼 한국어의 의미가 반영된 적절한 대응이라고 보기 어려운 단어도 연구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중국어의 상표지가 한국어에도 동일하게 상표지로 나타나지 않은 경우도 있고, 반대로 한국어의 상표지가 중국어에서는 상표지가 아닐 수도 있다. 예를 들면 경험상의 경우 중국어 경험 표지인 ‘過’에 대응하는 한국어는 ‘-은 일/적이 있-’과 대응하는데 이것은 한국어에서는 상표지로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상의 의미를 지닌 통사 구성을 형식으로 다루었다.

본고의 주제가 대조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한국어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해당하는 중국어 통사 구조와 중국어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해당하는 한국어 통사 구조는 의미는 같을지라도 그 표현은 다를 수 있다. 이는 어떠한 언어를 기준으로 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지만 가급적 가장 흡사한 대응을 이루는 대조 의미를 찾고자 노력하였다.

이와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본고에서는 아래의 조건에 따라 어휘상을 분류하였다.

첫째, 동사와 관계된 논항은 최소한으로 한다.

둘째, 인위적으로 최종점을 부가하는 부사어는 사용하지 않는다.

즉, 동사에 내재된 상적 속성을 밝힐 때, 동사의 어휘의미를 확정해 주는 기본적 논항은 포함하되 필수논항이 아닌 경우는 배제하여 상을 해석한다. 이는 동사구 내에 있는 다른 문장 성분들이 상의 전이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본고는 Vendler(1967)의 기본적인 분류법을 따르면서 인간의 상 인식에 대한 공통성을 매우 타당성 있게 종합하여 동사를 분류한 Smith(1997)의 이론을 참고하여 논의를 진행하였다. 또한 한국어 연구에서는 조민정(2007), 박덕유(2007)의 동사 분류와 중국어 연구에서는 楊素英(1995), 陳前瑞(2008)의 동사 분류를 참조하였다. 문법상과의 결합양상에 있어서는 최규발(2006, 2007, 2010, 2012)의 이론을 기반으로 종합·분석하였다.

1.3 논의의 구성

본고에서는 어휘상과 통사적 구성 형식을 나누어 기술한다. 먼저 어휘상부문에서는 동사구 자체의 본질적인 상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기술하고 그러한 차이에 따라 동사구를 분류한다. 또한 문장에서 동사와 결합하는 요소가 변함에 따라 상 해석이 달라지는데, 상 표지의 의미가 어휘상에 따라 달라지는 현상을 규명하기 위해 다음을 고찰하였다.

첫째, 이 연구에서는 ‘한국어와 중국어의 동사 의미 자질인 상적 특성’의 차이를 ‘어휘상’이라 지시하고, 이 상적 특성에 따른 한국어와 중국어의 기준 동사 분류를 살핀 후, 그 체계를 검토하였다.

둘째, 통사적 구성 형식 중 상의 의미 표지로 드러나는 완결상과 동작발달 단계상으로 나누어 다루었다. 이들이 어휘상에 따라 어떠한 상 변화를 일으키는지 말뭉치의 분석을 통하여 대조하였다.

셋째, 이를 토대로 어휘상에 따른 통사적 구성형식의 상적 의미 변화를 한국어와 중국어로 나누어 살펴보고 이들의 양상을 비교·대조 하였다.

구체적인 논의는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1장에서는 기준의 한·중 대조연구에서 상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본다. 구체적으로 한·중 시제와 상의 대조 연구에서 어휘상과 문법상의 흐름 양상을 살펴본다. 또한 문법상이 어휘상과 어떠한 관련을 이루고 있는지 살펴보겠다.

2장에서는 먼저 2.1에서 어휘상의 개념과 체계를, 2.2에서는 문법상의 개념과 체계를 명확히 하여 상의 실현이 어휘상과 문법상의 상호 작용으로 이루어짐을 밝힌다. 그리고 문법상과 어휘상의 중간 단계에 해당하는 한국어 보조동사상과 중국어 단계상의 상적 단계를 문법화 이론을 적용하여 고찰한 후 그 연관성을 살핀다. 2.3에서는 어휘상 분류의 근거가 되는 기본 자질들을 살펴본다. 또한 서구의 어휘상 분류를 몇 가지 기준으로 범주화하여 어휘상 분류의 흐름을 살펴본다. 이때 어휘상에 따라 어휘상의 자질이 어떠한 변천 과정을 겪고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는지 그 흐름을 살

펴보았다. 또한 Vendler(1967)와 Smith(1997)의 어휘상이 한국어와 중국어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에 중점을 두어 그 과정을 모색하였다.

3장에서는 동일한 상 자질을 가진 조합들로 동사를 분류한 후, 이들이 가진 상적 특성이 통사적 측면과 화용적 측면에서 어떠한 결합 양상 및 특성을 보이는지 어휘상 분류에 사용된 의미자질에 근거하여 살펴보았다. 3.1에서는 어휘상의 유형을 상태동사, 순간동사, 달성동사, 행위동사, 완수동사로 분류하였으며, 3.2에서는 한국어의 통사적 구성 형식을 완결상과 동작의 발달 단계에 따른 상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이때 동작의 발달 단계에 따른 상은 비완결상의 범주와 근접하다. 3.3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중국어 통사적 구성 형식의 상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4장에서는 3장의 내용을 바탕으로 각 동사에 해당하는 결합제약을 다룬다. 4장에서는 각각의 어휘상의 유형을 완결상과의 결합제약, 동작 발달 단계상과의 결합제약, 기타 결합제약으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완결상과의 결합제약은 통사적인 측면에서 한·중 각 동사구의 공기 및 공기제약을 보이고 이러한 동사구의 의미적 특성 및 화용적 특성에 대해 논의한다. 완결상의 문법 표지로 한국어는 ‘-었-’과 ‘-었었-’을 들었고, 중국어는 ‘了’와 ‘過’를 들었다. 동작 발달 단계상과의 결합제약에서는 동작 단계별로 구분하여 동작 시작 전 단계(BS, Before Start), 시작 단계(S, Start), 동작 중간 단계(M, Midum), 동작 끝 단계(F, Finished), 동작 끝 이후 지속 단계(AF, After Finished)로 나누어 이에 해당하는 상으로 예정상, 기동상, 진행상, 향진상, 종결상, 지속상으로 분류하여 결합제약을 살펴보았다.

실현양상을 논하게 될 통사적 구성 형식은 다음과 같다. 한국어는 예정상(‘-게 되-/-려고 하-’), 기동상(‘-어 지-’), 진행상(‘-고 있-’), 향진상(‘-어 가/오-’), 종결상(‘-어 버리/놓/두-’), 지속상(‘-어 있-’)으로 선정하였다. 중국어는 예정상(將要), 기동상(起来), 진행상(在), 향진상(下來), 종결상(掉/着/完), 지속상(着)을 선정하였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여, 한·중 어휘상에 따른 통사적 구성 형식의 실현 양상 대조 결과와 연구 결과의 활용방안을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입장에서 기술하였다.

1.4 한·중 대조 선행 연구

한·중 대조 언어학 연구는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허성도(1992)를 비롯하여 시작되었다. 이 연구는 동작동사가 지시하는 내용상의 차이를 살펴보고, 동작동사의 수식 방법 및 가능성의 표현 방법과 부정 현상을 논의한 것이다. 논의는 주로 동작동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한국어의 주어와 중국어의 주제화 문제, 한·중 동사의 한정성과 비한정성의 차이, 한국어 부사어와 중국어 결과보어 문제, 한·중 동작동사에 대한 인식의 차이, 한국어 부정소와 중국어 ‘不’의 범위문제 등을 거론하여 사실상 통사적 사항 전반에 걸쳐 한·중 대조의 초석을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다.⁵⁾

특히 행위의 한정성과 비한정성⁶⁾의 문제를 논하면서 한국어의 현재형과 과거형 동작동사는 한정적 행위와 비한정적 행위를 동시에 표현할 수 있으나 중국어는 행위의 한정성과 비한정성이 엄격히 구분되므로 행위의 비한정성을 표시하는 빈도부사나 시간부사의 쓰임에 주의하여야 한다고 하였다(허성도 1992:40–43). 또한 한국어와 중국어 동작동사의 지시 내용에 있어 동작의 완료, 동작 과정 자체, 동작 결과 지속의 차이점을 언급하였다.

박종한(1993)은 중국어 동사 분류의 흐름을 통사 의미론적 관점에서 시대별로 소개하였다. 이 연구는 중국어의 동사를 서양의 문법 틀에 적용한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의미에 따른 분류, 통사적 특성에 따른 분류, 양자를 결충한 분류, 그리고 동사와 명사구 사이의 통사·의미상의 선택 관계에 의한 분류 등을 다루고 있다.

박종한(1993)⁷⁾에서 소개된 張志公(1953), 呂叔湘(1956), 洪心衡(1956), 조원임

5) 허성도(1992) 이후 2014년에 이르기까지 한국어와 중국어의 대조 논문은 총 946편의 학위 논문과 170여 개의 소논문이 있다. 이 중 상과 시제에 관련된 논의는 석사 논문 35편, 박사 논문 6편, 학술지 논문은 12편이다.

6) ‘한정적 행위’는 어떤 시점에 발생한 단일한 행위이며, ‘비한정적 행위’는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생각되는 행위 혹은 습관적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행위이다(허성도 1992:41). 중국어에서는 동작동사가 단독으로 쓰이면 비한정적 행위를 나타내고, 동작동사가 ‘了, 着, 過’와 같은 時態助詞나 진행을 표시하는 ‘在’와 함께 쓰이면 한정적 행위를 나타낸다. 따라서 비한정성을 표시하는 빈도부사는 한정성을 부여받은 동사와 결합하지 않는다.

7) 박종한(1993)에 따르면 張志公(1953:15, 1956:49–51, 61–63, 90–71)은 동사를 ‘動作, 思想, 行爲, 發展, 變化’의 네 범주로, 呂叔湘(1956:16)은 활동성의 강약에 따라 ‘活動, 心理活動, 不很活動的活動(활동이 약한 동사), 簡直算不上活動(활동과 무관한 동사)’의 네 범주

(1968) 湯廷池(1975), Teng(1975), 徐思益(1981), 鄭懷德(1985)의 동사 분류는 중국어 동사 분류의 틀을 시대별로 파악할 수 있어 중국어 동사에 대한 총체적 인식을 개관할 수 있다. 특히 격문법 이론에 근거한 湯廷池(1975)와 Teng(1975)의 분류와 문법화 이론에 근거한 房玉清(1992)의 분류는 오늘날 상 논의의 중심에 있는 문법상과 어휘상의 결합에 있어서 어휘상 연구의 실마리를 제공한다.

湯廷池(1975)의 분류 중 묘사성 동사에 대한 언급은 심리동사를 어휘상에 있어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와 연관되고, Teng(1975: 50–52, 163–169)이 분류한 ‘동작동사(action verbs), 과정동사(process verbs), 상태동사(state verbs)’는 오늘날 한·중 대조의 어휘상 분류에 있어 한국어에 대응하는 중국어의 어휘상 분류 체계에 주로 사용된다.

房玉清(1992)는 『실용한어어법』에서 동사의 통사 의미론적 특성에 따라 동사를 분석하고 축적된 결과에 따라 동사의 전반적 분류를 시도한 것이다. 이는 동사분류 틀에 동사를 맞춘 기준의 방식을 거부하고 동사 내부를 연구한 것으로 동사와 ‘了, 着, 起來, 下來, 下去’의 결합여부를 표로 보여주었다. 축적된 동사 내부의 특성과 문법화의 정도로 파악한 ‘了, 着’와 ‘起來, 下來, 下去’는 오늘날 Smith(1997)의 단계상을 이해하는 데 이론적 근거가 된다.

또한 박덕준·박종한(1996)은 한·중 동사와 목적어 사이의 의미 관계 분석을 통하여 한국어의 목적어가 중국어에서 표현되는 방식과 중국어의 목적어가 한국어에서 표현되는 방식을 논의하였다. 중국어 문법에서 ‘賓語’라고 불리는 중국어 목적어의 범위와 종류를 밝히기 위하여 생성문법의 의미 역할(thematic role) 관점에서 양자를 대조·분석하였다. 이는 오늘날 어휘상의 의미와 기능을 동사의 상적 자질과 동사와 동사구의 논항관계를

로, 洪心衡(1956:75–76)도 활동성의 강약에 따라 ‘活動動詞, 變化動詞, 表白動詞, 判斷動詞, 能願動詞’의 다섯 범주로, 조원임(1968 :663–748)은 동사를 출현환경에 따라 ‘接近動詞, 離脫動詞, 變化動詞, 移動動詞, 活動動詞, 存在動詞, 出現動詞, 小失動詞, 音聲動詞, 其他動詞’의 열 개의 범주로, 湯廷池(1975)은 변형생성문법이론 틀에 따라 ‘動作動詞, 狀態-過程動詞, 描寫動詞, 助動詞’의 네 범주로, Teng(1975)은 동사와 명사구 사이의 격관계에 따라 ‘動作動詞, 過程動詞, 狀態動詞’의 세 범주로, 徐思益(1981:249–252)는 목적어의 범주에 따라 ‘自動詞, 他動詞’로 크게 나누었고, 鄭懷德(1985)은 동사 뒤의 성분에 따라 ‘제1부류(結果補語나 趨向補語를 선택할 수 있는 동사 부류), 제2부류(結果補語나 方向補語를 선택할 수 있는 부류)’로 나누었다.

모두 고려하여 밝히는 데 목적을 둔 연구로 중국어 연구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이어서 박종한(1998)은 단문 내부의 통사적 특성뿐 아니라 복문과 담화 차원으로 한·중 대조 연구를 확대 시도하였다. 동사 자체의 어휘상 분류에서 나아가 목적어와 부사 및 수식어까지 확대하여 새로운 접근방식을 제공한 Verkyul(1972, 1993)과 Smith(1997)의 분류법이 한·중 대조 연구의 기반이 될 수 있었다.

2000년대에 들어 본격적으로 상과 시제에 관련된 논의가 조영화(2003), 마홍염(2005), 李迎春(2007) 등에 의해서 일부 접근이 시도되었다. 조영화(2003)에서는 한국어의 시상형태소로 ‘-는-’, ‘-었-’, ‘-겠-’을 들고, 중국어의 시상형태소로는 ‘了’, ‘着’, ‘過’을 들어 한국어 시상과 중국어 시상을 개론적으로 각각 논의하였다. 한국어의 ‘-는’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쓰이므로 미래지속상과 현재 지속상을 나타내고, ‘-었-’과 ‘-겠-’은 각각 과거나 미래에 쓰이는 것뿐 아니라 현재에도 두루 쓰이고 있다고 보았다. 또한 ‘-었-’은 과거 완료상, 과거 지속상, 현재 완료상, 현재 지속상, 미래 확정을 나타내며, ‘-겠-’은 추정, 의도와 가능 서법 기능이 있다고 하였다. 중국어의 ‘了’는 완료, 가까운 미래, 지속을 나타내고, ‘着’은 상 표지일 뿐 시제 의미가 없으며, ‘過’는 완료를 나타내는 ‘過₁’과 경험을 나타내는 ‘過₂’로 나누어진다고 기술하였다.

이는 한·중 수교 이후 처음 등장하는 시상에 관한 대조 연구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나 참조언어와 대상언어가 모호하여 한국어의 시상과 중국어의 시상을 각각 소개한 것에 그친다. 마지막 장에 한국어 ‘-었-’과 중국어 ‘了’에 대하여 기술한 부분이 있으나 이 역시 각 언어의 용법을 설명한 데 불과하다.

마홍염(2004)는 한국어의 단순문, 내포문, 접속문에서 시간 표현 요소인 ‘-었-’, ‘-었었-’, ‘-겠-’이 중국어와 대응하는 양상을 기술하였다. 한국어의 ‘-었-’이 중국어 동사문에서는 ‘了’로, 형용사문과 是字文(‘-이다’문)에서는 시간부사 ‘总竟/总, 那时, 以前’ 등으로 대응하여 중국어에서는 동사문과 형용사문에서 서로 다른 대응 양상을 보인다고 하였다. ‘-었

었－’은 ‘단속’의 의미로 파악하였으며 동사문과 형용사문에서는 ‘過’가 많이 쓰이지만 ‘是字文(－이다文)에서는 주로 시간부사 ‘总竟/总, 那时, 以前’이 쓰이고 ‘過’는 쓰이지 않는다고 기술하였다. 또한 ‘－겠－’에 대응하는 중국어로 문법적 요소는 없다고 하였는데, 이는 한국어의 ‘－겠－’을 추측, 의지, 능력 등의 양태적 의미로만 파악한 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李迎春(2007)에서는 사건과 상태의 시간에 대해 정의하고 분류한 뒤, 이를 기초로 중국어와 한국어의 사건과 상태의 시간에 대해 시작, 진행, 지속, 중단, 완성, 실현, 변화 등으로 재분류하였다. 동시에 시제는 절대시제와 상태시제 두 범주로 나누었다. 절대시제는 과거시제, 현제시제, 미래시제를 포함하고, 상태시제는 사태 참조시제, 습관 규정시제, 심리시간 참조시제, 예정시간 참조시제 등으로 나누어 논의하였다. 이는 시간을 중심축으로 사건과 상태의 시간성에 대해 대조 분석한 것으로 대조의 영역이 기준의 단순한 단어, 문장에서 확대되어 시제, 복문에까지 이르고 있다.

이상 세 편의 시제와 상에 관한 연구는 상과 시제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았다. 상과 시제를 아울러서 논의하거나, 한국어의 시제로 중국어의 상을 논의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이에 ‘시제’라는 제목으로 이루어진 연구는 중국어의 상에 대한 대조 연구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왕방(2006), 지성녀(2006), 장위(2010), 오려려(2011), 김나리(2011), 임흔의(2012), 호선희(2012)까지 이어진다.

이 중 다른 연구들과 구별이 되는 王芳(2006)과 지성녀(2006)의 연구를 살펴보겠다. 王芳(2006)에서는 한국어의 선어말 어미 ‘－었－’은 과거시제와 완료상을 표현한다고 보았다. 한국어 ‘－었－’이 과거시제일 때는 중국어의 ‘了₁(과거)’, ‘的’에 대응하고, 한국어 ‘－었－’이 완료상을 표현할 때는 중국어의 ‘了₂(완료)’에 대응된다고 보았다.

상이 발달한 중국어의 관점에서 한국어의 시제는 형태소와 관련되어 있어 의미 분석에 어려움을 겪는다. 이에 한국어의 시제에서 포착되는 양상을 해석하기 위해 중국어에서는 부사를 추가하여 동일한 의미를 가진 문장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를 한다. 이는 한국어의 시제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여 겪는 오류로 생각된다.

왕방(2006)에서도 한국어의 과거시제에 대응하는 중국어로 ‘了’를, 현재시제에 대응하는 중국어로 ‘ø’와 ‘正在’을, 한국어 미래시제에 대응하는 중국어로 ‘會, 要了, 可能’ 등의 조동사를 들었다. 이러한 분석은 중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연구자들의 논문에서 다수 발견할 수 있는데, 이는 중국어의 상 개념으로 완결과 완료를 동일시하려는 경향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지성녀(2006)에서는 한국어와 중국어의 시제를 ‘과거 대 비과거’로 이분하였으며, 한국어의 과거 시제 형태소 ‘-었-’을 중심으로 한국어와 중국어의 시제를 상세하게 대조 연구하였다. 여기에서 ‘-었-’은 상 요소가 아니라 과거 시제 요소로 보며, 중국어의 ‘了’는 완료상인 동시에 과거 시제이고, ‘着’은 지속상인 동시에 현재 시제이고, ‘過’는 경험상인 동시에 과거 시제임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동사의 상적 자질의 영향을 받아 동사와 결합하는 ‘-었-’은 중국어의 ‘了’, ‘着’, ‘過’, 시간명사, 시간부사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밝혔다. 이 연구는 상과 시제의 결합을 시도한 점에서는 의미가 크지만 한국어와 중국어의 시제에 관한 대조 연구라기보다는 한국어 시제 형태소 ‘-었-’의 의미를 시간 부사뿐만 아니라 시간 명사에 이르기까지 확장하여 대응 양상을 분석한 연구로 볼 수 있다.

상과 시제를 구분한 최초의 논의는 최규발(2007)을 들 수 있다. 한국어와 중국어의 경험 표지 대조에 있어 중국어의 ‘過’는 ‘了’와 더불어 완료상(perfective aspect)표지에 속하며, 한국어의 경우 ‘-었었-’은 상적 의미보다는 시제성이 강하게 나타나는 시제 표지라 하였다. 따라서 ‘過’와 ‘-었었-’을 동일한 범주에 놓고 연구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었었-’은 과거에 일어난 사건을 나타내는 표지로 ‘경험’ 의미는 ‘-었었-’이 나타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의미 중 일부분에 불과하므로 경험을 나타내는 표지라기보다는 과거에 일어난 사건을 나타내는 시제표지로 보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하였다. 한국어에서 경험을 나타내는 표지는 ‘-었었-’보다는 ‘-은 일이 있-’, ‘-은 적이 있-’이 더 적당하다고 하면서 이것과 중국어의 ‘過’을 두 가지 기능으로 나누어 대조 분석하였다. 그 결과 ‘-었었-’은 시제 표지로, ‘-은 일이 있-’, ‘-은 적이 있-’은 경험표지로

보고 이에 대응하는 것으로 알려진 ‘過’는 완료를 나타내는 ‘過₁’과 경험을 나타내는 ‘過₂’로 구분하였다. 또한 ‘過₁’과 ‘過₂’가 확연히 구별됨을 중국어의 완료상 표지인 ‘了’와 달리 경험표지인 ‘過’는 부정소와의 공기가 가능하다는 점을 밝혔다.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중 대조에 있어 상과 시제를 본격적으로 구분하기 시작하면서 어휘상(lexical aspect)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이로써 상과 시제, 문법상과 어휘상이 구분된 상 체계에 대한 대조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상 체계 전반에 걸친 대조 연구는 채의나(2010), 진남남(2010)에서 시작되어 왕례량(2012), 왕리(2013), 왕파(2014), 이설(2014)이 그 뒤를 이었다.

채의나(2010)에서는 시상형태소 ‘-어 있-’의 상적 의미를 ‘완료상’으로 보고, ‘-고 있-’의 상적 의미를 ‘진행상’, ‘완료상’뿐 아니라 ‘진행상+완료상’, ‘반복상’, ‘예정상’ 등으로 확대·해석하여 중국어 상 표지를 대조 하였다. 한국어 ‘-고 있-’의 진행상과 대응하는 중국어 상 표지는 ‘正在/在’와 ‘正在/正/在…着’을 들고, 완료상은 ‘V+着₁’을 들고, 진행상+완료상은 중국어로 각각 다르게 표현된다고 하였다. 반복상은 ‘不停地(계속, 쉴 새 없이)/不斷地(끊임없이)+正在/正/在+V+(呢)’, ‘不停地/不斷地+V+着+(呢)’, ‘正在/正/在+不停地/不斷地+V+着₂+(呢)’, ‘不停地/不斷地+V+呢’의 4가지 종류로, 예정상은 ‘快要(금방/就要(곧, 바로)+V+了’으로 보았다. 한국어 ‘-어 있-’의 완료상과 대응하는 중국어 상 표지로는 ‘V+了’, ‘V+着₁’, ‘V+在+장소’의 세 가지가 있다고 분석하였다.

채의나(2010)에서 한국어 시상형태소에 대응하는 중국어를 상 표지라고 부르기 어렵다. 이는 어휘적으로 ‘금방, 끊임없이, 바로’에 해당하는 부사일 뿐이다. 중국어에서 시제와 상의 존재에 대한 논란에서 시제는 존재하나 형태적 표지 없이 어휘적으로 나타난다는 의견과 같은 맥락이다. 또한 동사의 상적 특성으로 [동태성], [완결성], [순간성], [접근성]의 자질을 설정하고 이 상 자질에 따라 ‘상태동사, 심리동사, 행위동사, 완성동사, 순간동사, 이행동사, 변화동사’로 동사를 분류하였다. 이 동사 부류와 한국어 ‘-고/어 있-’에 대응하는 중국어를 말뭉치에서 비교적 자세하게 분석하여

그 결합관계를 다루었다.

진남남(2009)에서는 한국어와 중국어의 상 체계를 상과 상적 속성으로 나누어 소개하였다. 상은 기동상, 진행상, 완료상으로 하위분류하고, 상적 속성에 대해서는 한국어와 중국어를 대조하지 않고 대표적인 기준 연구의 어휘상 분류틀을 소개하는 데 그쳤다. 한국어의 상은 보조적 연결어미와 보조동사의 결합에 의한 우언적인 형태, 관형사형 어미 ‘-는/ㄴ’과 관형사형 어미와 의존명사의 통합구성인 ‘-는 중-’에 의해 표현되며, 중국어의 상은 시태조사 ‘了, 着, 過’와 부사 ‘在’, 보어 ‘起來’⁸⁾ 등에 의해 표현된다는 전제 하에 논의를 진행하였다. 한국어 상의 기준으로 삼은 상의 형태 중 ‘보조적 연결어미와 보조동사의 결합에 의한 우언적인 형태’는 고영근(2009)의 동작상 형태와 일치하지만 관형사형 어미 ‘-는/ㄴ’은 고영근(1991)이 현재형 표지로 파악한 것이며, ‘-는 중-’은 고영근(1980가)가 진행상을 쳐소이론과 관련시켜 해석한 부분이다.

진남남(2009)에서 한국어 상 체계로 삼은 형태들은 고영근(2009)의 시제와 동작상이 함께 포함된 것이다. 하위분류는 중국어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여 기동상으로 ‘起來’와 ‘-기 시작하-, -어 지-’를 대조하고, 진행상으로 ‘在, 着’과 ‘-고₁ 있-, -는/ㄴ, -는 중-’을 대조하였다. 완료상은 완료지속상과 경험상을 다시 하위분류하였다. 완료 지속상으로 ‘着, 了’와 ‘-고 있₂-, -어 있-’을 대조하고, 경험상으로 중국어의 ‘過’에 대응하는 한국어 형태표지는 없고 다만 경험과 관련된 표현 ‘-었었-, -은 적이 있-, -어 보-’가 있다고 보았다. 이렇게 각각 대조한 기동상, 진행상, 완료상과 어휘상의 결합관계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결합한 어휘상의 개수가 현저히 적고 그마저도 분류 기준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다.

왕례량(2012)에서 상 범주는 동사의 하위범주로 시상성(상황유형상)과 문법 요소에 의해 표시되는 상(관점상)으로 보고 각각의 시상성들과 관점상 요소와의 결합양상을 단문, 내포문, 접속문 등에서 광범위하게 다루었다. 한국어와 중국어의 시상성을 [土상태], [土지속], [土완결]의 자질에

8) 起來는 동작이나 방향을 나타내는 實義를 가지고 있지만, 현대 중국어에서는 동사나 형용사 뒤에 ‘起來’를 붙여 虛義로 사용한다. 이는 비방향적 용법으로 앞에 나오는 동사나 형용사의 성질에 따라 시작, 결과 등을 나타낸다.

따라 ‘상태성 동사, 동작성 동사, 성취성 동사, 완성성 동사’의 네 가지로 분류하였다.

두 언어의 상을 대조하는 데 있어서 한국어에는 완결상(perfective)과 중화상(neutral viewpoint)만 존재한다고 하였다. 완결상은 다시 완료상과 단속상으로 구분되는데 완료상은 ‘-었-’으로 표시되고, 단속상은 ‘-었었-’으로 표시되며, 중화상은 ‘-ø-’로 표시되는 체계를 제시하였다. 중국어의 상 범주는 완결상(perfective), 비완결상(imperfective), 중화상(neutral viewpoint)이 존재한다고 하였다. 완결상은 ‘了’로 표시되는 완료상과 ‘過’로 표시되는 단속상으로 구분되고, 비완결상과 중화상은 각각 ‘着’과 ‘-ø-’에 의해 표현된다고 기술하였다. 이상의 분류 방식은 용어와 체계에 있어 다소 혼란스럽게 보인다.

왕례량(2012)의 체계는 Smith(1997)의 완전상(perfective), 비완전상(imperfective), 중립상(neutral)을 따랐으나, 용어는 perfective를 완결상으로, imperfective를 비완결상으로 번역하여 Comrie(1976)의 상 체계를 연상시킨다. 그러나 Smith(1997)는 비완전상에 진행상을 두고, Comrie(1976)는 지속상의 하위범주로 진행상을 둔 것과 비교하면 왕례량(2012)의 상 체계에서는 진행상 표지 ‘在’에 대한 언급이 미비하다.⁹⁾

이는 Lyons(1968/1991)가 완결상과 미완결상을 구별하지 않고 완결상을 ‘perfective’ 혹은 ‘perfect’라 한 것과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어의 상 범주로 정립한 체계가 완결상과 미완결상의 대립이 아닌 완결상과 중화상의 대립을 다루고 있는 점과 중국어 상 범주로 정립한 체계 역시 ‘着’의 두 가지 기능인 진행상과 지속상의 의미 중 지속상의 의미로만 보았고, 진행상의 ‘在’가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상성에 있어서는 다양한 겸증 기제를 사용하여 두 언어의 시상성을 상태성, 동작성, 성취성, 완성성으로 분류하였다. 그러나 한국어와 중국어의 겸증 기제가 제각기 달라 두 언어의 시상성을 체계적으로 대조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왕리(2013)은 한국어의 상 표지 ‘-고 있-’, ‘-어 있-’과 중국어의 상

9) 왕례량(2012: 121)은 “중국어에서 ‘在’는 상 표지가 아니라 진행이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부사일 뿐이다.”라고 하였다.

표지 ‘在’, ‘着’, ‘了’를 대조하여 각각의 상 표지가 어떤 문법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 문법의미에 따라서 동사와 결합할 때 어떤 제약이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었다. 기존의 논의들은 대부분 상 체계를 분류하고 그에 따른 표지를 제시한 후 한·중 대조를 하였다. 반면에 왕리(2013)은 한·중 상 표지를 먼저 선정하여 대조군을 만들고 동사와의 결합양상을 살폈다. 대조군은 대조1(‘-고₁ 있-’과 ‘在’), 대조2(‘-고₁ 있-’과 ‘着₁’), 대조3(‘-고₂ 있-’과 ‘着₂’, ‘了’), 대조4(‘-어 있-’과 ‘着₂’)로 정리하였다.¹⁰⁾

동사와의 결합 양상에서는 동사 분류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을 뿐 관점상에 대응하는 상황상이라든가, 문법상에 대응하는 어휘상 등의 용어는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동작성], [지속성], [순간성], [접근성], [통제성]의 자질을 사용하여 동사를 ‘행위동사, 순간동사, 심리동사, 소유동사, 변화동사, 이행동사, 존재동사, 상태동사’로 분류하였다. 한국어와 중국어 모두 동일한 상 자질을 사용하여 각각 8개의 부류로 도출되었다.

기존의 논의에서는 동사를 상 자질에 따라 분류하고, 그 분류된 동사들과 ‘-고 있-’ 및 ‘-어 있-’과의 결합양상을 살피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왕리(2013)은 먼저 ‘-고 있-’, ‘-어 있-’과 결합되는 양상에 따라 A1, A2, B1, B2, C, D, E, F1, F2로 분류한 후, 이를 다시 동사의 자질에 따라 하위분류하였다. 중국어도 마찬가지로 먼저 ‘了’, ‘着’, ‘在’와 결합되는 양상에 따라 분류하고 이를 다시 동사의 자질에 따라 하위분류하였다. 중국어는 분류된 동사의 예시를 제시하였으나 한국어는 제시하지 않았다.

王波(2013)에서는 인지 언어학적 관점에서 ‘-었-’과 ‘了’를 고찰하였다. 한국어의 시간요소가 중국어에서 실현되는 방식, 혹은 중국어의 시간요소가 한국어로 실현되는 방식에서 두 형태소를 모두 상 요소로 보거나 시제요소로 보는 단일성을 지양하여 시간요소를 언어의 보편적 범주로 보고 이런 범주가 두 언어에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쌍방향으로 고찰하였다.

다음으로 표지와 관련 있는 부각장치를 선정하여 한국어와 중국어의 시제와 상을 대조 분석하였다. 부각 장치로 ‘연결어미 부각 장치, 시작점 부

10) 왕리(2013)에서 한국어의 ‘-고₁ 있-’은 진행, ‘-고₂ 있-’은 상태지속을 나타내며, 중국어의 ‘着₁’은 진행, ‘着₂’는 상태지속으로 보았다.

각 장치, 종결점 부각 장치, 지속선 부각 장치'를 선정하여 각각을 중국어와 대조하였다.¹¹⁾ 또한 동사의 유형에 따라 상황유형을 7가지로 분류하였다. 이는 '상태 상황, 심리 상황, 과정 상황, 비결과성 완성 상황, 결과성 완성 상황, 비결과성 순간 상황, 결과성 순간 상황' 등이 있다. 또한 각각의 상황에는 '시작점, 상태 지속/동작 진행, 종결점, 결과 상태'의 네 국면을 선택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설(2013)에서는 한국어와 중국어의 동작상 표지를 대조 분석하고 양자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다루었다. 동작상의 종류를 '예정상, 기동상, 진행상, 완료상, 결과상태 지속상'으로 분류하고 각각의 표지를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예정상으로 한국어 '-게 되-'와 중국어 '將要, 卽將'을, 기동상으로는 한국어 '-어 지-'와 중국어 '起來'를, 진행상으로 '-고₁ 있-'과 중국어 '在, 着₂'를 들었다. 완료상으로는 한국어 '-어 버리-'와 중국어 '掉'를 들었다. 결과 상태 지속상으로는 한국어 '-고 있₂-, -어 었-'과 중국어 '着₁'을 들었다.¹²⁾ 이 중 한국어와 중국어의 동작상 중의 하나로 제시한 예정상은 한국어 학계에서도 예정상의 설정에 찬반의 의견이 있는 동작상이다. 중국어 학계에서도 예정상의 표현이 부사인 '將, 要, 將要, 卽將'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다른 상 범주의 문법표지와는 차이가 있다.

이설(2013)에서 중국어 예정상의 표지로 제시한 형식들은 문법화가 끝나 조사의 단계로 넘어갔거나 문법화가 진행 중에 있는 것들이다. 그러나 예정상 표지로 제시된 '將, 要, 將要, 卽將'은 문법화의 초기단계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부사의 의미가 현저하다. 이러한 어려움이 있음에도 그가 예정상을 설정한 이유와 그 표지로 '將要, 卽將'을 선정한 이유에 별다른 설명이 보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동작상 표지와 다른 문법형태, 즉 동사 부류와의 결합양상, 시간 부사어와의 결합양상, 시제 표현과의 결합양상, 양태 표현과의 결합양상, 부정 표현과의 결합양상, 피동 및 사동 표현과의 결합양상, 안은 문장

11) 王波(2013: 47)에서는 "상황 자체의 속성으로 어떤 국면이 현저한 윤곽과 구별되기 위해 서는 특별한 언어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언어 장치를 통해서 특정한 상황 국면에 대해서 윤곽을 부여하는 현상을 '부각화(highlighting)'라 부르고 이때 동원된 언어 장치를 '부각 장치(highlighting device)'라고 부르기로 한다"고 언급하였다.

12) 이설(2013)은 진행상으로 '着₂'를, 결과상태 지속상으로 '着₁'을 들었다.

에서의 사용 양상 등을 살펴보았다. 이때 사용한 예문의 단어는 4장에서 예로 든 동사류의 단어에 해당하며, 동작상과 동사류의 결합관계를 명확하게 보여주었다. 또한 동작상과 관련된 한국어와 중국어의 동사류를 ‘상태동사, 과정동사, 순간동사’로 나누어 각 동사류의 유형과 특징을 다루고 이에 대한 동사의 예를 제시한 점은 주목할 만한 성과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상 체계에 대한 대조 연구에서 상과 시제를 구분하여 논의한 연구는 최규발(2007) 이래 2015년 현재에 이르기까지 소수에 불과하다. 이 외에 대부분의 논의는 아래와 같이 완료상, 지속상, 진행상의 한·중 대조에 한정되어 있다.

완료상의 논의는 대부분 ‘-었-’과 ‘了’의 대조 연구이다. 한국어 ‘-었-’에 대한 관점은 시제나 상과 관련된 형태로 보는 견해, 과거시제 형태로 보는 견해, 완료상의 형태로 보는 견해로 나누어진다. 김종혁(2009)의 연구에서는 ‘-았/었-’ 및 ‘-었었-’이 과거시제나 완료상을 나타내는 형태소로 파악하여 중국어 ‘了’와 ‘過’와 대조 분석하였다.

김홍실(2008)에서는 ‘-었-’과 ‘了’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기술하였다. 공통점으로는 한국어의 ‘-었-’과 중국어의 ‘了’가 모두 과거, 현재, 미래 등의 의미로 고루 쓰일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나 과거의 의미는 과거완료와 과거지속 및 과거반복으로 하위분류하였으며, 현재의 의미는 현재완료와 현재지속으로 하위분류하고, 미래의 의미는 미래완료와 미래확정 및 미래 진행으로 하위분류하여 사실상 한국어 시제형태소 ‘-었-’을 중국어 완료형태소 ‘了’로 대조하였다. 차이점으로는 한국어의 ‘-었-’은 한정적 행위와 비한정적 행위에 고루 쓰일 수 있으나, 중국어의 ‘了’는 비한정적 행위와 함께 쓰일 수 없다고 하였다.

羅遠惠(2001)에서는 중국어의 ‘了’는 과거시제, 완료상 그리고 지속상을 나타내는 형태소로 보고 ‘了’를 중심으로 한국어와의 대응관계를 논의하였다. ‘了’는 용언의 제약을 받고 있으며 ‘-었’은 이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了’ 문장이 ‘-었-’에 포함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了’와 한국어의 번역 대응 관계를 살펴보았다.

지속상에 관한 논의는 ‘-고 있다’, ‘-어/어 있-’과 ‘着’에 관한 대조를

다루었다. 한국어에서 동작의 진행을 나타내는 형태는 ‘-고₁ 있-’으로, 상태의 지속을 나타내는 형태는 ‘-고₂ 있-’과 ‘-아/어/여 있-’으로 나타낸다. 이에 대응하는 중국어는 동태의 진행과 동태의 지속을 막론하고 ‘着₁’가 대응된다. 지속상에 있어서는 한국어와 중국어가 거의 동일하다. 이에 대한 논의는 趙나영(2011), 魏蛟(2013), 구정초(2014)의 연구가 있다.

진행상에 관한 논의는 ‘-고 있-’과 ‘在’, ‘着₂’에 관한 논의가 있다. 이남(2011)에서는 ‘-고 있-’, ‘-어 있다’에 해당하는 중국어 대응표현이 ‘正/在/正在’, ‘着₁’, ‘着₂’에 해당하며 이 중 ‘正/在/正在’과 ‘着₁’는 한국어의 진행상, ‘着₂’와 ‘了’는 한국어의 완료상에 대응된다고 하였다. 이외에 문장 차원에서 상표지 ‘-고 있-’과 ‘在’, ‘着’의 대조 연구를 한 쭈즈웨이(2013)이 있다.

상이 Smith(1997)에 의해 문법상과 어휘상으로 본격적으로 나누어져 논의되면서 비로소 시제와 분리하여 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자리 잡혔다. 하지만 한·중 상에 관한 대부분의 논의는 문법상 중심으로 이루어져 웠음을 알 수 있다. 한국어와 중국어의 상 자질에 따른 어휘상 분류는 본격적인 어휘상이라기보다는 문법상 논의의 일부로 진행되었다. 어휘상에 대해 본격적으로 대조 연구를 한 경우는 없다. 시제와 상을 명확히 구분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은 ‘시제’라는 영역 안에서 상과 시제를 같이 다루고 있는 데서도 잘 드러난다. 이는 과거 시제가 완료상과 관련이 깊고 현재시제가 미완료상과 관련이 밀접한 데서 어려움이 따르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어의 시간 표현에 대한 연구에서는 시제 범주의 존재가 주된 연구의 흐름이고, 상에 대한 연구는 종속적이다. 반면에 중국어의 시간 표현에 대한 연구에서는 상이 주된 연구의 흐름이고 시제 주장이 종속적으로 다루어진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한국어와 중국어의 상에 대한 대조 연구에서 시제가 빠질 수 없다.

한국어 시제와 상은 서법과 함께 서술보조소로서 문장의 서술 내용을 나타내는 동사구에 함께 나타난다. 한국어는 시제를 나타내는 문법 형태가 명시적으로 존재하고, 상은 시제와 더불어 쓰이면서 화용적인 맥락에서 시제표지를 함께 사용할 수도 있어 상과 시제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

운 경우도 있다. 반면에 중국어는 상표지가 분명하고 시제는 어휘적인 요소로 보충하는 경우가 많다. 한·중 대조에 있어서도 상 중심의 중국어와 시제 중심의 한국어는 더욱 구분하기 힘들어 ‘시상’, ‘시간표현’, ‘시간요소’라는 포괄적 범주를 설정하여 다루려는 경향이 있다.

시제와 상은 둘 다 한 언어에서의 시간 표현과 관련된 것이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다. 다만 이런 시간표현은 각 언어가 구조화된 방식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시제보다는 상을 나타내기 위해 파생법이 발달된 언어가 있고, 시제 표현이 더욱 중심이 되는 언어도 있다. 이러한 차이에서 대조 연구의 어려움이 비롯된다.

1992년 수교 이후 2014년까지 국내에서 발표된 한중 대조 연구 중 상과 시제와 관련된 논문의 내용을 표 안에 주제별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2> 상과 시제에 관한 한·중 대조 주제별 논문(1992~2014년)¹³⁾

| 주제 | 연구논문 | | | 논문수 |
|----|---|------------------------|-------------------------------------|-----|
| | 석사논문 | 박사논문 | 소논문 | |
| 시상 | 조영화(2003) 마홍염(2005) 이지혜(2010) 장 한(2014) | 李迎春(2007) 王波(2014) | 허성도(1992) 김종혁(2009) 왕례량(2010) | 9 |
| | 王芳(2007) 지성녀(2007) 오려려(2011) | | | |
| | 김나리(2011) 원, 샤요엔(2012) 왕 교(2013) 제동요(2013) | 호선희(2012) | 손옥현(2014) | |
| | 양 단(2011) 왕 리(2013) 퐁아려(2014) | 진남남(2010) 왕례량(2012) | | |
| 상 | | | | 5 |

13) 대조 연구 현황을 고찰하기 위해서 수집한 논문 중 ‘교육(교학)’ 관련, ‘번역’ 관련 논문 중에서도 ‘대조’분석과의 연계가 없으면 포함하지 않았음을 밝혀둔다.

| | | | | |
|-----|--|-----------|---|----|
| 문법상 | 리명화(2007) 장 위(2010) 채의나(2010) 趙나영(2011) 노은화(2011) 김려나(2011) 해가림(2011) 임흔의(2012) 우정정(2013) 김정애(2013) 위 교(2013) ZiHui Zhu(2014) 마 맹(2014) 이향란(2014) 류명월(2014) 사 리(2014) 노 성(2014) 구정초(2014) 진려하(2014) 장 천(2014) | 이 설(2014) | 최규발(2007) 김홍실(2007) 서석미(2012) 정의철, ZiHui Zhu(2013) 박연옥(2014) | 2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어휘상 | | 이승희(2015) | 박종한(1993) | 2 |

위의 <표2>에서 알 수 있듯이 허성도(1992)에 의해 시작된 한·중 대조는 2010년에 들어서면서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대부분 문법상에 치중되어 있다. 한국어 학계에서 사용하는 시상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 노어 ‘vid’의 역어로 ‘aspect’의 의미이고, 또 다른 하나는 시제와 상을 한데 묶은 의미이다. 전자는 장석진(1973) 등의 논저에서 볼 수 있으며, 후자는 서정수(1968)에서 ‘시상(Tense-Aspect)범주’라는 용어로 등장하였다. 후에 김석득(1974, 1981)에서 본격적으로 제시된 후 대부분은 이 용어를 사용한다. 시상은 시제와 상을 개념적으로 구분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형태적으로 시제와 상을 따로 갈라서 나타낼 수 없는 혼합자질의

융합체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상이 발달한 중국어에서는 시제와 상 융합체에서 시제 요소보다는 상 요소를 보기 마련이다.

시제 관련 연구에서도 ‘시간 표현’, ‘시간 요소’, ‘상적 표지’의 이름으로, 중국어의 상 관련 요소에 대응하는 한국어의 시제를 다루는 연구가 대부분이다. 마찬가지로 상 관련 연구에서도 한국어와 중국어 모두 연구의 대상이 되는 상 범주가 일정하지 않아 시제 범주가 혼용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문법상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연구가 완료상, 진행상, 지속상의 한·중 대조에 집중되어 있다.

어휘상 관련 연구는 문법상 연구의 일부로 채의나(2010), 왕례량(2012), 왕리(2013), 왕파(2014), 이설(2014) 등에서 다루어졌으나 아직 까지 본격적인 어휘상을 다룬 한·중 대조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어휘상의 연구는 어휘 의미론적인 범주와 통사적이고 형태론적인 범주뿐만 아니라 화용론적 범주까지 고려되어야 할 분야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박종한(1993)의 의미론적, 형태론적, 화용론적 측면을 망라한 초기 한·중 대조 연구는 오늘날 어휘상 연구의 기반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상이란 본래 현실 세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범주라서 현실 세계의 구조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 따라 상황의 인식도 달라지게 마련이다. 그러나 언어 속에 나타나는 상의 모습은 어느 정도 보편성을 가지고 있어 상을 표현하는 방식이 대체로 같은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발화할 때 화자가 어느 부분을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동사를 사용하는 언어표현이 달라지고 상의 표현 방법도 달라진다.

개별 언어들에서 상을 나타내는 방법이 대체로 같지만 부분적으로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상의 연구는 곧 언어 간의 보편성과 동시에 차이를 밝히는 일이 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국어와 중국어의 상에 관한 연구는 주로 한 언어를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다. 두 언어를 비교하여 상 부류를 확정하고 상 부류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 및 대조한 연구는 아직 없었다. 이에 본 연구는 상적 특성에 따라 한국어와 중국어의 어휘상을 분류하고자 한다.

한국어와 중국어의 어휘상 대조 분석은 대조언어학측면에서 한국어를

학습하는 중국인이나 중국어를 학습하는 한국인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 두 언어가 어휘상과 관련하여 통사·의미적인 유사성과 차이점을 밝혀 보려는 이러한 시도는 한국어와 중국어의 이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한국어 상 표현의 활용에 나타나는 빈번한 오류 등은 중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학습자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본고의 연구 성과를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심화된 교육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시제나 서법 등 다른 문법범주와의 경계를 확실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제 2 장 어휘상과 문법상에 관련된 이론적 배경

오늘날 상에 대한 연구는 문법상과 어휘상으로 구별하고, 이 두 개의 상이 어떻게 상호 연관되어 문장의 상적 해석을 나타내는지를 주요 연구 과제로 삼는다.¹⁴⁾ 이 두 범주는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어 어느 한 가지 범주만으로 문장 전체의 상을 파악하기 어렵다.

본고는 한·중 어휘상의 분류를 목적으로 하며, 기존의 문법상 체계를 검토하여 재분류하려는 것은 아니다. 다만 문법상은 어휘상 분류 후 효과적인 결합제약을 위해 사용하기로 한다. 이를 위해 한·중 문법상과 시제의 인접성 정도, 문법상과 어휘상의 범주적 특징, 문법 범주로서의 특징 등을 확인하는 작업은 필요에 따라 논의하기로 한다.

2.1 어휘상의 개념과 체계

어휘상 연구는 동사의 상적 특성(aspectual character)이라는 명칭으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동사에 내재된 시간적 특성(aktionsart)을 의미한다.¹⁵⁾ 즉, 특정 동사가 시간 개념과 관계하는 동사 자체의 고유한 성질을 말한다. 원래 ‘aktionsart’는 19세기 초 슬라브어의 문법이 영어문법에 도입되면서 사용된 용어로 이 당시는 상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다(Asher 1944:240–1).

어휘상을 일반적인 상 개념과 독립적으로 논의한 것은 Vendler(1967)

14) ‘aktionsart’는 19세기 초 슬라브어의 문법이 영어문법에 도입되면서 사용된 용어로 이 당시는 상과 같은 의미로 ‘aktionsart’가 쓰였다(Asher 1944:240–241). 상은 좁은 의미에서는 상황에 관한 화자의 시각을 표현하는 문법범주이고, 넓은 의미에서는 상황을 분류하여 나타내는 개념적 분류이다. 문법 범주는 동사 형태에 의한 것이고, 개념적 범주는 ‘aktionsart’의 의미 차질에 의한 표현이다.

15) 상적 특성(aspectual character)은 Lyons(1977:706)에서 등장한 용어이다. 이는 Comrie(1976:6)에서 문법화된 범주의 상을 ‘aspect’, 문법화 되지 않는 범주의 상을 ‘aktionsart’라 정의한 것에 대해 Lyons(1977)이 재정의 한 것이다. ‘aktionsart’는 ‘행동의 종류’로 번역할 수 있지만 동사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휘적 의미로서의 상’을 의미하므로 동사의 ‘의미로서의 상적 속성’을 지칭한다. 이러한 동사의 상적 속성과 관련하여 Smith(1997)에서는 상황상(situation aspect)을 사용하였는데 한동완(1996)과 이호승(1997)에서는 ‘상황유형’이란 역어를 선택하였다. 또한 고영근(2004), 김천학(2006)에서는 ‘동작류’를 채택하였으며, 박덕유(2007)에서는 ‘어휘적 상’, 조민정(2007)에서는 ‘어휘상’이라고 칭하였다.

의 동사 분류를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 그 이전에 Ryle(1942)와 Garey(1957) 및 Kenny(1963)의 동사 분류는 Vendler(1967)의 연구에 계승·통합되어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Ryle(1942)가 동사를 ‘행위동사(activities)’와 ‘달성동사(achievement)’로 구분한 것은 내적 구성 단계가 동질적인 동사와 종결점과 결과를 가지고 있는 동사의 차이를 인식한 데서 비롯된다. Garey(1957)는 상태(state)와 행위(activities)로 동사를 구별한 시초에 해당한다.

특히 Kenny(1963)의 동사 분류는 Vendler(1967) 이전의 분류로 간과 할 수 없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동사의 자질로 상을 분류한 최초의 시도는 Kenny(1963)의 동사 3분법이기 때문이다. Kenny(1963)는 동사를 ‘상태동사(state)’, ‘행위동사(activity)’, ‘수행동사(performance)’로 분류하였는데 이후 Vendler(1967)가 ‘수행동사(performance)’ 부분만을 ‘완수동사(accomplishment)’과 ‘달성동사(achievement)’로 분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enny(1963)의 ‘동사 3분법’이 아닌 Vendler(1967)의 ‘동사 4분법’이 동사 분류의 기반이 된 이유는 ‘완수동사’와 ‘달성동사’의 구별이 큰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다.¹⁶⁾ 동사적 행위의 ‘지속성’ 여부에 따라 이러한 구분은 의미를 지닌다. Kenny(1963)의 ‘수행동사(performance)’는 종결점에 이르는 모든 과정과 종결점에 이르는 단일 순간까지 함께 포함하여 ‘완수동사’와 ‘달성동사’의 구분이 나타나지 않는다. 반면에 Vendler(1967)의 ‘완수동사’는 어떤 동작이 실현된 것으로 파악되기 위해서는 도달되어야 할 ‘종결점(terminal point)’이 있어야 한다. 동작의 완수를 위해서는 정해진 종결점을 향해야 하고 그 정점(culmination)에 도달하기 전에는 동작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달성동사’는 시간 내에서 계속되는 과정을 포함하지 않은 단일 순간의 행위이다. 이 부류에 속하는 동작은 내적 단계의 구

16) Vendler(1967)의 ‘동사 4분법’에서는 ‘verb’ 대신 ‘term’이란 용어를 사용하여 상태동사(state terms), 행위동사(activity terms), 완수동사(accomplishment terms), 달성동사(achievement terms)로 하였다. 동사의 분류에서 상태 동사는 다른 학자들도 거의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지만 그 외의 동사들은 학자마다 다른 용어를 사용하여 혼돈을 주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activity’는 ‘행위, 과정, 행위, 동작’ 등으로 사용되고, ‘accomplishment’은 ‘완수, 결속, 달성, 완수, 완결’ 등으로, ‘achievement’는 ‘달성, 획득’ 등으로 달리 선택되었다. 본고에서는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관련된 역어를 상태동사(state), 행위동사(activity), 완수동사(accomplishment), 달성동사(achievement)로 하였다. 또한 지칭의 편의상 경우에 따라 ‘동사’를 생략하여 사용하기도 하였다.

분이 있을 수 없고 동작의 정점만을 나타낸다. 이와 같이 동작의 정점이 한 순간에 나타나므로 지속성을 갖지 않는다는 점에서 ‘완수동사’와 구별된다. 이에 Vendler(1967) 이후의 어휘상 자질을 살펴보면 지속성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수행동사’를 ‘완수동사’와 ‘달성동사’으로 ‘구분–통합–구분’하는 과정을 반복해 왔다.

실제로 Vendler(1967) 이후 Mourelators(1978), Dowty(1977), Carlson(1981) 등을 거치면서 Smith(1991, 1997)에서 개념이 정립될 때까지 동사 분류의 변화 발전은 근본적으로 이 달성부분을 어떻게 파악하는지에 따라 이 름을 달리하여 수정과 보완을 거듭하였다고 볼 수 있다. Mourelators(1978)은 Vendler(1967)의 ‘완수동사’와 ‘달성동사’를 다시 ‘사태(event)’로 통합하였다. 그는 행위를 ‘과정(processes)’이라고 보았는데 이는 후행 명사의 가산성(count)과 불가산성(mass) 여부 즉, 명사의 [count]를 중심으로 ‘사태(event)’와 대립한다고 본 것이다. 그리고 이에 대한 상위 개념으로 ‘발생(occurrences)’을 설정하였다. 그런데 이 ‘발생’은 ‘상태’를 중심으로 대립하는 것으로 보아 ‘동태’와 ‘상태’를 이분하는 태도를 취하였다고 볼 수 있다.¹⁷⁾

Dowty(1977)는 Vendler(1967)의 ‘완수동사’와 ‘달성동사’를 분석한 의미를 직접적으로 어휘상의 용어로 사용하였다. 즉 ‘완수동사’를 ‘complex change of state’로 해석하고, ‘달성동사’를 ‘single change of state’로 해석한 후 용어만 바꾼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전자는 종결점을 향해가는 내적 단계를 ‘complex’로 표현한 것이고, 후자는 정점에 이른 단일 순간을 ‘single’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Carlson(1981)은 Vendler(1967)의 ‘행위동사’, ‘완수동사’, ‘달성동사’, ‘상태동사’에 ‘순간동사(momentaneous)’를 추가적으로 설정하였다.¹⁸⁾

17) Mourelators(1978)의 어휘상 분류 용어는 Kenny(1963)와 Vendler(1967)의 용어가 서로 다른 이름으로 혼재되어 있다. 비교해 보면 ‘occurrences’는 Kenny(1963)의 ‘actions’에 해당한다. 1차 하위분류에 해당하는 ‘processes’는 Vendler(1967)의 ‘activities’에 해당하고, ‘event’의 2차 하위분류에 해당하는 ‘development’, ‘punctual occurrences’는 Vendler(1967)의 ‘accomplishment’, ‘achievement’에 해당한다. 이 ‘accomplishment’, ‘achievement’는 바로 Kenny(1963)의 ‘performance’로부터 나온 것이다.

18) Carlson(1981)의 순간(momentaneous)과 Smith(1997)의 순간(semelfactive)은 어휘상의 동사 분류 중 하나에 해당한다. 반면에 Comrie(1976)의 [punctual]은 한국어에서 [순간]혹은 [점성]이라 번역되었으며 이때의 ‘순간’은 시간적 자질로서의 의미이다.

Vendler(1967)의 ‘달성동사’는 과정을 포함하지 않고 단일 순간의 정점만을 나타낸 것에 비해, Carlson(1981)은 정점을 향해 가는 과정과 정점에 이른 순간을 따로 분류하였다. 전자는 ‘달성동사’라 하고, 후자는 ‘순간동사’라고 하였다.

이로써 시작점에서 시작하여 종결점에 이르는 동작의 전체 단계를 하나의 완수 단위로 보는 ‘완수동사’, 종결점을 향해 가고 있어 ‘시작–중간–끝 점’의 단계가 한 순간에 이루어지고 그 이후 동작의 결과까지 지속되는 ‘달성동사’, 시작–중간–끝점이 단일 순간에 나타나는 ‘순간동사’를 구분하여 각각의 단계에 해당하는 적절한 명칭을 갖게 되었다. 이는 Mourelatos(1978)처럼 ‘완수동사’와 ‘달성동사’를 ‘event’라는 이름으로 합치거나, Dowty(1979)처럼 이 둘을 각기 다른 이름을 부여하지 않고 끝 점을 향해가는 점진적 예비과정을 인식하였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Smith(1997)의 동사 다섯 분류의 기초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Smith(1997)는 동사를 ‘행위, 완수, 달성, 상태, 순간(semelfactive)’으로 분류하였다. 이때 Smith(1997)의 ‘달성동사’는 Vendler(1967)의 ‘정점’에 이른 단일 순간의 달성동사’와 Carlson(1981)의 ‘점진적 예비단계의 달성동사’를 모두 아우르는 개념이다. 이렇게 보면 Kenny(1963) 이후 동사분류는 ‘행위동사’와 ‘상태동사’는 별다른 변화를 겪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는 경향을 보인다. 반면에 ‘달성동사’는 종결점으로 나아가는 예비과정을 따로 설정하느냐 아니면 함께 다루는지에 따라 다른 해석을 보인다. 이러한 어휘상의 발전은 한국어와 중국어 모두 이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각각의 언어 특성에 적합하게 발전하였다.

한국어와 중국어의 어휘상 연구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 Vendler(1967)와 Smith(1997)의 동사 분류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¹⁹⁾

19) 동사의 분류를 지칭하는 용어로 Vendler(1967)에서는 동사의 종류(species of verb), Smith(1997)에서는 상황유형(situation types), Van Valin and Lapolla(1997)에서는 동작류 유형(aktionsart type), Croft(2012)에서는 어휘상 유형(lexical aspectual types)이 사용되었다. 분류된 동사부류 중 상태 동사는 다른 학자들도 거의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지만 그 외의 동사들은 학자마다 다른 용어를 사용하여 혼돈을 주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activity’는 ‘행위, 과정, 행위, 동작’ 등으로 사용되고, ‘accomplishment’은 ‘완수, 결속, 달성, 완수, 완결’ 등으로, ‘achievement’는 ‘달성, 획득’ 등으로 달리 선택되었다. 본고에서는

Vendler(1967)의 ‘동사 4분법’은 한국어의 많은 논저에서 어휘상의 기본 틀로 인용되고 있다.²⁰⁾ Vendler(1967)는 동사를 [과정성(processes)], [완결성(telicity)], [순간성(punctual)]이라는 세 가지 차질을 기준으로 ‘상태동사(state)’, ‘행위동사(activity)’, ‘달성동사(achievement)’, ‘완수동사(accomplishment)’라는 네 가지 상적 부류(aspectual class)로 구분하고 있다.²¹⁾ 이러한 구분은 ‘continuous tenses’의 가능성 여부에서 출발한다.

(1) What are you doing?

가. I am running.

(or writing, working, and so on)이라고

답할 수 있다. > [+continuous]

나. I am knowing.

(or loving, recognizing, and so on)이라고

답할 수 없다. > [-continuous]

(Vendler 1967:99)

위에서 (1)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1가)의 process(과정성)을 가진 ‘run, write, work’ 등의 동사 부류와 (1나)의 과정성을 가지지 못하는 ‘know, love, recognize’ 등의 동사 부류를 대별하게 한다. 전자로 구분된 부류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연속적인 국면(successive phases)을 가지고, 후자로 구분된 부류는 이러한 국면을 가지지 않는다. 또한 과정성을 가진 동사부류는 시간부사구 ‘How long...’과 ‘How long ... it takes...’ 구문의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관련된 용어를 상태동사(state), 행위동사(activity), 완수동사(accomplishment), 달성동사(achievement), 순간동사(semelfactive)로 하였다. 또한 지칭의 편의상 ‘동사’를 생략하기로 한다.

20) Vendler(1967)의 ‘동사 4분법’에서는 자질의 유형으로 동사를 나타내기 위해 ‘verb’ 대신 ‘term’이란 용어를 사용하여 상태동사(state terms), 행위동사(activity terms), 완수동사(accomplishment terms), 달성동사(achievement terms)로 하였다. 본고는 지칭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상 ‘동사’를 생략하여 기술한다.

21) Vendler(1967)의 자질 중 의미 해석에 논란이 되고 있는 [process]는 한국어에서 [과정성]으로 가장 많이 번역되어 사용되었으나 [punctual]의 의미로도 사용되었다. 이는 Vendler(1967)를 토대로 어휘상을 분류한 Van Valin and Lapolla(1997: 92-5)(김천학 2014:25)에서 [process] 대신 [punctual]로 의미를 좀 더 명확하게 제시한 영향으로 보인다.

양립 가능성으로 다시 분류할 수 있다. 이 구문들과의 결합여부로 ‘행위동사’와 ‘완수동사’로 나누었다. 아래의 예문은 ‘행위동사’에 속하는 ‘push the cart’와 ‘완수동사’에 속하는 ‘draw the circle’을 예로 들어 이러한 특징을 보여주었다.

(2) 가. How long did he push the cart?

나. *How long did it take to push the cart?

(3) 가. *How long did he drew the circle?

나. How long did it take to draw the circle?

(Vendler 1967:100–101)

(2)에서 묘사된 ‘push’의 동작에는 한계가 없다. 얼마를 밀어야 다 밀은 것인지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3)에서 묘사된 동작에는 한계가 있다. 원을 하나 그리는 동작은 원을 다 그리면 그 이상 계속되지 않고 끝나기 때문이다. 이에 목표 없이 미는 데는 일정한 시간이 걸리지 않지만, 하나의 원을 그리는 데는 일정한 시간이 걸린다. 따라서 완결점이 없는 행위동사 (2)는 ‘How long...’을 허용하지만 ‘How long...it take...’은 허용하지 않는다. 같은 이유로 완수동사 (3)은 ‘How long...’은 허용하지 않지만 ‘How long...it take...’는 허용한다. 이는 완결점의 유무로 인한 특징임을 알 수 있다.

Vendler(1967)는 또한 ‘행위동사’와 ‘완수동사’가 각각 진행형 문장과 단순형 문장에서의 함의 관계도 설명하였다. 다음에 제시된 예문을 비교해 볼 때 행위동사인 ‘push a cart’가 진행형으로 쓰인 (4가)가 참이 되면 그에 대응하는 단순 과거 문장인 (4나)도 참이 된다. 그러나 완수 동사인 ‘draw a circle’의 진행형 문장인 (5가)가 참이 된다고 해서 단순 과거 문장인 (5나)도 반드시 참이 되지는 않는다.

(4) 가. Someone is pushing a cart.

나. Someone pushed a cart.

(5) 가. Someone is drawing a circle.

나. Someone drew a circle.

(4)와 (5)의 이러한 차이점은 ‘행위동사’가 진행되는 과정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가 없는 동질적(homogeneous)이고 내적 완결점이 없다는 것에서 연유한다. 따라서 ‘행위 동사’가 나타내는 과정은 그 전체 중 어느 부분을 취해도 그 성격이 전체 과정의 성격과 같다. 그러나 ‘완수동사’가 가리키는 과정은 어떤 종결점을 향해 나아가며, 이 종결점은 그 과정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논리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완수동사’의 경우 이 종결점의 도달 여부를 말해 주지 않는 진행형 문장은 전체 과정을 나타내는 단순형 문장이 참이 되는 것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것이 Vendler(1967)의 논리적 함의에 관한 주장이다.

다음으로 Vendler(1967)는 과정성이 없는 동사 부류는 ‘at-시간부사구’와 ‘for-시간부사구’ 구문의 결합여부로 ‘달성동사’와 ‘상태동사’로 나누었다. 아래의 예문은 ‘달성동사’에 속하는 ‘reach the top, spot the plane’와 ‘상태동사’에 속하는 ‘love, believe’를 예로 들어 이러한 특징을 보여주었다.

(6) 가. A: At what time did you reach the top?

B: At noon sharp.

나. A: At what moment did you spot the plane?

B: At 10:53am

다. *For how long did you reach the top?

*For how long did you spot the pla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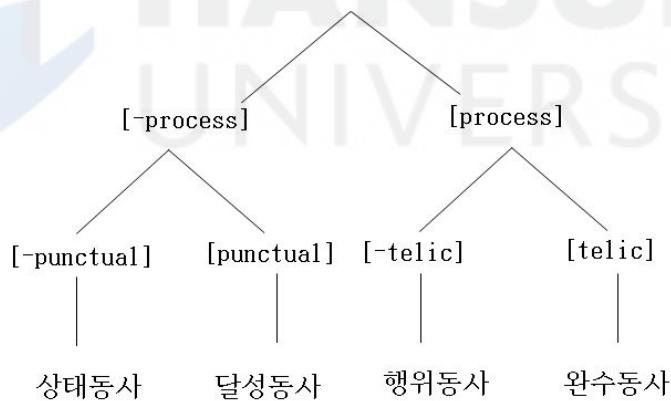
(7) 가. A: For how long did you love her?

- B: For three years.
- 나. A: How long did you believe in the stork?
- B: Till I was seven.

(Vendler 1967:102–103)

위 예문들에서 (6)에 묘사된 동작은 특정 순간의 변화를 나타내는 동사이다. 따라서 (6가)와 (6나)처럼 ‘at-시간부사구’에 의해 규정된 특정 순간에서의 상태변화를 나타내고, (6다)처럼 시간의 지속을 나타내는 ‘for-시간부사구’와는 자연스럽게 결합하지 못한다. (7)의 동사부류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지속될 수 있는 동사이다. 따라서 (7가)와 (7나)처럼 ‘for-시간부사구’ 구문과 자연스럽게 결합한다. Vendler(1967)는 이러한 분류 기준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동사 분류를 제시하였다.

<그림1> Vendler(1967:99–106)의 어휘상



이러한 자질로 이루어진 어휘상의 예는 다음과 같다.

(8) Vendler(1967)의 어휘상 분류

- 가. 행위(activity): run, walk, swim, push/pull something, drive a car
- 나. 완수(accomplishment): paint a picture, make a chair, build a house, write/read a novel, deliver a sermon, give/attend a class, play a game of chess, grow up, recover from illness, run a mile, draw a circle, walk to school
- 다. 달성(achievement): recognize/realize/spot/identify something, lose/find object, reach the summit, win the race, cross the border, start/stop/resume something, be born
- 라. 상태(states): possess/desire/want something, like/dislike/love/hate/dominate somebody, know/believe something

Vendler(1967:107–1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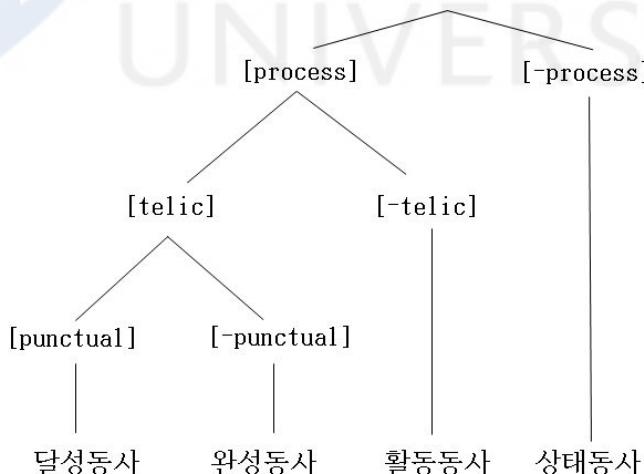
Vendler(1967)의 이론에서 논의의 출발은 ‘continuous tenses’의 소유 여부이다. 1차 분류 기준으로 사용된 이 용어는 한국어 연구에서는 보통 ‘진행형’으로 소개되었다. 대다수의 많은 논저에서는 진행형의 가능성에 따라 ‘행위동사’와 ‘완수동사’를 한 부류로 보고, ‘달성동사’와 ‘상태동사’를 한 부류로 나누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Vendler(1967)에서 ‘progressive aspect’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continuous tenses’라는 용어를 사용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Comrie(1976)에서도 진행상(progressive)과 지속상(continuous)의 용어를 구별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진행성(progressiveness)은 지속성(continuousness)과 비상태성(nonstativity)의 결합이다(Comrie 1976:12). 즉 진행은 비상태가 지속되는 것이고, 비진행은 상태가 지속되는 것이다. Vendler(1967)에서는 일반적으로 ‘인식동사’류로 여겨지는 ‘recognize, know, believe’ 중에서 ‘recognize’는 ‘달성동사’로, ‘know, believe’는 ‘상태동사’로 분류하였다. 구체적으로 단일 순간에 동사가 갖는 순간성에 중점을 두면 ‘달성동사’이

지만 인식 후 그 상태가 계속된다는 것에 중점을 두면 ‘상태동사’로 파악하였다. 즉, 진행형의 가능성으로 동사를 1차 분류한 것이 아니라 지속성의 여부로 분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진행형으로 1차 분류하였다면 ‘recognize’를 상태동사에서 별도로 분리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Vendler(1967)의 동사분류는 <그림1>이 아닌 <그림2>로 설명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Vendler(1967)에서 [과정성]을 중심으로 ‘달성동사’와 ‘상태동사’를 1차 분류하였다고 보는 데는 [동작성]이 없다는 공통점이 있다. 또한 지속성의 유무에 따라 ‘달성동사’와 ‘상태동사’를 2차 분류하였다고 보인다. 이로 인해 Vendler(1967)의 1차 분류와 2차 분류의 기준이 다르다는 비판을 받지만 [과정성]은 [동태성]과 [지속성]을 함께 공유하고 있다. 이는 진행형이 가지고 있는 성질 중의 하나이다. 즉 [과정성]으로 먼저 분류한 후 그 하위분류 기준으로 [종결점]의 유무를 삼은 것이다. 이에 따라 제시된 동사 분류는 아래와 같다.

<그림2> Vendler(1967)의 어휘상 수정



<그림1>의 Vendler(1967)의 어휘상 분류도와 본고에서 제시한 <그림2>를 비교해 볼 때 가장 큰 차이점은 1차와 2차의 분류 기준이다. <그림1>은 1차 분류 기준으로 [process]를, 2차 분류 기준으로 [punctual]과

[telic]을 제시하여 2차 분류 기준이 서로 다르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러한 비판 속에서도 어휘상 논의에는 Vendler(1967)의 <그림1>이 소개되고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1차 분류 기준이 [processes]인 것은 동일하지만 2차 분류 기준을 [telic]으로, 3차 분류기준을 [punctual]로 하였다. 이는 Comrie(1976:47)에서 “[telic] 장면을 표현하는 데 중요한 것은 제한성뿐만 아니라, 제한성에 도달할 때까지의 과정을 포함해야 한다”²²⁾는 [제한성] 정의와 Vendler(1967)의 달성동사가 가장 엄밀한 의미의 점성이라는 논의를 반영한 것이다.²³⁾

Smith(1997)가 시간적 의미 자질(temporal semantic feature)의 기준으로 삼은 것은 [정태(static)/동태(dynamic)], [완성(telic)/비완성(atelic)], [지속(durative/순간.instantaneous)]이다.²⁴⁾ 이러한 세 가지 자질의 조합으로 ‘상태동사(States)’, ‘행위동사(Activity)’, ‘완수동사(Accomplishment)’, ‘순간동사(Semelfactive)’, ‘달성동사(Achievement)’의 다섯 가지 상황유형(situation aspect)을 제시하였다.²⁵⁾ Smith(1997)에서 제시한 어휘상의 유형과 그 전형적인 예들은 다음과 같다.

22) In expressions referring to telic situations it is important that there should be both a process leading up to the terminal point as well as the terminal point(Comrie 1976:47).

23) Vendler(1967: 102–3) uses the term 'achievement' for situations like 'John reached the summit': the reference is to the end-point of a process only, which is why, ... such situation are punctual in the strictest sense of the term.(Comrie 1976:47 재인용)

24) Smith(1997)의 [static] 자질은 학자에 따라 [정태], [상태], [정체성]등으로 번역되었다. 이 때 정태가 상태보다 더 선호되는 이유는 정태라는 용어가 상태 상황상과의 혼돈을 줄여주기 때문이고, [정체성]은 반대 자질이 [단계성]으로 정적인 상태(stasis)와 움직임(motion)이 있는 사건을 구분시켜 주는 자질의 의미가 추가된 개념이다.

25) Smith(1997)는 ‘situation’이란 용어를 사용하여 ‘state situation’, ‘activity situation’, ‘accomplishment situation’, ‘activity situation’, ‘semelfactive situation’으로 사용하였으나 설명에서는 situation을 생략하였다.

<표3> Smith(1997:20)의 어휘상 분류

(Temporal features of the situation types)

| Situations | static | durative | telic |
|-----------------------------------|--------|----------|-------|
| 상태동사(states) | [+] | [+] | [−] |
| 행위동사(activity) | [−] | [+] | [−] |
| 완수동사(accomplishment) | [−] | [+] | [+] |
| 순간동사(semelfactive) ²⁶⁾ | [−] | [−] | [−] |
| 달성동사(achievement) | [−] | [−] | [+] |

(9) 어휘상 자질의 예

가. 행위(Activity): stroll in the park, laugh, revolve, think about, enjoy

나. 완수(Accomplishment): build a bridge, walk to school, drink a glass of wine

다. 순간(Semelfactive): knock at the door, hiccup, flap a wing

라. 달성(achievement): leave the house, reach the top, recognize Aunt Jane

마. 상태(states): own the farm, be in Copenhagen, be tall, believe in ghosts

Smith(1997:23–36)

위의 표에서 Smith(1997:19)는 ‘static’의 자질에 대해 “[정태성]과 [−단계성]은 단계가 구분되지 않는 시구간(undifferentiated period of states)을, [−정체성]과 [단계성]은 연속적 사건 단계(successive stages of events)를 가리키는 것으로 규정한다”고 하였다. 즉, [정체성]과 [단계성]은 서로 반대되는 값을 갖지만 동일한 상황상 분류에 적용할 수 있다

26) Smith(1997)는 이 상황 유형을 ‘semelfactive’라고 부르는데 이것을 순간 상황이라고 부르는 것은 오해의 여지가 있다. 왜냐하면 달성 상황도 순간에 발생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둘은 고유의 끝점 Smith(1997)의 용어로는 ‘natural final point’, Vendler(1967)의 용어로는 ‘set terminal point’ 유무에 따라서 구분될 수 있는데 이런 차이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적절한 용어를 찾기가 어려운 까닭에 그대로 쓴다.

는 의미이다. Smith(1997)의 의견에 따르면 [정체성]과 [-단계성]은 둘 다 상태만을 가리키고 [-정체성]과 [단계성]은 상태를 제외한 나머지 네 가지 상황 유형들을 또 다른 하나의 부류로 끓어 준다.

중요한 점은 Smith(1997)의 ‘static’은 ‘[정체성] and [-단계성]’에서 ‘[-정체성] and [단계성]’으로 가는 과정이 ‘상태’에서 점차 ‘동태’로 이르는 연속적인 변화 과정을 가진다는 점이다. 따라서 [정체성]과 [단계성]은 정지 상태와 움직임을 구별하기 위한 차질이지만 [정체성]이 곧 ‘상태’이고, [단계성]이 곧 ‘동태’인 것은 아니다.

Comrie(1976:48–50)는 ‘phase(국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이러한 변화 과정을 설명하였다. 상태를 나타내는 ‘know’와 동적인 장면을 나타내는 ‘run’을 예를 들어 이 두 동사 사이의 중간 어디쯤에서 ‘being in a standing position(서 있는 상태)’이 동시에 지니고 있는 [동태성]과 [상태성]을 설명하였는데, 이는 Smith(1997)과 같은 맥락이다. 즉, ‘know’는 변화를 포함하고 있지 않고, ‘run’은 반드시 변화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이분법만으로 정확하게 그 성격을 규정할 수 없는 ‘서 있다’처럼 상태를 포함하고 있지 않지만 변화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성 동태와 동태성 상태도 분명히 존재한다.

이는 앞에서 기술했던 Vendler(1967)의 상 분류에서 [processes]가 [단계성]인지, [과정성]인지, [동태성]인지 불분명하다는 의견과도 관련이 있다. Vendler(1967)의 [processes] 역시 상태는 [정체성, -단계성]으로, 비상태는 [-정체성, +단계성]으로 정확히 이분법적으로 구분할 수 없다. Vendler(1967)의 ‘process’는 Comrie(1976)의 ‘phase’로 이어진다. 이는 Smith(1997)의 입장에서 [정체성]과 [단계성]이라는 서로 반대되는 값을 가지지만 [static]으로 동일한 상황상 분류에 적용할 수 있다는 논의의 근거가 된다.

또한 여기에서 중국어의 상태성 정도를 어휘상 분류에 적용한 龔千炎(1995)과 楊素英(2000)의 분류²⁷⁾²⁸⁾, 상태를 이분화하여 동일성 상태

27) 龔千炎(1995)은 동사를 정태동사와 동태동사로 양분하고 정태동사는 정태 정도의 강약(強弱)에 따라, 最具靜態를 가진 관계동사(姓, 叫, 是, 属于, 有, 在, 适合), 次靜의 심리동사(喜欢, 高兴, 爱, 相信, 同意, 认识, 明白, 知道), 靜中含動의 상태동사(站, 坐, 躺, 包, 开,

(individual level states)와 단계성 상태(stage-level states)로 이분화한 Xiao & McEnergy(2004)의 분류도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²⁹⁾



貼, 裝, 穿, 戴, 摆)로 분류하였다. 동태동사는 동태의 지속 장단(長短)에 따라 분류하였다.

28) 楊素英(2000)은 상태를 3가지의 하위유형(속성, 심리, 존재)로 분류하였다(조경환, 2015:42재인용).

29) 조경환(2015:43) 에서는 Xiao & McEnergy(2004)의 상황유형 분류 중 상태(state)의 이분화에 대해 “동일성 상태(individual level states, ILS)는 개인의 고유하고 영원한 기질들을 서술하며,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변화가 없으므로, 최종 시간적 또는 공간적 끝점을 가지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한 개인의 영원한 자질을 서술하며, 결과를 부호화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漂亮, 象, 是, 等于, 属于, 当作’ 등이 있다. 단계성 상태(stage-level states, SLS)는 개인의 일시적이고 비정규적인 단계, 시간과 장소에 따라 변하고 일반적으로 한 개인의 덜 영원한 단계들을 서술한다는 점에서 결과를 부호화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病, 忙’ 등이 있다”고 기술하였다.

2.2 문법상 개념과 체계

문법상의 하위분류로 완결상과 비완결상을 대립시키는 체계는 대체로 인정되는 사실이나 비완결상으로 처리되는 상의 종류는 개별언어에 따라 다르다. 러시아어를 비롯한 슬라브어가 이들 대립을 가진 대표적인 언어이며 Comrie(1976)은 이 슬라브어를 기반으로 상 체계를 논의하였다. 슬라브어의 완결상과 비완결상은 어휘 파생에 의해 표시되기에 이들 대립이 문법상에 해당하는가, 어휘상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논쟁의 중심에 있기도 한 형식이다.

전통 슬라브어의 관점에서 상을 기술한 Comrie(1976)의 상 체계는 시제와 상이 형태적으로 융합된 한국어에 적용하기 어려운 면이 있기 때문에 다음의 두 가지 관점이 혼재되어 있다.

첫째, 슬라브어 상의 완결상과 비완결상의 상적 대립
둘째, 로맨스어 상의 단순과거와 미완료의 상적 대립

즉, 첫째 관점으로 슬라브어식의 완결상과 미완결상의 이분 체계로 구분하였으나 이러한 구분에서 오는 논란의 핵심점을 찾지 못한 채 상의 논의는 대부분 둘째 관점인 단순과거와 미완료의 대립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점이다. 러시아어에서 단순동사에 접두사가 첨가된 동사는 완결상이고 상대적으로 단순동사는 비완결상에 해당한다(김성화 2003:19).³⁰⁾ 슬라브어의 특성상 동사는 완결상이나 비완결상의 어느 한 쪽에 속하게 마련이다. 이러한 언어를 바탕으로 한 상 분류는 완결상과 비완결상의 위상이 한국어와 다를 수밖에 없다.

한국어에서 비완결상은 완결상과의 대립이 아니다. 이는 완결상이 아닌 상들과의 집합처럼 보인다. 진행상이면서 습관상이 함께 나타나거나, 진행

30) 슬라브어의 완결상과 비완결상의 대립은 동사의 파생으로 상 대립을 이루어 어휘상과 더 관련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파생접사가 실질적인 어휘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사의미론과 연결되어 있고 단어 형성 단계서 추가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슬라브어의 완결상과 비완결상의 대립은 엄밀한 의미의 문법상이라기보다는 어휘상의 영역에 속한다는 논쟁을 불러일으킨다.

상과 완결상이 결합하거나, 진행상이지만 상위범주인 지속상이 아닌 상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모든 상적 의미가 이 체계 안에 망라된다 고 보기 어렵고 이 체계의 상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예가 있다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이는 한국어에서 비완결상의 범주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 키며 상과 시제가 항상 함께 거론되는 원인이기도 하다. 과거 시제의 시제 적 속성에는 완결상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초점을 시간적 위치에 두면 과거시제로 파악되고, 초점을 동작이나 사태가 지속되지 않는 완료(perfect)에 두면 완결상(perfective)으로 파악된다.³¹⁾

완결상 또한 완료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³²⁾ 완결상은 표현된 동작이 끝났음을 나타내는 완료가 선행되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완결상은 사태의 처음과 끝을 한 덩어리의 전일성(全一性)으로 파악한 개념이기 때문에 완료가 선행되지 않고서는 완결상을 논할 수 없다. 그러나 완료상은 과거에 일어난 사태가 현재에도 효력이 있음을 함축하는 국면에 초점이 있는 것이지 상황전체 를 논하는 것이 아니다.

완료상의 의미에 대해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하여 상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시제 의미로만 파악하는 논의도 있으나 완료상의 일차적 의미로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것은 ‘현재와의 관련성’(current relevance)과 ‘완 수’(completion)이다(안동환, 1991:157).

Brinton(1988:7), Comrie(1976:52), McCoard(1978) 등은 완료상이 갖는 ‘현재와의 관련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현재와의 관련성을 강조한 Brinton(1988:7)의 “완료는 과거에 발생한 사건이 현재까지 지속 되는 것을 가리키는 개념으로 ‘현재와 관련된 상태’는 바로 종합적인 시제 와 상 기능을 갖추었음을 의미한다.”고 하였고, Comrie(1976:52)의 “완료 형은 과거 상황의 현재와의 지속된 관련성”을, McCoard(1978)는 “완료형 은 현재까지 계속되는 시간 범위 내에서의 과거 사건의 표현” 등을 주장 하였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과거 시제와 완결상은 상호 교체 현상이 있

31) 사건(event)은 시간적 변화와 관련된 동작을 의미하고, 상태(state)는 시간적 변화와 관련 없는 상황을 의미한다. 이 둘을 함께 가리킬 때에는 상황(situation) 혹은 사태(事態)라 부른다(서정수, 2013:223).

32) 본고에서는 문법상의 일부인 진행상, 지속상 등과 같은 개념으로 사용될 때는 ‘완료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완결상의 선행조건으로 사용될 때는 ‘완료’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을 정도로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즉 완료와 현재는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 시제적인 기능이 부각되기도 하고 상적인 기능이 더 잘 드러나기도 한다는 것이다.

서정수(2013:247)에서 “우리말의 과거 시제는 본디 완결상의 의미 특질을 내포한다고 할 수 있다. ‘-었-’으로 나타내는 과거 시제는 본디 과거 시제이지만 그 과거성 의미에는 본질적으로 완결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한국어의 경우 과거시제와 완결상의 형태적인 구분이 없으므로 환경에 따라서 시간적 위치가 강조되는 상황에서는 과거시제로, 상적인 의미가 강하게 부각될 때는 완료상으로 쓰인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완료상은 그 본질이 무엇인가를 결정하기가 매우 어렵다. Comrie(1976:56)도 이러한 어려움으로 완료상을 문법상이나 어휘상에 그 어느 것에도 포함시키지 못하고 완료가 완결상과 다른 성질의 것임을 강조하였다. 오충연(2014:109)은 완료상을 어휘상의 일종으로 파악하여 완결상이 반드시 완료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완결상이 표상화되지 않는 언어에서는 과거시제가 완결상의 역할을 한다는 Comrie(1976)의 주장을 인용하였다. 오충연(2014)에서 완료상의 정의로 사용한 ‘단어나 구에 의해 완료의 의미를 부여하는 형태로서의 완료상’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이해하기 어렵다. 완료상을 어휘상의 일종으로 파악한 정황은 슬라브어의 파생으로 인한 어휘상 연구에서 엿볼 수 있으므로 어휘 자체의 완료적 의미를 지시하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한국어와 중국어 모두 시제와 상의 개념이 혼재된 언어이다. 시제 부각 언어(tense-prominent language)’인 한국어는 과거의 관점에서 완결상을 다루었고, ‘상 부각 언어(aspect-prominent language)’인 중국어는 선시 (anterior)의 개념으로 완결상을 다루었다.³³⁾ Brinton(1988:6)의 정의에 따르면 “선시성에는 결과, 현재 관련성, 완결된 상적 의미뿐만 아니라 비한정적인 과거 의미까지도 가지며 과거와 연장선상의 현재를 포함한다”고 하였다. 중국어의 완료상에 있어 현재와의 관련성이라는 용어는 상을 시제의 관점에서 논

33) 선시(anterior)는 사건이 참조시간(말하는 시간) 이전에 발생함을 나타내고, 참조시간 이후의 발생을 나타내는 후시(posterior)의 상대 개념이다. 선시나 후시를 상의 범주로 보기도 하지만 보통은 상대적 시제로 이해된다.

의한 결과이다.

완결상을 바라보는 한국어와 중국어의 관점을 비완결상과의 비교로 살펴보자. 한국어는 서정수(2013:241)에서 사용한 예문을 활용한 것이고 중국어는 이 예문을 번역한 것이다.

- (1) 가. 그는 밥을 먹었다.
- 나. 그는 밥을 먹고 있었다.
- 다. 그는 방금 밥을 먹었다.
- 라. 그는 밥을 먹고 있다.

(1가)의 ‘-었-’은 과거시제를 표시하기도 하고 완결상을 표시하기도 한다. 상황 전체를 바라보려면 그 행위가 완료되었을 때만 가능한데 한국어에서는 완결된 후라는 전제와 완결상의 의미를 구분할 문법적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이선웅, 2012:400). 그러나 (1나)의 ‘-었-’은 진행상을 표시하는 ‘-고 있-’과 결합하기 때문에 이때의 ‘-었-’은 과거 시제를 표시하는 기능만 있고 완결상을 표시하는 기능은 없다. 진행상이면서 동시에 완결상일 수는 없기 때문이다. 즉, 한국어에서는 완결상과 과거시제가 언어 형식으로 구분되지 않는다. 시제 형태로 기술되는 ‘-었-’과 동일한 형태로 완결상의 의미로도 쓰이나 시제 우위인 한국어는 1차로 과거시제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었-’이 드러내는 과거성 의미에는 완결상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에 따라 시제적인 면보다 완료적인 면이 두드러지게 될 때에는 완결상 표지로서의 구실을 보인다(서정수 2013:242). 이러한 이유로 과거시제임을 좀 더 명확히 나타내고자 할 때에는 (1다)와 같이 ‘방금’과 같은 어휘적 요소로 시제성을 드러낸다. (1라)는 밥을 먹는 동작이 아직 끝나지 않고 진행 중임을 ‘-고 있-’을 통해 나타낸다.

다음은 중국어의 경우를 예를 들어보자. 비교의 이해를 돋기 위하여 예문 (2)에 해당하는 중국어를 제시하였다.

(2) 가. 他吃了饭了。

나. *他在吃了饭。

다. 他刚才(那时, 当时, 早就)吃饭了。

라. 他在吃饭(呢)。

(2가)의 ‘了’는 ‘밥을 먹다(吃饭)’라는 동작이 완결되었음을 표시한다.³⁴⁾ 중국어의 시제는 어휘적 요소로 나타나므로 ‘了’를 1차적으로 완결상으로 파악 한다. (2나)는 진행상인 ‘在’가 있음에도 완결상인 ‘了’와 함께 쓰인다는 것은 자연스럽지 못하다. 이것은 한국어와 마찬가지로 진행상이면서 완결상일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에 과거에 일어난 일임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2다)와 같이 ‘当时(당시), 那时(그때), 早就(일찌기)’ 등 과거임을 나타내는 어휘적 요소를 사용한다.³⁵⁾ (2라)에서는 ‘吃饭’하는 동작이 진행 중임을 ‘在’를 통해 나타낸다.

문법상은 기본적으로 완결상과 미완결상으로 나누어진다. 완결상은 한 사태를 전체적인 ‘한 덩이(a single whole)’로 바라보는 태도, 곧 외부적인 관점에서 파악된다. 이와는 달리 미완결상은 상황의 내부적인 구조(internal structure)에 초점을 두고 그 위상이 어떤 모습으로 펼쳐지는지를 살피는 데서 파악된다. 여기서 어떤 한 상황을 외재적 관점(external viewpoint)으로 볼 것인지, 내재적 관점(internal viewpoint)으로 바라볼 것인지는 화자의 선택에 달려 있다.³⁶⁾ 이와 같은 사실은 다음의 예문을 통해서 설명될 수 있다.

34) 중국어의 ‘了’에 대한 논의는 추후 2.2에서 기술하기로 한다.

35) 중국어는 시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시제를 표시하는 문법적 수단이 없을 뿐이다. Comrie(1976)의 ‘시간을 표현할 수 없는 언어는 없지만, 시제를 가지지 않는 언어는 있다’를 빙증하는 의미로 중국어는 시제를 가지지 않은 언어의 하나라고 여기기도 하지만 이는 잘못된 해석이다. 중국어의 시제를 표기하는 문법적 표지가 없다는 것 일뿐 중국어의 시제는 ‘昨天(어제), 明天(내일), 那时(그때)’ 등의 명사나, ‘已经(이미), 刚刚(방금)’ 등과 같은 부사나 ‘-的时候’ 등의 어구와 같은 어휘적 요소를 사용한다.

我昨天去学校。(나는 어제 학교에 갔다.)

我明天去学校。(나는 내일 학교에 간다.)

36) 외재적 관점은 사태 외부에서 일정 거리를 두고 바라보기 때문에 전체를 한 덩어리로 바라볼 수 있어 그 사건이 완결된 것인지 미완결된 것인지를 알 수 있다. 내재적 관점은 미완결의 사태 내부로 들어가 일부분만을 부분적으로 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의 시작, 중간, 또는 모든 전 구간에서 진행되는 상황을 바라볼 수 있다.

(3) John read that book yesterday, while he was reading it, the postman came.

(Comrie 1976:16)

위의 예문에서 보는 것과 같이 상을 논함에 있어 완결상(read)과 비완결상(was reading)의 차이는 장면 사이의 객관적인 차이나 객관적 요인이 화자에 의해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동일한 화자가 동일한 장면을 관련시키는 데 우선 완결상의 형식을 사용하고 이어서 비완결상의 형식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즉 완결상과 비완결상의 선택은 전적으로 화자의 선택이며, 화자는 동일한 장면을 다른 상으로 선택할 수도 있다. 이러한 논의는 후에 Smith(1997)의 주요 쟁점으로 계승되기도 하였다. Smith(1997)에서 제시한 상 분류의 가장 큰 특징인 화자에 기반을 둔(speaker-based) 상황 유형도 이와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어휘상이란 “하나의 단어가 내포하는 상황 내면의 시간적 특성을 나타내는 부분(aktionsart)”이다. 사실 ‘*aktionsart*’는 파생동사의 형태 표지들의 분류에 사용되다가 점차 상의 부류 및 상황 유형을 포함하는 어휘상으로 확장된 용어이다.³⁷⁾ 그리고 이후 ‘기동, 진행, 결과, 반복’ 혹은 ‘동작, 상태’ 등 문장의 상적 의미를 담당하는 제반 요소를 모두 끌어들이는 것으로 확장을 겪는 자연스런 과정을 거치게 되었다. ‘*aktionsart*’가 상황유형으로 그 범위를 좁히고 관점상과 대별하게 된 것은 상대적으로 최근의 논의이지만 어휘상의 개념 없이는 문법상의 올바른 조망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어휘상은 문법상과 더불어 상 범주의 전체를 구성하는 두 부문이라고 할 수 있다. Smith(1997)의 이분론(The two component theory)은 바로 이를 지적한 것이다.

37) 슬라브어의 상 대립이 유럽어에 소개되면서 상 연구가 본격화된 것이기에 파생동사의 형태 표지를 가리키는데서 시작된 것이다.

2.3 어휘상을 구성하는 자질

어휘상의 분류는 기본적으로 각 동사가 가지는 상적 자질(aspectual feature)에 의해 파악된다. 동일한 조합으로 이루어진 동사들은 그 자질들의 공통적 특징으로 인해 통사적 결합이나 구문의 쓰임이 동일하여 같은 어휘상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어휘상의 분류에서 주로 거론되는 동사의 상적 자질에는 [상태성(static)]/[동태성(dynamic)], [완성성(telic)]/[비완성성(atelic)], [순간성(punctual)]/[지속성(durative)], [일회성(single)]/[다회성(multiple)], [동질성(homogeneous)], [자발성(voluntary)], [동작주(agency)], [결과성(resultive)], [과정성(process)] 등이 있다.³⁸⁾

위에서 열거한 것 중 기준으로 삼는 상적 자질 유형은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같은 자질을 다른 이름으로 부르기도 하고 두 개의 자질에서 나올 수 있는 자질을 통합하여 하나의 자질로 만들기도 하고, 그 반대로 한 개의 자질에서 서로 다른 두 개의 성질을 추출하여 각기 다른 두 개의 자질로 명명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상태성]은 [동작성]으로 이해되며, [자발성]은 [동작주]와 같은 의미로 쓰인다. 또한 [동작성]과 [지속성]의 두 가지 자질을 합하여 [과정성]의 자질로 명명하고, [결과성]의 자질에서 [완성성]과 [상태성]을 분리하기도 하는 등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특히 Vendler(1967) 이후 Smith(1997)로 논의가 이어지는 과정에서 [상태성]과 [과정성]은 자질이 세분화되어 최근에 하위 분류에 대한 필요성이 언급되기도 하였다.

[상태성]은 상태성의 지속성, 상태성의 정도, 상태성의 성질과 연관이 있다. 상태 동사는 본질적으로 지속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상태성] 외에 [지속성]을 가진 것과 [-지속성]인 것을 구분해야 한다. 이것은 지속의

38) 상태성과 동태성의 구분에 있어 한국어와 중국어는 상태/행위, 상태(狀態)/동태(動態), 정태(靜態)/동태(動態), 무변화/변화, 상태/과정, 상태/동작, 상태/사건 등의 구분으로 나타나며, 영어에 있어서는 stative/non-stative, static/dynamic 등의 용어가 사용된다. 용어의 선택에 있어 한국어는 [static]과 [dynamic] 모두 비교적 고른 사용빈도를 보인다. 그러나 중국어에서는 [static(靜態)]의 용어를 사용한다. 이는 관점상표지인 動態조사와의 혼동을 피하기 위한 노력으로 보인다.

정의를 무엇으로 보느냐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로 귀결된다. [상태성]은 시작과 끝이 분명하지 않고 내적 단계도 없으므로 지속성이 없다는 기준의 논의와 임의의 기간(period) 동안 모든 시점에서 사건의 전개나 행위 과정 없이 동일한 상태가 지속되는 상황이므로 지속성이 있다는 논의 모두 타당성이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반된 논의를 모두 수용할 만한 동사 분류의 필연성이 대두되고 있다.

또 다른 변화는 상태 동사의 동작성과 관련하여 상태/비상태의 이원적 구분보다는 상태성의 정도를 구분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논의는 Carlson(1981)이 상태가 시작되고 끝날 때는 움직임이 있다고 생각하여 ‘상태’와 ‘행위’의 중간 범주에 해당하는 [동작성]을 설정한 것과 관련이 있다. 이는 한국어에서 상태 동사는 “어떠한 상의 의미도 가질 수 없다.”는 본질적 정의에 상충되는 인식 동사나 심리 동사를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로 삼을 수 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를 수반하는 상태 동사의 동작성이 진행을 나타내는 ‘-고 있-’과 결합할 수 있기 때문이다.

Mufwene(1984:37-7)의 상태성의 정도를 제안한 논의³⁹⁾와 Croft(2012)의 상태의 성질에 따른 하위 분류의 필요성이 점차 심화되면서 달성 동사의 변화 과정과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달성 동사가 종결점으로 가는 과정이 ‘구분-통합-구분’의 과정을 겪었듯이 상태 동사 역시 정도에 따른 ‘구분-통합-구분’의 과정을 겪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처럼 활발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상태 동사를 진행형으로 쓸 수 있는가?”에 대해 상태성의 정도를 구분하는 기준이 모호할 수밖에 없어 일관된 해답을 제시하기 어렵다.

상태성에 관한 또 다른 논의로 [결과성]과 [상태성]의 모호한 기준을 들 수 있다. [결과성]은 [완성성]이 전제되어야만 가능한 자질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질을 가진 동사의 특징은 반드시 ‘도달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도달점에 이르는 방식이 순간적인 것도 있고, ‘과정’을 통해 도달되는 것도 있어 도달점 이후의 모습은 상태성과 구별하기가 더욱더 힘들다. [완성성]의 유무로 [결과성]과 [상태성]을 분류하는 것은 오히려

39) 상태성의 정도를 ‘고상태성(ex. contain, concern)-저상태성(ex. kick, die)’으로 구분할 수 있으므로 비슷한 정도의 상태성을 갖는 동사의 부류들끼리 상태성을 세분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도달점 전의 모습이다. 이는 [결과성]의 원형적 자질과는 오히려 거리가 있다.

[과정성]은 [지속성]과 [동태성]이 모두 관여하는 자질이다. 두 자질은 [과정성]의 필수 구성 조건인 셈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은 [동태성]의 성질에 따라 서로 다른 결론을 도출한다. [동태성]이 시간적 지속에 따라 서로 구분되는 단계(differentiated stages)가 아닌 동질적 상황의 지속이라면 상태 동사와 흡사하다. 그러나 이와 다르게 [동태성]이 일률적이지 않고 구분되는 단계를 갖는다면 이는 행위 동사나 완수 동사이다. 시간적 지속성을 가질 수는 있지만 변화가 없는 일률적 움직임을 그 동태로만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이다.

[자발성]은 인간의 의지 또는 행위라는 행위자(agent)의 개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상적 범주가 아니라서 동사의 상적 부류를 따질 때 고려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하였다(Taylor 1977:31–32). [동작주] 자질은 ‘state’와 ‘event’의 상태만 분류할 뿐 하위 분류는 모두 [durative] 자질과 연관되어 분류되기 때문이다.

어휘상의 분류 기준으로 사용되는 상적 자질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양하게 있으나 공통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해 논의가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 이에 한국어와 중국어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준 Vendler(1967)와 Smith(1997)의 어휘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어떠한 점들이 고려되어야 하는지 논의하고자 한다.

Vendler(1967)에서 제시한 어휘상 자질은 [processes], [telicity], [punctual]이다.⁴⁰⁾ 그 중 [processes]는 한국어에서는 [과정성]으로 번역되어 쓰이며 의미가 불분명하여 다양한 해석이 나왔다. [processes]가 내부 단계의 연속성이나 동질성 여부로 [지속성]과 [동작성]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짐작할 뿐이다. 따라서 [processes]로 ‘행위동사’와 ‘완수동사’, ‘달성동사’와 ‘상태동사’로 1차 분류하고, [동질성]으로 2차 분류하여 ‘행위동사’와 ‘완수동사’를 나누는 방식을 취하는 것은 아직 결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40) Vendler(1967)의 어휘상 자질인 [processes], [telicity], [punctual]과 Smith(1997)의 어휘상 자질인 [dynamic], [durative], [telic]은 학자에 따라 다르게 번역되므로 원문의 용어 그대로 사용하였다.

Smith(1997)의 어휘상은 화자의 선택에 의한 상황 맥락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상황 유형 혹은 상황상이라는 용어를 제시하였다. 여기에서의 상황 유형은 Vendler(1967)의 네 범주에 순간상(semelfactive)을 추가한 것이다. 그러나 ‘semelfactive’이라는 용어는 Smith(1997)에서 상황유형 중 하나로 등장하였지만 Comrie(1976:43)에서 어휘상의 자질인 ‘momentary’와 같은 의미로 처음 등장한 것이다. Smith(1997)의 [정체성]은 정적인 상태(stasis)와 움직임(motion)이 있는 사건을 구분시켜 주는 자질로써, 시간적 지속성을 가질 수는 있지만 변화가 없는 상황을 가리킨다.

따라서 [정체성]을 가지는 상황이 시간의 연장선에서 지속된다고 해도 그것은 동질적인 상황의 지속일 뿐이며 서로 구분되는 단계(differentiated stages)를 가지지 않는다. Vendler(1967)가 제시한 상태 상황과 비상태 상황들도 이 자질에 의해 구분하였다. [완성성]은 어떤 상황이 그 고유의 목표 지점(goal)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값이 달라진다. 이 목표 지점을 고유의 끝점(natural final point)이라고 부르며 완수 상황과 달성 상황이 이 끝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

이런 점에서 Smith(1997)의 [완성성]을 가지는 상황은 Garey(1957)의 완결상(telic situation)에 해당한다. 그러나 Smith(1997)는 [완성성]을 가지지 않는 상황들도 그것이 상태 상황이 아닌 한 끝점을 가진다는 점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다른 학자들의 상 분석과 차이를 보인다. [완결성]을 가지지 않는 상황들의 이 끝점은 상황 자체의 고유한 끝점이 아니라는 점에서 자의적 끝점(arbitrary final point)이라고 부른다.

따라서 [완결성]을 가진 상황은 그 고유의 끝점에 도달하기 전에는 완전한 상황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완결성]이 없는 상황들(즉, 행위, 순간, 상태)⁴¹⁾은 어느 시점에서 그 사건이 종료된다 해도 그 시점까지의 모습이 전체 상황의 모습으로 간주된다. 이 차이는 미완료 역설의 근본적 원인이 된다.

마지막으로 [지속성]은 말 그대로 시간의 연장선상에서 지속될 수 있는 상황과 그렇지 않은 상황을 구분시켜 준다.⁴²⁾ 이들이 사용한 자질 [상태성], [순

41) Smith(1991:30)는 [완결성]이 비상태 상황에만 적용되는 자질로 본다.

42) Smith(1991:29)는 공간 개념에서 점(point)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이상적인 개념인 것

[간성], [과정성], [지속성], [완수성] 중 [순간성]과 [과정성]은 [지속성]과 관련이 있다. [+순간성]은 [-지속성]의 의미이며, [-순간성]은 [+지속성]의 의미이고, [과정성]은 동사의 진행 과정 혹은 진행 단계를 나타내므로 이들은 모두 해당 동사의 진행형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써 동사가 지니는 상자질은 상태 변화를 가지는지의 여부, 동작이 시간의 폭을 가지는지의 여부, 동작이 종결점을 가지는지의 여부에 따라 [상태성], [지속성], [완수성]의 세 가지로 설정되었다. 이에 대한 한국어와 중국어에서의 적용 양상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Vendler(1967) 이후 동사 층위의 어휘상 연구는 한국어에서는 시상성의 자질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었다.⁴³⁾ Vendler(1967)의 동사 자질은 슬라브어와 영어의 특성에 적합한 동사의 자질이므로 국어의 시상성을 해석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단지 학자마다 조금씩 다른 자질이 추가되거나 제외되었다. 그 결과 학자마다 기준으로 삼은 상적 자질이 달라 16가지의 용어가 등장하였으나 Vendler(1967)의 기본 틀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다.

Vendler(1967)가 어휘상 분류에 사용한 자질 중 [telic]은 한국어에서 [한계성], [국시적], [완수점], [완결적], [종결성]과 동일한 개념으로 쓰였고, [punctual]은 [순간성], [일점성], [점성] 등으로 논의되고 한다. 사실 [상태성]은 Vendler(1967)가 어휘상의 자질로 꼽은 것은 아니다. 이는 Mourelatos(1978)가 ‘Actions’과 ‘States’를 [static]로 구별하면서 등장한 용어로 그 이전 [동적]과 [정적]으로 구별되던 자질이 [상태성]의 용어로 정착했음을 보여준다.

대체로 80년대 이후의 연구에서는 [상태성]과 [동태성]을 기본적 어휘상 자질로 꼽는 데는 이견이 없는 편이다. [기동성], [과정성], [운동성], [접근성] 등은 학자에 따라 하위 분류 자질로 사용되어 왔다. 이 자질들은 Vendler(1967)의 [processes]와 관련이 깊다. 이 자질에 대해서는 [기동성](황병순:1991)과 [변천성](이익환:1994)으로 나누거나, 과정성의

과 마찬가지로 시간적인 개념인 ‘순간’도 이상적인 개념이며 [지속성]이라는 자질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본다.

43) 동사층위의 자질을 다른 국내 연구는 강성진(1973), 이기동(1976), 油谷幸利(1978), 김영희(1980), 이남순(1981), 이지량(1982), 정문수(1984), 황병순(1986), 정희자(1994) 등이 있다.

반대 자질인 [균질성](김영희:1980/김웅기:1989)이라는 다른 이름을 사용하기도 한다.

기존의 동사 분류에서 사용된 [상태성], [완수성], [지속성]의 자질들에 위계성이 존재한다는 논의에는 일반적으로 다음의 위계를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상태 동사와 동작 동사를 가르는 [상태성]을 상위 자질로 하고, 동작동사를 수행동사와 행위동사로 가르는 [완수성]을 두 번째 자질로, 수행동사를 완수동사와 달성동사로 나누고, 행위동사를 전개동사와 순간동사로 가르는 [지속성]은 최하위 자질로 둔다. [상태성]을 상위자질로 두지 않는다면 대부분 [순간성]을 상위자질로 두거나, [동태성]과 [상태성]을 모두 대등한 자질로 사용하거나(이남순, 1981), [상태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김영희, 1980; 황병순, 1986).

이에 비해 중국어의 어휘상 자질의 종류는 한국어보다 단순하고 그 종류도 많지 않다. Smith(1997)의 [dynamism], [durative], [telic] 중 어떤 자질을 가장 상위 자질로 놓느냐 하는 문제일 뿐, 새롭게 등장한 楊素英(2000)의 [土時限]도 [土持續]와 동일한 설명이 가능할 정도로 유사하다. 단지 [dynamism]은 중국어로 [動態性]에 해당하나 이 용어는 ‘精態’의 반대 개념으로 혼돈을 줄 수 있고, 관점상 표지인 ‘动态助词’와의 중복을 피해 [dynamism]의 반대 개념인 [static]을 선택한 듯이 보인다.

龔千炎(1995)과 胡裕樹(1995)는 상적 자질로 [static]와 [dynamic]만 두고 동사의 분류도 ‘상태동사’와 ‘동태동사’로만 분류하고 ‘심리동사’를 ‘상태동사’류에 포함한 공통점이 있다. 특히 龔千炎(1995)은 ‘상태 동사’를 그 상태 정도가 강한 것에서부터 약한 것의 순서로 배열하고, ‘동태동사’를 시폭이 긴 것에서부터 짧은 것에 따라 동사를 배열한 것이 특이한 점이다.

Vendler(1967)가 분석한 ‘달성동사’는 [-process]와 [punctual]로 진행상으로 표현할 수 없다. 이 점은 Carlson(1981)의 ‘momentaneous’와 ‘achievement’ 가 모두 진행성에 있어서 ‘(-)자질’인 것과 동일하다. 그러나 Carlson(1981)의 ‘momentaneous’는 Vendler(1967)의 ‘달성동사’를 [punctual]의 순간과 [punctual]로 가는 과정인 [process]로 서로 분리한

것과 같다. 이러한 관점은 중국어의 陳平(1988)에 그대로 이어졌다. ‘momentaneous’를 ‘單變(simple change)’로 바꾸고, ‘achievement’는 ‘複變(complex change)’으로 용어만 바꾸었을 뿐이다.⁴⁴⁾ [punctual]는 [-static], [-durative], [-telic]로 하위분류된다. 이들은 모두 시작점과 종결점이 거의 겹치는 상황의 순간적인 변화를 겪는 동사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死(죽다)’, ‘塌(넘어지다)’, ‘打碎(깨지다)’, ‘推倒(넘어뜨리다)’ 등이 있다. [-process]는 [-static], [-durative], [telic]로 하위분류된다. 이들은 모두 하나의 동작과 그 후 동작의 결과를 표시하는 행위나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에 ‘單變’에 비해 점진적으로 변화한다.⁴⁵⁾

陳平(1988)의 체계에서는 ‘單變’과 ‘複變’은 모두 동보구조에서 출현한다. 이 둘의 차이점은 ‘單變’의 동보구조의 경우 보어 성분은 순간적인 변화를 표시하기 때문에 중간의 과도기적 단계가 출현할 가능성성이 적다. 반면에 ‘複變’의 동보구조의 경우 보어가 이것에서 저것으로, 약함에서 강함으로의 연속 과정을 포함하여 동작의 시작점과 끝점 사이에 하나의 점진적 변화 과정이 있다. 陳平(1988)에서 사용한 용어는 Vendler(1967)의 관점을 따른 Dowty(1979)의 용어로부터 영향을 받고, 분류 방식은 Carlson(1981)의 영향을 받아 다소 혼란스러운 면이 있다. 이렇듯 중국어의 어휘상 분류에는 공통되는 부분도 있지만 상이한 부분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동사구의 상적 특성을 의미적인 관점에서만 분류하는 일은 그리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객관적이기도 어렵다.

어휘상은 동사가 갖는 고유의 상적 자질에 의해서, 문법상은 일부 보조적 연결어미와 상적 기능을 갖는 일부 보조용언에 의해서 구현되지만 이들은 서로 개별적이면서도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들의 상호작용으로 문장의 상적 해석이 이루어지나 모든 언어에서 이런 구별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어휘상의 분류에서 결정적 요소로 대두되는 [완성성]은 논항이나 부사어에 의해 얼마든지 부여할 수 있으므로 동

44) 이 용어는 이미 Dowty(1977)의 ‘complex change of state’나 ‘single change of state’에서 한 차례 등장하였다. Dowty(1977)의 ‘complex change of state’와 ‘single change of state’는 Vendler(1967)의 ‘accomplishment’과 ‘achievement’와 같은 개념이다.

45) 예로 든 단어는 ‘改良(개선하다)’, ‘恶化(악화되다)’, ‘长大(자라다)’, ‘变为(변하다)’ 등의 동사가 있다.

사 자체가 본래 소유하고 있는 [완성성]과 화자의 선택에 의해 부여된 [완성성]은 차이가 없다.

이는 ‘완성’의 범주를 어디까지 한정할 것인가에 따라 [완성성(telic)]의 개념과 용어가 조금씩 다르게 사용된다. [telic]은 한국어에서는 [종결성], [제한성], [결과성], [완성성], [완결성] 등으로 쓰이고, 중국어에서는 [終止點]으로 쓰인다. 한국어에 비해 중국어의 [telic]이 복잡하지 않은 이유는 중국어 동사의 특징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중국어의 동사 구조 중 ‘동사+결과보어’가 하나의 동사처럼 쓰이는 ‘동보결구’ 구조가 많은데 이 결과보어가 동작의 완성여부를 보충해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 결과보어 구조는 동작의 완성된 결과를 명시하므로 주로 달성동사에 많이 속해 있다. 즉 동사 구조 자체로 완성 여부를 알 수 있는 구조인 것이다.

중국어의 [telic]이 간소하긴 하지만 한·중의 대조를 위해 양 언어의 [telic]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이 세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유형1: 최종점

유형2: 과정+최종점

유형3: 과정+최종점+결과

위와 같이 [telic]를 이루는 요소는 과정, 최종점, 결과이다. 구성 요소에 따라 3가지의 종류로 나뉠 수 있는데, 결여된 구성요소를 어떤 자질로 보충하는지 논의해 보도록 하자. 먼저 ‘유형1’은 최종점으로 가는 과정과 상관없이 최종점만으로 [telic]을 인정한 경우이다. 이는 Mourelatos(1978), 정문수(1984), 홍윤기(2002)에서 볼 수 있으며 중국어의 경우는 발견되지 않는다. 이 유형의 [telic]은 최종점에 이른 후 그 결과 여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결과성을 하위자질로 사용하게 된다. 특히 최종점으로 가는 과정에 대해서 홍윤기(2002)는 달성동사에서 최종점으로 가는 과정을 고려하지 않아 [-과정성]을 두었다.

‘유형2’는 최종점으로 가는 과정이 있어야 하고 그 최종점에 이르러야 [telic]으로 인정한다. 이는 Vendler(1967), Comrie(1976), 이호승(1997),

박덕유(2007), 陳平의(1988)에서 볼 수 있다. 이 과정을 포함하였기에 Vendler(1967)의 달성이 Smith(1997)에서 순간과 달성으로 나누어진 것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유형2’는 제한성이라는 용어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이는 Comrie(1976)가 Vendler(1967:102)의 ‘accomplishment’라는 용어에 상응하여 ‘제한적 장면’이라고 언급한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Comrie(1976:47)에서 “제한적인 장면(telic situation)을 나타내는 데 중요한 것은 최종점뿐만 아니라 최종점에 도달할 때까지의 과정(process)을 포함해야 한다”고 하였다. Comrie(1976)의 [제한성] 개념을 따르면 순간동사는 동작의 완성을 지닐 수 없으며 달성동사와 완수동사만이 [제한성] 자질을 갖게 된다. 이호승(1997)과 박덕유(2007)의 어휘상 분류에서 ‘유형2’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최종점 도달 이후 알 수 없는 결과에 대해서는 각각 [결과성]과 [접근성]의 하위자질로 해결하였다.

‘유형3’은 최종점으로 가는 과정이 있어야 하고, 그 최종점에 도달 후 변화된 상황이 결과로 남아 있어야 [telic]이 인정된다. 이는 Smith(1997), 옥태권(1988), 조민정(2007)에서 볼 수 있으며 본 논문의 견해와도 동일하다. 이는 ‘유형2’와 결과성을 포함하기에 별다른 하위자질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 다만 옥태권(1988)에서 사용된 [결과성]의 자질은 하위자질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telic]의 한국어 대역으로 사용된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유형1’을 사용한 경우 순간동사의 [동태성, 순간성, 종결성]과 달성동사의 [동태성, 순간성, 종결성]이 동일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정문수(1984)처럼 순간동사와 달성동사를 따로 분리하지 않고 [결과성]을 하위자질로 사용하여 세분하거나, 홍윤기(2002)처럼 결과성을 하위자질로 하여 순간동사와 달성동사를 분리하게 된다. 또한 ‘유형2’를 사용한 경우는 陳平(1988)의 ‘單變’(순간동사에 해당)과 Smith(1997)의 ‘순간동사’처럼 [비완성성]으로 본다. 과정을 포함하지 않은 최종점은 완성의 자질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처럼 [telic]은 서로 다른 의미와 용어로 사용되고 있어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이처럼 서로 다른 [완성성]을 구분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달성동사의 하위 자질인 [결과성]으로 분별하는 방법으로 최종점에 이르렀을 때 상태의 변화가 일어난 결과가 있으면 [완성성]이고, 그 결과가 없으면 [-완성성]으로 보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최종점을 임의로 끝낼 수 있는지 혹은 자연적으로 끝낼 수 있는지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다. 임의적으로 끝낼 수 있는 끝점을 ' F_{Arb} '로, 자연적으로 끝나는 동사 고유의 끝점을 ' F_{Nat} '로 구분하여 각각 [종결성]과 [완성성]의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구분에 따르면 순간동사와 달성동사의 'I = F'인 시점은 [완성성]으로 ' F_{Nat} '에 해당하고, 상태동사나 행위동사는 상황 고유의 끝점이 없어 [종결성]만 가질 뿐 [완결성]은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의 끝점은 ' F_{Arb} '에 해당한다.

그러나 두 번째 방법의 경우는 순간동사와 달성동사의 ' F_{Nat} '와 완성동사의 끝점인 ' F_{Nat} ' 구별할 수 없다는 문제가 생긴다. 이들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하위자질을 설정해야 하고, 끝점에 대해 [종결성]과 [완성성]이라는 두 가지 용어를 모두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경계성이 떨어진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적 특성으로 규정하는 자질들은 학자마다 차이가 있으나 [상태성], [완수성], [지속성] 등으로 집약할 수 있다. 이 상적 특성들의 자질 조합으로 동사는 다섯 가지로 분류된다. 어떤 동사가 동일 자질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으면 그 동사들은 같은 어휘상으로 분류된다.

제 3 장 어휘상 유형 분석과 통사적 구성 형식의 상적 의미 분석

이 장에서는 앞에서 다룬 어휘상의 개념을 토대로 [상태성], [지속성], [완성성]을 기본 상 자질로 설정하고 이들의 조합에 따른 어휘상의 유형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연구자에 따라 다른 어휘상으로 분류된 경우 그 요인이나 무엇인지, 한국어와 중국어의 어휘상은 어떻게 다른지 비교·대조하였다. 상의 실현과 관련해서 통사적 구성 형식의 상적 특성은 한국어와 중국어로 분리하여 다루었다. 이는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서로 다른 의미로 쓰인 부분이 있어 오해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3.1 한·중 어휘상 유형 분석

3.1.1 상태동사

상태란 사건의 전개나 행위가 발생하는 것이 아닌 지속되거나 안정적으로 존재하는 상황이다. 즉 상태동사들은 상태의 지속을 위한 특별한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고 시간에 따라 변화하거나 발전하지도 않아 내부단계가 동일하다. 이들의 시간구조 도식은 다음 <그림3>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⁴⁶⁾

<그림3> 상태동사의 시간 도식(Temporal Schema)



<그림3>의 시간 도식 TS에서 실선 ‘—’은 전체 시간 구간을 T라 했을 때

46) 본고의 어휘상 시간 도식은 Smith(1997)과 이호승(1997)의 도식을 참조하여 본고의 논지에 맞게 재구성한 것이다.

상태동사가 가지는 [상태성], [지속성]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 기간 내의 모든 시점(period)에서 이를 구성하는 T_1 , T_2 , $T_3\dots T_n$ 이 모두 동질(homogeneous)의 상태를 유지함을 의미한다. 이 상태는 어떠한 변화나 움직임도 수반하지 않아 구분되지 않는 국면(undifferentiated phase)이다. 이에 임의의 어떤 두 지점을 비교해도 그 성격이 동일하고 다른 외부의 힘이 투입되지 않는다면 동일한 상태는 무한정 계속된다(Comrie 1976:49). 시작점(Initial point)과 최종점(Final point)이 팔호로 표시된 것은 시간 구분이 없는 연속선상에 있기 때문에 시작과 최종점이 분명하지 않다는 의미이다.⁴⁷⁾ 시작점과 최종점이 분명하지 않지만 [지속성]인 것은 T_1 이 시작점이고 T_n 이 최종점이 아니라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⁴⁸⁾

일반적으로 상태동사는 한국어에서는 ‘상태용언’, 중국어에서는 ‘상태술어’란 이름으로 동사와 형용사를 모두 포함한다. 한국어에서 동사와 형용사는 모두 동사류에 속하는 품사들로 한국어의 동사와 형용사는 사실상 기능이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이를 동사로 통칭하기로 하겠다(고창수, 김원경 2010:46-47 참조). 중국어 학계에서는 품사의 분류상 ‘겸류사(兼類詞)’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연구자에 따라 경계에 있는 어휘들을 동사로 분류하기도 하며 형용사로 분류하기도 하지만 전통적으로 심리형용사를 심리동사에 포함된 범주로 본다(揚華, 1994:33-36).⁴⁹⁾

47) ‘Initial point’는 별다른 논란의 여지 없이 ‘시작점’으로 사용되지만, ‘Final point’는 ‘종결점’, ‘끝점’, ‘완성점’, ‘목표점’, ‘결속점’ 등 다양하게 사용된다. [종결성]과 [완성성]이 동일하지 않은 개념으로 쓰이는 추세이므로 이들과 혼동을 야기시키는 ‘종결점’과 ‘완성점’을 피하기로 한다. 본고에서는 ‘끝점’과 유사한 용어이지만 ‘과정상’의 의미가 포함된 ‘최종점’을 ‘Final point’의 대역으로 사용하기로 한다.

48) [지속성]은 시작점과 최종점 사이의 시간적 폭을 가지고 있는가의 유무로 결정된다. 이에 시작점과 최종점 자체가 없는 상태동사가 지속성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의견은 학자마다 다르다. 이은수(2009:19)는 “상황이 지속적이기 위해서는 어떤 지속 구간을 상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중국어의 상태동사는 지속 구간을 덧붙이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이유를 들어 [-지속성]이라고 하였다. 또한 상태동사가 최종점은 없더라도 상태 이전의 상황에서 T_1 으로의 진입 시점을 의미하므로 시작점은 있다는 의견도 있다. 본고는 Smith(1997:32)의 상태동사 개념을 따르기로 한다. 이에 따르면 상태동사는 시작점과 최종점에서 일어나는 변화의 순간들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상태동사의 시작점과 최종점은 수의적이다.

49) 겸류사(兼類詞)는 중국어에서 두 가지 이상의 품사를 기능하는 단어들의 부류이다. 겸류사는 하나의 단어가 형태표지나 형태 변화 없이 문장 안에서 어휘의 배열에 따라 명사가 되기도 하고 동사나 형용사로 품사가 바뀔 수 있다. 중국어의 형용사는 목적어(宾语)를 동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일부 속성 혹은 성질 형용사는 동태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동사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 목적어를 동반할 수 있으므로 ‘동사’가 될 수 있다. 이런 류의 목적어를 가지고 오는 형용사는 형용사와 동사의 기능을 다 가지고 있으므로

한국어 연구에서는 소유주 계열의 속성 형용사만 상태동사로 인정한 경우는 이지량(1982), 옥태권(1988), 박덕유(2006) 등 소수이고 그 외 대부분은 소유주 계열의 속성형용사와 경험주 계열의 감각·심리형용사를 상태동사의 범주에 포함시켰다.⁵⁰⁾

이에 비해 중국어의 연구에서는 한국어에서는 상태동사로 인정하지 않는 동사들까지 상태동사에 포함시킨다.⁵¹⁾ 馬慶株(1981)에서는 ‘挂(걸다), 贴(붙이다), 穿(입다)’ 등을, 陳平(1988)에서는 ‘坐(앉다), 站(서다), 睡(자다), 躺(눕다)’ 등을, 巖千炎(1991)에서는 ‘贴(붙이다), 坐(앉다), 穿(입다)’ 등을, 胡裕樹(1995)에서는 ‘坐(앉다), 站(서다), 住(살다)’ 등을 제시하였는데, 이들은 자세동사나 위치동사에 해당한다. 자세동사나 위치동사를 상태동사에 포함한 경우는 대체로 동사를 ‘靜態性’ 동사와 ‘動態性’동사로 1차 분류한 연구에서 찾아볼 수 있다. 통칭하여 자세동사(atance verbs)로 불려지는 이들은 영어의 자세동사인 ‘stand, sit, lie, live’ 등이 일시적인 상태를 표시하는 진행형에 쓰이는 것과는 달리 진행형과는 결합하지 않는다(Quirk 외, 1985:205). 한국어에서는 자세동사나 위치동사가 상태동사로 분류된 경우는 거의 없다.

상태동사에서 가장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인식류’ 동사에 대해서 Vendler(1967)는 ‘know, believe’를 상태동사로, ‘recognize’는 달성동사로 분류하였다. ‘recognize’를 달성동사로 분류한 것은 [과정성]을 들어 상태동사로부터 분리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Smith(1997)은 ‘believe’를 상태동사로, ‘recognize’는 ‘달성동사’로 분류하였다. Vendler(1967)와 Smith(1997) 모두 ‘recognize’를 모두 달성동사로 분류한 가장 큰 이유는 상황이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바뀌는 ‘과정의 변화’를 의미 있게 다룬 것이라 할 수 있다.

겸유사(兼类词)라고 한다.

50) 어휘상의 분류에 있어 한국어는 김영희(1980), 이남순(1981), 이지량(1982), 정문수(1982), 옥태권(1988), 정희자(1994), 이호승(1997), 홍윤기(2002), 박덕유(2006), 조민정(2007), 김천학(2007)를 논의 대상으로 하였다. 본고는 이들이 제시한 상태동사를 김건희(2011)의 형용사 분류에 따라 술어의 의미가 아닌 주어를 기준으로 경험주 계열과 소유주 계열로 1차 분류하고 각각을 감각·심리와 성질·형상·평가로 2차 분류한 분류법을 참조하여 상태동사를 세분하였다.

51) 어휘상의 분류에 있어 중국어는 馬慶株(1981), 鄧守信(1986), 陳平(1988), 郭設(1993, 1997), 楊素英(1995), 巖千炎(1991, 1995), 胡裕樹(1995), 孫英傑(2007)을 논의의 대상으로 하였다.

반면에 한국어와 중국어에서는 ‘상태동사’로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알다’와 ‘믿다’에 대해 이남순(1981), 이지량(1982), 박덕유(2006)은 상태동사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며 다른 연구자는 이를 단어에 대한 언급이 없다. 이남순(1981)과 이지량(1982)는 어휘상의 분류에 있어 동사류의 명칭을 정하지 않고 A류, B류…D류 등으로 구분하였으나 제시된 단어로 보아 ‘인식동사’로 파악되며, 박덕유(2006)은 ‘심리동사’ 부류에 포함시켰다. 이에 해당하는 중국어 ‘知道, 认识’를 상태동사로 분류한 연구는 郭設(1995), 胡裕樹(1995), 巍千炎(1991) 등이 있다. 그러나 연구자에 따라서는 ‘순간동사’나 ‘달성동사’로 분류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차이는 상태동사로 분류한 경우는 인지되는 순간, 즉 그 시작이 느껴진다고 해도 인식된 다음 그 상태가 지속되므로 비완성성에 의미를 두었고, 달성동사로 분류한 경우는 인지되는 그 순간의 장면의 변화에 의미를 둔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과연 어느 어휘상으로 귀속될지는 결합 제약에서 밝히기로 한다. 상태동사의 목록에서 ‘알다’류는 [지속성]을 중심으로 한국어에서 [상태성, 지속성]과 [상태성, 비지속성]으로 나누어 심리동사로 별도로 구분하는 경우가 있다. 중국어 역시 [지속성]을 중심으로 ‘영구상태’ 동사와 ‘균질 지속’ 동사로 구분하기도 한다.

이러한 논점을 바탕으로 형용사를 상태동사의 범주에 포함하여 의미 기준에 따라 세분하면 아래와 같다.⁵²⁾

- (1) 가. 높다(高), 붉다(紅), 길다(長), 크다(大), 깨끗하다(干净)
나. 아프다(痛), 쑤시다(刺痛), 가렵다(痒痒), 결리다(胀痛), 시리다(冻), 싫다(讨厌), 좋다(喜欢), 무섭다((怕), 낯설다(陌生), 낯익다(面熟), 젊다(年轻), 늙다(老), 새롭다(新), 오래다(久)
다. 알다(知道). 믿다(相信)
라. 이다(是), 있다(有), 있다(在)

(1)은 시간적인 변화를 하지 않고 움직임도 없는 상태동사이다. (1가)

52) 상태동사의 분류 중 (1가)와 (1나)에 해당하는 형용사의 개념과 논항에 관한 이론적 배경은 김건희(2011)을 참조하였다.

의 상태동사들은 어떤 대상의 외형적 형상이나 고유한 속성 등 변화와 무관한 항구적인 성질을 나타낸다. (1나)의 상태동사들은 감각이나 주관적 심리상태를 나타낸다. (1가)와 (1나)의 가장 큰 차이점은 주어 논항의 의미으로 (1가)의 주어는 소유주이고, (1나)의 주어는 경험주라는 점이다.

(1나)의 단어들은 대상논항에 따라 감각 상태동사와 심리 상태동사로 세분한다. 감각 상태 동사와 심리 상태동사의 공통점은 경험주가 주어논항으로 온다는 것이다. 차이점은 감각 상태동사는 신체부위가 대상논항으로 오고, 심리상태동사는 심리상태를 유발하는 원인논항을 취한다는 점이다(김건희 2011:116). 이 부류는 심리상태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이 동사로 총칭되고, 구문론적 특성에서 동사와 유사한 점이 있더라도 과정이나 행동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타의 동사와는 그 성격이 분명히 다르다.

(1다)류는 인식동사로 사물을 분별하고 이해하는 지적 작용에 해당한다. 이 부류는 연구자마다 용어가 달라 ‘심리동사’, ‘인식동사’, ‘지적 활동동사’ 등의 명칭으로 불리고, 그에 따라 해당 단어의 목록도 조금씩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인식 동사류의 단어는 중국어에서 거의 상태동사로 취급하지만 한국어는 상태동사나 달성동사로 보기도 한다. 서정수(1994)는 이 부류의 단어를 ‘-고 있-’과 결합해도 상태적인 의미만을 갖기 때문에 [상태성]동사로 분류하고 심리동사라 하였다. 이익환(1994)에서 ‘알다, 생각하다’는 [-행위], [-과정], [-변천]의 자질에 의해 상태동사로 파악했다.

(1라)는 계사(copula)로 독자적으로는 의미가 없으나 명령형이나 청유형 어미를 취하지 못한다는 점이나 ‘-다’와 ‘-는’과 같은 어미를 취한다는 점에서 형용사에 가깝다. 형용사의 의미 속에는 기본적으로 ‘있다’가 나타내려고 하는 ‘존재성’과 ‘진행 상태성’이 함의되어 있기 때문에 ‘있다, 없다’를 상태동사에 포함한 경우는 이남순(1981), 박덕유(1997)에서 볼 수 있고, ‘있다’만을 상태동사에 포함한 경우는 정문수(1984), 옥태권(1988), 정희자(1994) 등이 있다.

‘-이다’를 상태동사에 포함한 경우는 이남순(1981), 이호승(1997), 흥윤기(2002) 등을 들 수 있다. 중국어에서 ‘이다, 있다’에 해당하는 ‘是,

有, 在’는 모두 목적어를 취할 수 있으므로 형용사가 아닌 동사로 간주한다(이설 2013:67). 그러나 이 동사들은 일반적인 동사로 간주하기에는 몇 가지 큰 특징을 가지고 있다. 가장 큰 특징으로는 이들이 취할 수 있는 목적어는 일반 목적어와는 달리 관계목적어(關係賓語)를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⁵³⁾ 또한 중첩형식을 취할 수 없다는 점, 보어를 동반할 수 없다는 점, 일반적으로 명령문의 술어를 충당할 수 없다는 점 등이 일반적인 동사와 다르므로 이들의 결합 제약도 다른 양상을 보인다. 상태동사로 분류되는 것 중에서 위에서 제시된 것 이외에 한국어와 비교하여 결합제약을 살펴볼 만한 것으로는 陳平(1988)의 ‘属于’, ‘姓’, ‘等於’, 胡裕樹(1995)의 ‘姓’, ‘等于’, 龔千炎(1995)의 ‘姓’, ‘属于’, 孫德金(2002)의 ‘姓’, ‘叫’ 등이 있다. 이러한 동사들도 (1라)류의 동사류와 동일한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상태동사의 [상태성]에 대한 논의는 한국어에 비해서 중국어는 비교적 간결하다.⁵⁴⁾ 중국어의 상태성은 [-동태성]을 함의하여 대립자질로 보지만, 한국어의 상태성은 [-동태성]을 함의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부분에서 달성동사와 상태동사의 분류에 연구자마다 다른 결론이 도출되고, 어휘상에서 심리동사의 상태동사로부터의 독립이나 이행동사 등의 문제가 거론된다. (1)과 관련되어 언급된 동사들이 결론적으로 통사적 구성 형식과 결합하여 어떤 상의 모습으로 실현될지 4장에서 상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53) 관계목적어(關係賓語)는 일반목적어인 대상목적어나 행위자목적어 이외에 술어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목적어이다. 관계목적어를 가지는 것은 일반적으로 판단·존재 등의 의미를 나타내는 비동작동사이다(蘭賓漢 2009:322 참조).

54) 용어 사용에 있어서도 한국어는 상태/행위, 상태(狀態)/동태(動態), 정태(靜態)/동태(動態), 무변화/변화, 상태/과정, 상태/동작, 상태/사건 등의 구분으로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비해 중국어는 주로 [靜態]의 용어를 사용한다. 이는 관점상 표지인 ‘動態조사’와의 혼동을 피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여러 면에서 중국어의 상태성보다 한국어의 상태성이 다소 복잡한 양상을 보인다.

3.1.2 순간동사

순간은 ‘단일 사건(a single-stage event)’이 순식간에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순간 동사는 아주 짧은 시간에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사태로 시작과 동시에 끝이 나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이 동사는 내부구조를 가질 수 없어 예비단계의 과정이나 결과단계도 없고 상태의 변화도 내포하지 않는다. 이들의 시간 구조 도식은 다음 <그림4>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그림4> 순간동사의 시간 도식(Temporal Schema)



<그림4>의 시간 도식 TS에서 전체시간 구간을 T라 했을 때 순간동사구가 가지는 [동태성], [비완성성], [순간성]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⁵⁵⁾ [동태성]은 이 상황이 움직임이 있는 변화를 가지고 있으며, [비완성성]은 최종점에 이르는 과정과 최종점 도달 후 변화된 결과가 남아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 [순간성]은 이 변화가 매우 짧은 한 순간에 완성된다는 의미이다. 시작점 ‘I’와 최종점 ‘F’가 겹쳐 있는 것은 동시에 발생한 단일 사건 ‘E’를 표시한 것으로, 이 때 ‘F’는 자연적(natural)으로 완성된 것이므로 ‘F_{Nat}’로 표시한다. 순간동사의 자질이 [동태성], [순간성]이라는 것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으나 [완성성]은 그

55) [telic]이라는 용어는 Garey(1957)가 처음 사용한 용어로 고대 그리스어 télos(end)의 의미로 썼다(Comrie 1976:44). Comrie(1976:44)는 [telic]과 [atelic]의 용어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 (1) make a chair.
- (2) sing.

(1)은 [telic]의 장면이다. 의자가 완성되지 않고 중간에 중지되면 ‘의자를 만들었다’고 할 수 없다. ‘의자를 만들다’는 문장에 의해 기술되는 장면은 의자가 완성되는 최종점이 있어서 그때 의자를 만드는 장면은 자동적으로 끝난다. 반면에 (2)는 [atelic]인 장면이다. ‘노래를 하다’라는 장면은 최종점이 없어, 언제라도 중단될 수 있고, 언제라도 노래를 그만둘 수가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telic]에 의해 기술되는 장면을 ‘제한성’, [atelic]에 의해 기술되는 장면은 ‘비제한성’이라 하였다.

범주를 어디까지로 정하느냐에 따라 (+)와 (-)값이 결정된다. [완성성]의 범주를 ‘최종점으로 가는 과정과 최종점 도달’까지로 한정한다면 순간동사의 자질은 [완성성]이 된다. 이호승(1997), 박덕유(1997), 홍윤기(2002)의 경우가 그러하다. 그러나 [완성성]의 자질 범주를 ‘목표점 도달 후 상태변화가 결과로 남는다’로 정하는 관점은 이때 순간동사의 자질은 [비완성성]이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완성성]의 범주는 옥태권(1988)과 조민정(2007)에서 볼 수 있다. 이처럼 [완성성]은 연구자에 따라 해당 범주가 조금씩 다르고, 이에 따라 사용하는 용어와 그 의미가 조금씩 다르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본고는 [완성성]의 자질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완성성(telic)]: 조건1. 최종점으로 가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

조건2. 최종점 도달 후 변화된 상태가 결과로 남아 있어야 한다.

이 두 개의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예를 들면 최종점으로 가는 과정이 없거나, 혹은 변화된 결과가 남아 있지 않다면 [비완성성(Atelic)]으로 간주한다. 그러므로 (9)의 정의는 [완성성]을 최종점을 향해 가는 과정과 최종점만을 이르는 Comrie(1976)의 [telic]과는 ‘도달 후 결과’가 남아야 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이러한 정의에 의해서 [완성성]과 관계되는 다음의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한다.

첫째, 순간성의 성질은 무엇인가?

둘째, ‘I = F’는 완성성인가?

첫째, 순간성의 성질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순간’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여야만 한다. 순간동사는 ‘시작점’과 ‘최종점’이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I’와 ‘F’로 표시되고, 최종점은 자의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동사에 내재된 본유적인 것이므로 ‘ F_{Nat} ’가 된다.⁵⁶⁾ 순간 발생이므로 두 점이 겹쳐 있는

56) 본유적인 최종점(F_{Nat})이란 동사구의 어휘 의미 자체가 가진 최종점을 의미한다. 이에 비해 임의적인 최종점(F_{Arb})은 행위의 주체가 자의적으로 끝낼 수 있는 점으로 ‘T선’ 상의 임의의

‘I = F’인 시점이 곧 사건 발생 ‘E’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순간성]에 관한 개념은 대부분 동일하지만 해당 단어 목록에는 차이가 있다. 이는 동작의 진행단계에서 ‘I = F’의 순간 자체를 독립적인 하나의 단계로 보느냐, 다른 단계와 함께 다루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다른 단계와 함께 다룰 때에도 ‘I = F’ 이전의 ‘예비단계’와 함께 다루느냐 아니면 ‘I = F’ 이후의 ‘결과단계’와 함께 다루느냐에 따라서도 해당 용례는 달라진다.

어휘상으로서의 ‘순간동사(semelfactive)’는 Smith(1991)의 어휘상에서 처음 등장하지만, ‘순간(instant)’이라는 용어는 Vendler(1967)가 달성’의 시간 범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미 등장하였다.⁵⁷⁾ Vendler(1967)가 사용한 ‘순간’은 ‘행위동사’와 ‘달성동사’를 구분하는 기준이었기 때문에 최종점으로 가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다.(Vendler 1967:106 참조). 기준의 Vendler(1967) 어휘상의 분류법인 ‘진행형의 가능성 유무’로 1차 분류하여 달성동사와 상태 동사를 한 부류로 묶고, 활동동사와 완수동사를 한 부류로 분류하는 분류법을 따른다면 이 부분을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본고에서 제시한 Vendler(1967) 분류법에 따라 달성동사는 [process]를 지닌 상태에서 [-telic] 과 [punctual]에 의해 2차 분류한다. 그러므로 Vendler(1967)의 순간을 향하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Comrie(1974:41)에서는 비완결성(imperfective)과 지속성에 대해 언급하며 비완결상은 아니지만 지속상인 경우를 예를 들며 “점성(punctual)은 시간적으로 계속되지 않고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장면을 의미한다. 점성인 장면(punctual situation)에는 어떠한 지속(duration)도 없으므로 비완결상과 함께 쓸 수 없다”라고 하였다. 즉, 점성과 대립되는 것이 지속성임을 밝혔다. 이러한 논의를 종합해 보면 Vendler(1967)의 ‘달성동사’가 가지고 있는 ‘예비단계+순간(the time instant)’과 Comrie(1976)

단계가 되며 그 점이 최종점이 되는 것이다. Comrie(1967:44)의 예문으로 예를 들면, ‘sing’의 종착점은 F_{Arb} 이고, ‘make a chair’의 종착점은 F_{Nat} 이다. ‘sing’은 시작한 지 5분 만에 끝낼 수도 있고, 1시간만에 끝낼 수도 있다. 이때 5분이든, 1시간 이든 끝나는 점 F는 임의적이나마 F_{Arb} 가 된다. 반면에 ‘make a chair’는 ‘chair’가 다 만들어진 지점이 F_{Nat} 가 된다.

57) Vendler(1967:106)에서 “달성은 ‘A가 t_1 과 t_2 사이의 경기에서 이기다’는 A가 t_1 과 t_2 사이의 경기에서 이긴 그 순간(the time instant)을 의미한다”라고 하였다.

의 ‘점성((punctual)’이 함의하고 있는 ‘순간’의 개념이 Smith(1991)에서 ‘달성동사’와 ‘순간동사’로 분리됨을 알 수 있다. 아래의 예로 확인해 보자.

(2) Vendler(1967), Comrie(1976), Smith(1991)의 순간의 양상

가. Vendler(1967)의 순간(instant)

달성동사(achievement): [Process], [Atelic], [Instant]

recognize/realize/spot/identify something,

lose/find an object, reach the summit, win the race,

cross the border, start/stop/resume something, be born

나. Comrie(1976)의 점성(punctual): [Dynamic], [Punctual]

cough, flash

다. Smith(1991)의 순간(instantaneous)

-순간동사(Semelfactive): [Dynamic], [Atelic], [Instantaneous]

knock at the door, hiccup, flap a wing

-달성동사(achievement): [Dynamic], [Telic], [Instantaneous]

leave the house, reach the top, recognize Aunt Jane

위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2가)의 Vendler(1967) 분류의 달성동사에서 보이는 ‘순간(instant)’은 최종점에 해당하며 그 최종점으로 가는 과정은 있으나 목표점 도달 이후 결과상태가 남지 않아 [Atelic]이다. (2나)의 Comrie(1976) 분류의 ‘점성(punctual)’은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장면으로 아주 짧은 지속도 없어 내부구조를 가질 수 없다. (2다)의 Smith(1991) 분류는 Vendler(1967)의 달성동사에서 ‘순간’과 ‘과정’을 분리하였음을 알 수 있다. Smith(1991)의 순간동사는 Comrie(1976)의 ‘점성(punctual)’과 유사하고, 달성동사는 Vendler(1967)의 달성동사에서 보이는 ‘과정’과 닮아 있다. ‘recognize’와 ‘reach’ 모두 달성동사의 범주에 포함된 것으로 증명된다.

명된다. 단지 Vendler(1967)의 달성동사와 다른 점은 두 연구자 모두 순간을 중심으로 한 과정을 중시한 것은 동일하다. 그러나 중시했던 과정은 동일한 부분이 아니다. Vendler(1967)는 ‘E’ 이전 단계인 ‘예비단계’를 필수 요소로 보았고, Smith(1991)는 ‘E’ 이후 단계–상태변화가 초래된–의 ‘결과단계’를 필수 요소로 보았다.

그렇다면 Smith(1991)는 ‘E’ 이전 단계에 대해서는 어떤 태도를 보였을까? 위에서 제시한 그의 달성동사 목록을 보면 예비단계가 있는 것(reach, recognize)과 없는 것(leave)이 같이 제시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예비단계는 수의적이라 보았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다양한 양상의 ‘순간’ 중에서 어떤 ‘순간’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순간동사에 해당하는 단어의 목록이 영어, 한국어, 중국어가 조금씩 다르다. 한국어의 [순간성]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두 가지 종류의 순간성이 존재한다. 결국 국어의 [순간성]의 차이는 Comrie(1976)의 ‘점성적’ [순간성]과 Vendler(1967)의 ‘달성적’인 [순간성]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 둘의 결정적 차이는 예비과정을 포함하는지의 여부와 관련된다.

Comrie(1976)의 ‘점성적’ [순간성]은 홍윤기(2002:166)에서 “순간동사의 ‘I = F’는 예비적 단계와 결과단계가 없으며 내부단계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이에 비해 Vendler(1967)의 ‘달성적’ [순간성]은 ‘I → F’로 향해가는 예비단계에 중점을 둔 경우로 김영희(1980)과 박덕유(2007) 등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예비단계를 김영희(1980)은 [예비성]이라 칭하고 ‘달성동사’로 분류하여 ‘순간동사(김영희(1980)의 용어로 순발동사)’와 구별하고, 박덕유는 [접근성]이라 칭하고 ‘이행동사’로 분류하여 ‘순간동사’와 구별하였다.⁵⁸⁾

58) <표4> 순간동사와 달성동사의 ‘순간’의 양상
‘순간동사’와 ‘달성동사’의 의미를 지닌 개념을 논의한 선행 연구는 다음과 같다.

| | 순간동사 | 달성동사 |
|-----------|---|--|
| 김영희(1980) | 순발동사: I = F (깜박하다, 움직히다) | 달성동사: ...P...E (맺다, 서다, 치다, 켜다) |
| 홍윤기(2002) | 순간동사: I = F (가슴이 철렁하다, 눈을 깜박거리다, 그가 기침을 하다, 재채기를 하다) | 성취동사: ...P...E...R... (기차가 도착하다, 때가 옷에 묻다. 잘못을 깨닫다, 커피를 옷에 쏟다.) |

두 번째 문제는 ‘I = F’의 순간을 ‘완성점’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이다. 이는 순간 발생한 사건이므로 ‘I = F’인 순간동사구의 ‘F’를 과연 ‘완성점’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다.

Smith(1991)의 순간동사는 [동태성, 비완성성, 순간성], 달성동사는 [동태성, 완성성, 순간성]으로 구분했다. 이는 [완성성] 여부로 순간동사와 달성동사를 구분한 것으로 끝점만을 표시하는 순간성([punctual])은 끝점에 이르는 과정과 끝점을 모두 표시하는 [완성성]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다고 설명했다.⁵⁹⁾ 이것은 Smith(1991)가 최종점 이후 변화된 결과를 가져야만 [완성성]으로 인정한 것으로 순간동사의 ‘F_{Nat}’는 [비완성성]으로, 달성동사의 ‘F_{Nat}’는 [완성성]인 것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한국어에서는 조민정(2007)은 순간동사구의 ‘I = F’인 순간의 ‘F’를 [완성성]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비해 이호승(1997), 박덕유(2007), 홍윤기(2002) 등에서는 [완성성]으로 인정하였다. [완성성]으로 인정하였다 는 것은 [완성성]으로 가는 과정이 순간적이긴 하지만 과정으로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이호승(1997)은 과정동사, 즉 행위동사로 보았다. 박덕유(2006)에서는 ‘I → F’로 가는 예비과정을 이행동사, ‘I = F’을 순간동사로 분리하였다. 홍윤기(2002)에서는 [완성성]으로 인정하긴 하였으나 ‘I = F’로 가는 예비적 단계도 없고, 결과 단계도 없으며 내부 단계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순수한 의미의 일정한 순간만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 | | |
|-----------|--|--|
| 박덕유(2007) | 순간동사: I = F (뛰어오르다, 깜박이다, 기침하다, 두드리다, 때리다, 땀꾹질하다 등) | 이행동사: I → F (도착하다, 착륙하다, 다치다, 멈추다, 잃다(물건), 빠지다(의사하다), 죽다 등) |
|-----------|--|--|

위의 표에서 박덕유(2007)은 기존의 달성동사에 해당하는 어휘상을 순간동사와 이행동사로 분리한 것을 설명의 이해를 돋기 위해 이행동사를 달성동사의 범주로 포함시킨 것이다.

59) Smith(1991)에 의하면 [punctual] 동사는 최종점(goal)만을 포함하고, [telic] 동사는 최종점뿐만 아니라 최종점에 이르는 과정까지 포함하므로 두 개념은 분명히 구분된다. 다음 예문을 보면 최종점과 최종점에 이르는 과정이 구분됨을 알 수 있다.

- (a) He worked on a poem,
- (b) He completed a poem.
- (c) He wrote a poem.

즉, (a)는 [atelic]으로 최종점에 이르는 과정만을 표시하고, (b)는 [punctual]으로 최종점만을 표시하고, (c)는 [telic]으로 최종점에 이르는 과정과 최종점을 모두 표시한다.

중국어에서 순간동사는 陳平(1988)의 ‘單變(simple change)’에서 볼 수 있다.⁶⁰⁾ 陳平(1988)의 單變(simple change)은 순간동사로 Carlson(1981)의 순간동사인 ‘momentaneous’과 흡사하다. Carlson(1981)은 Vendler(1967)의 달성동사를 순간점과 예비단계로 구분하여 순간동사(momentaneous)와 달성동사(achievement)로 분류하였기 때문에 그 계보를 거슬러 올라가면 陳平(1988)의 單變(simple change)과 複變(Complex change)은 Vendler(1967)의 달성동사에서 갈라진 것이다.

陳平(1988)은 순간동사(單變)로 순간적으로 실현되는 동사나 일부 동보구조동사 등을 포함한 ‘爆炸(폭발하다), 跌倒(넘어지다), 找到(찾아내다), 眨眼(눈을 깜빡이다)’ 등을 예로 들었다. 이 중 ‘找到(찾아내다)’는 陳平(1988)에서 ‘V1+V2’ 동사(動動結構)로 보았는데, 王雪량(2012:55)은 합성동사(合成動詞)로 보고 ‘打破(깨다), 推倒(무너뜨리다), 掀翻(뒤집다), 看见(보이다), 听见(들리다), 遇见(마주치다)’ 등을 같이 달성동사에 포함시켰다. 이들은 대부분 결과보어 구조로 달성동사가 완성점 도달 이후 결과단계를 결과보어와의 관계와 연관지을 수 있다.⁶¹⁾

龔千炎(1995)은 동태성(動態性) 동사를 그 지속의 길이에 따라 긴 것에서부터 짧은 것의 순서로 배열하였다. 순간동사는 지속의 길이가 가장 짧은 단계인 非持續이다.⁶²⁾ 해당하는 단어로는 ‘死(죽다), 塌(넘어지다), 倒(뒤집히다), 醒(잠에서 깨다), 炸(폭발하다), 完(끝나다), 离开(떠나다), 达到(도달하다), 开始(시작하다), 停止(멈추다)’ 등이 있다. 胡裕樹(1995)에서는 순간을 동작성 순간인 ‘踢(발로 차다), 吹(입으로 불다), 碰(부딪치다), 咳嗽(기침하다)’과 결과성 순간인 ‘死(죽다), 爆炸(폭발하다), 醒(잠에서 깨다), 见(만나

60) 陳平(1988:407)은 [靜態], [持續], [完成]에 따라 행위동사(活動), 완성동사(完遂), 순간동사(單變, Simple change), 달성동사(複變, Complex change), 상태동사(狀態)로 분류하였다.

61) 최규발·조경환(2010:1)에서는 “중국어의 VC(Verb Complement)를 크게 RVC(Resultative Verb Complement: 결과보어), DVC(Directive Verb Complement: 방향보어), PVC(Phase Verb Complement: 형세보어)의 세 종류로 나눌 수 있다”고 하였다. 이 중 결과보어 구조는 어법 기능상 ‘술어+보어’ 구조(述補結構)가 하나의 동사처럼 쓰이며 결과보어는 형용사인 것도 있고 동사인 것도 있다.

62) 龔千炎(1995)은 동사를 크게 정태(靜態)와 동태(動態)로 1차 분류하였다. 정태(靜態)는 정태성(靜態性)의 정도에 따라 ‘最具靜態－次靜－靜中含動’으로 나누어 각각 ‘關係동사－心態동사－狀態동사’로 배열하였다. 동태(動態)는 시간의 장단(長短)에 따라 ‘無限持續－有限持續－非持續’으로 나누어 각각 ‘동작행위·심리활동·동작동사－종결동사－순간동사’로 배열하였다.

다)’으로 나누었다.

이러한 분류 방법은 Vendler(1967)의 달성동사를 순간으로 가는 예비과정과 일점의 순간으로 나눈 것과 비슷하다.⁶³⁾ 孫德金(2002:372)에서는 순간동사로 ‘爆炸(폭발하다), 塌(넘어지다), 塌方(붕괴되다), 丢(던지다), 丢失(잃다), 破(깨지다), 坏(고장나다), 灭(불이 꺼지다), 跌到(넘어지다), 下班(퇴근하다), 出院(퇴원하다), 断(자르다), 折(꺾다), 倒(뒤집히다), 完(끝나다), 牺牲(잃다), 离开(떠나다), 到达(도달하다), 结束(끝나다), 停止(멈추다), 终止(마치다), 开始(시작하다), 看见(보이다), 发现(발견하다), 见到(만나다)’ 등을 들었는데 이들 역시 陳平(1988)의 견해와 유사하게 순간적으로 실현되는 동사이다.

그러나 이들 중에는 상당수의 동보구조 동사들이 포함되어 있다. 陳平(1988)의 ‘找到’나 孫德金(2002)의 ‘跌到, 看见, 见到’ 등이 순간동사에 포함되는 것은 결과보어 구조가 달성동사의 목록에 포함되는 일반적 분류와 차이가 있다. 결과보어 구조가 연구자에 따라 순간동사에 포함되기도 하고, 달성동사에 포함되기도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논의할 만하다. 이 역시 결합제약에서 살펴보도록 한다.

이러한 논점을 바탕으로 순간동사를 의미 기준에 따라 세분하면 아래와 같다.

- (3) 가. 반짝이다(閃灼), 깜박이다(稀朗), 출렁이다(翻涌), 펼력이다(招展), 움찔하다(抽搐), 기침을 하다(咳嗽), 재채기를 하다(打噴嚏), 딸꾹질을 하다(打嗝)
- 나. 폭발하다(爆炸), 뛰어오르다(跳跃), 때리다(打), 꼬집다(掐), (공을)차다(踢球), 쏘다(射), 두드리다(敲打), 던지다(扔)
- 다. 도착하다(到达), 착륙하다(着陸), 이륙하다(起飞), 멈추다(停), (식량이)떨어지다(斷糧), (얼음이)녹다(冰化)

63) 胡裕樹(1995)는 동사의 상황분류를 크게 정태(靜態)와 동태(動態)로 1차 분류하였다. 동태를 크게 동작과 결과로 나누고 각각을 [순간성]과 [지속성]으로 2차 분류하여 동작은 순간성 동작과 지속성 동작으로 나누어지고, 결과는 순간성 결과와 지속성 결과로 나누어진다.

(3가)는 사물이나 자연현상의 자연 발생적인 움직임을 나타낸다. 이들이 [+지속성]의 사건 상황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거리-, -이-’ 등과 같은 접미사가 쓰인 ‘철렁거리다, 반짝거리다, 깜빡거리다’와 같은 동사나 동사 어근이 반복된 ‘빤짝빤짝하다, 깜빡깜빡하다’와 같은 동사가 쓰여야 한다 (이호승 1997:94참조). (3나)는 아주 짧은 시간에 발생하는 순간적 동사이다. 이들 동사들은 주어나 목적어가 단수 수량성으로 한정된 것들로 [-지속성]의 사건 상황을 지시하는 것들인데, 주어나 목적어가 비한정인 복수 대상으로 이해되면 [+지속성]의 사건 상황을 나타낼 수 있다. (3다)는 하나의 상태나 상황에서 다른 상태나 상황으로 접근하는 이행동사(移行動詞)로 도중에 중단되면 이 동사가 지시하는 상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박덕유 2007:165).

박덕유(2007)의 이행동사는 [접근성]에 의해 [-접근성]은 순간동사로, [접근성]은 이행동사로 분리한 것이다.⁶⁴⁾ 이를 각각의 구체적 동사목록은 달성동사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본고에서는 [완성성]의 문제를 고려하여 이행동사를 달성동사의 범주가 아닌 순간동사에 포함시킨다. 이에 달성동사는 목표점 도달 후 상태가 변화된 결과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이러한 규정에 의하면 이행동사는 최종점에 도달하는 예비과정은 있으나 도달 후 상태변화가 있는 결과가 결여되어 있어서 본고의 논점과 맞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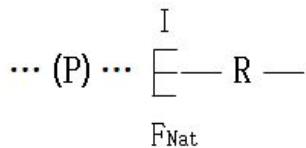
박덕유(2007)에서 이행동사의 자질로 본 [동태성], [완결성], [순간성], [접근성]에서 [완결성]은 ‘-고₁ 있-’과의 결합 여부를 판정한 것으로 최종점 도달 후 결과상태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았다. 즉, 박덕유(2007)의 [완결성]과 본고의 [완성성]은 동일한 것이 아니다. 이행동사가 예비과정이 있긴 하지만 최종점 도달 이후의 모습은 달성동사보다는 순간동사에 더 근접하다. 이러한 이유로 박덕유(2007)의 이행동사를 본고에서는 순간동사의 범주에 포함시켰다.

64) 박덕유(2007:128)에서는 “[접근성]은 하나의 상태나 상황에서 다른 상태나 상황에 접근해 가는 것으로 진행의 이행과정은 있으나 완료는 없다. [-접근성]은 이행과정은 없고 완료만 있다”고 하였다.

3.1.3 달성동사

달성동사는 순간에 발생하는 사건으로 발생 후 상황이 변화된 사건을 기술한다. 순간적인 사건은 시작점과 끝점이 겹쳐 인식되어 일정한 폭의 내부단계를 가지지 않는다. 순간 발생의 사건이라는 점은 순간동사와 같으나 종결 후 완결된 상황이 지속된다는 점이 다르다. 이들의 시간 구조 도식은 다음 <그림5>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그림5> 달성동사의 시간 도식(Temporal Schema)



<그림5>의 시간 도식 TS는 전체 시간 구간을 T라 했을 때 [동태성], [순간성], [완성성]의 특성을 반영한다. [동태성]은 움직이는 상황의 변화를 가지고 있으며, [순간성]의 변화는 매우 짧은 시간에 발생한다. [완성성]은 자연적 최종점을 가지고 있다. 시작점 'I'와 최종점 'F'가 겹쳐 있는 것은 동시에 발생한 단일 사건 'E'를 표시한 것으로, 이때 'F'는 자연적(natural)으로 완성된 것 이므로 'F_{Nat}'로 표시한다. 'R'이 의미하는 것은 순간 발생 이후 그 결과가 지속된다는 의미이다.

鄧守信(1986:44)은 어휘상의 분류에 있어 시간명사와 결합하는 동사의 양상을 주로 다루었다.⁶⁵⁾ 그는 달성동사와 다른 동사와의 가장 큰 차이는 시간명사와 결합할 때의 시구간이 달라짐을 강조하며 “달성동사는 시구간을 나타내는 시간명사가 실현될 때 그 시간 명사가 그 상황이 지속되는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이 순간적으로 이루어진 후에 지속되는 시간을 의미한다”라고 하였다.

왕례량(2012)은 달성동사에 ‘일점적 순간’과 ‘결과성 달성’으로 분류하

65) 鄧守信(1986)에서는 시점(point), 시구간(period), 빈도(frequency)를 나타내는 시간 명사가 동사들과 실현되는 양상을 Vendler(1967)의 네 가지 분류뿐만 아니라 용어까지 차용하여 중국어 시상성 분류를 시도하였다

였다. 일점적 순간으로는 ‘死(죽다), 伤(다치다), 斷(자르다), 倒(넘어지다), 完(마치다), 丢(잃다), 来(가다), 去(오다)’을 제시하고 결과성 달성으로는 ‘看见(보다), 听见(듣다), 遇见(만나다), 解开(열다), 离开(떠나다), 分开(헤어지다), 找到(찾아내다), 写错(잘못쓰다), 发现(발견하다), 摔斷(부러지다)’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달성동사의 시간 구조를 보이는 동사의 종류는 아래와 같다.

- (4) 가. 드러나다(비밀이)(透露), 묻다(흙이)(附着) 끊기다(전기가)(斷线), 꺾이다(나뭇가지가)(受挫), 죽다(死), 태어나다(生), 얹다
나. 잠을 깨다(睡)醒, 물을 쏟다(倒), 손목을 다치다(碰伤), 잃다
(물건을)(丟), 끊다(실을)(剪断线),
다. 알다(知道). 이해하다(了解). 믿다(相信), 인식하다(认为)
문제를 이해하다(理解), 잘못을 깨닫다(认识), 기억하다(记忆),
들키다(비밀을)(犯事), 상상하다(想象), 잊다(忘), 가정하다
(假设), 생각하다(思考), 짐작하다(打量)
라. 과장이 되다(当科长), 그가 입학시험에 붙다(入学考试合格), 양
녀로 삼다(当做养女)

(4가)는 순간적인 사건의 발생과 상황의 변화를 가지는 자동사 구문이다. (4나)는 목적어와 관련된 상황의 변화가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를 나타내는 타동사 구문이다. 이들은 최종점에 이르는 과정이 순간적이지만 상태의 계속을 나타낸다. (4가)와 (4나)가 다른 점은 자동사와 타동사라는 것 이외에도 (4가)는 어휘적 초점이 상태변화에 있으며, (4나)는 어휘적 초점이 결과 상태에 있다는 점이다. (4다)는 인식과 관련된 동사로 앞서 언급했듯이 상태동사와 달성동사 중 어디에 속하는지 결합제약에서 밝히기로 한다. (4라)는 사회적 지위나 관계와 관련된 동사로 유일하게 이호승(1997)에서 볼 수 있는 동사구이다.

이는 이호승(1997:94)에서 “주어나 목적어의 상태 변화가 사회적 지위

나 관계와 관련된 것들로 아무리 정밀한 기계를 동원한다 해도 그 시간 폭이 시제적인 측정 대상이 될 수 없는 사회적 지위나 관계의 상태 변화를 나타내는 것들이다”를 설명하기 위한 예문으로 제시되었다. 사회적 지위나 관계는 [상태성]의 성격이 강해 보이는 이들이 어떠한 결합제약으로 달성동사에 포함되는지 4장에서 논의하기로 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달성동사의 결합제약에서 설명하기로 한다.

3.1.4 행위동사

행위동사는 움직임이 있는 동작으로 시작되어 끝날 때까지 시간의 폭을 가진 동사이다. 움직임이 있는 동작이므로 이 동작을 행하는 행위자가 있으며, 이 행위자가 움직임을 끝내고자 할 때 언제라도 중단될 수 있다. 그러므로 행위동사구의 최종점은 동사구가 지시한 상황에 본질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임의적이다. 이 동사의 시간 구조 도식은 다음 <그림6>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그림6> 행위동사의 시간 도식(Temporal Schema)



<그림6>의 시간 도식 TS의 실선 ‘—’는 연속적인 단계(successive stages)가 지속적으로 이어짐을 의미한다. 전체 시간 구간을 ‘T’라 했을 때 이를 구성하는 하위 시구간을 ‘ T_1 (시작점), $T_2, T_3\dots T_{n-1}, T_n$ (최종점)’이라 한다면 ‘ $T_1, T_2\dots T_n$ ’은 모두 동질적인(homogeneous)것이기 때문에 실선(…으로 이루어졌다. 위의 도식은 이러한 성격을 갖는 [동태성], [비완성성], [지속성]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⁶⁶⁾ [동태성]은 움직임이 있는 행위를 포함한 과정이며, [비완성

66) 이 시간도식은 이호승(1997:85)의 ‘과정상황유형’의 시간도식인 ‘I — F’와 도식 설명을 본 고의 행위동사 개념에 맞추어 참조하고 인용한 것이다.

성]은 최종점 T_n 이 행위자에 의해 어떤 특정 시점에서 언제라도 임의적으로 중단될 수 있어 명확하게 인식되지 않기 때문이다. [지속성]은 과정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임의적 최종점은 중간에 그만 두어도 그 행위나 사건을 취하였기 때문에 이를 [행위성]이라고도 한다.⁶⁷⁾ 행위동사의 관련하여 논의할 것은 다음의 두 가지가 있다.

첫째, 하위 시구간 자질(sub-interval property)에 의한 동질성

(homogeneous) 여부

둘째, 단계성(stage) 자질의 필요성

행위동사의 [완성성]과 관련하여 논의해야 할 점은 하위 시구간 자질에 의한 내부단계의 동질성 여부이다.⁶⁸⁾ 움직임이 지속되는 동작의 내부단계는 [완성성]의 자질에 따라 서로 다른 모습이 나타난다. 하나는 임의적인 최종점 (F_{Arb})을 가진 행위동사는 내부 단계가 동질적(homogeneous)이고, 자연적인 최종점(F_{Nat})을 가진 완수동사는 내부단계가 이질적(heterogeneous)이다. 최종점의 성격에 따라 내부단계가 달라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문제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완성성]의 여부에 달려 있다.

내부 단계가 동질적이라 함은 시구간 내 모든 상태에서 동일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으므로 이때는 ‘실선(—)’으로 보인다. 최종점이 임의적이라는 것은 최종점을 향한 과정이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 없으므로 동작의 내부단계에는 차이가 없기 때문에 ‘ T_{n-1} ’의 시점과 ‘ T_n ’의 시점에서의 동작은 같다. 즉, 상황이 변화된 결과가 없으므로 내부단계는 그 어떤 ‘ T_n ’에서

67) [행위성]은 행위가 지속되는 상황과 관련된다. ‘철수는 노래를 부르고 있다’에서 노래를 부르는 행위는 시간의 지속에 상관없이 어느 일정 시간 동안 계속될 수 있다. 철수가 ‘노래를 부르다’라는 행위는 철수가 그 행위를 멈추기 전까지 어느 시점에서든 노래를 불렀다고 할 수 있다. 즉 ‘-고 있-’에 의한 진행 중인 장면일지라도 어느 순간 중지해도 철수는 노래를 한 것이다. 이것은 행위성이 갖는 비완성성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68) 하위 시구간 자질(sub-interval property)은 Bennett & Partee(1978)에서 제시되고 Dowty(1979)에 의해 발전된 이론이다. 시간이 순간의 집합으로 이루어진 선과 같다는 전통적 시간 개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Bennett, M & B. Partee(1978)은 “하위 시구간 (sub-interval)이란 어떤 시구간(interval) ‘T’ 안에 포함되는 모든 시구간들은 ‘T’의 하위 시구간(sub-interval)이라 한다”고 하였다. 하위 시구간 자질이란 문장에서 주동사가 어떤 시구간(interval)과 그 시구간 안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하위 시구간에서 참이 될 때 그 동사를 하위 시구간 자질을 가진 동사라고 한다.

도 ‘동질적’이라는 의미이다. 내부 단계가 동질적이면 획일적인 기간을 나타내므로 지속의 자질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상태성], [지속성]의 자질을 가지고 시간도식 TSS에서 행위동사와 같은 실선(—)을 보이는 상태동사도 동질성의 여부를 따질 수 있을까? 이에 대한 해답 역시 [완성성]과 관련이 있다. 상태동사는 하위 시구간 자질에 의한 동질성 여부를 논할 수 없다. 왜냐하면 상태동사는 최종 점을 보장받을 수 없는 수의적인 '(F)'라서 내부단계의 하위 국면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위 국면을 가정할 수 없기 때문에 각 하위 국면들 간의 동질성(homogeneity) 여부를 따질 수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행위동사는 최종점이 자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임의적으로 끝나는 것일 뿐 어느 순간 끝나는 시점이 있다. 따라서 행위동사의 시구간에서 ' T_{n-1} '과 ' T_n '을 비교하였을 때 어떠한 변화도 없이 동질적이다.

내부단계가 이질적이라 함은 어떤 행위가 있는 것으로 변화가 있다는 의미이며 이것은 곧 한 기간 내의 모든 시점에서 동일한 상태를 유지한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시간 구조상 동질적이지 않고 단계(stage)를 가진다. 모든 상태에서 동일한 상태를 유지할 수 없으므로 이때는 실선이 아니고 ‘점선(...)'을 보인다.

자연적인 최종점(F_{Nat})을 가진 완수동사는 최종점으로 향해 가는 변화가 있으며, 변화가 있으면 각 하위국면이 ' $T_1, T_2\dots T_{n-1}$ '과 ' T_n '의 양상이 모두 다르다고 할 수 있어 내부단계가 이질적(heterogeneous)이다. 이때는 이러한 단계의 특성을 위해 [stage]자질을 설정할 수 있다. 그러나 행위동사는 단계가 동질적이라 [stage]자질을 설정할 수 없어 [-stage]이다. 행위동사의 동질성에 대해 Vendler(1976:113)에서 “activities는 시간 동안 동질적인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과정의 어떤 부분도 전체의 것과 동일한 속성이다. activity의 전체와 부분 간의 논리적 필연의미의 특성적 패턴이 있다”⁶⁹⁾라고 하였다. 그러나 행위동사와 완수동사의 동질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하위자질을 설정해야 한다. 하위 국면들이 동질성을 가진다는 것은 그것들

69) Vendler(1976:113)에서 “만약 activity 사건 A가 간격 I에서 유효하다면, 그 사건과 관련된 과정은 간격 I에서 유효하고, 너무 작아서 A로 간주하기 어려운 간격들에도 유효하다”라고 지적하며 동작상황유형의 논리적 함의를 설명하였다.

간의 동질성을 따지는 것이므로 근본적으로 상태동사가 가지는 동질성과는 다르기 때문이다.

내부단계의 하위 시구간 측면에서 보자면 앞서 말한 Bennett & Partee의 체계에서는 상태동사와 행위동사의 하위국면은 동질성의 양상이 동일하다.⁷⁰⁾ 이들 모두 순간의 집합점들로 여기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고는 시작점과 최종점의 간격, 즉 기간의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동질성을 보인다고 생각한다. 상태동사는 시작점과 최종점을 상정할 수 없고 수의적인 반면에 행위동사는 시작점과 최종점이 분명히 존재한다. 최종점이 임의적이라 최종점으로 끝날지 종결성을 부여받아 완수동사로 끝날지는 알 수 없지만 상태동사의 종착점과 다르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므로 이들은 전체 과정이 행위동사의 과정으로 설정될 수 있다. 이렇게 서로 다른 동질성을 명시하기 위해서는 하위 단계들을 구분하기 위해 [단계성]이 필요하다고 본다.

행위동사가 갖는 [동질성]의 상적 특성은 근본적으로 행위동사가 시간 도식 TSS에서 자연적인 최종점을 가지지 못한다는 점에서 비롯된다. 하지만 행위동사는 상태동사와는 달리 임의적인 최종점을 상정할 수 있다. 이것은 과정상 임의적인 단계를 가정할 수 있고, 그 임의적인 단계를 설정하기 위한 자질이다. 이에 대해 이호승(1997), 홍윤기(2002), 조민정(2007)에서 볼 수 있다.⁷¹⁾

둘째, [단계성]을 하위자질로 선택하면 동작동사의 내부단계가 상태동사와 다르다는 점을 표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음의 두 가지 문제를 더 해결할 수 있다. 하나는 Vendler(1967)의 어휘상 분류에서 상태동사와 달성동사는 진행의 표현에서 자유롭지 못하지만 기준의 연구는 상태동사와의 결합제약만 주로 논의의 대상이 되었다. 따라서 [단계성]의 진행에 있어 상태동사와 달성동사뿐만 아니라 Smith(1997)의 순간동사까지도 함께 묶어줄 수 있다. 또 다른 하나는 달성동사에서 예비단계를 가지고 있는 것

70) 시구간을 연속적인 순간 점들의 집합으로 여기는 Bennett & Partee(1978)의 체계에서는 순간과 기간 모두가 순간의 집합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어떤 구간 내에서 비지속적 동사는 단지 한 순간만을 얻는 구간에서 참인 반면 지속적 동사는 한 순간 이상을 포함하는 구간에서 참이다.

71) 조민정(2007:116)에서는 homogeneous 자질을 균질성의 조건(homogeneous condition)이라 하였다.

과 없는 것을 구분하기 위한 자질로 사용할 수 있다.

기존의 어휘상에 관한 연구에서 [단계성]은 영어와 한국어 및 중국어에서 모두 모호한 면을 지니고 있었다. 단계성의 등장 배경을 살펴보면 Bennett & Partee(1978)의 하위시구간자질의 동질성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시간은 순간의 집합으로 이루어진 선과 같다”는 전통적 시간 개념을 고수하는 연구자들의 입장에서는 상태동사의 동질성과 행위동사의 동질성은 차이가 없다. 문제는 이러한 개념을 어휘상 분류 전체에 적용한 것이 아니라 Vendler(1967)의 행위동사의 동질성에만 사용했다는 점이다. Vendler(1967)의 상태동사 범주는 여전히 Vendler(1967)식의 진행상 가능성이 유무로 규정된다.

이로 인해 상태동사와 달성동사는 진행상에 있어 제약을 받는다는 Vendler(1967)의 주장과 달리 Bennett & Partee(1978)는 상태동사만 진행상의 제약을 받는다고 주장하면서 달성동사는 왜 허용되지 못하는지를 설명하지 않았다. 또한 어휘상의 분류 기준으로 사용한 진행형의 허용 가능성을 오직 상태동사에만 적용하였기 때문에 행위동사의 동질성에 대해 합일점을 찾지 못하고 여전히 이견이 남아 있다.

한국어에서는 기존의 연구에서 [단계성]을 Vendler(1967)의 [process]와 Smith(1997)의 [stative]로 대역어로 주로 쓰이다 Rothstein(2004)에서 [stage]의 개념이 사용된 이후 점차 이러한 의미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⁷²⁾ 앞서 2.2.2에서도 언급했듯이 Vendler(1967)의 자질 중 의미 해석에 논란이 되었던 [process]는 [과정성]과 [단계성]으로 가장 많이 번역되어 사용되었으나, Vendler(1967)를 토대로 어휘상을 분류한 Van Valin and Lapolla(1997: 92–5)(김천학 2014:25)에서 [process]대신 [punctual]을 사용하면서 [지속성]과 관련된 개념으로 점차 자리를 잡게 되었다. Smith(1997:19)에서는 “단계가 구분되지 않는 시구간(undifferentiated period of states)은 [–정체성]으로, 연속적 사건 단계(successive stages of events)는 [단계성]으로 단계성을 가리키는 것으로 규정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Vendler(1967)의 상 분류에서

72) 이명정(2010:65)에서 “Xiao & McEnery(2004)의 ‘동사가 자연스럽게 진행상과 공기하는 가의 여부’라는 기준에 따라 Rothstein(2004:12)은 [stages]라는 어휘상 특징을 설정하였다”라고 하였다“라고 하였다.

상태로 분류되는 것들은 Smith(1997)에서 [정체성, -단계성]으로, 비상태로 분류되는 것들은 [-정체성, +단계성]으로 규정된다. 일반적으로 상태동사는 움직임이 없는 상태를 나타내고 나머지 어휘상-즉, 순간동사, 달성동사, 행위동사, 완수동사-은 어떤 변화나 움직임이 있는 사건을 가리키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상태와 비상태가 정체성과 단계성으로 해석되면서 이들이 [stage] 개념과 뒤섞여 혼동을 준다.

중국어의 단계성은 진행상과 깊은 관계가 있다. 최규발·정지수(2010:11)가 언급한 바와 같이 Rothstein(2004)의 [stage] 개념이 Xiao & McEnergy(2004)의 진행상과의 공기여부를 기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동태성]이나 [지속성]과 관련이 있다(이명정 2010:66–67참조)⁷³⁾ 하단에 소개된 Rothstein(2004:12)의 어휘상 분류에서 알 수 있듯이 [stages]의 자질을 가지고 있는 것은 [동태성]과 [지속성]의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의 자질을 얻을 수 있고, 둘 중 한 가지라도 부족하면 (-)이다. 이는 어휘상의 분류에 있어 동태성과 상태성의 정도에 따라 상태동사가 세분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지속성의 장단에 따라 행위동사가 세분되는 경향을 보여준다. 이러한 특징을 보이는 동사분류는 李明晶(2010)에서 활동동사를 강지속(強持續)과 약지속(弱持續)으로 분류한 것과 龔千炎(2009)에서 동태동사를 무한지속(無限持續), 유한지속(有限持續), 비지속(非持續)으로 분류한 것에서 찾을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한·중 어휘상의 분류에 있어 [단계성]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한정한다. [단계성]은 ‘둘 이상의 서로 다른 내부 단계를 가지는 상황을 가리키는 자질’로 정의한다. Smith(1997)의 연속적인 변화단계를 의미하는 단계성이 쓰일 때는 순간동사와 달성동사는 [단계성]을 가질 수 없다. 순간 상황과 달성 상황은 둘 다 한 순간에 발생하는 사건 상황으로써 그 내부를 몇 개의 단계로 나눌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고의 단계성 개념을 적용하면 달성동사가 갖는 두 가지 부류 즉 -최규발(2012:59)의 용어로 성취동사 A형과 성취동사 B부류-에 적용할 수 있다. ‘둘 이상’

73) 이명정(2010:66)에서 소개한 Rothstein(2004:12)의 어휘상 분류는 아래와 같다.

상태(state): [-stages] [-telic], 활동(activities): [+stages] [-telic], 성취(achievement): [-stages] [+telic], 완수(accomplishment): [+stages] [+telic]

이라는 조건이 달성동사에 단계성을 부여함으로써 달성동사에서 보이는 결합제약이 두 종류로 나뉘어지는 현상을 해결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단계성] 자질의 적용은 상태동사가 [단계성]을 보유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Smith(1997)의 상태동사와 같지만, 달성동사의 일부도 단계성을 갖는다는 점에서는 Smith(1997)의 분석과는 차이가 있다. Smith(1997)는 달성동사 분석에서는 [단계성]을 보유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한국어 행위동사는 움직임이 있는 행위를 포함한 과정이므로 ‘과정동사’라고도 불린다. 그러나 이 ‘과정’이라는 용어는 다소 혼란스럽게 사용되어 행위와 완수를 포함한 개념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행위동사만을 지시하는 용어로 사용되기도 한다. 전자로 사용되는 경우 옥태(1988), 이필영(1989) 등이 있고, 후자로 사용되는 경우 이호승(1987), 정희자(1994) 등이 있다.

옥태권(1987)은 과정동사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주어가 동작의 결과상태를 가지느냐 못 가지느냐에 따라 세분하였다. [결과성]인 것으로는 ‘입다, 신다, 벗다, 매다, 달다, 업다, 피다, 넘어지다, 썩다, 뽑다’를, [-결과성]인 것으로는 ‘만들다, 그리다, 먹다, 웃다, 올다, 흐르다, 불다, 달리다, 자다, 놀다’ 등을 들었다. 과정동사라는 용어로 묶었지만 예를 든 동사 목록을 보면 [결과성]은 완성동사, [-결과성]은 행위동사에 해당한다. 이필영(1989)에서는 비순간적 상황이 [동적] 자질을 중심으로 2차 분류되었다. [동적]의 과정성 상황과 [-동적]의 상태적 상황으로 분류되었다. 이때 과정적 상황은 행위동사와 완수동사를 아루른 개념으로 이 둘을 한데 묶어 호칭한 용어이다.

이호승(1987:85)에서는 과정동사(과정 상황유형)의 자질이 [-상태성], [지속성], [-완성성]이라고 제시하고 행위와 완수를 과정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분류하였다. [-완성성]인 것은 “종결점의 성격이 동사구가 지시하는 상황에 고유하게 내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어떤 특정한 시점에서 그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인식되지 않을 뿐”이기 때문이라 하였다. 또한 기준의 연구에서 ‘책을 읽다’는 ‘행위동사’로, ‘책 한권을 읽다’는 ‘완

수동사'로 분류한 것은 한정적인 수량의 차이로 인한 언어적 표현의 차이일 뿐이므로 이들을 모두 과정동사로 보았다.

달성동사로 분류되는 '반짝이다' 역시 과정동사로 분류하였는데 이는 '뛰다'의 발의 움직임의 반복적 양상이나 '반짝이다'의 불빛의 반복적 양상을 동일한 내적 시간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지 최종점을 제한된 시점에서 함의한다는 의미에서 과정동사의 완성성을 (-)로 본 것은 [+종결성]을 가진 [-완성성]이라는 의미로 파악하였다. 즉 종결점만을 포함하고 결과성은 보장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행위동사와 완수동사의 최종점은 서로 다른 성격이라는 점을 제시하긴 하였으나 결합제약 부분에서 일부 다루고 어휘상의 종류에 있어서는 행위와 완수를 과정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분류하였다. 이러한 구분은 과정상황유형의 완성점이 이전의 시점과 비교하여 어떤 상태변화의 의미도 갖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 것이라는 의미이다.

정희자(1994)의 과정동사는 [완성성]에 의해 과정동사와 완수동사로 분리된 것이다. 과정동사의 목록으로 '(바람)불다, (팽이)돌다, (물)흐르다, (해)뜨다, 사랑하다, 미워하다, 희망하다, 걷다, 달리다, 울다, 살다, 밀다, 만지다, 노래하다'의 예를 들었다. 특이한 점은 '사랑하다, 미워하다, 희망하다'의 일부 심리동사를 포함시켜 심리 내부의 과정 역시 과정의 한 종류로 보았다는 점이다.

중국의 馬慶株(1981)는 행위동사를 임의적 종결점에 주목하지 않고 [durative]에 주목하여 [+durative]이면 동사 뒤에 '着'이 올 수 있고, [-durative]이면 '着'을 사용할 수 없다는 기준을 세워 상태동사와 비상태동사를 나누었다. 이때 비상태동사 즉 행위동사는 행위자가 임의적으로 끝내는 임의적 종결점도 종결점으로 파악하여 [+telic]자질을 갖는다고 주장했다. 馬慶株와 같이 자연적 종결점을 [+telic]으로 보는 학자도 있지만 대부분 학자들은 행위동사의 자질로 [-static], [+durative], [-telic]을 둔다. 지속성을 지니기 때문에 행위동사의 가장 큰 검증방법은 지속의 '着'과의 결합 여부이다. 이는 Vendler(1967)에서 제시한 과정성과 관련이 깊다. Vendler(1967)은 행위동사(activity)는 종결점(terminal point)을 내

포하지 않으며 내부 국면이 동질적(homogeneous)으로 보았으며, 완수동사(accomplish)는 종결점을 내포하면서 내부 국면이 비동질적이라고 했다. 문제는 종결성의 상위분류인 과정성에 대한 의미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에 있다.⁷⁴⁾ 이는 과정성이 지속 및 종결과 관련이 있으므로 행위자가 지속이 끝내는 점을 종결점으로 파악할 수 있는 여지를 준다.

중국의 소수 견해를 제외하고, 한국어와 중국어 모두 행위동사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행위동사는 연속적인 움직임의 과정이 있으며 ([−static]), 일정한 시간 동안 지속되며([+durative]), 자연적인 최종점은 갖지 않는다([−telic]).⁷⁵⁾ 연속적 움직임의 과정은 동질의 단계(homogenous)로 구성되어 지속되며 자연적 종결점이 없으므로 시작점 이후 어떤 시점에서 중단(stop)하더라도 그 행위나 사건을 취한 것이 된다.⁷⁶⁾ 자연적인 종결점은 어휘 자체가 가지고 있는 종결점이며, 임의적 종결점을 가진다는 의미는 행위자가 있어 행위를 임의적으로 끝낼 수 있다는 의미이다. 행위동사에 있어 한국어와 중국어는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진평(1988)은 행위동사로 ‘跳舞, 唱歌, 看电影, 读书’을 들었다. 이들은 각각 춤을 추기 시작하는 점,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 점, 티브이를 보기 시작한 점, 책을 읽기 시작한 점이 시작점(initial point)이며, 춤추기가 끝난 점, 노래 부르기가 끝난 점, 티브이 보기의 끝난 점, 책 읽기가 끝난점이 최종점(final point)이 된다고 하였다. 중국어의 행위동사는 이들 동사처럼 동사+목적어가 지속을 나타내는 문장에 많이 보인다. [지속성]의 자질을 시간 구조상 시작점과 최종점 사이에 명확한 간격(interval)이 있어서 전체 상황이 지속 과정을 가지는 경우라 하였다. 행위동사에 있어 한국어와 중국어는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한국어와 중국어의 행위동사에 속하는 동사는 다음과 같다.

74) Vendler(1967)는 어떤 동사가 ‘be+−ing’ 형식과의 결합 여부에 따라 행위동사와 완성동사 한 쌍과 달성동사와 순간동사 한 쌍으로 구분하고 이 두 부류를 다시 [telic]과 [punctual]로 각각 하위분류하였다.

75) 행위동사의 시간 구조

76) 행위동사에서 자연적 종결점이 아닌 임의적 종결점에 대해서 행위성이라 하고 자연적 종결점에 대해서는 완결성이라 했다. 행위성은 [atelic] 즉, [−telic]에 해당하며, 완결성은 [+telic]에 해당한다. 완결성은 어떤 행위가 중간에 중단되어 완성점까지 이르지 못하면 완결된 행위로 보지 않으며, 행위성은 자연적 종결점이 없으므로 중간에 중단되어도 그 행위를 취한 것으로 본다(comrie 1976:44–45)

(5) 가. 읽다(念), 그리다(画), 마시다(喝), 먹다(吃), 부르다(唱), (자전거를) 밀다(推车)

나. 뛰다(跳), 달리다(跑), 가다(去), 오다(来), 웃다(笑), 울다(哭), 자다(睡), 쉬다(休息), 놀다(玩儿)

다. 공원에서 산책하다(在公园散步), 동쪽으로 나아가다(向北前进)

(5)의 동사들은 동질의 내부단계를 가지며 지속되는 사건을 나타낸다. (5가)와 (5나)는 전달되는 동사의 힘이 자기 자신인지 아니면 타자인지로 구별된다. (5가)는 주어가 낸 어떤 힘이 목적어로 이동시킬 수 있는 타동 사류이다. 목적어가 ‘책을 한 권’, ‘그림을 한 점’, ‘술을 한 병’과 같이 한 정적인 수량성이나, ‘그 책, 그 그림, 그 술’과 같이 특정 지시되면 완성 상황유형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여기서는 이러한 요소들이 언어적으로 표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행위동사로 파악된다. (5나)의 동사들은 주어가 낸 힘을 받는 목적어가 바로 자기 자신이 되는 경우이다. (5나)처럼 주어의 힘이 대상에게 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에게 힘이 미쳐 스스로 움직이는(自動) 경우이다. 특히 주어의 힘이 전달된 대상이 주어 자신에게 되돌아오는 ‘입다, 신다’ 등의 재귀동사(再歸動詞)도 이 부류에 포함된다. (5다)의 동사들은 장소 보어가 쓰인 문장으로 단순히 행위가 발생하는 장소나 행위의 방향을 나타내는 부사어가 쓰인 것이다. 이때의 장소는 도달점이 아니다.

일반적 어휘상 분류가 아닌 좀 특별한 분류를 취한 연구로는 이호승(1996)과 홍윤기(2002)를 들 수 있다. 이호승(1996)에서는 ‘배가 출렁거리다, 불빛이 반짝이다, 사람들이 넘나들다’와 같은 것들이 기존의 논의에서 ‘반복상’으로 분류된 것이기는 하지만, 여타의 동작상황유형이 속하는 동사구들과 구분해 줄 근거가 없다고 보고 동작상황유형(그의 용어는 과정상황유형)에 포함시켰다. 그는 ‘배가 출렁거리다, 불빛이 반짝이다’와 같은 동사구가 ‘운동장을 뛴다, 잠을 자다’와 같은 동사구보다 반복적인 상황 의미가 더 강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뛰다, 자다’와 전혀 다른 내적 시간 구조를 갖는다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비슷한 견해로 홍윤기(2002)가 있다. 홍윤기(2002) 역시 다른 연구자들이 순간동사로 분류하는 ‘팽이가 돌다, 깃발이 펄럭이다, 그가 기침을 하다’ 등을 행위동사로 분류하였다. 이 동사들이 하위 국면으로 구분되는 분명한 내부단계를 가지지만 그것이 제한 없이 계속되는 사건을 나타낸다는 점에 주목한 것이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행위동사의 반복된 형태나 순간동사의 반복되는 형태가 다른 것이 없다 하더라도 이 두 동사유형의 내부구조는 서로 확인하게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분류법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행위동사의 내부구조는 동질적 단계가 지속되지만, 순간동사는 끝점을 가지는 하위 단계들이 무한히 반복되는 양상을 보이기 때문이다.

행위동사에서 주목할 만한 동사는 ‘놀다(玩儿)’가 있다. 이 동사는 한국어와 중국어 모두 행위동사에 속하지만 결합양상이 다르다. ‘놀다’와 이에 대응하는 ‘玩儿’은 [동태성]과 [지속성]의 차질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결합양상은 서로 달라 ‘놀다’는 ‘놀고 있다’처럼 지속상이나 진행상을 나타내는 ‘-고 있다’와 자연스럽게 결합한다. 그러나 ‘玩儿’은 진행상 표지 ‘在’와는 결합하나, 지속상 표지 ‘着’과 결합하지 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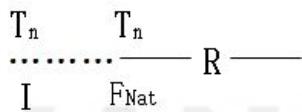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玩儿’이 행위동사가 아닌 다른 어휘상이라서 ‘着’와 결합하지 못한다면 이 동사를 어느 부류에 넣어야 할까? 이에 대한 대답은 [완성성]의 차이에서 온다고 말할 수 있다. 행위동사는 어떤 사건이나 사태의 행위가 지속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한국어와 중국어 모두 기본적으로 [동태성]과 [지속성]을 가진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완성성]에 있어서 한국어는 임의적 종결점은 자연적 종결점과 구별하여 진정한 종결점으로 파악하지 않는 반면에 중국어는 학자에 따라 임의적 종결점도 자연적 종결점으로 보기도 한다. 또한 진행과의 결합양상에 있어서도 한국어는 진행, 중국어는 지속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동사분류에 있어 한국어는 진행을 나타내는 ‘-고 있다’가 행위동사의 검증방법으로 사용되지만, 중국어는 행위동사와 완수동사의 검증방법으로 진행을 나타내는 ‘在’를 사용하지 않고, 지속을 나타내는 ‘着’으로 행위동사와 완수동사를 분류한다. (4)와 관련되어 언급된 동사들이 결론적으로 어떤 어휘상으로 새롭게 귀속되는가는 4장의 결합체약으로 밝히기로

한다.

3.1.5 완수동사

완수동사구는 하나의 사태가 지속되고 진행되는 내부단계를 가지며 자연적인 종결점을 지니는 동사구이다. 내부단계는 종결점으로 나아가는 과정 중에 해당하므로 각 과정이 서로 다른 이질적인 단계들의 연속으로 이루어져 있다. 사태가 최종점에 도달한 이후는 상태의 변화가 나타난다. 이들의 시간 구조 도식은 다음 <그림7>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그림7> 완수동사의 시간 도식(Temporal Schema)



<그림7>의 시간 도식 TS에서 전체 시간 구간을 T라 했을 때, 이를 구성하는 하위 시구간이 T₁(시작점), T₂, T₃, ... T_n(종결점)이라 한다면 T₁에서 T₂와 T₃로 가는 연속적 단계는 종결점으로 점점 더 접근해 가는 과정으로 서로 이질적(heterogeneous)이다. 이러한 완수동사의 시간적 특성은 [동태성], [완성성]과 [지속성]의 자질들의 결합으로 표시된다. 종결점 T_n에 이르러야 동사구가 지시하는 상황이 완성되며, 이 종결점은 동작주가 임의로 마칠 수 있는 것 (F_{Arb})이 아니라 동사가 본래 가지고 있는 최종점(F_{Nat})이기 때문에 최종점에 도착하기 전에 동작이 끝나면 이 동작은 동작이 완성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본래의 최종점 이후는 상황의 변화가 결과 'R'로 남게 된다. 완수동사에서 가장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R'인 [결과성(result)]이다. [결과성]을 보는 관점은 두 가지가 있으나 그 두 가지는 모두 완성성과 관련되어 있다.

어휘상의 분류에 있어 이견이 많은 자질은 [결과성], [예비과정], [단계성] 등이다. [결과성]은 동작이 최종점에 도달 후 상태가 남아 있는 것이고, [예비과정]은 최종점에 도달하는 데 기여한 과정이며, [단계성]은 최

종점에 도달하는 과정의 양상이다. 이들은 결국 동작이 완성되었다고 하는 [완성성]의 의미 기준을 어디까지로 봐야하는지에 따라 견해가 다를 수 있다. 동작이 완성되었다고 하는 의미 기준을 어디까지로 봐야하는지 (최종점에 도달한 순간에 이르면 완성으로 인정하는지, 최종점에 도달 후 완결물이 남아 있어야 완성으로 인정하는지), 결과가 남아 있는 예비과정만 예비과정으로 인정할지, 최종점에 이르고 결과가 남아 있지 않는 예비과정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완성점이 F_{Arb} 인 단계성과 F_{Nat} 인 단계성은 어떻게 구분해야 하고 이들이 완성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가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관된 [완성성]의 정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 본고에서는 완성성의 정의를 ‘최종점에 도달 후 상태 변화가 있는 것으로 한다’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완성성의 정의는 기존의 한국어 어휘상 분류에서 흔히 보이는 분류와 다소 차이가 있다. 기존의 한국어 어휘상 분류에서 움직임이 있는 동사를 분류하는 자질은 크게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6) 움직임이 있는 동사를 분류하는 자질

- 가. 하위자질로서의 [결과성]
- 나. 최종점 도달 여부
- 다. [결과성]의 유무

(6가)는 정문수(1984)와 정희자(1994)에서 볼 수 있다. 정문수(1984)는 [결과성]을 순간동사(순간풀이씨)와 완수동사(완성풀이씨)의 하위자질로 사용하였고, 정희자(1994) 역시 [결과성]을 완수동사와 순간동사의 하위자질로 사용하였다.⁷⁷⁾ 이 분류의 특징은 다른 연구에서는 완수동사의 하위자질

로만 쓰인 [결과성]이 순간동사의 하위자질로 사용된 점이 특이하다. 특히 정문수(1984)에서 주목할 점은 순간동사를 [±결과성]으로 세분한 동사목록은 Smith(1997)의 달성동사와 순간동사와 흡사하다는 것이다. Smith(1997) 이전에 이미 순간동사와 달성동사의 차이를 인식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6나)는 상황의 끝 즉, 최종점에 도달했는가의 여부만으로 [완성성]의 의미를 부여한 것으로 Comrie(1976)의 [telic]과 같은 개념이다. 이는 이지양(1982)의 [완성점]과 이필영(1989)의 [완결성]에서 볼 수 있다.

(6다)는 옥태권(1988)의 [결과성]의 동작의 결과가 주어에 나타나는 경우로 본고의 완성성과 일치한다. (6다)의 [+결과성]은 ‘어떤 일이나 행동이 이루어진 결과적 상태를 동사가 나타낼 수 있음’을 나타낸다. [+결과성]은 ‘-고₂ 있-’과의 결합으로 인식되며 ‘완료’를 나타내게 된다. 결국 [+결과성]에는 [+완성성]이 전제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즉 [+완성성]을 지녔다고 [+결과성]인 것은 아니다.

위의 분석에 따르면 정문수(1984)의 [결과성], 정희자(1994)의 [결과성], 이지양(1982)의 [완성점], 이필영(1989)의 [완결성]은 모두 Comrie(1976)의 [telic]과 같은 개념으로 최종점에 이르는 과정과 최종점 도달 순간까지만 완성성으로 본 것이다. 그렇다면 완성성에 대한 의견이 분분해도 [완성성]은 최종점 도달까지만 완성으로 보느냐 도달 후 결과가 드러나는 것까지 완성성으로 보느냐의 문제로 압축된다. 일반적으로 한국어에서의 결과성은 최종점 도달까지만 완성으로 보는 종결성이나 제한성과 같은 의미로 쓰인 것이다.

77) <표5> 하위자질로서의 결과성 유무

| | 순간동사 | | 완수동사 | |
|---------------|-------------------------------------|---------------------------------|---|--|
| | [결과성] | [−결과성] | [결과성] | [−결과성] |
| 정문수 (1984) | 끝나다, 불다, 얻다 | 맺다, 끊다 | 입다, 벗다, 신다 | 비우다, 익다, 지다 |
| 정희자 (1994) | 죽다, 깨닫다, 도착하다, 끊기다, 넘어지다 등 | 끌나다, 이기다, 차다, 때리다, 꼬집다 | 닫다, 열다, 눕다, 앉다, 일어서다, 입다, 신다 등 | (편지)쓰다, 기록하다, (음식)먹다, 주다, (집)짓다, 만들다 등 |

이명정(2010:62)에서 언급했던 楊素英(Yang 1995)에서 사용한 종결성은 정문수(1982)에서 볼 수 있다. 이 점은 이명정(2010:62)에서 “결과가 드러나는 완성성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Yang(1995)이 최초로 언급했다”는 사실은 수정되어야 할 부분이다. Yang(1995)의 결과성은 정문수(1982)에서 이미 완성성의 하위자질로 쓰였기 때문이다. 정문수(1982)는 [완성성]의 자질로 완수동사(완성풀이씨)를, [-완성성]의 자질로 행위동사(과정풀이씨)를 분리하고 완수동사를 [결과성]의 자질로 분류하여 완성동사가 결과가 남아 있는 것과 결과가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분리하였기 때문이다.

한국어에서 쓰인 [결과성]의 의미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Comrie(1967)의 [Telic] 개념으로 쓰인 결과성과 다른 하나는 상태가 변화하여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Yang(1995)에서 사용한 [결과성]은 후자의 [결과성]이고 보통 한국어 연구에서 자질로서의 [결과성]은 [완성성]과 같은 개념으로 쓰인 [결과성]인 것이다.

이와 같은 시간 구조를 가지는 완수동사구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7) 가. 집을 한 채 짓다(他们造了一所房子). 책을 한 권 읽다(看一本
书), 맥주 한 잔을 마시다(喝一杯酒), 의자를 고치다(修理一把椅
子), 짐을 꾸리다(收拾行李)
- 나. 배가 가라앉다(船沉了), 해가 뜨다(太阳升起), 빨래가 마르다(湿
衣服干了), 얼음이 얼다(冰化), 눈이 녹다(雪化), 꽃이 피다(花
开), (과일이) 익다(水果熟), (입맛이) 변하다(口味变), (음식이)
식다(饭菜凉) (꽃이) 시들다(花儿蔫)
- 다. 학교에 가다(到学校走), 난간에 기대다(靠着栏杆), 김치를 그릇에
담다(泡菜碗里盛, 把水果放在器皿里), 바닥에 엎드리다(趴在地上),
부산까지 뛰다(跑到地铁站)

(7가)는 목적어에 의해서 사태의 종결점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경우이다.
동작주가 유정물로 주어가 동작의 결과상태를 가지는 동사이다. (7나)는

목적어에 의한 종결점이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시작점과 종결점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자동사들이다. (7나)에 제시된 단어 목록(2007)은 하나의 상황에서 다른 상태나 상황으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하는 동사로 박덕유(1997)의 변화동사(變化動詞, change verbs)와 홍윤기(2002)의 완수동사(홍윤기의 용어로 완성동사)에 해당한다. 박덕유(1997)는 동작주가 무정물이면서 동작의 중간에 변화단계를 거치는 동사를 변화동사라 칭하고 완수동사에서 독립시켰다.

박덕유(1997)의 어휘상 분류에서 자동사는 변화동사, 타동사는 완수동사에 해당한다. 변화동사가 이행동사(移行動詞, transition verbs)와 다른 점은 변화동사는 최종점에 도달한 후 결과가 남아 있으나, 이행동사는 최종점으로 접근해 가는 과정만 있을 뿐 최종점에 도착하지 않은 것이라는 점이 다르다. 본고의 완성성 자질은 박덕유(1997)의 변화동사를 포함하므로 완수동사에 포함시키고 박덕유(1997)에서 변화동사에 포함시켰던 ‘나빠지다’와 ‘발효되다’는 본고의 완수동사에서 제외시켰다. ‘-되다’류의 동사 자체가 이미 변화의 의미를 포함한 단어이기 때문이다. 홍윤기(2002)가 이를 동사를 완수동사에 포함시킨 것은 자연적 끝점과 최종점 그리고 내부단계의 시·공간적 확장과 도달점에서의 상태변화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7다)는 상황의 도달점이 장소를 나타내는 논항에 의해 명시적으로 드러난 경우이다.

어휘상의 분류에 있어 자질들의 성격 내지 관계와 관련해서 주의할 점은 우선 상태성/비상태성, 즉 상태성과 동작성에 따른 ‘상태’와 ‘사건’의 구분은 우리의 어휘 의미 구조에 기본적으로 부여되는 존재론적 범주로 가정하기 때문에 상태성/동작성의 의미 자질은 가장 기본적이고 우선적인 것이다. 따라서 동사 분류 시에 제일 먼저 따지게 되는 최상위의 의미 자질이 상태성/동작성이다. 그 지속성과 완성성 자질은 학자마다 그 우위관계의 판단에 있어 차이를 보여 왔다. 지속성을 먼저 따지는 경우는 완수동사와 행위동사의 유사점 즉 지속성을 강조하는 관점이고, 완성성을 먼저 따지는 경우는 완수동사와 달성동사의 유사점을 강조하는 관점으로 생각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상적 특성 간의 함의 관계를 고려해서 두 번째 관점을 취한다. 이런 완수동사와 행위동사, 완수동사와 달성동사 간의 유사점을 비교해 볼 때 더욱 확실해진다. 완수동사와 행위동사는 완성성과 동질성 두 차질에서 차이가 난다. 반면에 완수동사와 달성동사는 동질성에서는 같은 성격을 지녀 지속성에서만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결합제약에 있어서도 지속성보다는 완성성을 먼저 따져서 완수동사와 달성동사를 함께 비교해 보겠다.



3.2 한국어의 통사적 구성 형식에 관한 상 분석

한국어의 상은 선행 주동사의 어휘상이 주는 정보와 주동사에 후행하여 기능적인 형태소의 역할을 하는 통사적 구성 형식의 상적 의미가 주는 정보가 다르기 때문에 분석적인 접근이 가능하다.

3.2.1 완결상

과거와 완결상이 혼재되어 있는 현상은 다른 언어들에서도 별반 다르지 않다.⁷⁸⁾ 과거에 일어난 일은 일단 완결되어 끝난 일이기 때문에 과거의 사태는 기본적으로 완결상적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어의 ‘-었-’이라는 동일 형태가 과거시제 형태로도 쓰이고 완결상의 형태로도 쓰이는 것은 그 의미 기능면에서 가지고 있는 공통성 때문이다.⁷⁹⁾

따라서 ‘-었-’은 문맥이나 상황에 따라 시제적인 기능이 부각되기도 하고 상적인 기능이 더 잘 드러나기도 한다. ‘-었-’이 드러내는 과거성 의미에는 ‘완결상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었었-’은 어느 경우나 이미 끝난 일을 드러내는 의미 기능을 지니고 있으므로 확실히 완결상을 드러내는 형태로 인정된다. 본고는 이러한 논의를 종합하여 완결상의 형태로 ‘-었-’과 ‘-었었-’을 상정하였다.

3.2.1.1 ‘-었-’

‘-었-’의 주요 쟁점은 ‘-었-’이 과거시제 범주인지, 완결상의 범주인지, 시제와 상이 혼합된 범주인지 등 시제 표지인가, 상의 표지인가로 집약된다. 이 외에도 과거와 완결이 혼합되어 논의된 연구는 최현배(1978:450)의 완료(끝남 때), 이적 끝남때(현재완료),⁸⁰⁾ 이지량(1982)의 과거완결, 현재완결, 미래완결,

78) Comrie(1976:12)에서 지적했듯이 “영어의 완료상은 현재와 관련된 과거 상황을 나타낸다”라고 하였다

79) 서정수(2013:248)에서 “우리말의 경우 형태적인 구분이 없는 실정이므로 과거 시제와 완결상은 본디 동질적이다”라고 하였다.

80) 최현배(1937, 1971, 1989)는 ‘끝남 때’란 ‘나아가던 움직임이 막 끝났음’을 나타내는 것이

과거지속, 완결상태지속 등 매우 다양하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이재성(2000:82)는 “하나의 ‘-었-’에 대해 ‘과거’나 ‘완료’의 해석이 가능한 것은 ‘과거’가 가지는 의미와 사건의 ‘완료’가 가지는 의미가 서로 공유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라고 하였으며⁸¹⁾, 서정수(2013:242–243)는 ‘-었-’은 과거시제 형태이지만 환경에 따라서는 상적인 의미가 강하게 부각된다고 보았다. ‘-었-’이 드러내는 과거성 의미에는 ‘완결상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이에 환경에 따라 시제적인 면보다 그 완료적인 면이 두드러지게 될 때에는 ‘완결상’ 표지로서의 구실을 보인다고 주장하였다. ‘-었-’의 완결상에 부여된 의미 역시 완료상(박창해:1964, 허옹:1968, 김석득:1974, 남기심:1972, 1978c, 서정수:1982), 완료(신성옥:1984, 김동식:1988), 결과상(김종도:1993)으로 세분화된다. 이처럼 ‘과거’나 ‘완료’처럼 시제와 상의 범주를 넘나드는 서로 다른 문법 범주를 하나의 문장에서 가려내는 일은 쉽지 않다.

기존의 연구에서 ‘-었-’의 의미를 완결, 지속, 상태지속, 결과지속 등의 의미로 세분한 것은 ‘-었-’을 완결상의 관점으로 본 것이 아니다. 미완결상의 관점에서 동작의 내부를 들여다 보았을 때 보이는 부분으로 동작의 ‘시작–중간–완료’ 단계 중 일부이다. 동작의 진행 과정 중의 완료는 종결로도 불리는데 이를 ‘-었-’과 함께 다룬다면 서로 다른 충위를 비교하는 것이다.

‘-었-’의 의미를 왕례량(2012)에서는 ‘완결’과 ‘지속’으로 나누고, 양정석(2002)에서는 ‘완료, 결과상태, 과거, 단속’의 4가지 의미로 나누었는데, 이는 모두 서로 다른 충위의 비교이다. 박덕유(2007)도 완료상과 미완료

고, ‘이적 끝남때’는 ‘움직임이 이적(이제)에 끝나서, 그 결과가 방금 드러나 있음을 보이는 때매김’을 가린킨다”고 정의하였다. 이에 대해 조민정(2007)은 “그 다행은 그 움직임이 일어나는 상황에 따라 구별되는 것이지, ‘-었-’의 본질적인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그 구별을 해 내기가 어려운 일이 많다”고 했다. 이러한 정의에서 그의 ‘끝남 때’와 ‘이적 끝남 때’는 ‘시제’가 아니라 ‘움직임의 모습을 드러내는 상’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81) 이재성(2000:82)에서 “발화자가 어떤 사건의 완료의 모습을 인식하고 그에 대해서 발화할 때, 완료 모습의 인식과 완료 모습에 대한 발화는 계기적으로 일어난다. 이러한 두 가지 사실에서, 완료가 순간적일 경우에 완료된 행위는 발화시 이전, 즉 과거의 사건이 되므로 대부분 이러한 경우에 완료된 사건과 과거 사건은 일치하게 된다. 그러므로 ‘-었-’은 ‘과거’로 보든 ‘완료’로 보든 상관없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굳이 ‘-었-’을 ‘과거’나 ‘완료’로 나누어 볼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

상으로 구분하고 미완료상의 하위범주로 ‘진행상, 반복상, 예정상’을 두었다. 박덕유(2007)에서 완료상의 형식에 ‘-어 있다, -어 버리다’를 제시한 것은 완결상(perfective)이 아닌 완료(perfect)를 염두에 둔 것 같기도 하지만, 또 미완료상의 하위범주로 ‘진행상’ 등을 제시한 것으로 보면 비완결상을 염두에 둔 것 같기도 하다. 이처럼 비완결상의 완료를 완료인 것과 완료가 아닌 것들을 비교하면서 완결상과 비완결상을 비교하는 듯한 진술방식은 너무나 많다.

완결상의 완결과 비완결상의 완료는 서로 비교할 수 없다. 일례로 조민정(2007)에서 “-었-”의 의미로 ‘끝남’은 맥락에 따라 ‘동작 끝남’(나아가던 움직임이 끝난 것‘을 말함)과 ‘결과 있음’(움직임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그 결과가 드러나 있는 것’을 나타냄)의 의미를 갖는다. 즉 미종결상 동사구가 ‘-었-’과 함께 ‘동작 끝남’을 나타내고, 종결상 동사구가 ‘-었-’과 함께 ‘결과 있음’을 의미한다. 결국 ‘끝남’이라는 상위의 의미가 맥락에 따라 ‘동작 끝남’과 혹은 ‘결과 있음’의 하위의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는 것은 완결상의 ‘-었-’을 비완결상으로 설명한 것과 같다.

본고는 ‘-었-’의 기능을 완결상으로서의 ‘-었-’은 동작 끝남의 ‘완결상’으로 보고 각 어휘상과의 대응관계를 살피도록 하겠다. 먼저 [완성성]의 동사와 결합하여 동작 끝남의 ‘완결상’의 의미를 나타내는 아래의 예문을 보자.

- (1) 가. 그가 소논문 한 편을 썼다.
나. 그가 노래 한 곡을 불렀다.

(1)의 동사는 [동태성], [지속성], [완성성]의 완수동사이다. (1가)의 동사 ‘쓰다’는 ‘완결상’의 ‘-었-’과 결합하여 완결의 의미를 나타낸다. (1나)의 동사 ‘부르다’도 마찬가지이다. 이처럼 ‘-었-’은 [완성성] 동사와 결합할 때 전형적으로 잘 드러난다. (1)의 예문에서는 ‘소논문 한 편’이나 ‘노래 두 곡’ 등 한계성의 표현이 제시되어 ‘완성’이라는 의미를 더욱 강하게 드러낸다. 그러나 같은 [완성성]이라도 ‘결과상태’라는 의미를 나타내

는 경우가 있다.

- (2) 가. 네 옷에 흙이 묻었다.
나. 그녀의 비밀이 드러났다.

(2)의 동사는 ‘[동태성], [순간성], [완성성]’의 달성동사이다. (2가)의 동사 ‘묻다’는 ‘-었-’과의 결합으로 ‘묻는’ 행위가 완료되고 그 결과가 나타나 있음을 보여준다. (2나)의 동사 ‘드러나다’도 마찬가지로 ‘-었-’과의 결합으로 드러난 행위가 완료되어 그 결과가 있음을 나타낸다.

다음으로 ‘-었-’과 비완결상과의 결합이 자연스럽지 못한 원인을 논의해 보자. ‘-었-’은 자연적 최종점을 갖지 않는 행위동사와 결합될 때 그 동사가 의미하는 지속적인 상황을 단절시키는 기능을 갖는다. 이때의 ‘-었-’은 ‘과거’의 의미만을 나타낼 수밖에 없다. 또한 시작점과 최종점을 상정할 수 없는 상태동사와 결합할 때도 결합이 자연스럽지 못하다. 예문을 들어 ‘-었’의 어떠한 성질과 결합제약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지 확인해보자.

- (3) 가. 그 아이는 천천히 걸었다.
나. 그 아이는 뒷자리에 앉았다.

(3)의 동사는 [동태성], [지속성], [비완결성]을 가진 행위동사이다. (3가)의 동사 ‘걸다’는 ‘-었-’과 결합하여 다 걸은 뒤의 완료를 타나내는 것이 아니라 어느 시점에서의 과거를 나타내는 것이다. (3나)도 마찬가지로 동사 ‘앉다’는 ‘-었-’과 결합하여 앉은 행위가 다 끝나서 완결된 것이 아니라 과거이다. 즉 [완성성]을 가지지 못한 동사는 최종점이 없으므로 완결상의 각도에서 그 동작을 전체적으로 바라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과거는 현재와는 단절된 상황이다.

행위동사와 결합한 ‘-었-’에서 과거의 단절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다음의 예문에서 단절성을 확인해 보자. 아래의 예문은 양정석(2008:708)에

서 “-었-”이 가지는 과거의 순가 시점 의미는 일정한 길이의 사건을 순간 시점으로 전이시키는 의미론적 규칙이 적용되어 얻어진 의미이다. 이렇게 보면 과거의 어느 순간의 동작성 사건도 ‘단절’의 의미로 설명할 수 있다”고 설명한 부분이다.

(4) 가. 난 그 때 책을 읽었다.

나. 그 학생이 그 순간에 운동장에서 달렸다.

(양정석 2008:708)

(4가)의 행위동사 ‘읽다’와 (4나)의 행위동사 ‘달리다’가 ‘-었-’과 결합으로 완결상이 아닌 과거이다. 현재와 단절된 단절성을 (4가)의 ‘그 때’와 (4나)의 ‘그 순간에’의 부가로 이들의 단절성이 더 확연히 부각되어 잘 어울린다.

그렇다면 순간동사와 결합하는 ‘-었-’은 어떤 모습일까? 순간동사는 논의의 관점에 따라서 [완성성]의 자질을 가질 수도 있고, 이 자질을 안 가질 수도 있다. 이때는 완성성의 범주에 동작 후 결과의 내용을 포함시켰는지의 여부에 따라 완성성의 정의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만약 결과성을 포함시키지 않아서 순간동사의 자질은 [+완성성]으로 하였다면 [결과성]을 하위자질로 두어 달성동사와 구분하는 어휘상 분류를 채택한 것이다. 그렇지 않고 [-완성성]으로 하였다면 [결과성]의 자질을 하위자질로 둘 필요가 없다. 이미 완성성의 자격에 표함시켰기 때문이다. 순간동사가 [완성성]을 가지지 않는다는 관점에서 ‘-었-’과의 결합을 논한다면 과연 동작동사와 같은 결과가 도출되는지 아래의 예문으로 확인해 보자.

(5) 가. 밖에서 나는 소리에 그가 움찔했다.

나. 아이가 감기에 걸려 재채기를 하였다.

(5)의 동사는 ‘[동태성], [순간성]’의 순간동사이다. (5가)의 동사 ‘움찔하다’는 ‘-었-’과 결합하여 다 움찔한 뒤의 완료를 타나내는 것이 아니라

어느 시점에서의 과거를 나타내는 것이다. (5나)의 동사 ‘재채기를 하다’도 마찬가지로 완료가 아닌 과거이다. 행위동사와 비교해서 [순간성]의 자질까지 가지고 있으므로 (4)과 같은 부사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단절’의 의미가 확연하게 느껴진다.

상태성 동사는 최종점뿐만 아니라 시작점까지도 분명하지가 않다. 상태 이전의 상황에서 T_1 으로의 진입시점을 시작점으로 인정할 뿐이다. 이러한 상태동사는 ‘-었-’이 적용되었다 하더라도 완결상을 나타낼 수는 없다. 그러나 상태동사와 완결상의 ‘-었-’과의 결합은 완결상을 가지지 않는 행위동사나 순간동사와는 다른 다소 복잡한 양상을 띤다. 이는 크게 양정석(2008)의 ‘상태의 사건화 기능’과 남기심(1972)의 ‘상태의 단속상 기능’으로 요약할 수 있다(왕례량2012:68 참조).

전자는 관점상의 하위 범주로서의 완결상을 가지는 언어에서는 형용사에 완결상이 적용되면 상태를 사건으로 전환시키는 의미 작용이 발생한다는 의미이다. 양정석(2008)은 “상태동사에 완결상 ‘-었-’이 적용됨으로써 ‘상태의 사건화’ 규칙이 작동한다”고 하였다.

(6) 가. 날씨가 춥다.

나. 이때는 날씨가 추웠다.

(양정석 2008:709)

(6가)의 ‘춥다’의 상태 의미에 완결상 ‘-었-’이 적용됨으로써 ‘상태의 사건화’ 규칙이 작동하여 ‘-었-’의 완결 의미가 더해졌다. 이것은 (6나)와 같이 ‘추운’ 상태를 이미 완결된 사건으로 전환시키는 기능이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양정석 2008:710 참조).

후자는 상태성 동사가 ‘-었-’과 결합하는 경우 ‘-었-’은 ‘-었었-’의 변이 형태로 ‘단속’을 나타낸다는 의미이다.

- (7) 가. 영희가 참 착했다.
나. 영희가 참 착했었다.

(왕례량 2012:68)

남기심(1972)는 “(7)의 상태동사와 결합하는 ‘-었-’은 기본적으로 ‘완료’의 ‘-었-’으로 보았다. (7나)에서 실현되는 ‘-었-’은 (7가)의 변이형태로 ‘단속’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본고에서는 양정석(2002)의 견해를 받아들여 상태동사와 결합한 ‘-었-’이 ‘상태의 사건화’에 작용한다는 점에 동의함으로써 비완성성 범주에 상태동사를 포함시킬 수 있는 근거로 사용하고자 한다. 이로써 비완성성이 가지는 ‘-었-’의 기능이 완결보다는 과거라는 논의의 합당성을 주장한다.

이상의 논의에서 완결상은 [완성성]인 자질과 결합하고 [비완성성]의 자질과는 결합제약을 보이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완수동사와 달성동사는 [완성성]을 가진 동사라서 완결의 관점이 더해질 때에는 사건의 종결점에 시구간의 끝 시점을 일치시킨다. 특히 [완성성] 동사에 완결상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사건의 내부 단계들이 쌓여 완성점을 더욱 공고히 표현한다. 그러나 [완성성]을 가지지 않는 행위동사와 순간동사 및 상태동사는 완결상이 결합되는 경우 주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사건을 종결시키고 이미 과거로 끝난 사건이 된다. 비완성동사에서 사태나 사건의 끝이 담지 되려면 사태 전방을 모두 포함하는 참조시(reference time)가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많은 논저에서 발견되는 완료와 완결상(perfective)의 혼란으로 인한 어려움이기도 하다.

3.2.1.2 ‘-었었-’

‘-었-’의 쟁점이 시제 표지인가, 상의 표지인가로 집약되듯이 ‘-었었-’의 쟁점 역시 시제표시인가 상의 표지인가로 집약되어 있다. 시제설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었었-’을 과거의 과거나 대과거를 나타낸다고 보는

입장이고, 상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완결상의 하위 범주로 본다. 본고는 후자의 주장을 지지하여 ‘-었었-’의 의미를 완결상의 하위범주로 논의한다. 아래의 예문으로 확인해 보자.

- (8) 가. 할머니가 안경을 벗었다.
나. 꼬마가 그림책을 다 읽었다
다. 그 친구는 모자를 벗었었다.

(8가)와 (8나)는 모자를 벗는 동작, 책을 읽는 동작처럼 동작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전체적인 면에서 어떻게 되었는지에 초점이 놓여 있으므로 완결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은 외부에서 벗은 동작과 읽은 동작을 바라본 것인지 내부구조와는 관계가 없다. 반면에 (8다)의 ‘었었’은 이미 끝난 일을 드러내는 의미 기능을 지니고 있으므로 완결상을 드러내는 가장 확실한 형태로 인정된다. ‘-었-’으로 나타내는 완결상은 모호성이 있어서 과거 표시의 시간 부사어 따위와 어울리지 않으면 과거 시점에서의 완결 상황을 명시적으로 드러내지 못하는 일이 많다. 그러나 ‘었었’은 그런 부사어나 문맥의 도움이 없이도 과거의 완결상을 드러낸다.

‘-었었-’의 의미에 관한 견해로는 ‘예견’(이남순:1981), ‘과거완료’(이지량:1982, 신성옥:1984), ‘과거경험’(성기철:1974), ‘단속’(남기심:1972) 등이 있다.⁸²⁾ 본고는 ‘-었었-’의 의미를 단속(斷續)으로 보고 논의를 진행한다. 아래의 예문으로 확인해 보자.

- (9) 가. 그는 1년 전에 부산에 갔다.
나. 그는 1년 전에 부산에 갔었다.

(9가)의 ‘-었-’은 단순한 과거의 일을 나타낸다. 이러한 진술로는 그

82) ‘-었었-’의 의미 기능에 대하여 이남순(1981)은 예견(豫見)의 단일 형태소, 이지량(1982)은 ‘과거완료(過去完了)’로, 신성옥(1984)은 ‘-었었-’에서 앞의 ‘-었₁-’은 완료, 뒤의 ‘-었₂-’는 과거로, 성기철(1974)은 ‘-었었-’에서 앞의 ‘-었-’은 과거, 뒤의 ‘-었-’은 경험의 의미를 부여하고 둘을 합쳐 ‘과거 경험’(過去經驗), 남기심(1972)은 ‘-었-’의 시제설을 주장했으므로 ‘-었었-’도 단속상(斷續相)이라 하였다.

이후에 그곳에 살고 있는지, 아니면 갔다 왔는지 모호하다. 과거에 그러했으나, 지금은 그러할 수도 있고 그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이다. 반면에 (9나)의 ‘-었었-’은 과거의 일을 나타냄과 함께 ‘현재와의 단절’을 함께 나타낸다. 즉, ‘-었었-’은 과거에 그러했지만 지금은 그러하지 않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진술은 ‘지금은 그곳에 있지 않다.’라고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이것은 현재와 시간적 연속성이 끊어진 표현이다.

‘-었었-’이 시간의 지속을 나타내는 부사구와 함께 쓰이면 과거 한때 지속된 사건을 의미한다. 그러나 ‘-었-’은 그런 의미를 함의하지 않는다.

(10) 가. *그가 일주일 동안 부산에 갔다.

나. 그가 일주일 동안 부산에 갔었다.

(11) 가. *내가 여태까지 그 사실을 알았다

나. 내가 여태까지 그 사실을 알았었다.

위의 예문은 양정석(2002:189)에서 “-었었-”의 의미로 과거시간의 지속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완수동사, 달성동사’와의 결합을 예로 보이면서 단속 외에 과거 시간의 지속의 의미를 부여한 것이다. 그러나 과거사건의 지속이라는 의미 역시 과거 한때 지속되었던 사태가 지금은 단절된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단속으로 설명할 수 있다.

3.2.2 동작 발달 단계상

본고에서 대상으로 다루는 상 보조용언 범주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동작의 발달단계에 의해서 설정되었다. 이들은 상 보조용언으로 문법화하고 있다고 해도 아직 상 표지로 발달해가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상 의미가 중심 의미라고는 볼 수는 없는 상태이다. 문법화 과정 도중에 있다는 과도기적 특성 때문에 이들의 범주적 지위를 확정하기는 어렵다. 문법

화의 정도를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더더욱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본고는 동작의 변화 단계를 (12)와 같이 ‘시작 전 단계(BS, Before Start) — 시작단계(S, Start) — 중간단계(M, Midum) — 끝 단계(F, Finished) — 끝 단계 이후(AF, After Finished)’로 나누었다. 각 단계 해당하는 동작의 양상을 예정상, 기동상, 진행상, 향진상, 완료상, 지속상으로 범주화하였다. 이 다섯 가지 상은 보조동사 ‘—게 되다, —려고 하다, —어 지다, —고 있다, —어 가다/오다, 버리다, 내다, 두다, 놓다, —어 있’에 의해서 실현되는 것으로 보았다.

(12) 동작의 빨달 단계상

가. BS (Before Start) 단계

: 예정상, ‘—게 되다, ‘—려고 하다’

나. S (Start) 단계

: 기동상, ‘—어 지다’

다. M (Midum) 단계

: 진행상, ‘—고 있다’

: 향진상, ‘—어 가다/오다’

라. F (Finished) 단계:

: 종결상, ‘나다, 내다, 버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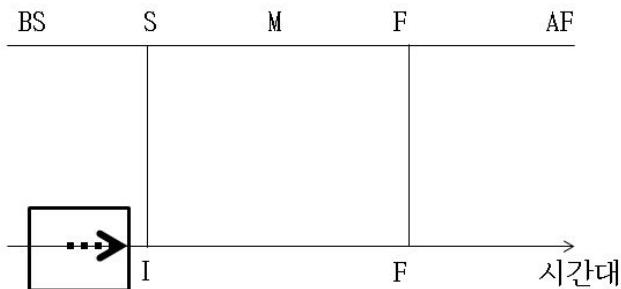
마. AF (After Finished) 단계

: 지속상, ‘—어 있’

3.2.2.1 BS 단계의 예정상

예정상은 현재 시간을 기준으로 앞으로 일어날 동작의 전개 과정을 상적 의미로 파악한 것이다. 어떤 행위가 발생될 상황에 있는 것을 나타내므로 동작의 ‘시작—중간—끝’ 단계에서 동작이 일어나기 전의 단계이다. 이러한 예정상은 ‘—려고 하다’, ‘—게 되다’에서 볼 수 있다. 예정상을 도식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다.

<그림8> BS 단계의 예정상⁸³⁾



-게 되다
-려고 하다

<그림8>의 도식은 동작 ‘A’가 앞으로 어떤 행위가 발생될 상황에 있는 것을 나타낸다. 시작점(I)을 향해 가는 움직임이기 때문에 최종점과는 관련이 없다. 따라서 시작점을 가지고 있으면 결합에 문제가 없으므로 대체로 거의 모든 어휘상과 자유롭게 결합한다. 상태동사와 결합이 부자연스러운 경우는 시작점이 분명하지 않은 상태동사의 상적 특성 때문이다. 순간동사는 시작점과 최종점이 같으나 이 역시 시작점이 존재하므로 순간동사와도 결합이 자유롭다.

이러한 예정상은 옥태권(1988), 박덕유(2003), 고영근(2009) 등에서 언급하였다. 이들의 예정상으로 주장한 형태는 옥태권(1988:52)에서는 ‘-려 하다’를 들고, 박덕유(2003:243)에서는 ‘-려고 하-, -게 되-, -게 하-, -어 지-’를 들고, 고영근(2009:308-309)에서는 ‘-고자 하다, -러 가다, -려고 하다’를 들고 목적성 예정과 의도성 예정으로 세분하였다. 보조용언으로 표현되는 예정상의 경우 양태적 요소가 첨가되어 원인 제공이나 목적, 의도 등이 드러나기 때문에 위에서 제시된 형태들이 김영태(1997)에서는 ‘-려고 하다’를 ‘의도’로, 민현식(1991:130)에서는 ‘-되다’

83) 시간 도식에서 가로선은 시간의 축을 나타낸다. I(Initial point)는 동작의 시작점을, F(Final point)는 동작의 최종점을 나타낸다. 시간축 위의 BS(Before Start)는 동작의 시작 전 단계, S(Start)는 동작의 시작단계, M(Midum)은 동작의 중간단계, F(Finished)는 동작의 끝 단계, AF(After Finished)는 동작의 끝 이후 단계를 나타낸다. 동작A(Action)가 있는 구역이 그 동작이 이루어지는 단계임을 나타낸다.

가 ‘피동’을 나타내는 보조용언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려고 하다’가 의도를 나타내는지 다음 예문으로 확인해 보자.

(13) 가. 비가 오려 한다.

나. 피가 나려 한다.

(14) 가. 창문이 닫히려 한다.

나. 전화가 끊어지려 한다.

(13가)의 ‘오다’와 (13나)의 ‘나다’는 화자나 주어의 의도에 의해서 수행되는 일이 아니다. 의도란 동작주인 주어나 화자가 가지는 것인데 (13가)와 (13나)의 주체는 ‘비’와 ‘피’이다. 동작주로서 의도의 의미를 가질 수 없다. (14가)의 닫히다와 (14나)의 끊어지다는 피동적인 동작이지만 자연스럽게 결합한다. 이는 ‘-려 하다’가 의도의 의미로 쓰이지 않음을 말해준다.

이렇게 주어가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의지에서 비롯하지 않는 행동을 기술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흔히 ‘예정상’의 의미를 부여한다. 그리고 이렇게 의도의 의미를 거부하고 예정상의 자격을 부여한 논의에 대한 또 다른 반론으로 제기되는 것이 ‘피동’의 의미를 부여한 것이다. 그러나 이 또한 재고의 여지가 있다. 다음 예문으로 -되다가 피동의 의미인지 확인해 보자. ‘-되다’는 조남호(2002)에 따르면 “한국어 용언 중 두 번째로 사용빈도가 높은 동사로서 통사적으로 주목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크게는 본동사와 보조동사로 나뉘는데 본동사로서의 ‘-되다’는 불완전 자동사로서 보어 ‘NP-이/가’를 취하는 것이 주된 특성이고, 보조동사로서의 ‘-되다’는 주로 ‘-게 되다’ 구문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게 되다’와 같은 의미로 ‘-도록 되다’와 ‘-기로 하다’가 많이 쓰이지만 본고에서는 문법화 1단계에 해당하는 ‘-게 되다’의 상적 의미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다음 예문으로 확인해 보자.

- (15) 가. 이 학교에서 그녀는 왕따가 되었다.
나. 이 학교에서 그녀는 비참하게 되었다.

- (16) 가. 대학 입학 후 그는 장학생이 되었다.
나. 대학 입학 후 그는 성실하게 되었다.

(15)와 (16)의 예문의 ‘-되다’는 모두 보문 없이는 구문을 완성할 수 없다. (15가)와 (16가)에서는 ‘NP-이/가’ 보어로 나타나며, (15나)와 (16나)에서는 ‘-게’가 보어로 나타난다. (15나)에서는 ‘-게’에 선행하는 어간이 동사로 나타났고, (16나)에서는 ‘-게’에 선행하는 어간이 형용사로 나타났으므로 ‘-게’ 선행어간의 종류에는 제약이 없는 것을 볼 수 있다(김정남 2009:62).

그리고 이러한 ‘되다’ 구문은 형용사의 경우에는 반의어가 발달해 있으므로 반의어들을 이용하면 변화 이전의 상태와 이후의 상태가 상반되는 현상을 ‘-게 되다’ 구문으로 더욱 극명하게 나타내 볼 수 있다.

- (17) 가. 날씨가 따뜻했는데 (겨울이 되어) 추워졌다.
나. 몸이 말랐는데 (많이 먹어) 뚱뚱해졌다.

(17가)의 ‘춥게 되다’가 ‘추워지다’ 구문으로, (17나)의 ‘뚱뚱하게 되다’가 ‘뚱뚱해지다’ 구문으로 바뀐 것이다. 이렇게 ‘-게 되다’ 구문에 사용된 형용사들은 모두 ‘-어 지다’ 구성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어 지다’는 형용사 어간에 결합할 때 ‘상태 변화’를 의미하므로 그러한 의미 기능상에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형용사에서 가능한 ‘-게 되다’ 구문이 ‘-어 지다’ 구문으로의 치환이 동사에서는 가능하지 않다.

- (18) 가. *철수는 사실을 알아졌다.
나. *영희는 자리에 앉아졌다.

- (19) 가. 곳곳에 건물이 세워졌다
나. 갑자기 잡아당기는 바람에 옷이 찢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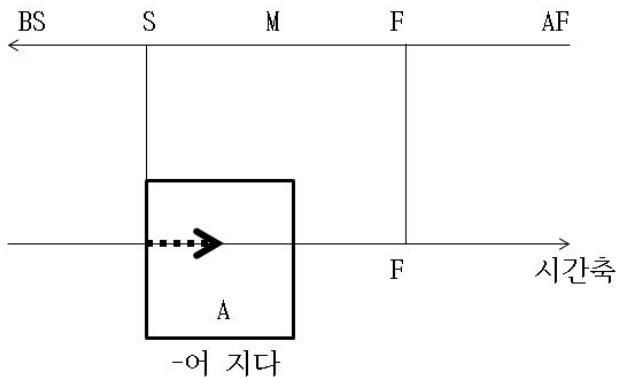
(18)는 동사어간에 ‘-어 지다’가 결합한 것이다. (18가)의 ‘알게 되다’가 ‘알아지다’ 구문으로 (18나)의 ‘앉게 되다’가 ‘앉아지다’ 구문으로 치환되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동사 어간과 ‘-어 지다’의 결합은 어색하다. 그러나 같은 동사라도 (19)는 ‘-어 지다’와 자유롭게 결합하나 그 의미가 변화의 의미가 아닌 피동으로 바뀐다. (19가)는 건물이 없었는데 누군가에 의해 건물이 세워진 것이고, (19나)는 옷이 찢어지지 않았었는데 누군가에 의해 옷이 찢어진 것이다.

이제 여기서 ‘-게 되다’와 ‘-어 지다’의 관계를 설명해 볼 필요가 있다. ‘-게 되다’는 ‘변화’의 의미를 가지며 이러한 ‘-게 되다’는 형용사 어간에 통합할 때 ‘-어 지다’ 구성으로의 변형이 가능하고 이때의 의미 역시 ‘변화’이다. 한편 동사 어간에 통합하는 ‘-게 되다’는 ‘-어 지다’로의 변형이 불가능하며 일부 타동사 어간은 ‘-어 지다’ 구문을 형성하지만, 이때 ‘-어 지다’ 구문의 의미는 ‘피동’이다. 즉 피동의 의미는 ‘되다’가 ‘지다’와의 관계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므로 본고는 예정상으로 ‘-려고 하다’와 ‘-되다’를 선정한 이유이다.

3.2.2.2 S 단계의 기동상

기동상은 현재 시간을 기준으로 동작이 변화를 막 시작한 단계를 상적 의미로 파악한 것이다. 동작의 ‘시작-중간-끝’ 단계에서 시작단계에 해당하며 기동상을 나타내는 형태로는 ‘-지다’가 있다. 기동상을 도식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다.

<그림9> S 단계의 기동상



<그림9>의 도식은 동작 ‘A’가 시작점(I)에서 시작되어 변화단계 초기에 접어들었음을 나타낸다. 최종점은 사각 밖에 있으므로 아무런 관련이 없다. 따라서 시작점을 가지고 있으면 결합에 문제가 없으므로 대체로 거의 모든 어휘상과 자유롭게 결합한다. 그러나 시작점을 상정하기 어려워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으로 봐야 하는 상태동사 시작점의 특성상 예정상과 결합이 부자연스런 반면 이미 외부에서 주어진 시작점이라도 기동상과는 자연스럽게 결합한다. 그 외의 어휘상은 모두 시작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최종점을 고려하지 않는 기동상의 특성상 비교적 자유롭게 기타의 어휘상과 자유롭게 결합한다.

남수경(2011:177)처럼 “‘피동’을 ‘-어 지다’의 기본 의미로 보는 입장에서는 형용사에 ‘-어 지다’가 붙은 예까지도 피동으로 설명하려고 하였으며 반대로 ‘상태변화’를 기본 의미로 보는 입장에서는 타동사에 ‘-어 지다’가 붙은 예까지도 상태변화로 설명하려고 하였다”라고 하였다. 대체적으로 ‘-어 지다’의 의미는 상태변화 혹은 기동상과 피동으로 요약할 수 있다.

‘-어 지다’가 본동사의 의미로는 ‘떨어지다, 없어지다, 이루어지다, 나타나다’ 등의 의미이고 보조동사로서의 ‘지다’는 주로 ‘변화, 피동, 기동’의 의미로 쓰인다. 일반적으로 보조동사는 형태가 동일한 본동사와 의미면에

서 서로 연관성이 있다. 그러나 ‘-어 지다’의 경우 위에서 제시된 본동사에서 ‘변화’와 기동의 의미는 다른 보조동사에 비해 관련성은 다소 떨어진다.

본동사 ‘-어 지다’가 변화를 나타낼 경우는 상태동사와 결합할 때에 잘 드러난다. 이때 상태를 표시하는 부사어 등이 첨가되면 ‘-어 지다’의 변화 의미가 더욱 강조된다.

(20) 가. 몸이 점점 가벼워진다.

나. 하늘이 점차로 시커멓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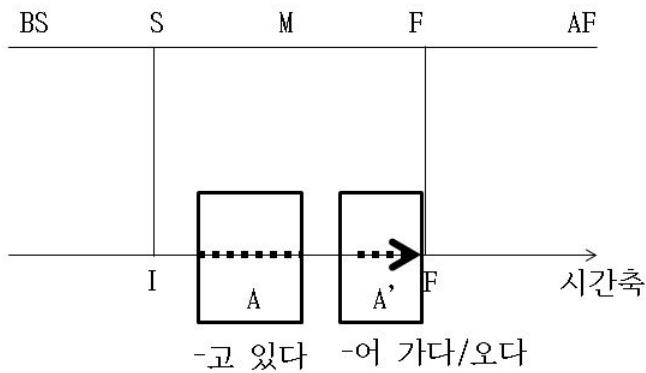
(손세보풀 1995:1002)

일반적으로 상태동사는 항구적인 속성을 나타내는 (20가)의 ‘가볍다’와 (20나)의 ‘-시커멓다’에 ‘-어 지다’가 결합한 것이다. 이로써 고정된 형용사의 상태에 변화가 시작된 것이다. 또한 상태동사는 [상태성]이므로 [동태성]의 ‘-어 지다’와 결합할 수 없지만 상태의 변화를 표현하며 부사어 ‘점점’과 ‘점차로’ 등의 부가로 이러한 선택 제약이 소멸된다.

3.2.2.3 M 단계의 진행상과 향진상

진행상은 동작의 발달 단계 중 중간에 해당되며 동작이 계속됨을 의미한다. 진행상은 주로 ‘-고 있-’의 형태로 나타난다. 도식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다. 향진상은 동작의 발달 단계는 진행상과 동일하게 발달 단계 중간에 해당한다. 그러나 진행상의 단계와 비교하였을 때 최종점과 가까운 곳에서 최종점으로 향해가는 추향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림10> M 단계의 진행상과 향진상



<그림10>의 도식은 동작 ‘A’가 동작의 진행 중임을 나타낸다. 동작 ‘A’는 동작이 끝점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을 나타낸다. 동작 ‘A’는 시작점과 최종점은 관여하지 않고 [동태성]을 가진 동작이 계속됨을 나타낸다. ‘-고 있다’는 이러한 [동태성, 지속성]의 동사와 어울린다.

반면에 ‘A’는 최종점을 향해가기 때문에 최종점을 가진 동사의 모습이다. 진행상이 [상태성]과 [순간성]을 가진 동사와 결합하지 못하는 이유는 [상태성]은 행위가 발생하거나 변화가 일어날 수 없고, [순간성]은 시작점과 최종점이 같아서 한 순간에 끝나므로 변화가 일어나기 위한 최소한의 시간이 보장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질을 자진 어휘상이 ‘-고 있다’ 형태와 결합하면 어떤 행위나 변화가 일정 시간 동안 계속되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이때의 동작은 단일 동작이 그대로 계속되는 내부구조이며, 이 단일동작이 반복되는 것은 진행상의 범주에 포함하지 않는다. ‘-어 가다’는 시간적 측면에서는 도달점에서 멀어지는(미래로 나아가는) 시간적 이동을 나타내고, ‘-어 오다’는 도달점으로 가까워지는(현재로 접근하는) 시간적 이동을 나타낸다.

방향성에 있어서는 서로 반대되는 움직임이지만 과거가 아닌 현재와 미래를 지향하는 성질은 동일하다. ‘-고 있다’와 비교해 보면 ‘-고 있다’는

지금의 상태에 초점이 있는데 비해 ‘-어 가다/오다’는 출발점에서 도달점을 향하는 변화의 흐름에 초점이 있다. ‘-고 있다’와 ‘-어 가다/오다’는 동작 발달 단계 중 계속 중의 중간 단계이므로 진행상과 향진상 모두 최종점의 유무와는 관계가 없다. 그러나 결합제약에 있어 향진상은 최종점을 향하는 양상이므로 진행상보다는 [완성성]의 유무에 따라 결합제약을 보이기도 한다.

3.2.2.3.1 진행상

진행상은 주로 연결어미 ‘-고’와 보조동사 ‘있다’가 결합되어 이루어진 ‘-고 있-’의 합성형태로 나타난다. 합성형태지만 의미적으로는 하나의 덩어리로 기능하기 때문에 하나의 형태소처럼 취급되고 있다. 최현배(1971:312)는 ‘-고’의 의미에 대해서 “먹고 싶다(바람), 먹고 있다(나아감), 짚고 간다(방법), 먹고 왔다(얼안), 밥도 먹고 죽도 먹는다(별림)”로 나누어 ‘-고’의 의미를 세분하였다.

이는 크게 완료상태(의 지속), (동작의) 진행으로 대분할 수 있다. 보조동사로서의 ‘있-’의 의미는 표준국어대사전에 의하면 주로 동사 뒤에서 ‘-고 있다’의 구성으로 쓰여 앞말이 뜻하는 행동이 계속 진행되고 있거나 그 행동의 결과가 지속됨을 나타낸다고 기술하고 있다. 보조동사 ‘-있-’은 본동사 ‘있다’의 문법화 단계를 거친 것이고 본동사 ‘있다’의 의미는 ‘머물다, 유지하다, 경과하다, 차지하다, 존재하다, 처한 상태이다, 지속하다’ 등으로 다양하다.

결과적으로 보조적 연결어미 ‘-고’와 보조동사 ‘-있-’이 만들어 내는 의미는 간단하지가 않다. 기본 의미는 이에서 벗어나지 않지만 문맥이나 공기하는 동사에 따라 지속, 상태, 진행, 결과 등의 부수적인 뜻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진행형이라 불리는 ‘be + -ing’와는 달리 ‘-고 있-’은 진행형이라 칭하지 않고 진행상이라 부르고 진행상 이외에도 상당히 다양한 시제적/상적 의미를 표현하기 때문에 연구자에 따라서는 ‘-고 있-’ 형태라고 불린다.

‘-고 있-’은 나진석(1971)을 통해 ‘나아감’으로 규정된 이후 ‘진행’을 기본 의미로 하는 대표적인 상형식으로 연구되어 왔다.

‘-고 있-’이 드러내는 진행상의 모습을 아래 예문에서 확인해 보자.

(21) 가. 태민이가 운동장을 달리고 있다.

나. 비가 오고 있다.

다. 태민이가 자전거를 밀고 있다.

(22) 가. 운동장을 점점 더 빨리 달리고 있다

나. 비가 점점 더 많이 오고 있다.

다. 태민이가 자전거를 더 세게 밀고 있다.

(21)의 ‘달리다’, ‘오다’, ‘밀다’는 [동태성]과 [지속성]을 가진 동사로 동작의 계속을 나타내는 ‘-고 있’과 어울려 진행의 의미를 가장 잘 드러낸다. 이러한 진행상의 의미는 (22)의 정도를 나타내는 부사 ‘점점 더 빨리, 점점 더 많이, 더 세게’와 같은 부사와 어울려 동작의 역동성을 잘 드러낸다.

그러나 이런 단일 동작은 무한정 지속되기는 어려우므로 진행상은 대개 시간의 제약을 받는다. 단일 동작이 오래 계속될 때에는 대부분 그쳤다가 다시 시작되기 쉬우며, 그렇게 되면 단일 동작의 지속이 아니라 반복이 되므로 진행상이라 할 수 없다. [동태성]과 [지속성]을 가진 동사라 하더라도 다른 부사가 첨가되었을 경우는 진행상이 아니라 반복상으로 바뀐다. 아래의 예문으로 확인해 보자.

(23) 가. 어머니는 가끔 울고 있다.

나. 그는 요즘 노래를 만들고 있다.

(23가)의 ‘울고 있다’는 ‘가끔’이라는 부사에 의해서 단일동작이 아니다. 동작이 되풀이되므로 진행상이 아닌 반복상을 드러낸다. (23나)의 ‘만들고

있다’는 ‘요즈음’이라는 부사에 의해서 단일 동작 내에서의 지속적인 동작이 아니다. 긴 시간 동안에 걸쳐 되풀이됨을 나타내므로 진행상이 아닌 반복상이다. ‘-고 있-’이 [동태성, 순간성]의 자질을 갖는 동사와 결합할 때는 부사가 없더라도 반복상을 의미한다. 순간성의 자질을 가진 동사는 짧은 시간에 일어나는 사건을 나타내는 동사이기 때문에 그 본질상 일정 시간의 지속을 의미하는 진행형을 형성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순간성] 동사에 ‘-고 있-’이 결합된 문장이 있다면 이는 진행상의 의미가 아니라 반복상이나 완결 상태상/결과상으로 해석된다. 이 중 반복상으로 해석되는 경우를 보면 다음과 같다.

(24) 가. 유기고양이가 죽고 있다.

나. *지금 사람이 죽는 중이다.(진행상)

다. 전쟁터에서 매일 사람이 죽고 있다.(반복상)

즉, (24가)는 (24나)와 같은 진행상으로 해석되지 못하고 (24다)와 같이 반복상으로 해석된다. 특히 앞에 동사 분류 중의 ‘때리다, 흔들다, 반짝이다, 폭발하다’ 등 순간 동사는 아주 순간적인 사건을 가리키기 때문에 계속성을 갖는다고 생각하기가 어렵다. 결과적으로 순간 동사와 ‘-고 있-’이 결합할 경우에는 단일 사건이라기보다는 ‘사건이 반복됨’으로 반복상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25) 가. 빗방울이 유리창을 때리고 있다

나. 그 아기는 땀꾹질을 하고 있다

다. 스님이 목탁을 두드리고 있다

(25)에서 진행인 ‘-고 있-’은 ‘행위의 반복 또는 습관’을 의미한다. 예문 중 ‘때리다, 땀꾹질을 하다, 두드리다’라는 행위는 단 한번 일어나고 지속되거나 동작이 계속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가 반복되거나 습관적으로 일어난 것이다. 그래서 순간동사와 ‘-고 있-’이 결합하면 ‘-고 있

–’이 진행상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반복상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나 ‘–고 있–’은 반복상이 나타낸 조건이 동사 자체의 의미일 뿐만 아니라 문장이 기술되는 전체적 상황에서도 영향을 받고 있다.

3.2.2.3.2 향진상

향진상은 보조용언 ‘–어 가다/오다’의 상적 의미는 계속, 변화. 시작과 소멸 등으로 논의되어 왔다.⁸⁴⁾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진행상, 향진상, 가속상, 목표지향적 진행상, 지속상, 계속상 등의 명칭으로 불린다. 그러나 이들의 의미는 ‘점충적 변화 과정을 수반한 기동(起動)’으로 요약할 수 있다.⁸⁵⁾

향진상과 가속상은 최종점을 향해 나아가는 동작의 점진적 변화가 부각된 용어라는 점에서 유사하고, ‘목표지향적 진행상’과 ‘지속상’ 및 ‘계속상’은 ‘–어 있다’와 ‘–고 있다’의 관련성을 중시한 것이라는 점에서 유사하다. 본동사로서의 ‘–어 가다/오다’의 원형적 의미는 ‘도서관에서 오다’, ‘산으로 가다’처럼 공간적 이동을 의미한다. 그러나 선행동사 뒤에서 보조동사로 쓰일 때는 주로 공간적 이동이 아닌 시간적 이동과 상태변화를 의미한다. 시간적 이동과 상태변화의 측면에서는 상과 결부되어 연구되면서 진행상이나 지속상에 포함되기도 한다.

84) 계속은 진행, 지속, 동작의 계속을 포함하는 의미이다. 진행의 의미를 부여한 연구는 최현배(1999:400), 이관규(1987:60), 남기심(1985), 박선옥(2005:133)에서, 지속은 민현식(1993:76), 손세모돌(1996:127), 김영태(1997), 서정수(2006:647)에서, 동작의 계속은 이기동(1997)에서 볼 수 있다. 변화는 상태변화, 변이, 상태변화의 지속을 포함하는 의미이다. 상태변화의 의미를 부여한 연구는 이기동(1977:?), 김명희(1984/1988), 박선옥(2005)에서, 변이는 유목상(1980)에서, 상태변화의 지속은 손세모돌(1996)에서 볼 수 있다. 이 중 원형의 미와 상의미를 다르게 지정한 연구도 있으며(박선옥:2005), 복합동사 구성의 범위에서 의미를 다른 연구(이기동:1977)도 있어 범위는 학자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다.

85) ‘진행상’은 최현배(1999:400–401), 남기심·고영근(2001:123), 박선옥(2005:133)에서 볼 수 있으며 기본 상의미는 진행이지만 원형적 의미는 ‘변이’로 보았다. ‘향진상’은 옥태권(1988:68–78)에서 ‘어떤 기준점(동작의 끝점)을 향하여 나아가는 동작’의미로 보았다. ‘가속상’은 이지양(1982)에서 ‘지속의 하위 부류이긴 하지만 상황의 늦은 시간으로 갈수록 진전되는 것’의 의미로 보았다. ‘목표지향적 진행상’은 김성화(1992:126–146)에서 ‘목표점이나 도달점을 향한 움직임’을 나타낸다는 의미로 보았다. ‘지속상’은 박지홍(1981:115), 민현식(1993:76), 김영태(1998a:82–84), 서정수(2006:647–649)에서 ‘–가다/오다’의 추상적 과정을 지속의 의미로 파악한 것이다. ‘동작의 계속’은 이기동(1977:141)에서 시간의 흐름으로 설명하였다. 그는 “시간의 흐름은 과거–현재–미래의 방향으로 흐르는 것이다. 화자가 현재에 위치하고 있다고 가정한다면 과거에서 현재까지 계속되는 일이나 동작은 ‘오다’에 의해서 표현되고, 현재에서 미래로 계속될 때 ‘가다’가 쓰인다”라고 하였다.

‘-어 가다/오다’는 현재와 미래를 지향하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방향성에 있어서는 상반된 움직임을 나타낸다. 미래를 지향하는 성질에 있어서는 ‘-고 있다’도 같은 의미를 지닌다. ‘-고 있다’는 미래를 지향하는 성질이 있지만 초점은 지금의 상태에 있는 것이다. ‘-어 가다/오다’는 출발점에서부터 미래로, 혹은 도달점을 향하는 ‘이동하는 흐름’에 초점이 있다.

다음 (64)의 예문을 보면 ‘지금의 상태’의 ‘-고 있다’와 ‘이동의 흐름’의 ‘-어 가다/오다’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지금 현재의 상태인 ‘-고 있다’와 이동의 흐름이 있는 ‘-어 가다/오다’를 비교해 보자.

(26) 가. {지금/ *앞으로} 체중을 줄이고 있다.

나. {*지금/ 앞으로} 체중을 줄여 나간다.

(26가)의 ‘-고 있다’는 현재를 나타내는 부사어 ‘지금’과 자연스럽게 결합하지만, 시간적 폭을 가진 ‘앞으로’와는 결합이 부자연스럽다. (26나)의 ‘-어 가다’는 미래를 나타내는 부사어 ‘앞으로’와 잘 어울리지만, ‘지금’과는 부자연스럽다. 이처럼 ‘-고 있다’와 ‘-어 가다/오다’는 모두 계속을 의미한다. 둘의 차이점은 ‘-고 있다’는 지금의 상태에 초점이 맞추어져 시간의 폭을 가진 부사어와는 결합이 부자연스럽고, ‘-가다/오다’는 ‘이동의 흐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므로 시간의 폭을 가지고 있는 부사가 흐름을 나타내기에 적합하다.

이동의 흐름에 초점이 있으므로 [동태성]을 가진 동사 중 유일하게 지속성이 없는 순간동사의 결합과만 제약을 받을 뿐 행위동사, 달성동사, 완성동사와는 모두 결합에 제약이 없다. 다음 예문으로 확인해 보자.

(27) 가. *아이가 땀꾹질을 해 간다.

나. *불빛이 반짝여 온다.

(27가)의 ‘땀꾹질하다’와 (27나)의 ‘반짝이다’는 [동태성, 순간성, 비완성성]의 순간동사이다. ‘-가다/오다’는 최종점을 향하는 이동의 흐름을 나

타내므로 시작점과 최종점이 동시에 발생하여 순간적으로 행위가 이루어지는 순간동사와는 결합제약을 받는다.

‘-어 가다/오다’는 최종점으로 접근하거나 최종점에서 멀어지는 내부단계를 가지고 있으나 정작 최종점 그 자체와는 관련이 없다. 이에 임의적 최종점이나 자연적 최종점과도 무관하다. 지속의 과정을 가지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결합할 수 있다. 아래의 예문으로 확인해 보자.

(28) 가. 아이가 우유를 다 마셔 간다.

나. 나는 책 한권을 거의 읽어 간다.

(28)은 ‘-어 가다’가 최종점과는 무관함을 보여준다. (28가)의 동사 ‘마시-’는 [동태성, 비완성성, 지속성]의 행위동사이다. (28나)의 동사 ‘읽-’는 [동태성, 완성성, 지속성]의 완수동사이다. (28가)는 [비완성성]이고 (28나)은 [완성성]이지만 이 동사들은 모두 ‘-어 가다’와 자연스럽게 결합한다.

(29) 가. 요즘 그에 대해 알아가다.

나. *아이가 물을 쏟아가다.

(29)는 [동태성, 순간성, 완성성]의 달성동사이다. 그러나 같은 달성동사라도 (29가)는 정문이나 (29나)는 결합이 부자연스럽다. 이는 ‘-어 가다’는 끝점을 향해 가는 과정 단계에 있으므로 과정 단계가 없는 동사와는 결합이 제약된다. 달성동사는 예비과정이 필수 단계가 예비단계를 가지는 (29나)의 인식류의 달성동사는 자연스럽게 공기하나, 예비단계를 가지지 않는 (29가)의 달성동사 부류는 결합이 자연스럽지 못하다.

그렇다면 예비단계가 없는 달성동사라도 모든 달성동사는 [완성성]의 자질을 가지므로 최종점 도달 후 결과단계와는 결합할 수 있는가 의문이 생긴다. 그러나 결과단계는 [완성성]을 전제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그렇다면 [순간성, 결과성]의 자질과 결합한 ‘-어 가다’는 순간성동사의 영향으

로 ‘점층’ 또는 ‘반복’의 의미를 나타내게 된다. 이점은 ‘-고₁ 있-’이 [+순간성]과 결합하여 ‘반복’을 나타내는 것과 매우 유사하다.

(30) 그의 비밀이 드러나고 있다.

(30)의 ‘드러나-’는 예비과정이 없는 달성동사이다. ‘비밀이 드러나-’는 최종점 도달 후의 결과단계와 순간성이 공존하여 마치 순간동사와 흡사한 모습이고 이에 ‘-어 있-’과의 결합은 진행상의 결합과 유사하다. 의미 역시 진행상의 결합과 유사한 ‘반복’의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일련의 예들을 검토해 볼 때 과연 ‘-어 가다/오다’가 내부단계의 지속이나 진행의 의미를 드러내는 것인가에 대해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

‘-어 가다/오다’가 진행의 상적 의미를 가지면서 상황의 내부단계의 일부에서 지속되는 과정을 요구한다는 조건을 위해서는 해당 상황에 [과정성]의 상적 특성이 필요하다. [과정성]의 상적 특성은 완성과 동작상황유형만이 가진다. ‘-어 가다/오다’가 상황의 끝점과는 무관하다는 것은 [한계성]의 상적 특성이 무관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과정성]을 가지면서 [한계성]을 가지지 않는 상황인 동작유형과 [과정성]을 가지면서 [한계성]을 가진 완성에서 ‘-어 가다/오다’가 쓰일 수 있다.

성취의 경우는 ‘잠재적 과정’의 진행을 드러내면서 ‘-어 가다/오다’가 쓰일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들에 대해서는 화자의 시간적 위치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필요하다 ‘-어 가다’는 화자의 시간적 위치에서 시작되어 약간 진행된 사건의 진행 과정을 드러내고, ‘-어 오다’는 화자의 시간적 위치에서 볼 때 이미 존재한 사건의 진행과정을 드러내는 것 같다.

‘-어 가다’의 상적 의미를 동사의 성격에 따라 정리하면 ‘-어 가다’는 상태동사 중에서 시간적 이행에 따라 상태변이가 있는 상태동사와 결합하면 ‘진행’의 의미를 나타내고, 사물의 지속적인 속성을 나타내는 상태동사와는 결합하지 못한다. 성취동사와 결합하면 ‘변화의 진행’을 나타내고 행위동사나 완수동사와 결합하면 ‘진행’의 상적 의미를 지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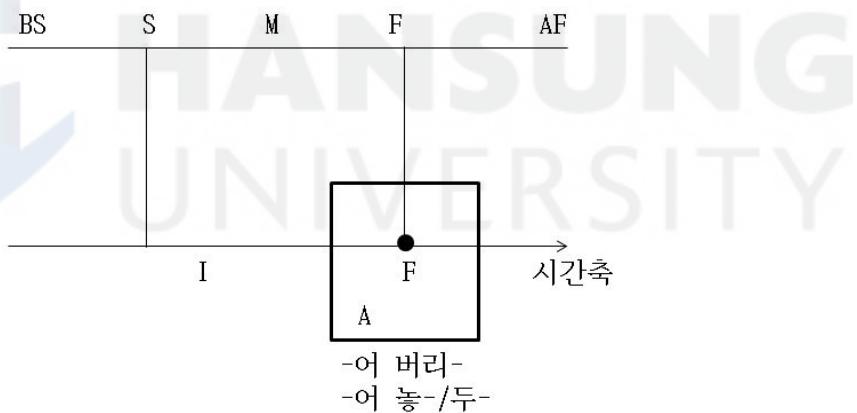
‘-어 오다’는 사물의 지속적인 속성을 나타내는 상태동사와는 결합할 수

없으며, 시간 이동에 따라 상태 변화를 나타내는 상태동사와 결합하면 ‘진행’의 상적 의미를 실현한다. 그리고 행위동사, 완수동사와 결합하면 장기적인 기간을 거치는 행위의 진행을 나타낸다. 성취동사와 결합하여 ‘변화의 진행’을 나타낸다.

3.2.2.4 F 단계의 종결상

종결상은 [완성성]을 가진 동사와 결합하여 원래 가지고 있는 최종점을 더욱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 종결상은 동작의 발달 단계에서 끝 단계에 해당하며 ‘어 버리다’, ‘-어 놓다/두다’의 보조동사로 나타낸다. 완료상을 도식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다.

<그림11> F 단계의 종결상



<그림11>의 도식 ‘A’는 동작의 최종점에서 종결됨을 나타낸다. 동작 ‘A’는 보조동사 ‘-어 버리-’, ‘-어 놓-’, ‘-어 두-’와 결합하여 종결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완성성]을 갖지 못한 상태동사와 행위동사와 동사와 결합할 때에는 불확실한 최종점으로 인해 결합제약이 있다.⁸⁶⁾

86) 보조동사 ‘버리다’의 의미에 대해 종결(終結)의 의미 기능으로 파악한 연구는 최현배(1937), 김용석(1983), 남기심(1985), 김기혁(1987), 박영순(1993), 임홍빈(1997), 김영태(1997), 손세모돌(1996) 등이 있으며, 완결(完結)의 의미로 파악한 연구는 김명희(1984), 이관규(1992), 박덕유(1998) 등이 있다. 이처럼 보조동사 ‘버리다’는 종래에 상적인 의미를 표시하는 것으

최현배(1935)와 남기심(1985)의 논의에서는 상적인 특성이라고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버리다, 내다 말다, 치우다’는 끝남 또는 종결로 보고 ‘놓다, 두다’는 지님 또는 보유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강홍구(1999), 한송화(2000)와 같이 ‘놓다’와 ‘두다’가 완결상과 지속상의 의미와 관련된다고 봄으로써 완료와 미완료를 구분하지 않았다. 이들이 논의한 ‘버리다, 놓다, 두다’ 등은 비완결상의 관점 중 종결에 해당하다. 한편 다른 보조용언 연구와 달리 ‘놓다’는 완료상으로 보고 ‘두다’만 미완료상으로 본 유영길(1995)과 김영태(1997)도 있다(장미라2006:37). 그러나 본고의 입장에서는 여기서 제시한 완료상은 완결상을 의미하고 미완료상은 비완결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 완료는 미완료상 중 동작 끝 단계에 해당되는 것인데 이 둘을 다른 범주로 여긴 것은 층위를 달리한 것이기 때문이다.

본동사 ‘버리다’의 의미는 필요 없는 물건을 내던지거나 쏟거나 하다는 의미이다. 추상화된 버릇, 감정, 직업, 관계, 사상을 고치거나 그만두거나 끊는다는 의미의 ‘버리다’가 확장된 의미이다. 보조동사로의 ‘-어 버리다’는 선행동사 뒤에서 ‘-어 버리다’ 구성으로 쓰여 앞말이 나타내는 행동이 이미 끝났음을 나타낸다. 선행동사가 나타내는 행동이 이루어져서 갖게 되는 완료성을 띠며 이때 양태적인 의미로 화자의 아쉬운 감정을 갖게 되었거나 또는 반대로 부담을 덜게 되었음이 부가된다.

또한 끝단계가 있는 움직임이라도 끝단계가 상대적으로 뚜렷이 인식되느냐 거의 인식되지 않느냐에 따라 완결상을 드러내는 방법이 다를 것으로 가정된다. 동작의 끝단계에 대한 인식정도의 차이는 [결과성] 여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으로 보인다. 즉 [결과성]의 동사는 시작 단계보다 끝 단계가 [-결과성]의 동사는 끝단계보다 시작단계나 중간 단계가 뚜렷하게 인식됨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인식적 의미 차이를 근거로 해서 선행동사에 결합되는 ‘-아 버리-’가 완료성을 드러내는 방법을 아래 예문으로 확인해 보자.

(31) 가. 그는 그 냉면을 먹어 버린다.

로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었으나 柳穆相(1980), 박선옥(2002)에서는 완료를 전제로 하되, 심리태도를 드러내는 양태적 의미에 대해서도 그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나 그는 동생을 때려 버린다.

(32) 가. 그는 그 옷을 입어 버린다.

나. 그는 죽여 버린다.

(31가)의 ‘먹다’는 [비완성성]의 행위동사이고, (31나)의 ‘때리’는 [비완성성]의 순간동사이다. (32가)의 ‘입다’는 [비완성성]의 행위동사이고, (32나)의 ‘죽다’는 [비완성성]의 순간동사이다. (31)과(32)는 모두 [비완성성]이라도 (31가)와 (32가)의 최종점의 인식차이는 F_{Arb} 여부에 의해서 결정되므로 동작의 끝단계가 거의 인식되지 않는 희미한 부분이고, (31나)와 (32나)의 최종점 F_{Nat} 인 순간동사는 F_{Arb} 에 비해 끝단계가 좀 더 명확하게 인식된다.

따라서 (31)의 [비완성성] 동사에 결합되는 ‘-어 버리-’는 희미하게 인식되는 동작의 끝단계를 두드러지게 드러내는 ‘명료화’의 방법으로 완결상을 실현시키고, (32)와 같은 [완성성] 동사에 결합되는 ‘-어 버리-’는 뚜렷하게 인식되는 동작의 끝단계를 다시 드러내는 ‘강조’의 방법으로 완결상을 실현시킨다고 할 수 있다.

본동사에 결합되는 ‘-어 버리-’가 완결상을 드러내는 방법과 상의 범주, 상 자질의 결합은 아래와 같이 요약된다.

첫째, [비완성성]과 결합하는 ‘-어 버리-’는 ‘명료화’의 방법으로 완료상을 드러낸다.

둘째, [완성성]과 결합하는 ‘-어 버리-’는 ‘강조’의 방법으로 완료상을 드러낸다.

셋째, 본동사에 ‘-어 버리-’가 결합되어 완료상을 드러낼 경우, 본동사의 자질은 조동사의 상 자질에 지배되어 그 값이 상실된다.

그러나 완료의 강조라는 의미에 대해 ‘-어 버리-’가 ‘-었-’과 결합하여 해석되는 의미이므로 완료의 의미는 ‘-었-’에서 나온다는 논의를 살펴

보자.

- (33) 가. 그 동안에 몸무게가 많이 늘었구나.
나. * 그 동안에 몸무게가 많이 늘어 버리는구나.
다. 그 동안에 몸무게가 많이 늘어 버렸구나.

(33가)는 ‘-었’만 쓰인 것이고, (33나)는 ‘버리다’가 (33다)는 ‘버렸다’가 쓰인 예이다. (33가, 다)는 문법적인 문장으로 어감의 차이를 갖는다. ‘종결’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33다)가 더 강한 표현으로 인식된다. 이는 ‘버리다’가 가지는 ‘종결’이라는 의미가 ‘-었’이 표시하는 ‘완료’를 더욱 확실하게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었’은 ‘완료’라는 상을 표현하고 ‘버리다’는 ‘완료’에 대한 태도. 즉 완전히 끝났다는 태도를 표시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아/어 버리-’와 자주 공기하는 동사들은 모두 최종점을 가지고 있는 동사들이다. ‘-아/어 버리-’가 완료상 내지 결과상 표지로 발달하는 데는 ‘-아/어 있-’과 ‘-고 있-’이 장애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아/어 버리-’는 그들과의 경쟁을 피하는 길을 택하다 보니 본동사일 때의 의미의 상당 부분을 오랫동안 잊지 않고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어 버리-’와 더불어 종결을 나타내는 또 다른 보조동사로는 ‘-어 놓/두-’가 있다. 이들을 ‘-어 버리-’와 비교하면 ‘-어 버리-’에 비해서 ‘종결 후 상태 지속’의 의미가 강하다. 그러나 ‘-어 버리-’가 여타의 보조동사에 비해서 유독 양태적 요소가 강한 것일 뿐 양태적 요소를 제외하면 종결상적 요소는 ‘-어 버리-, 어 놓/두-’가 동일하다. ‘-어 놓/두-’도 양태적 요소로 미묘한 차이가 나는 것일 뿐 사실 이 둘을 정확하게 구분하여 사용하기는 어렵다. 그 의미 차이는 ‘-어 놓-’와 ‘-어 두-’가 보조동사로 쓰일 때는 ‘앞말이 뜻하는 행동을 끝내고 그 결과를 유지함’을 의미한다. 다만 ‘-어 두-’에는 주어의 의지로 ‘그 행동이 어떤 다른 일에 미리 대비하기 위한 것’이고 ‘-어 놓-’에서 이러한 의미는 유무의 차이점이 있다. ‘-어 놓/두-’의 기본 의미는 ‘보유’(최현배:1999, 유목상:1980, 남기심:1985, 서정수:2006), ‘유지’(박선옥:2005), 결과지속(손세모돌:1996),

완료지속(민현식:1993), 종결(김영태:1997)로 보았다. ‘-어 놓/두-’의 의미를 분리한 이기동(1979:943)에서는 ‘-어 놓-’는 ‘상태변화’로, ‘-어 두-’는 ‘상태유지’로 보았다. 김명희(1984/1988)에서는 ‘-어 놓-’는 ‘보유 완료’로, ‘-어 두-’는 ‘보유시간 지속’으로 보았다.

본고는 ‘-어 놓/두-’의 기본의미를 종결의 의미로 보고 부가적 의미는 양태적 의미에서 나온다고 보았다.⁸⁷⁾ 아래 예문으로 그 기본 의미를 확인하고 이들의 양태적 의미 차이를 살펴보자.

(34) 가. 그가 반찬을 만들어 놓았다/두었다.

나. *상처가 흉터를 만들어 놓았다.

다. *상처가 흉터를 만들어 두었다.

(35) 가. 커피를 미리 타 놓았다/?두었다.

나. 노년을 위해 보험을 미리 들어 ?놓았어/두었어.

(34가)는 선행동사 ‘만들다’에 보조동사 ‘-어 놓/두-’가 후행되어 ‘만든 것을 끝내다’라는 종결 후 결과, 혹은 완료 후 완료 유지의 의미를 갖게 된다. 의지를 가지고 ‘대비’, ‘준비’를 한다는 양태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선행하는 동사는 반드시 의지동사이어야 하고 행위주가 의지를 가지면서 어떤 목적을 위해 선행동사의 동작을 한 후 그 다음에 그것을 다시 의지를 가지면서 유지시키려고 하는 뜻을 지닌다. 그렇기 때문에 (34나)와 (34다)처럼 행위주가 아니면 비문이 된다.⁸⁸⁾ 또한 (35)의 ‘커피를 타다’와 같이 과정이 순간적이나

87) 구종남(1985)은 ‘-어 놓다/두다’가 종결의 의미를 갖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그 증거로 다음 세 가지를 들었다.

첫째, ‘-ㄴ다’의 형태로 쓰일 수 있다는 점

둘째, ‘놓다’는 형용사와 결합할 수 있다는 점

셋째, ‘놓다’가 피동문 변형에서 동일한 의미를 나타내지 못한다는 점

88) 강현화(1998)에서는 ‘-어 두다’는 ‘-어 놓다’에 비해 주어의 자질이 유정물이어야 한다는 제약이 강한 편이기는 하나 반드시 [+person]일 것을 요구하지는 않고, 동물이나 유정물의 집단인 경우도 가능하다고 하였다.

(가) 한국은 월드컵 티켓을 확보해 두었다.

(나) 제비가 부지런히 집을 지어 두고 있는가 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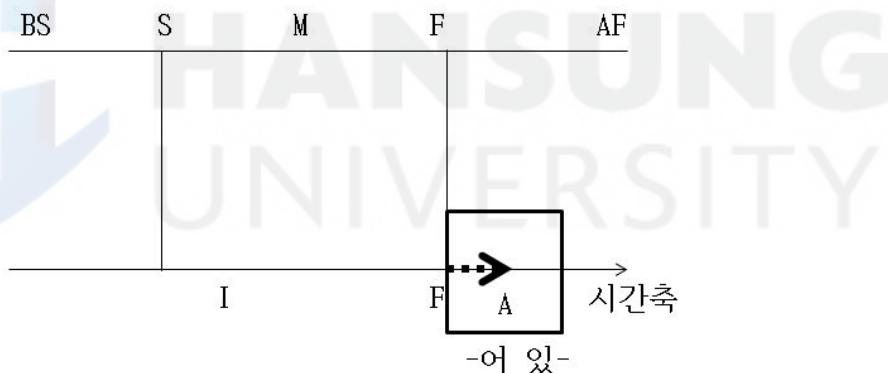
(가)는 주어가 유정물은 아니지만, 유정물(사람)들이 집합체이고, (나)는 사람이 아닌 유정물이지만 가능한 문장임을 보여주고 있다.

일시적 동작이면 ‘-어 놓-’가 더 자연스럽고 ‘-어 두-’는 부자연스럽다. 반면에 (35나)의 ‘보험을 들다’처럼 비교적 과정이 길면 ‘-어 놓-’는 부자연스럽고 ‘-어 두-’는 자연스럽게 어울린다. 이처럼 ‘-어 놓-’가 일시적인 경우나 지속적인 경우에 쓰이는데 비해 ‘-어 두-’는 장시간의 지속을 의미한다. 보조용언 ‘놓다’는 순간적인 성격을 갖고, ‘두다’는 지속적인 성격을 갖는다.

3.2.2.5 AF 단계의 지속상

지속상은 최종점을 지나서 끝난 동작의 결과가 남아 있는 모습이다. [완성성]을 가진 동사가 최종점을 지난 후 끝난 뒤의 모습으로 ‘-아 있-’의 형태로 드러난다.

<그림12> 지속상



<그림10>의 도식에서 ‘A’는 동작이 끝난 후 지속되는 모습이다. AF 단계의 지속상은 동작이 [완성성]을 가지고 AF단계로 들어서야만 가능하다. 그러므로 상태동사는 [상태성]으로 인하여, 순간동사는 [순간성]으로 인하여 AF단계로 진입할 수 없다. 상태동사가 지닌 [지속성]은 AF단계내의 지속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상태동사는 동사가 유지되는 전 과정의 상태가 아무런 움직임 없이 지속되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순간동사의 [지속

성]은 시작점과 최종점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이므로 그 결과가 AF단계 내에서 지속될 수 없기 때문에 서로 의미에 충돌을 일으킨다. [순간성]과 [완성성]을 지닌 달성동사의 경우는 최종점 도달 이후 그 결과가 남아 있기 때문에 결합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종결과 결과는 한 사건을 종결시킨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초점이 사건의 종결로 인하여 결과가 지속되느냐 아니면 사건 자체가 완전히 종결되느냐에 따라서 구별된다.

‘-어 있-’의 상적 의미로는 ‘완료상’, ‘지속상’, ‘결과지속상’, ‘결과 상태상’, ‘상태 계속상’ 등을 들 수 있다. 김차균(1982)에서는 상태의 지속, 이기동(1978)에서는 동작이나 과정이 끝나 다음에 생기는 상태의 계속을, 이지양(1982)에서는 완결된 상태의 지속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결론적으로 ‘-어 있-’의 기본 의미는 동작이 끝난 후 결과를 포함한 정적 존재와 어울려 완료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고는 상태의 지속은 [동태성]의 결과로 나온 것이 아니므로 주된 논의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앞에 언급한 ‘-고 있-’이 진행상과 완료상을 구분하기 위한 두 가지 방법으로 ‘-어 있-’의 지속상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자.

- (36) 가. 태민이는 이미 미국에 가 있다
나. *태민이는 한참 부산에 가 있다.

(36가)는 ‘가다’라는 행위동사는 완성성을 가지고 있지만 ‘미국으로’라는 최종점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완성성을 보여준다. 여기에 지속상을 나타내는 ‘-어 있-’이 도달을 의미하는 부사 ‘이미’와는 결합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 반면에 (36나)는 진행을 의미하는 부사 ‘한참’과는 결합에 제약을 받는다. 여기서 ‘-어 있-’ 동작의 완료된 후 지속을 나타냄을 알 수 있다.

그리면 [완성성]과 [지속성]을 가진 달성동사와 완수동사에 결과상의 상자질이 어떤 관계로 결합하는지 살펴보자.

(37) 가. 목련의 가지가 꺾여 있다.

나. 바지에 진흙이 묻어 있다.

(38) 가 난간에 기대어 있다

나. 빨래가 말라 있다

(37가)의 ‘꺾다’와 (37나)의 ‘묻다’는 달성동사로 [순간성]과 [완성성]을 가지고 있다. 이를 동사에 지속을 나타내는 상 표지 ‘-어 있-’가 결합하여 ‘꺾여 있다’와 ‘묻어 있다’가 결합하면 동작이 종결된 후 그 결과가 남아 있는 동작의 지속 상태를 드러낸다. 예를 들면 ‘꺾여 있다, 묻어 있다’는 ‘꺾다, 묻다’의 동작이 발화시 이전에 종결되어 발화시에는 ‘꺾여 있는 목련가지, 묻어 있는 진흙’의 결과가 지속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38가)의 ‘기대와’와 (38나)의 ‘마르다’는 완수동사로 [지속성]과 [완성성]을 가지고 있다. 이를 동사에 지속을 나타내는 상표지 ‘-어 있-’가 결합하여 ‘기대어 있는, 말라 있는’의 결과가 지속됨을 의미한다. 달성동사와는 달리 완수동사가 [지속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의미는 더욱 명료해진다. 본고는 동작이 끝난 후 그 결과가 남아 있어야 [완성성]으로 간주하기에 [결과성]을 완성성의 하위자질로 두지 않고 [완성성]의 자질을 가진 달성동사와 완수동사는 결과상의 ‘-어 있-’와 결합하면 그 결과상태가 드러난다.

3.3 중국어의 통사적 구성 형식에 관한 상 분석

지금까지 중국어의 상 체계를 구분할 때 전통적으로 Smith(1997)의 기준에 따라 크게 ‘상황상’과 ‘관점상’으로 획일화된 두 개의 분리된 체계로 구분하였으나 적어도 중국어의 경우는 陳前端(2008)과 같이 교차적인 범주로 형세상을 설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관점상과 달리 상황상은 시간의 추이를 고려하지 않았지만 ‘起来, 下来, 下去’를 관점상에 포함시키기에는 ‘來着’처럼 상 표지로 인정받지 못하고, 상황상에 포함시키기에는 상 표지로서의 역할도 어느 정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과보어 구조 역시 관점상에 포함하기에는 너무 많은 동사구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상 표지로서의 자격을 부여하기에는 적당치 않기 때문이다.

‘了, 着, 过’를 상 표지로 인정하느냐 하는 점에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으나 ‘在’에 대해서는 문법화된 성분으로 귀속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이 학자마다 다르다. 본고의 입장 역시 ‘在’는 문법화된 상표지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了, 着, 过’는 문법화 정도가 가장 높은 수준에 위치한다. 반면에 ‘在’ 동사 앞에서 위치하여 중국어 문법화에서 보여주는 동사 뒤의 접사적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다. 위치상으로도 문법화된 상표지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또한 핵심관점상과 주변관점상을 하나로 처리하여 관점상으로 두었다. 이는 ‘來着’의 문법화 정도에 대한 문제인데 앞에서 언급했듯이 ‘來着’가 분명 ‘起来, 下来, 下去’보다는 문법화 정도가 높긴 하지만 관점상의 ‘了, 着, 过’의 문법화와 함께 어울리기에는 정도가 너무 약하기 때문이다.

3.3.1 완결상과의 결합제약

완결상(完整體)은 어떤 상황이나 동작의 ‘시작-중간-종결’로 세분하지 않고 하나의 전체 덩어리로 보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완결상은 내부 단계에 들어가서 일부를 보는 완료나 종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了’는 사건이 하나의 전체로 완벽한 완정성을 나타내는 것이지 사건이 끝났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3.3.1.1 ‘了’

중국어에서 상에 관한 논의의 중심에는 ‘了’가 있다. ‘了’가 시제요소인가 상의 요소인가 혹은 상과 시제를 동시에 나타내는가 하는 점은 한국어의 ‘-었-’이 가지고 있는 쟁점과 유사하다. ‘了’를 시제 요소로 보는 입장에서는 ‘了’의 완결성을 중시하여 과거 시제 요소로 보고 있다. 그러나 ‘了’를 시제요소로 보는 견해에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 ‘了’가 과거이지만 쓰이지 않은 예나, 반대로 미래나 현재인데 ‘了’가 쓰일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 예문에서 ‘了’가 상의 요소임을 확인해 보자.

(1) 가. 他小时候是淘气鬼

그는 어렸을 때 장난꾸러기였다.

나. 明天下了课给我打电话。

내일 수업 끝나면 나한테 전화해.

예문 (1가)는 과거이지만 ‘了’가 쓰이지 않았고, (2나)는 미래이지만 ‘了’가 쓰였다. 사건시와 발화시의 시제 개념을 적용해 볼 때 위와 같은 ‘了’의 쓰임은 시제 요소로 볼 수 없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了’가 과거가 아니라고 주장하려면 다음의 난제를 해결해야만 한다. ‘了’가 미래에 쓰인다는 이유를 들어 과거시제 요소가 아니라고 판단하기에는 시간사가 없는 문장도 시제 표현이 가능하고, ‘了’가 생략된 문장은 비문이 되거나 의미의 변화를 초래한다는 이유에 대해 명확한 답을 해야만 한다. 아래의 예문을 보자.

(2) 가. 昨天我看电影了。

어제 나는 영화를 보았다.

나. 我看电影了。

나는 영화를 보았다.

(2)에서 과거를 나타내는 ‘昨天’의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2)는 모두 과거를 나타낸다. (2가)에서 과거를 나타낸다는 의미가 ‘昨天’로 전달되는 것이라면 ‘昨天’이 사용되지 않은 (2나)는 과거로 해석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昨天’의 사용과 상관없이 ‘了’를 과거형으로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了’를 생략하였을 때 과거형을 표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2가)는 비문이 되거나 (2나)는 현재진행이 되기 때문에 ‘了’는 과거를 표현한다는 주장의 근거로 삼고 있다.

본고는 이러한 주장에 반대하며 다음의 예문에서 ‘了’가 시제 요소가 아님을 살펴보고자 한다.

(3) 가. 我昨天看电影了。

나는 어제 영화를 봤다.

나. 我现在看电影了。

나는 지금 영화를 봤다.

다. 我明天就要看电影了。

나는 내일 영화를 볼 것이다.

(3가)는 과거, (3나)는 현재, (3다)는 미래를 나타내는 어휘가 보인다. 이렇게 어휘적 요소로 시제를 나타내는 경우에 문미의 ‘了₂’가 실현되는 것은 시간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같은 조건에서 동사 뒤의 ‘了₁’과 함께 쓰이는 경우를 살펴보자.

(4) 가. 我昨天看了电影了。

나는 어제 영화를 봤다.

나. *我现在看了电影了。

나는 지금 영화를 봤다.

다. *我明天就要看了电影了。

*나는 내일 영화를 봤다.

(4가)의 과거를 나타내는 ‘昨天’과 ‘了₁’은 결합에 제약이 없다. 그러나 (4나)의 현재를 나타내는 ‘現在’과 ‘了₁’과 (4다)의 미래를 나타내는 ‘明天’과 ‘了₁’은 결합에 제약을 받는다. 이로써 ‘了₁’은 과거를 나타내는 어휘와 자연스럽게 공기한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것은 완결상의 표지는 과거시간을 지향한다는 Comrie(1976)의 완결상(perfective)과 동일하게 설명할 수 있다. 또한 최규발·박민아(2012:108)의 ‘완정성(holisticity)’과도 부합한다.⁸⁹⁾ 이러한 사건이 가지는 특징은 완결상은 문장에서 사건의 시작–중간–끝이 하나의 점처럼 둉어 리로 보인다. 동작의 발생은 시작점에서 발생하여 최종점에 이르러 완성되는 구성으로 이루어지는 완결상은 이런 구조가 일체로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아래 예문으로 확인해 보자.

(5) 가. 王先生昨天到了北京。

왕선생은 어제 북경에 도착했다.

나. 我一听这话就炸了。

나는 이 말을 듣자마자 폭발했다.

(5가)의 ‘도착하다(到)’와 (5나)의 ‘폭발하다(炸)’는 [순간성]을 지닌 동사므로 시작점과 최종점이 동시에 발생하여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건이므로 지속시간이 없다. 따라서 이러한 순간성의 동사들은 상황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기 쉽고 이러한 동사에 ‘了’가 부가되면 전체성을 강조하게 된다. 그러나 [지속성]을 가지고 있는 동사의 경우는 사건이 전체적으로 파악되기 위해서 그 사건이 제한되어 있어야 한다. 사건이 제한되지 않아 비문이 되는 아래의 예문으로 사건의 제한성에 대한 살펴보자.

89) 최규발·박민아(2012:108)에서는 “완정성(holisticity)은 완료상 표지가 지녀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질로써, 대상이 되는 상황을 분해할 수 없는 하나의 전체로서 간주한다”라고 하였다.

(6) *我买了衣服。

나는 옷을 샀다.

앞에서 ‘了₁’은 동사가 시작 진행 종료가 나누어지지 않는 완벽한 완정성과 호응한다고 하였다. (6)의 문장이 비문인 것은 ‘衣服(옷)’을 한정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오지 않아 ‘사다(买)’가 완정성을 보장받을 수 없는 데도 ‘了₁’을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3.2.1.2 ‘過’

상 표지로서의 ‘過’는 어떤 발화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한 사건을 경험했음을 나타낸다. 발화시점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過’가 어떤 불확실한 시점(대개 과거)에 적어도 한번은 어떤 사건을 경험했음을 의미한다. ‘過’가 포함되어 있는 문장의 초점은 하나의 사건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한번은 일어났다는 것이다.

‘了’와 ‘過’를 비교하면 이 차이를 매우 분명히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제한된 사건을 의미하는 완료상 ‘了₁’은 전형적으로 그 사건이 일어났다는 의미를 전달한다. 반면에 ‘過’는 어떤 사건을 적어도 한번은 경험했고 그 일은 이미 끝났음을 의미한다. 아래의 두 문장은 비슷한 뜻을 전달하지만, 그 초점이 다르다.

(7) 가. 他去年到中国去了。

나는 작년에 중국에 갔다.

나. 他去年到中国去过。

나는 작년에 중국에 갔었다.

(7가)의 문장의 초점은 단지 이 사건이 일어났었다는 사실이다. 그 사람이 아직 거기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반면에 (7나)는 그가 중국에 갔었음을 가정하고 그러한 사건이 작년에 적어도 한번은 일

어났으면 지금은 끝났음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7나)는 바로 그가 현재 중국에서 돌아와 있음을 의미한다. 그가 돌아왔다는 사실은 ‘过’가 나타내는 의미의 일부가 아니라, ‘过’가 포함되어 있는 문장이 전달하는 ‘내용’의 일부이다. ‘过’의 의미로부터 그러한 사실을 추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어떤 것을 경험했다면 그것은 이미 끝난 것을 함의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이유로 반복할 수 없는 동사와 결합할 수 없고, 명령문에도 사용할 수 없으며, 단순 발생에 초점을 두는 문장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용법상의 제한을 받는다(Li & Thompson: 1981, 박종한 외 옮김:229).

한국어와 중국어의 경험표지에 있어 최규발(2007)에서는 ‘过’가 ‘了’와 더불어 완료상(perfective aspect) 표지에 속함을 밝히고 “한국어의 경험표지는 ‘-었었-’이 아니라, ‘-은 일이 있-’, ‘-은 적이 있-’이 경험을 나타내는 표지이다”라고 하였다.

일반적으로 ‘過’의 의미에 대한 주장은 두 가지로 나뉜다.呂淑湘(1980:246)은 ‘過’를 둘로 나누어 하나는 동작이 완결됨을 의미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과거에 사건을 경험했음을 나타낸다는 것이라 하였다. 또한 후자의 경우에는 늘 ‘과거 경험’을 의미하는 부사 ‘曾经’가 더불어 나타난다. 전자를 ‘過₁’이라고 하고, 후자를 ‘過₂’라 하여 달리 구분하였다. 이러한 논지는 朱德熙(1982:72)과 劉月華(1988)도 동일한 관점을 취한다. 아래의 예문으로 확인해보자.⁹⁰⁾

(8) 가. 她洗过脸, 走进餐厅。

그녀는 세수하고 식당으로 들어갔다.

나. 她吃过早饭, 上班了。

그녀는 아침밥을 먹고 출근했다.

또한 劉月華(1988)은 다음과 같이 미래 시간에도 ‘過’가 실현될 수 있다고 하였다.

(9) 咱们明天吃过早饭就出发。

90) (15)-(16)의 예문은 王례량(2012:105)에서 인용한 劉月華(1988)의 예문을 재인용한 것이며 번역은 필요에 따라 다소 수정한 것이다.

우리 내일 아침 먹고 출발하자.

(劉月華 1988:318)

본고는 ‘경험’을 의미하는 ‘過’와 ‘동작의 완결’을 의미하는 ‘過’를 하나의 ‘過’로 간주한다. ‘過’의 문법적 의미에 대한 주장을 중에는 ‘過’를 경험상으로 취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Li & Thompson(1981/1989:229)은 두 가지 ‘過’로 나누어 설명하는 중국 국내 학자들의 전통적인 부류와는 달리 ‘過’가 어떤 발화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한 사건을 경험했음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趙元任(1968/1979), 龔千炎(1995:80), Smith(1997) 등도 이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특히 Smith(1991:266–267)은 ‘過’를 ‘완결성’, ‘경험성’과 ‘비접속성’ 등 세 가지 특성으로 범주화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논지는 경험의 동작주는 늘 생명체이어야 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중국어에서는 ‘過’가 등장한 문장의 동작주가 생명체가 아닌 경우는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다.⁹¹⁾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본고는 ‘過’의 의미를 단속상(斷續體)으로 설정한다.

3.3.2 동작 발달 단계상과의 결합제약

종결상은 동작이 끝난 종결점에 초점을 두고 있다. 완료상은 행위가 끝난 후에 나타나는 지속되는 모습도 포함되어 있지만 종결상은 행위가 끝난 뒤의 결과의 지속은 포함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동작의 결과를 보충해주는 문법범주로 결과보어가 있다. ‘完,过’, ‘得,到, 出,住’, ‘掉,光,完,住’ 등은 모두 동작의 종결 후 그 결과를 보충해주는 것에 해당한다. 이를 결과보어는 논의에 따라 ‘종결’, ‘완료’, ‘결과’ 등의 의미로 불린다.

본고에서는 종결을 나타내는 문법범주로 결과보어에 해당하는 ‘着, 到.

91) 石毓智(2010: 240)는 ‘過’가 쓰인 문장의 주어가 동작주가 아닌 예를 들어 ‘경험’의 비적합성을 주장했다.

(가) 那堵墙曾经倒过, 现在是新砌的。

그 벽은 예전에 이미 넘어갔어. 지금 건 새로 세운거야.

(나) 那根绳子曾经断过, 现在又接上了。

그 줄은 이미 끊어졌어. 방금 다시 연결한 거야.

完. 掉’의 의미 분석만을 진행하며 이들이 어휘상과 어떤 결합제약을 이루는지 살펴본다. 중국어에서 종결상을 나타내는 ‘동사 + 결과보어’ 구조는 왜 동사와의 결합에 있어 많은 제약을 보일까? 이는 동사의 상적 특성(aspectual character)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동사가 나타내는 사태(state-of -affairs) 또는 상황(situation)은 내적 시간적 속성(internal temporal constituency)이 모두 동일한 것이 아니다. 동사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상적 자질은 완성점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다. 완성점이 있더라도 임의적으로 종결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자연적으로 최종점에 도달하는 것도 있다. 또한 동작의 발전단계 동안 정태적(靜態的)인 것도 있고, 동태적(動態的)인 것도 있다. 동사에 내재된 이러한 상적 자질들은 상의 의미를 보충해주는 결과보어와 서로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것이 있는 반면에 결합제약을 보이는 것도 있다. 예를 들어 어떤 동작이 완결되었음을 보충해주는 결과보어는 [완성성]을 가진 동사와는 결합에 제약이 없지만, [완성성]을 갖지 못한 동사와는 의미가 상충되어 결합에 제약을 보인다.

따라서 의미상 제약을 보이는 ‘동사+결과보어’의 결합관계는 일관성 있게 서로 밀착될 수 없어 설득력이 높지 않다. 결국 선행동사의 상적자질과 후행하는 결과보어의 일관성 있는 결합은 문장구성 요소 간의 의미적 관계가 경향성을 띠면서 발전되었으리라 생각된다. 이러한 모종의 경향성을 찾아내어 동사의 상자질이 동작 발달 단계에서 어떠한 상호작용을 이루는지 아래의 동작 발달 단계상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첫째, BS (Before Start) 단계

: 예정상, 將要

둘째, S (Start) 단계

: 기동상, ‘起来’

셋째, M (Midum) 단계

: 진행상, ‘正/ 在/ 正在’

향진상, ‘下去’

넷째, F (Finished) 단계

: 종결상, ‘着, 掉, 完’

다섯째, AF (After Finished) 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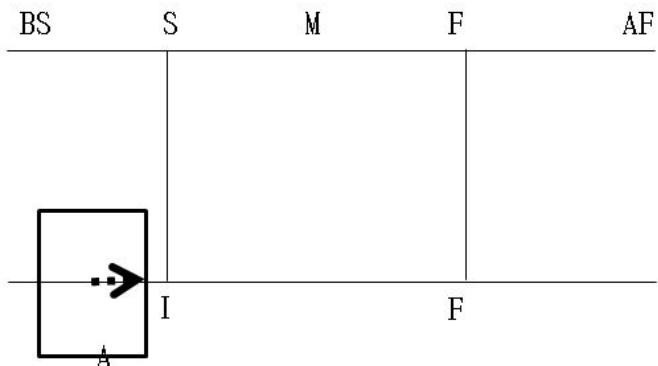
: 지속상, ‘着’

중국어에서 선행동사에 후행하여 동작의 종결상을 보충해주는 결과보어는 한국어의 보조동사와 상당히 흡사하다. 단지 시제 우위인 한국어는 시제표지와 상적 표지가 있어 보조동사는 상의 의미를 보충하면서 주로 양태적 의미를 담당한다, 반면에 중국어에서 ‘동사+결과보어’ 구조는 상적인 의미가 양태적 의미보다 더 강하다. ‘完’과 ‘好’, ‘掉’와 ‘到’, ‘光’과 ‘掉’ 등은 정확히 어떤 상황에서 사용하는지 그 쓰임이 불분명하기도 하다. 쓰임을 일관성 있게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문법화의 단계가 이루어졌다고 합의할 수 없는 과도기에 있다는 의미와도 같다.

3.3.2.1 BS 단계의 예정상

BS 단계는 동작의 시작 전(Before Start)단계이다. 예정상은 동작이나 행위가 곧 발생하거나 상황이 곧 출현하는 것을 나타내며 ‘將然體’라고 한다. 앞으로 일어날 동작의 전개 과정을 상적 의미로 파악한 것이다. 중국어에서 예정상은 ‘(就)要, (快)要, 將(要), 即將, 行將’ 등으로 나타낸다. 예정상을 도식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다.

<그림13> BS 단계의 예정상



-**(就)要, -(快)要,
將(要), 即將, 行將 將要**

<그림13>의 도식은 어떤 상태나 행위 ‘A’가 앞으로 발생될 상황에 있는 것을 나타낸다. 시작점(I)을 향해 가는 움직임이나 상태이므로 최종점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 모든 행위나 상태는 시작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므로 거의 모든 어휘상과 결합할 수 있다. 예정상의 표지는 ‘(就)要, (快)要, 將(要), 即將, 行將 將要’ 등이나 동작 발달 단계와 관련 있는 여타의 표지에 비해 문법화 정도가 낮다. 이에 상을 표시하는 표지가 아닌 상을 나타내는 부사의 일종으로 파악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중국어에서 예정상의 지위는 확고하지 않고, 동작의 발생 단계 전이므로 엄밀한 의미에서의 동작의 발달 단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예정상에 대한 표지로呂叔湘(1942)이 ‘將要, 要, 快, 且’를, 龔千炎(2000)이 ‘就要, 快要, 將要, 即將, 行將’ 등을 제시한 정도이다.

龔千炎(2000)에서 예정상은 “동작이나 행위가 곧 발생하거나 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지금이나 미래의 일에 쓰인다”라고 하였다. 이러한 대목은 동사의 모습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는 의미이기도 한다. 따라서 현재나 미래를 나타내는 문장에 자주 등장하여 마치 중국어에서 시제를 나타내는 부사로 취급되기도 한다.

(10) 가. 我现在就要回家了。

나 지금 집에 가려고 해.

나. 那天就要开学会了，但他却没有露面。

그날 학회가 시작하는데도, 그는 나타나지 않았다.

다. 到2050年，人类將要活到100岁。

2050년이 되면 인간은 100살까지 살게 될 것이다.

(10가)에서 ‘就要’는 现在(‘现在’(지금))에서의 ‘回家’(귀가하다)하려는 예정을 나타낸다. (10나)는 과거의 격식인 ‘(那天)就要…了’으로 ‘학회’(學會)가 ‘開’(시작하다)하려는 예정을 나타낸다. ‘就要, 快要’는 구어에서 ‘了’와 함께 쓰일 수 있으나, 문어에서 주로 쓰이는 ‘將要, 即將, 行將’ 등은 ‘了’와 함께 출현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10다)는 미래를 나타내는 시간부사와 함께 쓰여 미래의 예정을 나타낸다. 이처럼 앞으로 일어날 상황이나 동작의 시작을 나타내는 예정상은 지금이나 미래의 일에 쓰이는 일이 자연스럽고, 과거의 일에 대해서도 사용할 수 있다.

예정상은 다른 동작 발달 단계상과는 다른 특수한 면이 있는데 그것은 화자가 강조하려는 것은 동작이나 상황이 발생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동작의 발생이나 상황의 출현은 일어나지 않은 상태이다. 이러한 상태를 나타내는 ‘(就)要, (快)要, 將(要), 即將, 行將’의 의미 차이는 크지 않지만 용법에 있어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就)要, (快)要’는 반드시 문미에 ‘了’를 동반하여 쓰인다. 이는 ‘동사+了’는 사건이 처한 완료상태이며, ‘(就)要, (快)要’ 등은 이 완료상태에 곧 근접하였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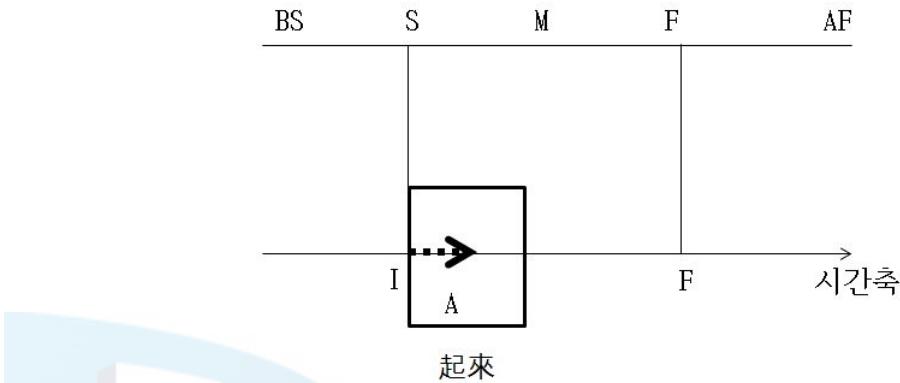
3.3.2.2 S 단계의 기동상

S 단계는 동작의 시작(Start)단계이다. 기동상은 사건의 시작을 표시하는 것으로 동작이 발생하여 변화하기 시작했음을 나타낸다.

기동상(起動體)은 기시체(起始體), 시작태(始事態)라고도 하며 대표적

형태로 문법화된 ‘起來’로 나타낸다. 기동상을 도식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다.

<그림14> S 단계의 기동상



<그림14>의 도식은 어떤 동작 ‘A’가 시작점에서 시작된 것을 의미한다. 최종점은 시작 범위 밖에 있어 고려되지 않으므로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러므로 [동태성]을 가진 것은 물론이고 [상태성]을 가진 것과 자연스럽게 결합하며 기동상을 나타내는 표지 ‘起來’는 문법 범주가 아닌 어휘 범주로 보는 견해가 많이 남아 있다.

戴耀晶(1997:95)은 起使體(inchoative)라 부르고 내부관찰법을 통해서 비완결상을 속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張濟卿(1998:18)은 起始體(ingressive)라고 부르고, 동작 혹은 상태의 시작을 나타낸다고 보았다. 陳光磊(1994:79)은 始事態라고 부르고 “동사나 형용사 뒤에 부가되어 동작, 행위가 출현하거나 형성되기 시작함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또한 ‘起來’는 상태의 변화를 나타내는 ‘了₂’와 호응한다. ‘了₂’가 어미에 쓰일 때 ‘상태’의 ‘변화’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상태의 변화를 나타내는 ‘了₂’는 어떠한 상황에서 다른 상태로의 변화의 시작점을 알리는 것과 호응하기 때문이다(呂叔湘主編:1980/1999: 351 참조).

(11) 가. 听了那个故事 大家都笑起来了。

그 이야기를 듣고 모두가 웃기 시작했다.

나. 天气越来越冷起来了。

날씨가 점점 더 추워졌다.

다. 不用的东西我都收起来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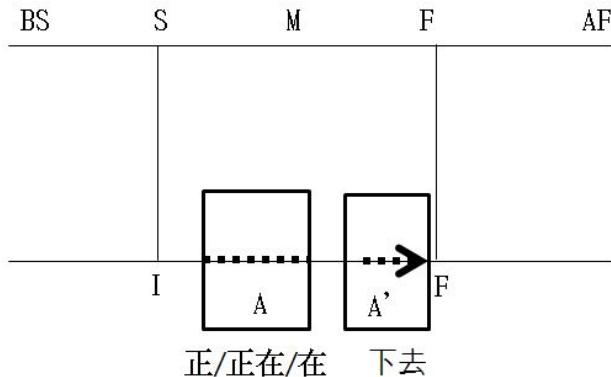
쓸데없는 물건을 나는 모두 치웠다.

그러나 ‘起來’가 ‘了’와 결합하면 사건이 시작된다는 의미를 분명하게 지시한다. 이런 시작 변화는 종결점이 언급되지 않아서 사건이 시작되었다가 완전하게 다른 상태로 변화됨까지 표현하는 것이다.

3.3.2.3 M 단계의 진행상과 향진상

M 단계는 동작의 중간(Midum)단계이다. 진행상은 ‘進行體, 進行貌’라고도 하며 대표적인 형태로 ‘正/正在/在’가 있다. 향진상은 ‘接續體, 繼續相’이라고도 한다. 대표적인 형태로 ‘下去’가 있다. 진행상은 동작이 진행 중에 있음을 나타내며, 향진상은 방향성을 가지고 끝점을 향해 가는 모습을 나타낸다.

<그림15> M 단계의 진행상과 향진상



<그림15>의 도식은 어떤 동작 ‘A’가 동작의 중간 단계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동작의 시작점과 최종점을 관여치 않으므로 상태동사를 제외한 거의 모든 어휘상과 어울린다. 향진상은 최종점을 향해 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최종점을 상정할 수 없는 상태동사나 비완성성의 행위동사와는 결합제약이 있다. 진행상은 [동태성]과 [지속성]을 가진 동사가 ‘正/正在/在’, ‘着₂’과 결합하여 진행중인 동작임을 나타낸다. [동태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어떤 행위가 발생하거나 변화가 있다는 것으로 그 내적인 장면은 국면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3.3.2.3.1 진행상

진행을 나타내는 표지에 대한 해석은 학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 30년대 王力의 《中國語法理論》에서는 ‘着’을 진행상 표지로 보고 있고, 90년대 龔天炎(1995:71)은 진행·지속 시태로 시태조사 ‘着’과 함께 진행을 나타내는 부사로 ‘正, 正在, 在’를 들고 있다. 한편 ‘着’에 대한 논의는 비교적 활발하게 진행되었는데, ‘着’에 대해 어떤 이는 分化에, 어떤 이는 併合에 초점을 맞춘다. 木村英樹(1983)는 동작이 진행되는 것을 나타내는 ‘着₁’과 지속상태를 보이는 ‘着₂’로 나누었다. 郭銳(1998)는 3가지로 나누었다. ‘着₁’은 동태 동작의 지속을 나타내고 ‘着₂’는 동사단어 의미 자체가 가리키는 정태상태의 고정을 나타내고 ‘着₃’는 동작 완료 후 남은 상태의 고정을 나타낸다.

載耀晶(1991), 石毓智(1991), 袁毓林(1993), 方梅(2000) 등은 모두 하나의 ‘着₁’이 있으며 그 추상의 어법의미는 ‘持續’으로, ‘着₁’은 다른 내부 시간 구조를 가진 동사 뒤에 붙어서 ‘着’가 나타내는 것은 모두 내부 균질적 상태를 나타내기 때문이라고 여겼다. 필자는 후자의 견해를 수용하여 ‘着’은 동작 진행의 의미보다 상태 유지의 기능을 담당한다는 의견에 동의한다. 따라서 여기서는 진행상 ‘在’와 함께 등장하는 ‘着’ 관해서는 다루지 않았다.

趙元任(1968)은 ‘상은 동사에 붙은 접미사의 작용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대부분의 상 표지인 ‘了, 着, 過’는 동사 뒤에 위치하여 각

각 완료상, 경험상, 지속상을 나타낸다. 그런데 ‘正/正在/在’는 통상적인 대부분의 상 표지가 동사 뒤에 위치하는 것과 달리 동사 앞에 위치한다. 이 때문에 ‘正/正在/在’가 진행상의 표지로 인정받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高名凱(1948)의 《漢語語法論》에서 ‘正/正在/在’가 상 표지로 제시된 후 학자들 간에 이를 상 표지로 간주하는 데 의견이 분분했다. 赵元任(1986)과 王力(2000)은 위에서 밝힌 것과 같은 이유로 ‘着’만을 진행상 표지로 보았다. 그러나 90년대 들어 대체로 ‘正/正在/在’를 상 표지로 인정하는 추세이다. 한편 楊平(2000)은 ‘正’만을 진행상 표지로 간주하는 것에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现代汉语八百词》에서 ‘着’은 진행을 나타낸다고 설명하는데 陸檢名(1988), 朱德熙(1990), 徐丹(1992) 등도 동일한 견해를 밝혔다. 이에 반해 錢乃榮(2000)은 ‘着’가 진행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상태의 지속을 나타내주는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着’가 나타내는 ‘持續’ 의미와 ‘進行’ 의미는 달라 후자는 동작이 시간상에서 진행되는 것을 나타내고 전자는 동작이 어떤 상태에서 지속되는 것을 묘사하는 차이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본고는 錢乃榮(2000)의 견해를 수용하여 ‘着’을 동작이 완료된 후의 상태의 지속으로 보았다. 대체적으로 정리해 보면 진행, 지속의 의미를 가진 형태소로 ‘正/正在/在’과 ‘着’라고 보는 견해는 巖天炎(1995), 高名凱(1948), 李臨定(1990)에서, ‘着’라고 보는 견해는 王力(1943)과 赵元任(1968)에서, ‘正’과 ‘在’를 두는 견해는 呂叔湘(1942)에서 볼 수 있다.

위의 논의에서 보듯이 진행과 지속의 경계가 모호함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진행과 지속을 한 범주로 묶어서 논의하는 경향이 있는 듯하다. 진행과 지속은 사실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어떤 동작이나 사건이 일정한 시간 동안 계속 된다면 지속의 의미를 가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본고에서 ‘着’는 동작 끝 단계 이후의 지속에서 다루고 ‘在’와 함께 등장하는 ‘着’에 대해서만 다룬다. ‘着’에 대한 본관적인 논의는 동작 발달 단계 끝 이후에 해당하는 지속 부분에서 다루기로 한다.

[동태성]과 [지속성]을 가진 동사가 ‘在’와 결합하여 이루는 동작의 단

계를 아래 예문을 통해 확인해 보자.

(12) 가. 他在喝茶。

그가 차를 마시고 있다.

나. 样样已经回北京了。

양양은 이미 중국에 가 있다.

예문에서 (12가)의 ‘마시다’라는 동작이 동태성과 지속성이 있다는 의미는 동작이 ‘찻잔을 손으로 집는 순간’에서 시작하여 ‘입으로 가져가는 순간 → 입을 대는 순간 → 한 모금 마시는 순간 → 차를 식도로 넘기는 순간 → 찻잔을 입에서 떼는 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하나의 동작이 된다는 의미이다.

‘마시다’라는 동작은 각각의 순간들이 이어져 서로 다른 단계를 나타내므로 어떤 변화를 필수적으로 내포하고 있다. 즉 ‘在’는 이러한 변화단계를 발생시키는 동적 에너지와 그것이 발휘되는 시간을 요하는 동사와 결합하여 그것이 지금 한창 진행 중에 있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在’가 없는 (12나)는 ‘回’가 이러한 변화 단계를 나타내지 못하고 원래의 곳으로 되돌아 간 동작이 끝난 모습만 보여준다. (12다)는 시작과 끝이 어떤 변화도 없이 항상 동일한 것으로 ‘작은’ 일관된 상태성을 갖는다.

(13) 가. 老师来的时候，我正学汉语呢。

선생님이 왔을 때, 나는 마침 중국어를 공부하고 있었다.

나. 适当的时候，他正来了。

적당한 때에 마침 그가 왔다.

(14) 가. 他(现在)正念书呢。

그는 (지금) 책을 읽고 있다.

나. 他(现在)正看电视呢。

그는 (지금) 티브이를 보고 있다.

위의 예문에서 (13가)의 앞 절에는 ‘선생님이 왔을 때’가, (13나)의 앞 절에는 ‘적당한 때에’라는 특정한 시점을 제시하고 있다. 만약에 (14)처럼 ‘正’이 사용된 문자에 이런 특정한 시점이 없으면 이는 ‘現在’가 생략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在’는 동작이 진행되는 과정을 강조한다.

(15) 가. 弟弟在听音乐呢。

동생은 음악을 듣고 있다.

나. 他在跟妈妈打电话呢。

그 사람은 엄마와 통화하고 있다.

(15)의 예문에서 보듯이 ‘在’는 주로 진행과정을 나타낸다. (15가)는 음악을 듣는 동작의 계속을, (15나)는 통화를 하는 동작이 계속 진행 중에 있음을 나타낸다.

‘正在’은 ‘지금 한창 –을 하고 있다’의 의미로 동작이 진행되는 시점과 과정을 모두 중시한다. ‘正在’은 ‘正’과 ‘在’를 합친 것으로 그 특징은 이중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 동작은 ‘正’의 요구에 충족되어야 할 뿐 아니라 ‘在’의 요구에도 충족되어야 한다.

(16) 가. 我到学校的时候，我朋友正在作作业。

내가 학교에 도착했을 때, 내 친구는 숙제를 하고 있었다.

나. 我孩子现在正在玩弄手机。

아이가 (지금) 휴대전화를 가지고 놀고 있다.

이처럼 ‘正/正在/在’가 진행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着’이 진행을 나타내는 것인가 아니면 상태의 지속을 나타내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른 견해들이 존재한다.

‘正/正在/在’을 달리 사용하는 기체는 무엇인가? 기존의 연구에서는 이를 달리 사용하는 선별 기준은 ‘시점을 타나내는가/동작 진행을 나타내는

가? 아니면 둘 다 나타내는가에 따라서 달리 사용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은 너무 모호하다. 시점은 나타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며, 시점과 동작진행을 둘 다 나타낸다는 의미는 또 무엇이란 말인가?

‘在’의 의미는 진행을 나타내지만 좀 더 정확한 의미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 중’이다. 중국어에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다를 표현하려면 ‘在学校学习 在公司工作’처럼 장소를 표현하는 부사 ‘在’가 사용된다. 그러나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 중이라는 표현을 정확히 하려면 장소를 나타내는 ‘在’와 진행을 타나내는 ‘在’가 두 번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진행의 ‘在’는 이 두 가지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다. 이를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놀고 있다’라는 의미의 문장으로 확인해 보자.

(17) 가. 孩子们在游戏场上玩着。

나. *孩子们游戏场上在玩。

다. *孩子们游戏场上玩。

라. *孩子们在游戏场在玩。

(17가)에 쓰인 ‘在’의 출현위치로 보아 진행을 나타내는 ‘在’가 아니라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로 ‘-에서’라는 의미이고 동사 위에 ‘着’가 쓰여 진행을 나타낸다. 주어진 의미대로 장소와 진행의 의미가 모두 잘 제시되었다. (17나)는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놀고 있다’라는 문장의 비문이다. 동사 앞에 장소를 나타내는 ‘在’의 부재가 그 원인이다. (17다)는 ‘아이들은 운동장에서 놀다’라는 의미로 진행의 의미가 없어 주어진 의미와 다르다. (17라)는 장소와 진행의 의미를 모두 드러내고자 ‘在’를 두 번 사용한 문장으로 비문이다.

여기에서 장소가 제시된 문장은 ‘在’를 두 번 사용하지 않고 그 역할을 ‘着’이 대신한다.

(18) 가.他在酒店大厅会着客。

그는 호텔 로비에서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

나. 他在图书馆念着书。

그는 동서관에서 책을 읽고 있다.

(18)처럼 ‘着’은 ‘在’이 진행에 있어 부사구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자주 쓰이므로 부사구가 있는 문장에서의 진행은 ‘着’이 보인다. 또한 연속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어가 문중에 와도 ‘在’ 대신에 ‘着’을 쓸 수 있다. 이것 역시 전치사 ‘在’의 의미 중 장소뿐만 아니라 시간까지도 의미하기 때문에 역시 같은 이유로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着’로 치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19) 가. 整天在不停地响铃。

나. 整天不停地响着铃。

위의 예문은 ‘하루 종일 계속해서 벨이 울리고 있다’의 문장을 중국어로 변환한 것이다. (19가)는 진행의 ‘在’가 쓰인 것이고, (19나)는 ‘在’와 연속시간 부사어의 충돌을 피해 ‘着’이 진행을 나타낸 것이다. (19나)는 (19가)만큼 완벽한 진행은 아니지만 문제없이 상호 변경할 수 있다. ‘着’이 단문에서 다른 수식어 없이 단독으로 쓰이지 않는다는 기준의 설명보다는 수식어가 있어서 오히려 ‘在’를 쓰지 않고 ‘着’을 사용했다고 하는 것이 더 옳을 것이다.

이상 살펴본 바를 개괄하면 다음과 같다. 중국어에서 진행을 나타내는 형태는 ‘在’이다. ‘着’도 진행을 표현하는 경우가 있지만 ‘在’보다 많은 제약을 받는다. 즉 단문에서 다른 수식어 없이 단독으로 나오면 문장이 완벽하지 못하고 ‘正, 呢’와 같이 나와야 온전한 문장이 된다. 예를 들면 ‘我看看电视呢’는 완벽한 문장이다. 그리고 ‘在’가 전치사로 나타난 문장에서 진행을 강조하려면 ‘着’을 쓸 수 없고 또 부사어와 같은 수식어가 나오는 문장에서는 진행을 표현할 수 있다.

3.3.2.3.2 향진상

동작의 진행 과정이 동일한 M단계에 있는 향진상은 진행상과 비교하여 동작이 계속 진행되는 양상은 동일하다. 그러나 여기서 계속의 의미는 시작점을 출발한 동작이 최종점을 향하여 부단히 지속되는 모습이 아니라 일단 중단되었던 동작이 시작점(I)에서 최종점(F) 구간에서 다시 임의의 중간 점을 기점으로 하여 종결 직전까지 계속된다는 의미이다(戴耀晶 1997:101). 아래의 예문으로 확인해 보자.

(20) 가. 使学业持续下去。

학업을 지속하다.

나. 别动气, 听我说下去。

성내지 말고 내 말을 들어 보아라.

다. 这种药吃下去必有成效。

이 약은 계속 먹으면 반드시 효과가 있을 거예요.

(21) 가. 天色渐渐黑下去。

날씨는 점점 어두워졌다.

나. 这样胖下去, 你健康有害。

이렇게 살이 찌면 너 건강에 안 좋아.

다. 你一天天瘦下去, 怎么得了。

너 날마다 수척해지니, 무슨 일이야?

(20)는 동사 ‘持续’(계속하다), ‘说’(말하다), ‘吃’(먹다) 뒤에 ‘下去’가 쓰여 지금부터 앞으로 계속 지속됨을 나타낸다. (21)은 형용사 ‘黑’(어둡다), ‘胖’(뚱뚱하다), ‘瘦’(마르다) 뒤에 ‘下去’가 쓰여 어떤 상태가 이미 존재하며 그 정도가 장차 더욱 심해져 감을 나타낸다.

동작이 M단계의 임의의 구간에서 잠시 중단되긴 하였지만 최종점을 향해 계속 진행된다는 점에서는 진행상과 유사하고, 계속 이어지는 동작의

모습은 지속상과도 유사하다. 이들의 차이점을 예문으로 비교해 보자.

(22) 가. 他清了嗓子后, 继续正在唱歌。

그는 목청을 가다듬은 후에, 계속 노래를 부르고 있다.

나. 他清了嗓子, 又继续唱下去歌。

그는 목청을 가다듬고, 계속 노래를 불러갔다.

(22가)는 진행상을 나타내는 표지 ‘正在’가 동사 앞에 위치하여 ‘唱’(부르다)하는 동작이 계속 진행 중임을 나타낸다. 이 동작이 ‘下去’처럼 ‘M단계’ 내에서 잠시 중단되었다가 계속된다는 의미나 앞으로 계속 상황이 연장된다는 의미가 없다.

반면에 (22나)는 동사 ‘唱’(부르다) 뒤에 향진상 ‘下去’가 부가되어 화자가 사건이 일어나는 과정의 한 시점에 있으며 이 시점에서 발화할 때의 사건이 여전히 지속되는 상태이다. ‘唱’은 이미 한 동안 동작이 지속되다가 앞으로 계속 진행될 것임을 나타낸다. 향진상 ‘下去’는 동작이 앞으로 계속된다는 것으로 발화시의 이전 상황을 강조하지는 않는다.

다음은 향진상과 지속상의 차이점에 대해 살펴보자. 지속상은 사건이 최종점 이후 동작의 결과 상태가 남아 있는 것을 초점으로 한다. 이것은 발화 전부터 발화할 때까지 줄곧 지속되는 상태를 나타내며 발화 이후의 상태는 관심 대상이 아니다. 중지될 수도 있고 지속될 수도 있다. 그러나 향진상은 발화할 때 사건의 상태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발화 이후에 이 동작이 계속되는 양상에 중점을 둔다. 아래의 예문으로 확인해 보자.

(23) 가. 天都亮了, 灯怎么还开着?

날이 밝았는데 등이 왜 아직도 켜져 있어?

나. 天都亮了, 灯怎么开下去?

날이 밝았는데 등은 왜 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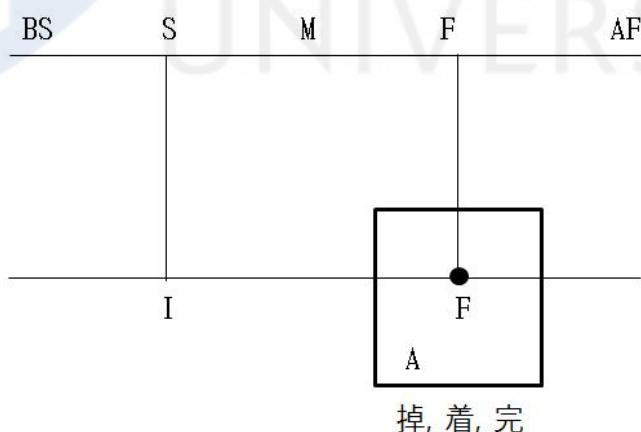
(23가)는 동사 ‘开’(켜다) 뒤에 지속상의 ‘着’가 와서 ‘开’한 동작의 결과

가 끊임없이 계속 지속됨을 나타낸다. 반면에 (23나)는 향진상의 ‘下去’가 와서 잠시 중단되었던 ‘开’가 다시 시작되어 그 시작된 상태가 계속 간다는 것에 중점을 둔다. 그렇다면 ‘起來’와는 또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起來’는 ‘S단계’에서 시작의 변화만을 나타낼 뿐 그 동작이 계속되는지의 여부는 초점이 아니다.

3.3.2.4 F단계의 종결상

F단계는 동작의 끝(Finished)단계이다. 종결을 나타내는 ‘着, 到, 完, 掉’는 동작의 끝 단계에서 동사 뒤에 위치하여 동작의 종결을 나타낸다. 최종점을 가지고 있는 순간동사, 달성동사, 행위동사, 완수동사 등 거의 모든 동사와 결합이 가능하다. 그러나 최종점을 상정할 수 없는 상태동사와는 결합이 제약된다. 이는 상태동사가 끝점이 불확실하여 종결을 나타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림16> F 단계의 종결상



<그림16>의 도식은 어떤 동작 ‘A’가 ‘掉, 着, 完’와 결합하여 F단계에 이른 것을 의미한다. 이들 표지들이 간혹 동작의 결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결과상의 표지라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동사+{掉/着/完}가 나타내는 의

미가 결과인가 종결인가에 대한 논의는 끝점을 보는 관점에 달려 있다. 동작의 최종점이 끝단계 이르러 완결되었을 때 완결된 모습을 전체로 파악한다면 그것은 동작이 종결된 후 그 남아 있는 결과를 보는 것이고, 동작의 끝단계를 화자가 내부에서 들여다보는 모습은 내부구조 중 끝단계에 화자의 초점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고는 ‘着, 到, 完, 掉’를 모두 종결의 상 표지로 간주한다. 이들 결과보어가 결과상을 나타낸다는 입장은 ‘결과’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나 포괄적이라 파악하기 힘들다. ‘着, 到, 完, 掉’과 또 다른 부류의 결과보어 ‘成, 上, 在, 好’을 비교하여 ‘着, 到, 完, 掉’의 결과의 의미를 아래의 예문에서 살펴보자.

(24) 가. 把韓國語翻譯成汉语。

한국어를 중국어로 번역하다.

나. 交上了女朋友。

여자 친구를 사귀게 되다.

다. 出差在外地了。

그는 외지로 출장 갔다.

라. 文章写好了。

글을 다 썼다.

(24가)의 ‘翻譯’(번역하다) 뒤의 결과보어 ‘成’은 동작의 결과물로 ‘汉语’가 있다. (24나)의 ‘交’(사귀다) 뒤의 결과보어 ‘上’은 어떤 새로운 상태에 진입하여, 그 상태가 지속됨을 나타낸다. 여자 친구를 사귀는 상태에 진입하여 그 결과로 여자 친구가 결과로 남아 있다는 의미이다. (24다)의 ‘出差’(출장가다) 뒤의 결과보어 ‘在’는 사람이나 사물은 어떤 장소에 처하고 있는 것을 나타낸다. (24라)는 ‘写’(쓰다) 뒤의 결과보어 ‘好’는 화자의 시선이 행위를 받는 대상에 향해 있고, 행위의 결과가 남아 있음을 나타낸다. 이처럼 ‘成, 好’는 동작의 결과로 나타나는 결과물을 지시하고, ‘在, 上’은 동작의 결과로 나타나는 상태를 지시한다. 그렇다면 ‘掉, 着, 完, 到’이 나타내는 결과가 무엇을 의미하며 (24)의 결과보어와 어떻게 다른지 살펴

보자.

(25) 가. 水果我吃掉了。

나. 水果我吃着了。

다. 水果我吃完了。

라. 水果我吃到了。

과일을 다 먹었다.

(26) 가. 稿子我写完了。

나. *稿子我写到了。

원고를 나는 다 썼다.

다. 我总算坐着商务舱了。

라 *我总算坐完商务舱了。

나는 마침내 비즈니스석을 타게 되었다.

마. 明天考试, 无奈地睡掉了。

바. *明天考试, 无奈地睡着了。

내일이 시험인데, 어이없게도 잠이 들었다.

(25)은 동사 ‘吃’(먹다) 뒤에 결과보어 ‘掉, 着, 完, 到’가 결합된 모습으로 사용된 결과보어는 각기 다른 결과가 있고 이들을 서로 바꾸어 사용하면 어색하다. 그러나 (26)에 사용된 결과보어의 뜻은 모두 ‘다 먹었다’라는 의미이다.

일반적으로 이들이 목적의 달성이거나 동작의 결과를 나타낸다고 알려져 왔으나 ‘다 먹었다’라는 결과 외에 어떤 결과를 각기 다르게 나타내는지 알 수 없다. 呂淑湘(1980), 劉月華(2001) 등은 이에 대해 ‘목적의 달성을 나타내거나 동작의 결과를 나타낸다’고 주장한다. 동작의 결과를 나타낸다고 주장한 이 부분은 사실 너무나 포괄적이다. (24)와 비교하였을 때 어떤 결과를 의미하는지 확실하지가 않기 때문이다. (26)은 한국어 문장을 잘못된 결과보어를 사용하여 비문이 된 예이다. (25)에서 ‘吃’ 뒤에 ‘掉,

着, 完, 到'가 별다른 차이 없이 모두 쓰여 정문이 된 것과는 다른 경우이다.

그러나 (26가)와 (26나)는 결과를 도출한다는 동일한 결과보어 계열이지만 (26나)만 결과보어 ‘完’과 ‘到’의 의미가 달라 비문이 된다. 또한 (26다)와 (26라)가 목적의 달성을 도출한다는 동일한 결과보어 계열이지만 결과보어 ‘着’과 ‘完’의 의미가 달라 (26라)만 비문이 된다. (26마)와 (26바) 역시 동일한 결과나 목적을 달성한다는 결과보어이지만 ‘掉’와 ‘着’의 의미가 다르기에 (26바)만 비문이 된다. 이처럼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쓰이는 ‘掉, 着, 完, 到’를 모두 동작의 결과로 끝기에는 체계성을 찾을 수 없다.

본고는 이들을 ‘動結式’의 두 번째 동사인 결과보어로 간주하고 결과가 종결을 드러내는 것으로 보고 논의를 진행한다. 또한 동일한 종결의 기능을 하는 이들이 최종점에 해당하는 목적어에 따라 어떠한 체계성을 이루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진행하겠다. 동사가 가지고 있는 어휘상의 자질과 최종점에 해당하는 목적어가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결합되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이다. 목적어와 결과보어가 어휘상에 어떤 여향을 끼치는지 알아보자.

(27) 가. 找 – 행위동사

나. 找到 – 달성동사

다. 找到钱包 – 순간동사

(27)에서 보여주는 의미상의 차이는 ‘到’라는 결과보어와 ‘钱包’라는 목적어로부터 비롯된다. (27가)는 목적어가 없으므로 행동을 제한해주는 [완성성]이 없는 행위동사이다. (27나)의 결과보어는 행위의 결과를 내므로 결과가 있다는 것을 시간의 측면에서 분석하면 목표점에 도달한 후의 상태를 의미하므로 달성동사이다. 달성동사는 종결점까지 이르는 예비과정을 거쳐 종결점에 이르러 종결된 순간이 있으며 그 시간을 지나 결과까지를 보여준다.

반면에 목적어가 부가된 (27다)에서 ‘钱包’을 찾아낸 바로 그 순간을 나타낸다. 과정이 나타나지 않는 바로 그 일점 순간이므로 순간동사이다. 이처럼 중국어는 동사의 상 자질과 결과보어 목적어는 깊은 연관이 있다.

먼저 ‘掉’의 기본의미와 결과보어의 의미를 살펴보자. 아래는 서정수 (1992b)의 예문을 중국어와 비교하여 설명한 것이다. 결과보어 ‘掉’가 종결의 의미와 더불어 양태적 의미가 부가됨을 확인해 보자

(28) 가. 把坏习惯丢了。

나쁜 습관을 버리다.

나. 把坏习惯割断了。

나쁜 습관을 끊다.

다. 把坏习惯丢掉了。

나쁜 습관을 끊어 버리다.

(28다)는 (28가)와 (28나)와는 다른 의미가 추가되었다. (28가)의 선행동사 ‘丢弃’(버리다)와 (28나)의 선행동사 ‘割斷’(끊는다)는 ‘버리는 동작’과 ‘끊는 동작’이 각각 발생함을 나타낼 뿐이다. 하지만 (28다)는 단순이 동작이 발생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기어이 끊어버림’이라는 의미가 더해져 있다.⁹²⁾

중국어의 결과보어가 한국어의 보조동사의 역할처럼 후행동사가 보조동사로 쓰인 ‘끊어 버리다’처럼 선행동사 ‘丢’ 뒤에 결과보어 ‘掉’가 후행하여 ‘丢掉’로 표현된다. ‘掉’가 본동사로 쓰이면 ‘쓰지 못할 것을 던짐’의 의미이고, 결과보어로 쓰이면 ‘종결’의 상적 의미와 ‘부담되는 것의 제거’, ‘기대의 어긋남’의 양태적 의미를 보충하게 된다. 아래의 예문으로 결과보어 ‘掉’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자.

92) 서정수(1992b)에서는 보조동사 ‘버리다’는 ‘완결’이라는 기본 의미와 관련된 심리적인 측면은 화용론적 상황에 따라 그 구체적 양상이 달리 드러난다고 지적하였다.

(1) 비가 와 버렸다.

(2) 앓던 이가 빠져 버렸다.

(1)은 상황에 따라 ‘일이 다 틀려 버렸다’는 심리 상태를 표출할 수도 있고 반대로 비로 인해서 좋은 결과를 냈다는 심리 상태를 드러내는 경우도 있다. (2)는 ‘시원하다’, ‘구조되었다’는 심리 상태를 드러낸다고 하였다.

(29) 가. 我把他的东西扔掉。

그의 물건을 던져버렸다.

나. 我把蚊子死掉。

나는 모기를 죽여 버렸다.

다. 我把咖啡的椅子换掉。

나는 카페의 의자를 바꿔 버렸다.

라. 我把一杯啤酒喝掉。

나는 맥주 한잔을 마셔 버렸다.

위의 예문에서 보듯이 ‘掉’는 종결을 나타내는 상 표지이기 때문에 최종점을 가진 동사와 결합 제약이 없다. 최종점을 가졌다는 것은 그 동사가 시작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미 함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29가)의 ‘扔’(던지다)는 순간동사, (29나)의 ‘死’(죽다)는 달성동사, (29다)의 ‘换’(바꾸다)는 행위동사, (29라)의 ‘喝’(마시다)는 완수동사로 이들은 모두 최종점을 가지고 있는 동사들이다. 이들의 최종점은 성질이 모두 같은 것은 아니다, (29다)의 행위동사는 임의적 최종점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동사들은 자연적인 최종점을 가지고 있으나 예문에서 보듯이 최종점의 종류가 결합제약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이들이 완결의 상 표지 ‘了’와 결합하는 양상을 아래의 예문으로 살펴보자.

(30) 가. 我把他的东西掉扔了。

나. 我把蚊子死掉了。

다. 我把咖啡的椅子换掉了。

라. 我把一杯啤酒喝掉了。

(30)은 종결을 나타내는 상 표지 ‘掉’와 ‘了’의 결합을 보여준다. ‘了’의 의미가 기본적으로 완결상을 나타내므로 ‘掉’가 결합되어 의미가 강조되는 기능을 하므로 이 들은 매우 잘 어울린다. 게다가 ‘把’를 사용하여 목적어

를 전치시켜 ‘了’가 문미에 위치하게 되어 변화를 나타내는 양태적 요소까지 가미되어 종결이 강조되어 변화된 상황까지 드러난다.

그렇다면 최종점을 상정할 수 없는 상태동사와의 결합을 살펴보자.

(31) 가. *他的房间干净掉了。

그의 방이 깨끗해 버렸다.

나. *他的脸色怕掉了。

그의 얼굴은 무서워 버렸다.

다. *我对这个情况陌生掉了。

이 상황이 낯설어 버렸다.

라. *他是掉老师了。

그는 선생님이어 버렸다.

위의 예문에서 ‘干净(깨끗하다), 怕(무섭다), 陌生(낯설다), 是(=이다)’는 상태동사로 최종점을 상정할 수 없어 종결의 ‘掉’와 결합제약이 있다. 그러나 최종점을 가진 동사라도 긍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 ‘掉’와 어울리지 않는다.

(32) 가. *太难的声调我学掉了。

어려운 성조를 배워 버렸다.

나. *他的英语刚刚及格掉了。

그는 영어 시험에 겨우 합격해 버렸다.

(32가)의 ‘学(배우다)’, ‘及格(합격하다)’는 긍정적인 의미의 단어이다. 이러한 단어가 부담의 제거, 부정적 느낌 해소, 아쉬운 감정이나 혹은 부담제거로 인한 후련함 등을 내포하고 있는 ‘掉’와는 결합제약이 있다.

결과보여 ‘着’의 의미에 대해서는 呂淑湘(1980:654), 孟琮(1987:12), 劉月華(2001:542), 馬慶株(1992:149), 趙偉(2006) 등에서는 ‘목적의 달성’, ‘결과의 발생’, ‘접촉’, ‘심한 정도’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그러나 결과

보어 ‘着’가 이렇게 다양한 의미기능을 나타낸다는 주장은 곧 결과보어 ‘着’의 본질적 기능에 접근하지 못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본질적이고 근원인 기능은 사용 환경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다음은 기준에 ‘着’의 의미로 제시되었던 목적의 달성(呂淑湘:1980), 부정적 결과 초래(劉月華:2001), 심한 정도(馬慶株:1992) 접촉(孟琮:1987)의 의미를 전달하는 예문이다.

(33) 가. 他终于见着了小时的好伙伴。

그는 결국 어렸을 때의 단짝 친구를 만났다.

나. 窗戶关上吧! 别冻着了。

창문을 잘 닫아라, (추워서) 감기 걸리지 않도록.

다. 他猛地推着了我一下。

그는 나를 세게 밀쳤다

라. 被子盖着脚了。

이불이 발을 덮었다.

(孟琮 1987:12)

예문의 (33가)는 ‘好伙伴’을 만난 목적의 달성을 나타낸다고 하였으나, ‘终于(결국)’이라는 부사 대신 ‘真倒霉(운이 없게도)’를 사용하거나 ‘终于(결국)’를 사용하여도 좋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였다면 – 예를 들면, ‘我终于没猜着不良的企图(나는 결국 좋지 않은 의도를 알아차리지 못했다)’ – 목적의 달성을 표현하기 위해 ‘着’을 부가한 것은 설득력이 없다. (33나)에서 상태동사 뒤의 ‘着’은 동작의 부정적 결과나 영향의 발생이라는 의미를 지니는데, 사실 모든 결과보어가 결과의 발생을 나타내기 때문에 너무나 포괄적이다. 또한 부정적이라는 단서 역시 부사에 따라 달라진 수 있는 상황이다. (33다)에서 심한 손해라는 의미 역시 ‘猛地(지독히, 세게)’라는 부사에서 기인한 것으로 ‘着’에서 해석되기는 어렵다. (33라)는 접촉이라는 의미보다는 지속이라는 의미가 더 강하게 느껴진다. 이는 ‘着’의 본동사에서 나온 의미를 결과보어의 의미 기능에 접근시킨 것으로 보인다.

이제 결과보어 ‘着’이 목적어 및 동사와 결합하는 양상을 예문으로 살펴보자.

- (34) 가. 他吃着一碗饭。
나. 那一碗饭，我吃着。
다. 他把一碗饭吃着。
라. 那一碗饭被他吃着。

(34)에서 劉偉(2011: 18–22)에 따르면 위의 네 가지 형식에서 수사는 ‘着’과 공기하는 목적어로 적격한 것은 인칭대명사, 실질적 사물, 추상적 사물, 의문사, 주술구문이나 동빈구문에서 ‘着’이 목적어로 사용된 경우 등 총 5가지를 볼 수 있다고 하였다. 결국 ‘시사+VR+수사’에서 ‘着’과 공기하는 목적어는 주로 사물이나 사람인데 모두 중성적이나 적극적 의미를 나타낸다는 공통점을 발견하였다. 목적어 성분이 편의적이거나 소극적 의미는 ‘着’의 목적어로 지닐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대한 예시는 다음 (35)과 같다. 과연 이 문장이 목적어의 성질로 부적격한 것인지 동사가 가진 상의 문제인지 알아보기로 하자. 논의의 대조를 위해 동일한 동사가 사용된 것만 제시하였다.

- (35) 가. 我终于把小三找着了。
나는 드디어 小三을 찾아냈다.
나. 我没吃着羊肉。
나는 양고기를 못 먹었다.
다. 他借着自行车了。
그는 자전거를 빌렸다.
라. 我好不容易才把上海的票买着。
나는 겨우 상해로 가는 표를 샀다.

- (36) 가. *在他身上我找着很多缺点。

나는 그에게서 많은 단점을 보았다.

나. *孩子吃着不少苦。

아이가 큰 고생을 했다.

다. *借着不少没用的东西。

쓸모없는 것을 찾았다.

라. *买着一些劣质商品。

저질의 상품을 샀다.

(35)의 ‘着’과 결합하는 동사와 (36)의 ‘着’과 결합하지 못하는 동사의 차이를 劉偉(2011: 18–22)는 목적어의 성분으로 보았다. (35)의 목적어는 인칭대명사나 구체적 사물인 ‘小三’, ‘羊肉’, ‘自行车’, ‘票’이다. 반면에 (36)은 ‘着’과 결합하지 못하고 부적격이 된다. 이에 대해 劉偉(2011)은 소극적이거나 편의적인 목적어를 취하는 동사는 ‘着’과 결합할 수 없다고 하면서 ‘着’의 적격성 여부는 동사가 취하는 목적어의 의미라고 하였다. (36)의 목적어는 단점, 고생, 쓸모없는 것, 저질의 상품 등으로 추상적이고 구체적이지 않다.

그러나 본고는 이것은 목적어가 편의적이거나 소극적이거나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다. 이는 목적어가 명확한 끝점을 부여하는 기능을 발휘하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즉, (35)와 (36)에 사용된 동사 ‘找, 吃, 借, 买’는 행위동사로 [비완성성]의 동사이다. 완성성을 가지지 못한 동사가 결과를 나타내는 ‘着’과의 결합은 부적격하다. 이에 이를 동사에 구체적인 끝점을 명시하는 인칭대명사나 구체적 사물인 경우는 완성성을 부여하여 ‘着’과 적절하게 호응하지만 추상적이거나 구체화되지 않아 한계점을 받지 못한 목적어는 ‘着’과의 결합에 제약을 받는다.

‘完’은 종결을 나타내는 상 표지이므로 최종점을 가진 동사와 결합하여 그 동사의 종결점을 부각시킨다. ‘完’은 ‘–고 나서’의 의미로 앞 행동이나 동작이 끝난 후 뒤 동작이나 행동이 시작됨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掉’와 마찬가지로 종결점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동사와는 결합이 제약된다. 아래의 예문으로 확인해 보자.

(37) 가. 我吃完早饭去运动了。

아침을 먹고 나서 운동하러 갔다.

나. 我交完报告书就回家了。

보고서를 제출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다. 我修理完一把椅子就喝一杯冷啤酒了。

의자를 고치고 나서 시원한 맥주 한 잔 했다.

라. *个子高完后有些发福了。

키가 크고 나서 살이 쪘다.

마. *花朵漂亮完后枯萎了。

꽃이 예쁘고 나서 시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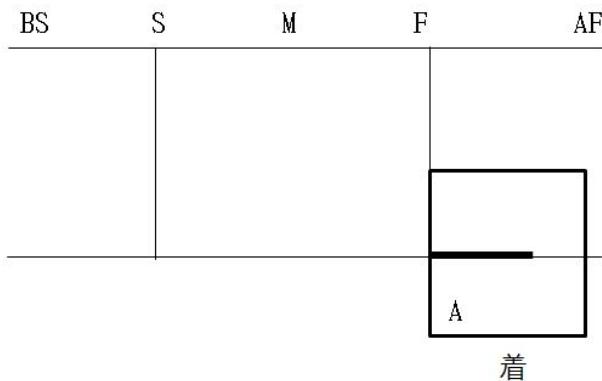
바. *脸色红完后就难受了。

얼굴이 붉고 나서 슬펐다.

3.3.2.5 AF단계의 지속상

AF단계는 동작의 끝 후(After Finished)단계이다. 지속을 나타내는 ‘着’은 동작의 종결 후 결과가 남아서 지속됨을 나타낸다. [완성성]을 가지고 있는 동사만이 이 단계에서 ‘着’과 결합할 수 있다.

<그림17> AF 단계의 지속상



<그림17>의 도식은 어떤 동작 ‘A’가 ‘着’와 결합하여 AF단계에 이른 것을 의미한다. 동작이 종결 후 지속을 나타내므로 [순간성]의 동사와 결합할 수 없다. 순간동사는 [순간성]이므로 결합할 수 없지만 달성동사는 [순간성]이라도 결합이 가능하다. 달성동사는 [순간성]이긴 하지만 [완성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어의 ‘着’에 대하여 郭銳(1993)에서 지적한 세 가지 용법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38) 가. 吃着饭呢。

- 나. 门口坐着一个人。
- 다. 地上扔着一双鞋。
- 라. 他煎着短发。

郭銳(1993)에 따르면 (38가)는 동작의 진행을 나타내는 ‘착₁(着₁)’이며, (38가)는 동사의 어휘 의미에 포함되는 정지 상태의 고정을 표시하는 ‘착₂’이고 (38다)와 (38라)는 동작이 끝나고 나서 그 뒤따른 상태의 고정을 표시하는 ‘착₃’이다.

(39) 가. 他不停地说着别人休想插嘴。

그는 끊임없이 말하고 있다, 다른 사람이 말참견하지 못 한다.

나. 他在沙发上坐着。

다. 墙上挂着一幅画。

한편으로 陸儉明(1999:332)에서도 ‘着’의 용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 바 있다. 陸儉明(1999)에 따르면 (39가)의 ‘着’은 행위 또는 동작의 지속을 나타낸다. (39나)와 (39다)에서의 ‘着’은 상태의 지속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리고 (39나)는 사람이나 동물이 어떤 동작이 끝나고 이루어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고, (39다)는 어떤 행위 또는 동작의 작용으로 인하여 사물이 계속 어떤 상태로 유지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였다.

郭銳(1993), 陸儉明(1999)와 달리 木村英樹(2008)에서 ‘着’은 아직도 본동사의 ‘부착하다’의 의미를 갖고 있으므로 공간 개념을 나타내는 문법적인 단어일 뿐이라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着’이 아직 완전히 시간 개념을 나타내는 동작상 표지로 문법화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着’은 선행 동사와 결합하는 데 있어서 아직 많은 제약을 받는 것으로 보아 木村英樹(2008)의 견해가 타당성이 있으나 본고는 ‘着’을 어휘적인 의미가 남아 있는 동작상 표지로 본다. 그리고 한국어에서 ‘-고 있-’에 대한 연구를 참조하여 중국어의 ‘着’을 ‘결과상태 지속’을 나타내는 ‘착₁(着₁)’과 진행상을 나타내는 ‘착₂(着₂)’로 나누기로 한다. 그 밖에 본고는 ‘착₁(着₁)’의 용법은 다시 (38나)와 (38다), (39라)처럼 존재문에 쓰이는 경우와 (38라)와 (39다)처럼 존재문(存在文)에 쓰이지 않는 경우를 나누어서 다루고자 한다.⁹³⁾

張黎(1996)는 ‘상태, 지속, 진행’이라는 세 가지 개념을 비교하여 설명하였는데, 이를 통해 지속은 진행을 포함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지속과 진행은 상태와는 다르게 모두 외부적인 힘의 작용으로 인해서 동작이 어떠한 시점에서 변화가 시작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지속은 진행과 달리 존재 방식이 균일할 수도 있고, 균일하지 않을 수도 있다. 지속은 동적인 상황과 정적인 상황을 모두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따라서 지속

93) 존재문(存在文)이란 중국어에서 어떠한 장속에 어떤 사람이나 사물이 존재함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구문이다. 존재문은 일반적으로 NP위치+VP+NP와 같은 구조를 갖는다.

은 진행을 포함할 수 있고 변화가 없지만 존재 방식이 균일한 상태를 내포한다. 즉 상태와 진행은 지속이라는 큰 범위 안에 내포될 수 있다는 의미이며 이로 인해 상태의 지속 혹은 진행의 지속이라는 설명도 가능해진다.⁹⁴⁾

본 논문에서 상태지속은 두 가지로 분류된다. 하나는 동작이 종결된 후에 그 동작으로 인해 나타나는 ‘결과 상태 지속’이고, 또 하나는 동작에 따른 결과는 없고 동작 자체가 상태성을 갖게 되어 존재하는 것을 나타내는 ‘존재 상태’이다. 이 장에서 ‘결과 상태 지속’에 관한 부분에서는 우선 ‘-어 있다’와 ‘着₂’를 중심으로 대조 분석한다. 결과 상태 지속이란 동작이 종결되고 종결된 동작의 결과가 존재함을 나타낸다.⁹⁵⁾

중국어 ‘着’의 상적 의미는 ‘상태 지속’이지만 선행동사에 따라 ‘결과 상태 지속’과 존재 상태의 두 가지 의미를 나타낸다. 문법범주 ‘着’의 의미소 가운데 ‘동태의 지속’을 나타내는 구문을 살펴보고 이와 대응하는 한국어 구문을 대조 분석하기로 하겠다. 아래 예를 살펴보자.

(40) 가. 他们正看着电视呢。

그들은 티브이를 보고 있는 중이야.

나. 我们正在看着电视节目呢。

우리는 마침 티브이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 중이야.

다. 他们一直看着电视呢。

그들은 줄곧 티브이를 보고 있는 중이야.

(40가)는 ‘看’이라는 이산성 술어가 쓰여 앞뒤에 각각 ‘他们’, ‘我们’과 ‘电视’, ‘电视节目’가 주어와 목적어로 출현하는 통사구조이다. 즉, 이 세 문장의 주요 구조는 ‘주어+술어+목적어’로 동일하다. 그러나 ‘在’, ‘正在’, ‘着’, ‘呢’가 추가적으로 오면서 의미소의 차이로 인해 미세한 의미상의 차 이를 보이고 있다. 앞에서 제시한 도표를 이용하여 중국어의 의미를 분석하고 이를 한국어로 대조하여 분석해보자. 낱말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휘

94) 張黎(1996), 「着」的語義分布及其語法意義 , 『語言研究』 第 1期, p6–12, 참조(해가림 2012:36재인용)

95) 김성화(1992:186) 참조

상을 살펴보면 ‘看’은 균질성의 구분 동작으로 쪼갤 수 있는 動態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다. 즉 ‘看’은 균질성 동작의 반복성을 지닌 낱말이다. 그러므로 ‘看’은 E_0 부터 E_n 까지 쪼갤 수 있고, ‘看看, 看一看, 看了看, 看了一看, 看了三次’ 등 다양한 통사구조로 구현될 수 있으며. 일정 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동작에 대해서도 ‘看了三个钟头, 看着妈妈妈, 看过北京’ 등으로 구현될 수 있다(장호득 2013: 227–229 참조).

문법범주 상과 관련지어 살펴보면 ‘着’은 ‘看₀’, ‘看₁’, …, ‘看_n’이라는 균질성의 구분 동작이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문법 범주의 이런 ‘지속성’ 상 개념은 ‘着’가 가진 개념적 의미인 ‘붙다’에서 확장되어 파생되면서 허 사화된 것이다. 그러므로 ‘着’는 일부 문법서에서 말하고 있는 ‘동작의 진행’이 아니라 동태의 균질적 동작이 지속되는 상적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제 4 장 한·중 어휘상에 따른 상의 실현 양상

어휘상에 따른 통사적 구성 형식의 결합 속에서 상 실현 양상을 살펴보겠다. 기존의 연구에서 한국어와 중국어의 개별 연구에서 더 나아가 두 언어의 상 실현 양상의 차이에 대해 기술한다.

4.1 상태동사의 상 실현 양상

어휘상 목록 중에서 상태동사는 한국어와 중국어에서 가장 많은 차이를 보이는 어휘상이다. [상태성]과 [지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한국어와 중국어가 동일하나 감각동사나 인식동사에 있어 차이를 보인다. 외형적 성질이나 속성을 나타내어 항구적 성질을 지닌 부류는 한국어와 중국어의 목록에 별다른 차이가 없다. 그러나 3.1.1의 상태동사 세부 분류에서 (나) 류에 속하는 감각 상태동사와 심리상태동사는 한국어는 동사로 분류되기도 하고 형용사로 분류되기도 한다. 동사로 분류되는 근거로는 ‘결린다, 쑤신다’와 같이 ‘-ㄴ다’를 취하고, 관형사형으로 ‘결리는, 쑤시는’의 형태를 취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측면만 제외한다면 속성형용사와 유사한 부분이 많아 상태동사의 범주로 포함시켰다.

반면에 중국어에서는 이들이 목적어를 동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자동사로 취급되어 동사의 일종으로 보기 때문에 정도보어와 부사어의 수식을 받을 수 있다.⁹⁶⁾ (다)류의 인식동사류는 한국어는 달성동사나 상태동사에 포함되는 두 가지 경우가 있고 중국어는 대부분 상태동사로 취급한다. 중국어에서 한국어와는 달리 이들이 의심의 여지없이 상태동사로 분류되는 이유는 진행을 나타내는 ‘-있’과의 결합에 제약을 받기 때문이다. 반면에 한국어는 ‘-고 있’과의 결합에 제약을 받지 않아 연구자에 따라 달성동사로 분류되기도 하고, 움직임이 없는 [상태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상태동사로 분류되기도 한다.

96) 중국어의 자동사(不及物動詞)와 타동사(及物動詞)는 목적어를 수반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어떤 종류의 목적어를 수반할 수 있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자동사는 일반적으로 목적어를 수반할 수 없거나 시사(施事)목적어를 수반할 수 있으면 자동사로 귀속된다.

4.1.1 완결상 실현 양상

4.1.1.1 ‘-였-’과 ‘了’

완결상은 동작이 ‘시작 전–시작–중간–끝–끝 후’의 단계로 나누어 파악될 수 없는 동작 전체가 하나의 점처럼 파악된다. 완결상의 초점은 동작의 발달단계가 아니라 동작이 전체가 하나의 점처럼 파악될 수 있는 완정성을 이루었느냐가 관건이다. ‘-였-’과 ‘了’로 표현하여 동작 전체가 한 덩어리로 완벽한 완정성을 이룰 수 있다. 따라서 동작의 시작점과 최종점을 상정할 수 없는 상태동사는 시작과 끝을 알 수 없고, 이 동작이 완정성을 이루는지 아닌지도 알 수 없으므로 결합에 제약을 보인다.

(1) 가. 나는 포도를 좋아한다.

*我 喜 欢 了 葡 萄。

나. 그는 이씨이다.

*他 姓 了 李。

다. 나는 네 엄마야.

*我 是 了 你 的 妈 妈。

라. 나는 건강한 편에 속한다.

*我 属 于 了 健 康 的 一 类。

(1)에 쓰인 동사 ‘좋아하다(喜欢), 성이 ~이다(姓), ~이다(是), ~에 속한다(属于)’ 등은 모두 상태동사이다. 제시된 한국어 상태동사는 결합에 제약을 받지 않지만, 중국어 상태동사는 하나의 완전한 동작의 덩어리를 이루었음을 표현하는 ‘了’와 결합할 수 없다. 한국어의 상태동사에 ‘-였’이 결합하면 3.2.1.1의 ‘-였’과 상태동사의 결합에서 언급하였듯이 상태를 사건으로 전환시키는 의미작용이 발생한다. 따라서 이때의 한국어는 하나의 사건처럼 상태의 사건화 기능을 하기 때문에 결합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이에 해당하는 중국어의 상태동사 ‘喜欢, 姓, 是, 属于’는 [동태성]

이 없고 ‘항상성’과 ‘영구성’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완정성을 가질 수 없다(呂叔湘主編 1980/1999). 이 동사들은 중국어에서 변화가 없는 항상성에 초점에 맞추어져 있어 의미가 상충된다. 그러나 이러한 상태동사에 ‘了’가 결합되면 [상태성]이 [동태성]이 되기도 한다. 이때는 형용사의 실현성이 강조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실현의 의미로 쓰인 ‘了’와 상태동사의 결합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2) 가. 나는 단박에 그들을 사랑했다.

나. 她一下子就爱了他们。

(3) 가. 이 일은 그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나. 这件事痛了他的心。

(4) 가. 후에 나는 실상을 알았다.

나. 后来我知道了真相。

(5) 가. 마음 속에 목표가 생겼다.

나. 心里有了这个目标。

한국어의 상태동사에 ‘-었-’이 결합하면 ‘-었-’과 상태동사의 결합에서 언급하였듯이 상태를 사건으로 전환시키는 의미작용이 발생한다.⁹⁷⁾ 따라서 이때 하나의 사건처럼 상태의 사건화 기능을 하기 때문에 결합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

(2가)의 ‘그들을 사랑하는 상태인 것’, (3가)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 (4가)의 ‘실상을 안 것’, (5가)의 ‘목표가 생긴 것’에 대해 이미 실현된 사

97) 양정석(2008:710)은 “상태동사에 ‘-었-’이 적용됨으로써 ‘상태의 사건화’ 규칙이 작동한다”고 하였다.

가. 날씨가 춥다.

나. 이때는 날씨가 추웠다. (양정석 2008:709)

위의 문장은 (가)의 ‘추운’ 상태를 (나)에서 이미 완결된 사건으로 전환시키는 기능이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건으로 전환시키는 기능이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중국어에서 ‘了’는 실현의 의미를 나타내며 대부분의 어휘상과 공기가 가능하다. 특히 상태동사와의 결합에서는 실현의 의미가 더욱 강조된다. ‘了’를 완성상의 의미로 보는 관점에서는 동작의 시작점과 최종점을 상정 할 수 없는 상태동사와는 결합에 제약을 보인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말뭉치의 실제 ‘了’의 쓰임을 확인하면 ‘了’는 상태동사와의 결합이 자유롭다.

이러한 실현 양상은 ‘了’가 ‘완료’나 ‘완성’보다는 ‘실현’을 나타낸다는 최규발(2002:220)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⁹⁸⁾

4.1.1.2 ‘-었었-, -은 일/적이 있-’과 ‘-過’

(6) 가. 태민이 예전에도 뚱뚱한 적이 있었다.

나. 太民以前也胖过。

(7) 가. 이전에 그 지방의 날씨도 추운 적이 있었다.

나. 以前那个地方的天气也冷过。

(8) 가. 나는 예전에 성이 왕씨인 적이 있었다.

나. 我以前姓过王。

(9) 가. 나는 예전에 그를 좋아한 적이 있었다.

나. 我以前喜欢过他。

(10) 가. 그는 나를 안 적이 있다.

나. *他知道过我。

98) 중국어 ‘了’는 ‘완성설’, ‘완결설’, ‘실현설’에 대한 다양한 주장이 있다. 최규발(2002:219)에서는 아래의 문장을 예로 들어 실현설을 주장하였다.

가. 张三殺了李四两次, 李四都没死。

나. 我买了三本书, 可是没买到。

다. 你吃了饭再去吧。

라. 这个星期只晴了一天。(최규발 2002:219)

(11) 가. 그는 선생님인 적이 있다.

나. *他是过老师。

(6)~(9)의 ‘–은 적/일이 있–’는 과거에 일어난 경험이므로 [실현성]과 [완성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일생에 한번뿐인 일인 ‘태어나다(出生), 죽다(死)’ 등의 일회성 동사나 인식을 나타내는 동사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동사와 결합한다. 결합에 제약을 보이는 (10나)의 ‘知道’는 인식동사로 어떤 상태를 알았는데 모르는 상황이 될 수 없고, (11나)의 ‘是’는 예전에 선생님이었는데 아닌 상황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4.1.2 동작의 발달 단계에 따른 상 실현 양상

4.1.2.1 ‘–게 되–/-려고 하–’와 ‘將要’

예정상은 동작의 발달 단계에서 시작점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으로 ‘–게 되–, –려고 하–’와 ‘(就)要, (快)要, 將(要), 即將, 行將’로 나타난다. 시작점을 향해 나아간다는 것은 동작의 움직임이 있어야 하는데 상태동사는 [상태성]이므로 결합에 제약을 받는다. [상태성]이라 동작의 움직임도 없을 뿐만 아니라 상태동사의 시작점은 상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12) 가. *노왕이 멋지게 되다.

나. *노왕이 이가 아프게 되다.

다. *노왕이 소왕을 사랑하게 되다.

라. *노왕이 돈이 있게 되다.

(13) 가. *老王 將要 漂亮。

나. *老王 牙將要疼。

다. *老王 將要 爱 小王。

라. *將要 有 錢。

(12)에 해당하는 ‘멎지다, 아프다. 사랑하다, –이다, –가 있다’는 상태동사로 시작점을 상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태동사 시작점을 향하는 ‘–게 되–’는 서로 결합이 제약된다. 만약 여기에 ‘–었–’이 결합하여 ‘멎지게 되었다, 아프게 되었다, 사랑하게 되었다, 학생이 되었다, 돈이 있게 되었다’가 쓰이면 이때 ‘–게 되–’는 자연스럽게 어울린다. 이는 ‘–었–’이 부가되어 상태동사가 완결성을 띠므로 가능하다.

(13)에 해당하는 ‘漂亮, 疼, 爱, 有’는 상태동사로 시작점을 상정할 수 없어 시작점을 향하는 ‘將要’와는 결합할 수 없다. 그러나 ‘將要~ 了’ 형식으로 쓰이면 정문이 된다. 이는 ‘將要’가 시작점을 향하는 동작의 양상과 변화를 나타내는 어기조사 ‘了’가 호응하여 시작점을 향하여 출발한 동사가 상태의 변화를 나타내는 어기조사와 의미가 통하기 때문이다.

예정상의 또 다른 형태로 제시된 ‘–려고 하다’와 결합제약에서는 ‘–려고 하–’가 ‘의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작주가 사물인 경우는 결합에 제약을 받는다. ‘–려고 하–’는 ‘–게 되–’보다 양태성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예정상을 표현하는 상 표지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4.1.2.2 ‘–어 지–’와 ‘起來’

기동상은 동작 발달 단계에서 사건이 금방 시작한 상태에 처해 있을 때의 단계에 해당한다. 한국어의 ‘–어 지–’와 중국어의 ‘起来’로 표현할 수 있다. ‘起来’는 동작의 시작점 이전에 사건은 발생하지 않으며 시작점을 지나면서부터 동작이 시작된다. 그러나 ‘–어 지–’는 ‘起来’보다 조금 복잡한 양상을 띤다. 김윤신(2001:118)에서도 지적했듯이 ‘–어 지–’가 결합한 동사들은 “그 사건 구조가 상적인 행동에서 일관적인 양상을 보이지 않는다”고 하였다. 즉, 형용사 ‘높다’에서 파생된 ‘높아지다’와 ‘없다’에서 파생된 ‘없어지다’가 상적인 면에서 다른 양상을 보인다는 점이다.

한국어에서 상태동사와 결합하는 ‘–어 지–’는 양태적 의미가 강해 ‘변

화’의 의미가 강하고 일부 타동사 어간에 결합하는 ‘-어 지-’는 일부 동사에만 결합할 수 있으므로 접사적 성격이 강하다. 바로 이러한 접사적 성격의 ‘-어 지-’에서는 ‘건물이 세워졌다’, ‘옷이 찢어졌다’처럼 변화의 의미보다는 피동의 의미가 드러난다고 보았다(김윤신 2001:118참조).

(14) 가. 날씨가 더워졌다.

나. 관계가 이미 좋아졌다.

다. 생활 수준이 이미 높아졌다.

(15) 가. 天气也热起来了。

나. 矣系已经好起来了。

다. 生活水平提高起来了。

(14)의 상태동사 ‘덥다, 좋다, 높다’는 ‘-어 지-’와 결합 제약이 없다. 단지 의미에 있어 상적으로 동작이 시작되는 ‘기동’의 의미와 양태적 의미의 ‘변화’를 모두 가지고 있다. 이에 (14가)를 예로 들면 ‘더워지기 시작함’은 그 이전에는 덥지 않았는데 이제는 변화하여 ‘더워졌다’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5)의 상태동사 ‘热, 好, 提高’는 모두 ‘起来’와 자연스럽게 결합한다. 이때 ‘了’를 동반해도 되고, 동반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는 ‘起来’ 자체가 ‘변화’의 의미가 있어 변화를 나타내는 어기조사 ‘了’를 쓰면 강조가 되고, 쓰지 않아도 의미상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起来’는 한국어의 ‘-어 지-’와 ‘-하기 시작하-’에 해당하지만, 인식이나 판단을 나타내는 동사는 ‘起来’와 공기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의미인 ‘-하기 시작하-’는 인식이나 판단동사와 자연스럽게 결합한다. 예문으로 확인해 보자.

(16) 가. 그는 그 친구에 대해 믿기 시작하다.

나. 나는 이 상황을 알기 시작했다.

(17) 가 *他对那朋友相信起来。

나. *我认识起来这个情况。

(16)의 동사 ‘믿다’와 ‘알다’의 동사는 ‘-기 시작하-’와 자연스럽게 결합하지만, 이에 대응하는 (17)의 ‘起来’는 결합에 제약을 받는다. 이는 순간적인 판단이나 인식의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는 ‘-어 지-’에 의해 부과되는 변화 과정을 순간적인 판단이나 존재 상태에서는 상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로써 동작이 막 시작됨을 나타내는 ‘起来’는 동작이 시작할 수만 있다면 결합에 제약을 받지 않으나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동사와는 결합에 제약을 받는다.

인식류 동사는 상태동사보다는 달성동사와 더 가까움을 알 수 있다. 상태상황유형의 내부단계로 인해 상 보조용언과의 결합이 제약된다면 상태상황유형이 시작점과 끝점을 가지지 못한다는 것은 ‘시작하다’와 같은 동사와의 결합관계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 시작점과 끝점을 가지는 다른 상황유형은 이러한 동사와의 결합이 자연스러운 양상을 보여주다.

기동상은 동작이 막 시작되는 단계에 해당하므로 시작점을 가지고 있으면 결합이 가능하다. 상태동사가 시작점을 가지고 있는지 아래 예문으로 살펴보자.

(18) 가. *소왕이 예쁘기 시작했다.

나. *방이 깨끗하기 시작했다.

다. 소왕이 놀기 시작했다.

라. 폭죽이 터지기 시작했다.

(19) 가. *小王开始漂亮。

나. *房间开始干净。

다. 小王开始玩儿。

라. 鞭炮开始爆炸。

위의 예들은 상태동사가 시작점을 가지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기 시작하다’는 아직 시작점을 지나 동작의 초기 단계가 아니다. ‘-기 시작했다’는 이제 막 동작의 시작 단계로 돌입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시작점을 지난 상태는 아니다. 그러므로 시작점을 막 지나 동작이 시작된 ‘-어지다(起来)’와는 결합할 수 있지만, ‘-기 시작하다(开始)’는 결합에 제약을 받는다. (18다)와 (19다)의 ‘놀다(玩儿)’는 행위동사이며, (18라)와 (19라)의 ‘터지다’는 순간동사로 모두 확실한 시작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합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

4.1.2.3 ‘-고 있다’과 ‘正/在/正在’

동작의 발달 단계 중간에 해당하는 M단계는 동작의 시작점이나 최종점을 고려하지 않는다. 상태동사는 시작점과 최종점이 불분명한 상태이므로 ‘-고 있다’와 결합하지 않는다.

이는 중국어의 ‘正/在/正在’도 마찬가지로 상태는 비록 계속적이라 하더라도 변화를 포함하지 않아 진행 중이거나 발전 중인 것으로 보일 수 없기 때문이다.

- (20) 가. *그는 북경에 있고 있다.
나. *그는 학생이고 있다.
다. *그는 3명의 아이가 있고 있다.

- (21) 가. *他在在北京。
나. *他在是学生。
다. *他在有三个孩子。

(20)의 상태동사 ‘-에 있다, -이다, -을 가지다’는 [상태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동작의 변화를 포함한 진행을 나타내는 ‘-고 있다’와 결합이 자연스럽지 않다. (21)의 상태동사 ‘在, 是, 有’는 진행의 ‘在’와 결합하지 않

는다. 상태동사(state verb)가 지시하는 장면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어떠한 변화도 없으므로 장면의 처음과 끝이 모두 같다. 그러므로 어떠한 동작이나 사건이 일정 기간 동안 ‘진행’됨을 나타내는 진행의 ‘-고 있-’과 ‘在’는 의미적으로 충돌을 일으킨다.

그러나 3.1.1의 상태동사 분류에서 두 번째 부류에 해당하는 감각, 심리동사는 한국어와 다른 양상을 보인다.

(22) 가. 너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니?

나. 你在怕什么？

(23) 가. 너는 아직도 나를 미워하고 있지?

나. 你还在恨我吧？

(24) 가. 갈수록 많은 일본인들이 이런 종류의 제품을 좋아하고 있다.

나. 越来越多的日本人在喜欢使用这种制品。

(25) 가. *팔다리가 쑤시고 있다.

나. *胳膊，腿在刺痛。

(26) 가. *두피가 좀 가렵고 있다.

나. *头皮有点儿在痒痒。

(22)~(24)의 심리동사와 ‘-고 있-’의 결합제약에 있어서는 심리동사는 상 차질이 [-동태성]이지만 화자의 심적 태도를 반영하는 것이므로 ‘-고 있-’과 결합한다. 그러나 (25)~(26)의 지각동사는 일부와만 결합이 가능하다. 그리고 [완결성]이라 대부분의 심리동사들이 타동사와 결합을 하므로 완료의 결과를 나타내는 ‘-고₂ 있-’과의 결합이 가능하다.

(27) 가. 나는 해답을 알고 있다.

나. *我在知道答案。

다. 我知道着答案。

상태동사의 동태성과 관련하여 다음 예문을 보자. 본고에서는 [-동태성]을 무조건 상태동사라 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을 이미 앞에서 지적했다. 인식동사는 상 자질이 [-동태성]이지만 화자의 심리적 태도를 반영하는 것이므로 ‘-고 있-’과 결합한다. 상태동사와 결합하는 ‘-고 있-’은 지속의 의미를 나타내므로 중국어의 (27나)는 비문이 되지만 (27다)는 정문이 된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단순히 진행형과 결합할 수 없는 것을 상태동사라 하여 진행상과 대립적인 것으로 파악했다. 일반적으로 인식동사류와 결합하는 ‘-고 있-’은 ‘-고₂ 있-’을 의미하여 결과 후 지속을 나타낸다고 하지만, 인식동사류의 내적 동태성과 연관을 짓는다면 인식동사류의 결합 양상은 더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4.1.2.4 ‘-어 가/오-’와 ‘下去’

상태상황유형을 나타내는 동사구, 특히 일시적이고 변할 수 있는 특성을 나타내는 동사구에 ‘-고 있-’은 결합할 수 없지만 ‘-어 가/오-’는 결합할 수 있다. ‘-고 있-’과 ‘-어 가/오-’의 상적 기능에 차이가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 ‘-고 있-’이 나타내는 진행은 시간적 확장과 공간적 확장이 함께 일어나고 있는 동작의 상황에서 특정 단계의 진행을 의미하고 그것을 두드러지게 하는 것이라면 ‘-어 가/오-’는 일시적인 변화를 드러내는 것이다.

(28) 가. *그녀는 예뻐 간다.

她漂亮下去。

나. *산이 높아 간다.

山高下去。

다. 밤이 점점 높아 간다.

夜越来越深下去。

라. 날이 점점 어두워 간다.

天越来越黑下去。

(28가)와 (28나)는 ‘-어 가-’와 결합하면 비문이 된다. 이호승(2001)에서는 ‘-어 가다’의 추상적 어휘 의미가 어떤 방향으로 상황이 변화해 가거나 계속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과 결합하는 상황은 [-상태성]이며 [지속성]이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영구적인 상태성을 나타내는 ‘상태동사’와는 공기할 수 없다. 그러나 이에 해당하는 중국어는 ‘下去’는 형용사 뒤에서 정도의 심화를 나타내기 때문에 적격하다.

예문 (28다)와 (28라)는 적격한 문장이 된다. ‘깊다’, ‘어둡다’는 속성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상태변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태동사들은 속성을 나타내는 상태동사와는 달리 상태 변이를 나타낼 수 있는 상태동사이므로 비상태성 동사처럼 ‘움직임’의 자질을 갖는다. 그러므로 밤이 ‘깊어지는 과정’, ‘날이 어둡게 변하는 과정’의 진행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이에 해당하는 중국어는 ‘점점 더(越来越)’의 의미가 추가되어 더욱 자연스럽게 호응한다.

4.1.2.5 ‘-어 버리-, 어 놓/두-’와 ‘掉/ 着/ 完’

‘-어 버리-’는 행위의 완료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지속성을 나타내는 상태동사와 공기할 수 없다. ‘-어 놓/두-’는 행위주가 의지를 가지면서 어떤 목적을 위해 행동을 한 다음에 다시 의지를 가지면서 유지, 대비 시키려 하는 의미가 있다. 그러므로 행위주가 사람이 아닌 상태동사의 경우 결합에 제약을 받는다.

(29) 가. *그녀는 예뻐 버렸다.

* 她漂亮掉了。

나. *물이 맑아 버렸다.

*水清掉了。

(29)의 상태동사 ‘예쁘다(漂亮), 맑다(清)’는 최종점을 상정할 수 없으므로 [완성성]을 가지지 못해 종결상의 보조동사 ‘–어 버리다’나 종결상의 결과보어 ‘掉’은 결합제약이 있다.

(30) 가. *단풍이 붉어 {놓는다, 둔다}

*被枫叶红着了。

나. *몸이 시려 {놓는다, 둔다}

*手冷着了。

다. *꽃이 아름다워 {놓는다, 둔다}

*花漂亮着了。

(30)의 상태동사 ‘붉다(红), 시리다(冷), 예쁘다(漂亮)’는 최종점을 상정할 수 없으므로 ‘동작 끝남’의 의미를 자질 수 없어 종결상의 ‘–어 놓다/두다(着)’와 결합할 수 없다. ‘着’은 종결을 나타내는 결과보어로 종결을 가지려면 동작이 끝나야 하는데 상태동사는 시작과 끝이 모호하기 때문이다.

4.1.2.6 ‘–어 있다’과 ‘着’

지속상을 나타내는 ‘–어 있다(着)’는 상태성동사와 결합제약을 받는다. 형용사 구문은 최종점을 상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다.

(31) 가. *소왕이 예뻐 있다.

*小王漂亮着。

나. *산이 높아 있다.

*山高着。

다. *꽃이 붉어 있다.

*花紅着。

라. *학생이어 있다.

*小王是着学生。

마. *소왕이 방에 있어 있다.

*小王在着房间里。

(31)의 상태동사 ‘예쁘다(漂亮), 높다(高), 붉다(紅), –이다(是), –에 있다(在)’는 지속상의 ‘–어 있다’와 결합하면 한국어와 중국어 모두 결합 제약을 받는다. 상태동사구는 영구적이거나 적어도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지속되는 상태를 지시하는 반면 ‘–어–’는 ‘동작의 종결 후 그 결과가 남아 지속되는 것이므로 상태동사구와 ‘–어 있–’은 공기할 수 없다.



4.2 순간동사의 상 실현 양상

순간동사는 한국어와 중국어에 별다른 차이는 없다. 순간동사의 가장 큰 특징인 [순간성]은 한국어와 중국어 모두 동일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다만 ‘죽다(死)’와 ‘(얼음이) 녹다(氷化)’는 어휘상 분류에 차이를 보이는데 중국어 ‘죽다’는 순간동사에 포함되기도 하지만 본고는 죽음이 이르는 과정을 달성동사의 예비단계로 보고 달성동사에 포함시켰다. ‘(얼음이) 녹다(氷化)’는 한국어 내에서도 이견이 많다. 얼음이 녹는 과정에 초점을 두면 달성동사이고, 얼음이 녹고 결과가 남아 있지 않은 상태는 순간동사에 해당하고, 얼음이 녹아가는 과정에 초점을 두면 완수동사에 속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의미적으로 해석하면 상 자질의 분류가 자의적이므로 결합자질을 사용하여 분석하도록 하겠다.

4.2.1 완결상 실현 양상

4.2.1.1 ‘-었’, ‘了’

순간동사는 완결상 ‘-었’, ‘了’와 결합제약이 없다. 순간동사들은 모두 순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속성이 없다. 지속성이 없어 순간적으로 하나의 점처럼 발생하기 때문에 완결상을 나타내는 ‘-었-’이나 ‘了’와 결합하여 더욱 완벽한 완결상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다. 완결의 의미가 동작을 하나의 전체로 파악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은 상 자질의 특성이 그대로 드러난 일점성 동사라는 용어에서도 엿볼 수 있다.⁹⁹⁾ 아래의 예문으로 살펴보자.

(1) 가. 화산이 폭발했다.

火花爆发了。

99) ‘일점성 동사’라는 용어는 陳平(1988)의 ‘單變(simple change)’을 王雷량(2012)에서 번역 한 용어이다.

나. 비행기가 도착했다.

飞机到达了。

다. 비가 멈추었다.

雨停了。

(1)은 순간동사 ‘폭발하다(爆发), 도착하다(到达), 멈추다(停)’는 완결상의 ‘-었’, ‘了’와 결합제약이 없다. 이러한 순간성 자질을 갖는 부류의 동사는 아주 짧은 시간인 순간적인 사건의 반복이나 일련의 순간적 사건으로 내부 구조를 갖지 않으며 시간적으로도 지속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지속을 나타내는 부사어와도 결합하지 않는다.

4.2.1.2 ‘-었었-, -은 일/적이 있-’와 ‘一過’

본고에서 ‘-었었-’과 ‘過’은 3.2와 3.3에서 밝혔듯이 한때 과거에 사건이 지속되었으나 지금은 그러하지 않다는 의미의 연속성이 끊어진 상태이다. 순간동사와 이들의 결합제약을 아래 예문으로 확인해 보자.

(2) 가. 아침에 기침을 했었다.

早上咳嗽过了。

나. 어제 식량이 떨어졌었다.

昨天断过糧了。

다. 방금 시계가 멈추었었다.

钢材钟停过了。

(2)의 순간동사 ‘기침하다(咳嗽), (식량이) 떨어지다(斷), 멈추다(停)’는 ‘-었었-’, ‘過’와 결합제약이 없다. 과거에 한때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과거를 나타내는 시간부사인 ‘그때(那时), -할 때(-的时候), -한 후에(后), 이미(已经)’ 등과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순간동사와 결합하는 ‘過’는 순간동사의 [순간성]으로 인하여 ‘-한 적/일이 있-’으로 해

석되기보다는 한정적 시간부사어와 함께 쓰여 ‘단속’의 의미로 쓰인다.

4.2.2 동작의 발달 단계에 따른 상 실현 양상

4.2.2.1 ‘-게 되-/려고 하-’와 ‘將要’

동작 전 단계의 예정상은 ‘-게 되다, -려고 하다’와 ‘(就)要, (快)要, 將(要), 即將, 行將’ 등의 표지로 나타난다. 순간동사의 [순간성], [비완성성]은 예정상의 상적 자질과 충돌하지 않아 결합제약이 없다. 예정상은 동작의 시작 전 단계에 해당하므로 순간동사가 [비완성성]이더라도 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3) 가. 식량이 떨어지려 한다.

口粮快要断了。

나. 징계에 대한 회의가 곧 열리게 된다.

對惩戒的会议将要开始。

(3가)의 ‘떨어지다(斷)’는 ‘(快)要’의 임박한 예정상과 자연스럽게 어울린다. (3나)의 ‘시작하다(开始)’는 ‘(快)要’보다는 임박성이 떨어지지만 앞으로 ‘-게 되다’는 예정상과 잘 어울린다.

(4) 가. 태민이가 막 채채기를 하려 한다.

太民快要打喷嚏了。

나. 선생님이 오늘 소왕을 때리려 한다.

*老师今天快要打小王了。

다. 오후에 택배가 도착하려 한다.

*下午快递快要达到。

(4가)의 ‘채채기를 하다(打喷嚏)’는 ‘(快)要’의 임박성과 자연스럽게 호

응하여 순간동사는 예정상에 있어 특히 ‘(快)要’와 자연스럽게 결합한다. (4나)의 ‘打’와 (4다)의 ‘达到’는 시간사인 ‘오늘(今天)’, ‘오후(下午)’와 ‘(快)要’의 임박한 예정상의 의미충돌로 결합제약이 있다. 이는 순간동사의 [순간성]과 시간의 양과 의미가 상충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어는 시간사가 부가되어도 이러한 결합제약을 받지 않는다.

순간동사와 동작 단계상과의 결합에서 특이한 점은 일반적으로 진행상을 나타내는 ‘-고 있’이 순간동사와 결합하면 상의 변이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고 있’의 [동태성, 지속성]이 순간동사의 [순간성]과 결합하여 예정상이나 반복의 의미를 나타낸다. 아래의 예문으로 확인해 보자.

(5) 가. 자동차가 멈추고 있다.

나. *汽车在停。

(6) 가. 방금 서울행 열차가 도착하고 있다.

나. *飞往北京的列车在到达。

위의 예문 (5)의 ‘멈추다(停)’와 (6)의 ‘도착하다(到达)’는 [동태성, 순간성]의 순간동사로 분류된 동사들이다. (5가)의 ‘멈추다’에 ‘-고 있-’이 결합하면 자동차가 멈춘 상태가 아니라 곧 완전히 멈출 것이라는 의미가 전달된다. 즉, ‘멈추다’라는 행위가 곧 발생될 상황에 처한 예정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5나)의 ‘停’은 진행을 나타내는 ‘在’와 결합에 제약을 받는다. (6가)의 ‘도착하다’는 열차가 아직 도착한 것이 아니라 도착하는 행위가 일어날 상황에 처한 것이다. (6나)의 ‘到达’는 ‘在’와 결합에 제약을 받는다. 즉, 진행상을 나타내는 요소 ‘-고 있’과 ‘在’는 한국어 순간동사와 결합하면 의미가 전환되어 진행상이 아닌 예정상이 되고, 중국어 ‘在’는 순간동사와 결합제약을 받는다.¹⁰⁰⁾

또한 순간동사가 ‘-고 있’과 결합하여 반복의 양상을 나타낸다. 순간동

100) 김영희(1980)는 예비성(preparatory)의 차질로 완수동사와 순간동사(순발동사)를 구별하였다. 이호승(1997)은 예비성과 결과성의 차질로 행위동사(과정동사)를 분리하였다. 이때 이들이 가진 예비성이 ‘-고 있다’의 [동태성, 지속성]과 결합하여 예정상을 드러낸다고 하였다.

사는 동작의 시작과 끝이 동시에 발생하는 동사이기 때문에 변화 단계를 나타낼 수도 없고 지속 시간을 가질 수 없음을 이미 앞에서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아래의 예문에서 보듯이 일부 순간동사는 ‘-고 있-’과 결합하여 반복의 의미를 나타낸다.

(7) 가. 아이들이 문을 두드리고 있다.

나 孩子们在鼓门。

(8) 가. 그는 기침을 하고 있다.

나. 他在咳嗽。

(9) 가. 우박이 유리창을 때리고 있다.

나. 冰雹在鼓打玻璃窗。

(7)~(9)의 동사는 모두 순간성을 지닌 순간동사이다. (7)의 ‘두드리다(鼓)', (8)의 ‘기침하다(咳嗽)', (9)의 ‘때리다(打)'는 모두 ‘-고 있', ‘在'와 결합하여 반복의 의미를 나타낸다.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최규발(2012:51)은 “미완료상 표지 ‘在'와 결합한 순간상황활동 유형은 반복의 의미가 형성되었고 [지속성]이 없는 단일 사건이 곧 [지속성]을 지닌 복합사건으로 변하게 된다”고 하였다. 즉, 순간동사가 ‘-고 있'과 결합하면 한국어는 진행상이나 반복상을 나타낸다. 반면에 ‘在'와 결합하면 예정상의 의미는 없고 일회적인 사건이 아닌 사건이 반복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임을 나타낸다.

4.2.2.2 ‘-어 지-’와 ‘起來’

동작 시작 단계의 기동상은 ‘-지다’와 ‘起來’ 등의 표지로 나타낸다.¹⁰¹⁾ ‘-지다’와 ‘起來’가 의미하는 시작은 기준의 상태로부터 동태로 이행되는 동작 또는 상황의 변화가 시작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동작 또는 상황의 시작을 나타낼 때 동작이나 상황의 끝점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동작의 시작과 더불어 계속의 의미도 나타난다. ‘-지다’와 ‘起來’는 시작되는 움직임과 그 움직임이 지속될 것을 나타내므로 [동태성, 지속성]을 지닌 동사와 잘 어울린다.

그러나 순간동사는 [지속성]이 없기 때문에 결합제약이 있다. ‘起來’는 한국어로 번역할 때 어떤 경우에는 ‘-지다’라고 번역되지 않고 ‘-하기 시작하다’라는 의미로 표현될 때가 있다. 이는 한국어 ‘-지다’의 분포적 특성으로 인한 결과이다. ‘지다’는 형태소 ‘-하-’를 포함하는 대부분의 동사와는 결합 제약을 지닌다(이정택 2004:123).

‘起來’가 포함된 중국어 문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국어에서 동작이나 상황의 변화 시작을 의미하는 ‘-기 시작하다’로 대체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이에 ‘起來’의 의미를 나타내면서 형태소 ‘-하-’를 포함한 한국어 동사의 상당수가 ‘-기 시작하다’로 표현되고 있음을 살펴보겠다.

(10) 가. *기온이 갑자기 떨어져서, 기침을 해지다.

나. *今天气温突降就咳嗽起来。

(11) 가. *화산이 폭발해지다.

나. *火山爆发起来。

(12) 가. *정시에 도착해지다.

나. *正点到达起来。

101) 시작의 변화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起來’는 번역어로 ‘-하기 시작하다’라는 의미로 번역하면 더 자연스러운 경우가 많다. 그러나 본고는 동작 발달 단계상의 범주를 보조동사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起來’는 문장의 해석상 필요한 경우에만 ‘-하기 시작하다’로 사용하였다.

(11)의 ‘기침하다(咳嗽)’, (12)의 ‘폭발하다(爆发)’, (13)의 ‘도착하다(到达)’는 모두 순간동사로 [순간성] 자질이 ‘-지다’와 ‘起來’의 [지속성] 자질과 충돌하여 결합 제약이 있다. 그러나 순간동사가 중복의 의미를 가지면 그 동사가 표현하는 동작이 연속으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起来’가 뒤에 올 수 있다(戴耀晶1997:96). 이러한 용법은 순간동사가 진행상을 나타낼 때와 비슷하다.

(13) 가. 멀리서 불빛이 반짝거리기 시작했다.

나. 远处灯光闪起来了。

(14) 가. 그는 갑자기 딸꾹질을 하기 시작했다.

나. 他突然打起嗝儿来了。

(13)의 ‘반짝이다(閃)’와 (14)의 ‘딸꾹질을 하다(打起嗝)’는 순간동사이지만 이들이 반복의 의미로 쓰이면 결합제약이 해제된다. 이와 같이 ‘起來’는 사건의 변화를 나타낸다. 순간동사는 문장에서 중복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 동작의 연속성을 표시하여 위의 예문처럼 ‘起來’로 나타낼 수 있다. 이런 점이 순간동사를 기동상으로 간주하는 의견으로 지속성과 유사하다(戴耀正 1997:96).

4.2.2.3 ‘-고 있다’과 ‘正/在/正在’

동작 중간단계의 진행상은 ‘-고 있다’와 ‘正/在/正在’가 해당하며 [동태성, 지속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순간동사의 [순간성]과 결합제약이 있다. 순간동사와 ‘-고 있다’ 및 ‘正/在/正在’의 결합은 진행상을 나타낼 수 없고 예정상을 나타냄을 앞에서 언급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예문은 생략하기로 한다.

4.2.2.4 ‘-어 가/오-’와 ‘下去’

향진상 ‘-어 가-/오-’와 ‘下去’는 [동태성, 지속성] 이외에도 한동안 어 떤 동작이 최종점을 향해 계속 이어진다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

(15) 가. *별이 반짝여 간다.

나. *星星闪烁下去。

(16) 가. *작은 배가 출렁거려 간다.

나. *小船翻涌下去。

(17) 가. 식량이 떨어져 간다.

나. 口粮斷了。

(18) 가. 거의 다 도착해 간다.

나. 几乎都到下去了。

(15)의 ‘반짝이다(闪烁)’와 (16)의 ‘출렁이다(翻涌)’의 [순간성]과 향진상의 [동태성, 지속성]은 결합제약이 있다. 그러나 (17)의 ‘떨어지다(斷)’와 (18)의 ‘도착하다(到)’는 결합제약이 없다. 이것은 이행동사의 특성에 서 기인하다. ‘떨어지다(斷)’와 ‘도착하다(到)’는 본고의 순간동사에 속하는 이행동사이다. 이행동사는 ‘시작점(I)’로 접근하는 동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향상상과 결합하면 결합제약이 해소된다.

4.2.2.5 ‘-어 버리-, 어 놓/두-’ 와 ‘掉/ 着/ 完’

동작 끝단계의 종결상은 ‘-어 버리다/내다/놓다’와 ‘掉, 着, 完’가 최종점에 도착한 동사와 결합하여 종결의 의미가 강조되고 양태적 의미가 부가 된 것이다. 따라서 최종점을 가지고 있는 순간동사와 결합제약이 없다. 본

고에서의 [완성성]은 동작의 종결 후 그 결과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러한 의미에서 순간동사는 [완성성]을 지닌 것은 아니다. 순간동사는 시작점과 끝점이 동일하여 순간적으로 발생한 동작이고 그 동작이 결과적으로 남아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종결상은 최종점에 이르기만 하면 가능하므로 순간동사가 [비완성성]이라도 아무런 관계가 없다. 예문으로 확인해 보자.

(19) 가. 아이가 그 장난감을 던져 버렸다.

나. 把那个玩具扔掉了。

(20) 가. 경찰이 물대포를 쏴 버렸다.

나. 警察把水炮发射掉了。

(21) 가. 그는 그 문을 차 버렸다.

나. 他把那个门踢掉了。

(19)의 ‘던지다(扔)’, (20)의 ‘쏘다(发射)’, (21)의 ‘차다(踢)’는 순간동사로 종결을 강조하는 ‘-어 버리다’와 ‘掉’와 결합할 시 결합제약이 없다. 순간동사의 [순간성]으로 순간적으로 끝난 동작에 ‘掉’가 추가되어 종결의 의미가 완전해질 뿐만 아니라 양태적 의미도 부가된다. 여기에 완결을 나타내는 ‘了’가 붙어 완결의 완정성이 더욱 공고해진다.

‘내다’와 ‘놓다’는 중국어 결과보어 ‘到’, ‘着’ 등과 어울리나 문맥에 따라 ‘完’이 허용되기도 한다. 이들 역시 종결을 나타내므로 끝점에 도달한 동사와만 결합할 수 있다. 따라서 순간동사와 결합제약이 없다.

(22) 가. 구둣발길로 차내다.

나. 用皮鞋踢到。

(23) 가. 방망이로 복어를 두드려 놓다.

나. 用棒槌捶打着干明太鱼。

(22)의 ‘차다(踢)’와 (23)의 ‘打(때리다)’는 종결을 나타내는 ‘내다/놓다’와 ‘着, 到’가 결합제약이 없다. 그러나 이들의 양태적 의미가 어떤 어려움을 극복하거나 노력을 통해서 결과를 이루는 것과 의도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순간동사와는 의미적으로 호응되는 동사가 거의 없다. 노력과 의도가 포함된 ‘내다/놓다’와 ‘着, 到’의 양태적 의미가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순간성의 동사와는 서로 호응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즉, 상적으로 결합제약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의미적으로 어울리지 않는 것이다. 또한 ‘-아/어 놓-’는 문법화의 초기 단계에 해당하여 어휘적 의미가 아직 상당 부분 살아 있으므로 결합할 수 있는 동사의 범위에도 제약이 있다.

4.2.2.6 ‘-어 있-’과 ‘着’

동작 끝 단계 이후의 지속상은 동작의 결과가 상태로 남아 있는 것으로 ‘-어 있-’과 ‘着’로 표시된다. 최종점에 도착하여 종결된 동사에 ‘-어 있-’이 결합되면 그 결과가 상태로 남아 지속되고 있다는 의미를 얻게 된다. 따라서 순간동사의 [순간성]과 결합제약이 있다.

(24) 가. *문을 두드려 있다.

나. 敲着門。

(24가)의 ‘두드리다’는 ‘-어 있-’과 결합제약이 있다. ‘두드리다’의 순간성과 ‘-어 있-’의 지속성이 충돌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반면에 (24나)는 ‘敲’와 ‘着’의 결합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는 ‘결과 상태 지속’이 아닌 ‘사건의 반복적 지속’을 나타낸다. 이는 순간동사의 시간적 지속이 아니라 짧은 순간적인 사건의 반복이나 일련의 순간적 사건으로 지속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고의 순간동사 (다)류에 속하는 이행동사는 여타의 순간동사와는 다른 결합 양상을 보인다.

(25) 가. 전철이 멈춰 있다.

나. 地铁停着。

(26) 가. 식량이 떨어져 있다.

나. 口粮斷着。

(25가)의 ‘멈추다(停)’와 (26가)의 ‘떨어지다(斷)’는 [순간성]을 가진 순간동사이지만 최종점을 향해 가는 접근성을 가지고 있다. 이 부류는 하나의 동작에서 다른 동작으로 바뀌는 과정이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동사들이다. 예를 들면 ‘멈추다(停)’는 움직였던 동작이 바뀌어 움직이지 않는 상태로 되는 바로 그 순간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상황이 바뀌어 가는 과정은 움직이지 않은 상태로 접근해 가는 과정이다. 이 접근 과정에서 ‘-어 있-’ 및 ‘着’이 결합되면 결과 상태의 지속을 나타낸다.

4.3 달성동사의 상 실현 양상

달성동사는 한국어와 중국어의 어휘목록에 큰 차이가 보인다. 본고는 달성동사의 상 자질을 [동태성, 순간성, 완성성]으로 보고 인식동사류인 ‘알다(知道), 이해하다(了解), 믿다(相信), 인식하다(认为)’ 등의 동사를 달성동사에 포함시켰으나 중국어는 이를 상태동사에 포함시킨다.

4.3.1 완결상 실현 양상

4.3.1.1 ‘-었-’과 ‘了’

달성동사는 [순간성]을 가지고 있어 단일 발생 상황에서는 시작점(I)과 종결점(F)이 동일한 순간에 발생한다. 여기에 초점을 두면 달성동사는 하나의 점과 같아 완정성을 가진 ‘-었-’ 및 ‘了’와 결합하여 완결의 의미가 더욱 공고해진다. 그러나 최종점에 이른 이후에 초점을 두면 달성동사는 동작의 상황이 최종점에 이른 이후에 결과가 남아있는 [완성성]의 자질을 가지고 있어 순간 이후의 ‘완료된 상황’을 표현할 수 있다.

(1) 가. 내 옷에 기름이 묻었다.

나. 在我的衣服上, 油附着了。

(2) 가. 귀중한 물건을 잃었다.

나. 贵重的东西丢了。

(3) 가. 입사 시험에 붙었다.

나. 入学考试合格了。

(1)의 ‘묻다(附着)’, (2)의 ‘잃다(丢)’, (3)의 ‘합격하다(合格)’의 달성동사는 [순간성]과 [완성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 자질은 ‘-었-’ 및

‘了’와 결합하여 그 동작이 완결성을 표현한다. 그러나 인식동사류에 있어서는 결합제약을 보인다. 아래의 예문으로 확인해 보자.

(4) 가. 나는 회의가 월요일인 것으로 이해했다.

나. *据我了解了，会议是在星期一。

(5) 가. 그는 아직도 내가 이 일을 모르는 일이라 짐작했다.

나. *他还打量了我不知道这事儿？

(6) 가. 어렸을 때의 일을 나는 아직도 기억했다.

나. *小时候的事情还能记忆了。

(7) 가. 내가 진상을 알았다.

나. *我知道了事情的真相。

(4)~(7)은 인식동사류 ‘이해하다(解了), 짐작하다(打量), 기억하다(记忆), 알다(知道)’가 ‘-었-’ 및 ‘了’와 결합한 모습이다. 한국어의 인식동사류는 달성동사에 해당하여 이들이 최종점에 도달한 이후 ‘-었’과의 결합은 완결성을 나타내어 결합제약이 없다. [순간성, 완성성]이 ‘-었-’의 완전성과 잘 어울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어는 이를 동사들이 상태동사에 속한다. 상태동사는 구체적인 행위가 없고 시작점이 변화를 시작하는 과정도 볼 수 없다. 이러한 상태동사는 [완성성]을 갖지 못해 완결상의 ‘了’와 결합제약이 있다.

4.3.1.2 ‘-었었-, -은 일/적이 있-’과 ‘-過’

‘-었었-’과 ‘-過’는 동작의 완결을 의미하든 과거 동작의 경험을 의미하든 최종점이 있는 동사와 어울려 그 동작의 과거 한때에 있었음을 의미한다.

(8) 가. 그 후 소식이 끊겼었다.

나. 此后斷過消息。

(9) 가. 여행 중에 여권을 잃었었다.

나. 旅行中丢失护照。

(8)의 ‘끊기다(斷)’과 (9)의 ‘잃다(丟)’는 달성동사로 최종점을 가지고 있다. ‘-었었-’과 ‘-過’은 종결점만 있으면 가능하므로 결합제약이 없다. 그러나 인식동사류는 다른 결합제약을 보인다.

(10) 가. 나는 이 기계의 사용법을 알았었다

나. *我知道过这机器的使用方法。

(11) 가. 이 단어의 용법을 이해했었다.

나. *我理解过这个单词的用法。

(12) 가. 나는 그의 진심을 믿었었다.

나. *我相信过他的真心。

(10)~(12)는 인식동사류 ‘알다(知道), 이해하다(理解), 믿다(相信)’가 ‘-었었-’, ‘-過’와 결합한 모습이다. 한국어의 인식동사류는 달성동사에 해당하여 이들이 최종점에 도달한 이후 ‘-었었-’과의 결합은 한때 과거의 경험을 나타내고 지금은 지속되지 않는 일을 나타내므로 결합제약이 없다. 반면에 중국어는 상태동사에 해당한다. 상태동사는 최종점을 상정할 수 없으므로 ‘-過’와 결합제약이 있다.

4.3.2 동작의 발달 단계에 따른 상 실현 양상

4.3.2.1 ‘-게 되-/–려고 하–’와 ‘將要’

동작 시작 전 단계의 예정상은 ‘就要, 快要, 將要, 即將, 行將’ 등으로 표시된다. 이들이 문장 내에서 각각 어떤 의미 차이를 보이는지 크게 구별하기 어렵다. 단지 한국어로 번역하였을 때는 ‘就要, 快要’와 ‘將要, 即將, 行將’의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 ‘就要, 快要’는 ‘–려고 하–’의 의미로 해석되며 주로 구어체에서 많이 쓰인다. ‘곧, 즉시’ 등의 부사와 어울려 짧은 시간에 발생하려는 상황에 쓰인다.

반면에 ‘將要, 即將, 行將’ 부류는 ‘–게 되–’로 해석되며 문어체적인 표현에 해당한다. 구어체에서 이들이 사용될 때는 말하는 이의 ‘피동’의 양태적 의미가 부가된다. 또한 ‘了’와 잘 호응하지 않는데, 만약 ‘了’를 부가하였다면 이는 화자의 특별한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의도의 목적에는 이전과 다른 ‘상황의 변화’ 의미가 부가된다.

(13) 가. 비밀이 드러나게 된다.

나. 秘密將要透露。

(14) 가. 비밀이 드러나려고 한다.

나. 秘密快要透露了。

(15) 가. 발목을 다치게 된다.

나. 脚踝將要受傷。

(16) 가. 나는 그를 이해하게 되었어.

나. 我將要了解他了。

(17) 가. 올해 이 선생은 과장이 되려고 한다.

나. 今年李先生將要成科長。

(13)과 (14)의 ‘드러나다(透露)’는 [완성성]을 가졌으므로 시작점만 있으면 예정상의 동작 양상을 보일 수 있으므로 결합에 아무런 제약이 없다. 단지 (13)의 ‘將要’는 피동의 의미가 있어 ‘-게 되-’로 해석되고, (14)의 ‘快要’는 임박성이 더 강조된다. (15)의 ‘다치다(受伤)’와 (16)의 ‘이해하다(了解)’도 동일하다. 단지 (16)에 ‘將要’와 함께 쓰인 ‘了’로 인해 상황의 변화가 더욱 강조되었다. (17)의 ‘-되다(成)’도 예정상과 결합제약이 없다.

4.3.2.2 ‘-어 지-’와 ‘起來’

‘-어 지-’와 ‘起來’로 표시되는 기동상은 강한 [동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태성]과 결합제약이 있고 [동태성]을 지닌 모든 동사와 결합한다. 시작점에서 동사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므로 시작점이 있어야 하고 [지속성]도 필요하다. ‘-어 지-’와 ‘起來’는 일정 시간 앞을 향해 계속 나아가기 시작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달성동사는 한 상태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상태성 용언과 다르고, 능동적 변화가 아니라 동사 자체가 지닌 순간적인 변화라는 점에서 행위동사나 완수동사와도 다르다. 또한 달성동사는 예비단계를 가지고 있는 동사도 있고, 예비단계를 가지고 있지 않은 동사도 있다. 이와 ‘-어 지-’ 및 ‘起來’의 결합제약을 살펴보자.

(18) 가. 왕래가 끊어지다.

나. 往來斷絕起來。

(19) 가. 컵 속의 물이 쏟아지다.

나. 杯子里的水倒起來。

(18)의 ‘끊어지다(斷絕)’와 (19)의 ‘쏟아지다(倒)’는 예비단계를 가지지 않는 달성동사로 ‘-어 지-’ 및 ‘起來’와 결합제약이 없다. 기동상은 동작이 시작단계에서 시작되는 것을 표현하므로 시작점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 따라서 이들은 아무런 결합제약이 없다.

그러나 예비단계를 가지는 인식동사류는 한국어와 중국어의 결합제약이 다르다. 아래 예문으로 확인해 보자

(20) 가. 이제 그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나. *现在了解起他的心来。

(21) 가. 그는 이 문제에 대해 상상하기 시작했다.

나. *他对这个问题想象起来。

(22) 가. 그들은 모두 나를 알기 시작했다.

나. *他们都认识起我来。

(20)~(22)는 인식동사류 ‘이해하다(了解), 상상하다(想象), 알다(认识)’가 ‘-어 지-’, ‘起來’와 결합한 모습이다. 이는 한국어에서 달성동사에 해당하며 결합제약이 없지만 중국어에서는 상태동사에 해당한다. 따라서 상태동사의 [상태성]과 기동상의 [동태성]이 충돌하여 결합제약이 있다.

또한 이러한 인식류 동사가 ‘-었-’과 결합 시 기동성이 나타난다. 이때는 결과 상태가 새로이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23) 가. 나는 그 상황을 지금 알았다.

我现在知道了那个情况。

나. 어머니는 요즘에서야 나를 믿었다.

妈妈最近才相信了我。

(23가)의 ‘알았다(知道)’는 ‘앎’이라는 상황의 시작을 나타낸다. (23나)

의 ‘믿었다(相信)’도 믿음의 상태가 이제부터 지속됨을 드러낸다. 이러한 인식류 동사의 경우에는 완결상이 일종의 기동상을 나타낸다.

4.3.2.3 ‘-고 있-’과 ‘正/在/正在’

[동태성]을 가진 동사는 진행을 나타내는 ‘-고 있-’과 결합하여 진행을 나타낸다. 아래의 예문으로 확인해 보자.

(24) 가 *그는 죽고 있다.

나. *他在死。

(25) 가. *그는 허리를 다치고 있다

나. *他在碰伤腰。

(24)~(25)의 ‘죽다(死), 다치다(碰伤)’가 ‘-고 있-’ 및 ‘在’와 결합한 모습이다. 한국어와 중국어의 달성동사는 [순간성]의 자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사의 발달 단계의 전개 폭을 가진 진행상과 결합제약이 있다. ‘在’가 순간성 동사와 결합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에 대해 최규발(2012:51)에서는 “미완성표지로써 ‘在’는 반드시 대상이 되는 상황 내부의 일부 구간만을 가시화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지속성]을 갖지 못한 동사는 ‘在’가 가시화될 수 있는 내부 구간이 존재하지 않기에 서로 공기할 수 없었던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달성동사는 예비과정을 취하는 인식동사 부류가 있고, 예비과정을 가지지 않는 부류가 있다. 전자의 경우이든 후자의 경우이든 모두 결과 단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진행을 나타내는 ‘-고 있-’이 예비단계와 결합하느냐 결과단계와 결합하느냐에 따라 결합 양상이 달라진다.

(26) 가. 그가 가방을 메고 있다.

나. 他在背书包。

(27) 가. 그는 나와 연락을 끊고 있다.

나. 他在断绝联系。

(26)의 ‘메다(背)’는 [순간성]을 가진 달성동사이지만 [완성성]을 가지고 있어 최종점 도달 후 그 상태가 남아 있다. (27)의 ‘끊다(斷絕)’도 동일한 구조이다. ‘–고 있–’이 달성동사의 결과단계와 결합하여 가시화된다면 종결된 후의 결과 지속의 의미가 나타난다. 이에 (26)은 ‘그가 계속해서 가방을 메고 있는 상태’를 나타내며, (27)은 ‘그가 계속해서 나와 연락을 끊은 상태’에 있음을 나타낸다. 그렇다면 예비단계를 가지고 있는 달성동사 부류에 대하여 알아보자. 최규발(2012:59)의 제안을 따라 부사를 첨가하여 예비과정을 전제한 후 ‘–고 있–’과의 결합 여부를 살펴보자.¹⁰²⁾

(28) 가. 그는 천천히 물을 쏟고 있다.

나. 他慢慢在倒水。

(29) 가. 그는 점차 나를 이해하고 있다.

나. *他慢慢地在了解我。

(28)은 [순간성]을 지닌 달성동사 ‘쏟다(倒)’에 부사 ‘천천히(慢慢地)’가 부가되어 ‘쏟다(倒)’의 예비과정을 가시화시켜 ‘–고 있–’과 결합한다. (29)는 ‘이해하다(了解)’에 부사 ‘천천히(慢慢地)’가 부가되어 이 역시 예비과정을 가시화시킨다. 한 순간에 일어나는 사태가 순간적인 상황에서 부사와 ‘–고 있–’의 작용으로 예비단계가 가시화된다. 따라서 (28)은 큰 그릇에 담긴 물을 다른 통에 천천히 쏟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29)는 나를 점차로 이해해 가는 과정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102) 최규발(2012:58)에서는 예비단계의 포함 여부는 알기 어려우므로 ‘순식간에’와 ‘갑자기’ 등의 부사와 달성동사가 결합되면 예비 단계 여부를 보장 받을 수 없지만, ‘천천히’나 ‘점차적’으로 등과 같은 부사와 결합되면 달성동사의 예비과정을 수식하게 된다고 하였다.

4.3.2.4 ‘-어 가/오-’와 ‘下去’

동작이 최종점을 향해 가는 ‘-어 가-’와 ‘下去’는 [동태성, 지속성]의 자질을 필요로 한다. 달성동사의 [순간성, 비완성성]과 어떤 결합제약을 보이는지 아래의 예문으로 살펴보자.

(30) 가. 강아지가 죽어 가다.

나. 小狗死下去。

(31) 가. 비가 그쳐가다.

나. 雨停下去。

(30)의 ‘죽다(死)’는 ‘-어 가다(下去)’와 결합하여 최종점을 향해 가는 과정을 나타낸다. (31)의 ‘그치다(停)’도 동일하다. 주어의 상태가 악화되거나 호전되는 점진적인 변화 과정을 구현하므로 단순한 진행이 아닌 변화의 진행을 나타낸다. ‘-어 오-’는 상황이나 원래대로 변화되어 오는 변화의 진행을 나타낸다. ‘-어 가-’는 화자가 멀어져 가는 것을 의미하고, ‘-어 오-’는 화자에 가까워짐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소멸의 의미를 가지는 것은 화자와 멀어져 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 오-’와 결합제약이 있다.

(32) 가. *강아지가 죽어 오다.

나. *小狗死下來。

4.3.2.5 ‘-어 버리-, -어 놓/두-’와 ‘掉/着/完’

동작 끝단계의 종결상은 ‘-어 버리-,-어 내/놓-’와 ‘掉, 着, 完’가 최종점에 도착한 동사와 결합하여 종결의 의미가 강조되고 양태적 의미가 부가된 것이다. 따라서 최종점을 가지고 있는 달성동사와 결합제약이 없다. ‘-어 버리-’가 달성동사와 결합한 구문을 확인해 보자.

(33) 가. 강아지가 죽어 버리다.

나. 小狗死掉。

(34) 가. 나는 그 비밀을 알아버렸다.

나. 我知道掉那个秘密。

(35) 가. 이른 새벽에 잠을 깨버렸다.

나. 凌晨睡掉醒。

(33)~(35)의 ‘죽다(死), 알다(知道), 깨다(睡)’는 종결을 나타내는 ‘-어 버리-’, ‘掉’와 결합하여 결합제약이 없다. 달성동사는 과정성이 약하기 때문에 ‘-어 버리-’와 공기하면 주어의 행위 완료를 더 강화시킨다. ‘강아지가 죽다’와 ‘강아지가 죽어 버리다’는 모두 ‘죽음’의 종결점이 실현된 것인데 ‘-어 버리-’가 사용되면 행위 종결을 더 강조하게 된다.

다음은 ‘-어 놓/두-’ 및 ‘到, 着, 完’가 달성동사와 결합한 구분을 살펴보자.

(36) 가. 나뭇가지를 꺾어 놓아라.

나. 树枝受挫着。

(37) 가. 대야의 물을 쏟아 두어라.

나. 把脸盆里的水倒到。

(38) 가. 그의 이름은 기억해 둬.

나. 你把他的名字记忆着。

(39) 가. 30분 후 전화할 테니, 잠을 깨 놓아라.

나. 我三十分以后给你打电话你睡醒着吧。

(36)~(39)의 달성동사 ‘꺾다(受挫), 쓸다(倒), 기억하다(记忆), 깨다(睡醒)’는 종결을 나타내는 ‘놓다/두다’, ‘到, 着, 完’과 결합제약이 없다. 달성동사는 완성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동작이 끝난 후 완료된 모습이 결과로 남아 있는 ‘着, 到, 着’과 자연스럽게 공기한다. 그러나 결과의 의미가 한국어 문장에서는 부각되지 않는다.

4.3.2.6 ‘-어 있-’과 ‘着’

달성동사는 한국어와 중국어에서 각각 ‘-어 있-’와 ‘着’의 결합이 가장 자연스러운 동사의 부류이다.

(40) 가. 나무가 넘어져 있다.

나. 树倒着。

(41) 가. 먼지가 묻어 있다.

나. 灰尘沾着。

(40)~(41)의 ‘넘어지다(倒)’와 ‘묻다(沾)’는 [완성성]이 ‘-어 있-’와 ‘着’의 동작의 종결 후 지속과 자연스럽게 어울려 결합제약이 없다.

(42) 가. 버스가 도착해 있다.

나. *公共汽车到着。

(43) 가. 비가 그쳐 있다.

나. *雨停着。

(44) 가. 물고기가 죽어 있다.

나. *鱼死着。

예문 (42가)의 ‘도착하다’, (43가)의 ‘그치다’, (44가)의 ‘죽다’의 달성동사는 ‘-어 있-’와 결합되어 ‘도착한 상태’, ‘그친 상태’, ‘죽은 상태’를 의미한다. 이때 ‘-어 있-’는 이러한 동작의 종결과 그 결과 상태가 지속됨을 나타낸다. 하지만 예문 (42나)의 ‘到’, (43나)의 ‘停’, (44나)의 ‘死’는 달성동사가 지속의 ‘着₂’와 결합하면 결합제약이 있다. ‘도착하다(到), 그치다(停), 죽다(死)’는 결과가 순간적으로 이루어지고 결과 상태가 안정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예문 (42)~(44)에서 결과 상태 지속을 강조하는 ‘着₂’를 사용하기보다 동작의 종결을 강조하는 ‘了(−었−)’을 사용해야 한다. ‘正在’, ‘着₂’가 동사와 결합될 때 나타나는 결합제약을 살펴보자.

(45) 가. 그는 지금 막 죽어가고 있다.

나. *他正在死着。

(46) 가. 그는 죽어서 돌아왔다.

나. 他死着回来。

(45)와 (46)의 ‘죽다(死)’는 [동태성]과 [순간성]을 가진 동사로 ‘동작의 진행’을 표시할 수 없다. (45가)는 한국어 번역으로만 보면 가능한 구문 같지만 현대 중국어에서는 비문이다. 그리고 ‘死’에 ‘着’이 붙을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46나)에서는 ‘死’와 ‘着’가 공기하고 있다. 이것은 ‘死’가 동태의 지속을 만들지 못하지만 정태의 지속은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죽음이라는 동작의 진행은 ‘正在死, 正在死着’가 아닌 ‘正在死去’로 표현하는데 이것은 ‘死’에 ‘去’를 더하여 동작이 옮겨가는 것(추향)을 나타내기 때문에 진행이 가능하다.

달성동사에 종결 후 동작의 결과 상태 지속인 ‘-고 있-’의 결합제약을 살펴보자. 이 역시 심리적 상태를 보여준다. 반면에 (48가)의 ‘相信’와 ‘在’는 결합 제약을 받는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인식동사류는 중국어에서 상태동사에 속하므로 ‘在’와 결합하지 않는다. 반면에 한국어는 표현이 가능하므로 중국어에서 비문이 되는 표현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문제가 제

기된다. 아래 문장을 중국어로 표현해 보자.

(47) 가. 나는 너의 말을 믿는다.

나. 나는 너의 말을 믿고 있다.

(47가)는 현재의 상태를 나타내고, (47나)는 상태를 나타낸다. 분명히 의미가 다른 이 두 문장을 중국어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다.

(48) 가. *我在相信你的话。

나. 我相信你的话。

(47가)와 (47나)의 문장을 중국어로 표현한 문장은 (48나) 하나일 수 밖에 없다. 중국어의 달성동사류에 속하는 인식동사는 진행의 ‘在’와 결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설명할 수 있는 근거는 서정수(1996)에서 찾을 수 있다. 서정수(1996:293)는 “상태동사가 ‘-고 있-’과 결합되면 고정된 상태 즉 상태의 지속을 나타낼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인식동사류를 상태동사로 보았기 때문에 인식동사류도 여타의 다른 상태동사들처럼 ‘-고 있-’과 결합이 불가능해야 한다. 그러나 “인식동사류가 ‘-고 있-’과 결합할 수 있으며 이때의 ‘-고 있-’은 진행상이 아닌 상태를 나타낸다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

(49) 가. 나는 너의 말을 믿고 있다.

나. *我相信着你的话。

(50) 가. 나는 그 일을 알고 있다.

나. *我知道着这件事。

(49)~(50)의 ‘믿다(相信)’와 ‘알다(知道)’는 ‘-어 있-’, ‘着’과 결합할 수 없다. 왜냐하면 중국어에서 심리동사는 동작성이 약하기 때문에 동작

종결 후의 결과 상태 지속이라기보다는 상태성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50나)에서 알아가는 상태로 변화하는 것을 나타내려면 어기조사 ‘了’를 써야 하고 ‘아는 상태’만 표현하려면 동사 ‘知道’만 써야 한다.



4.4 행위동사의 상 실현 양상

행위동사의 분류에 있어서 이견이 있는 동사는 ‘먹다’, ‘앉다’ 등이 있다. ‘먹다’ 동사는 먹는 행위가 진행됨에 따라 밥의 양이 줄어들고 배가 불러오는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균질성의 조건에 맞지 않는다고 하여 ‘먹다’ 동사를 완수동사로 분류하였다. 그러나 본고는 균질성의 조건은 동작의 완결 후 결과에 대한 의미가 아니고 각 단계의 동작이 동질하다는 의미이므로 ‘먹다’ 동사는 행위동사로 분류한다. ‘앉다’ 동사는 대부분의 한국어에서 행위동사에 포함시키나 중국어는 ‘앉다’처럼 자세를 나타내는 동사는 胡裕樹(1995)나 龔千炎(1995)에서처럼 상태동사로 분류하기도 한다.

본고는 ‘앉다’도 행위동사로 분류하였다. 행위동사의 가장 큰 특징은 [비완성성]에 있다. [비완성성]은 고유의 내재적 최종점이 없어서 시작점 이후의 어떤 상황에서도 임의로 중단할 수 있다. 자연적으로 가지고 있는 최종점이 아닌 임의적으로 중지된 결속점이므로 이로 인한 가장 큰 논점은 완료 후 상태의 지속과 동작의 진행을 구별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대부분 행위동사의 자질로 ‘[동태성], [지속성], [비완성성]’을 제시하는데, 이는 한국어와 중국어에서 모두 동일하다.

4.4.1 완결상 실현 양상

4.4.1.1 ‘-었’과 ‘了’

행위동사는 [지속성]과 [비완성성]을 가지고 있어 자연적 최종점이 없다. 행위동사가 지시하는 상황은 시작한 후의 어느 시점에서든 임의적으로 종결시키면 하나의 완결된 동작이 될 수 있다.

- (1) 가. 그가 입구에서 한참 기다렸다.
나. 他在门口等了半天。

(2) 가. 어제 공원에서 산책했다.

나. 昨天在公园散了步。

(3) 가. 밥 먹었니?

나. 你吃饭了吗?

(1)~(3)의 행위동사 ‘기다리다(等)’, ‘산책하다(散步)’, ‘먹다(吃)’는 완결상 ‘-었-’, ‘了’와 결합제약이 없다. 행위동사는 한동안 지속해야 하는 동작으로 하나의 과정이다. 이러한 [동태성], [지속성]을 가진 동사가 ‘了’과 결합하게 되는 순간 그 동작 과정은 바로 종료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완결성은 동태성의 완전한 종결을 의미하며, 완료 이후에 파악되는 지속의 의미는 없다. 즉 동작동사가 ‘了’와 결합함으로써 표현하는 것은 동작 전체 과정이 동태성을 나타낸다.

예를 들면 ‘먹다(吃)’는 ‘젓가락을 드는 동장–음식을 집는 동작–음식을 입에 넣는 동작–음식을 씹는 동작–음식을 넘기는 동작’이 하나의 동작으로 이어진다. 음식을 한 번 숟가락으로 먹었든 두 번 먹었든 이 동작은 행위자가 중지하지 않는 한 계속되므로 한번이라도 그 동작이 일어났으면 이 ‘먹다(吃)’라는 동작을 완성한 것이다.

4.4.1.2 ‘-었었-, -은 일/적이 있-’과 ‘-過’

(4) 가. 나는 상해에 갔었었다.

나. 我去过上海。

(5) 가. 나는 예전에 그림을 그렸었다.

나. 我以前画过画儿。

(6) 가. 나는 공원에서 산책했었다.

나. 我在公园散过步。

(4)~(6)의 행위동사 ‘가다(去), 그리다(画), 산책하다(散)’는 ‘-었었-’ 및 ‘-過’과 결합하여 완결된 동작이 과거 한동안 발생했음을 의미한다.

4.4.2 동작의 발달 단계에 따른 상 실현 양상

4.4.2.1 ‘-게 되-/ -려고 하-’와 ‘將要’

예정상은 동작이 시작점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이다. 따라서 행위동사의 특성인 [비완성성]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 예정상이 시작점을 향해 가는 추향성의 움직임이므로 행위동사의 비완성성은 무관하기 때문이다.

(7) 가. 양양이 웃게 된다.

나. 样样将要笑了。

(8) 가. 철수가 영화를 보게 된다.

나. 样样将要看电影了。

(9) 가. 철수가 밥을 먹게 된다.

나. 将要吃饭了。

(10) 가. 태민이는 피아노를 치려고 한다.

나. 样样将要弹钢琴了。

(7)~(10)의 행위동사 ‘웃다(笑), 보다(看), 먹다(吃), 치다(弹)’는 동작의 예정을 나타내는 ‘-게 되다, -려고 하다’와 ‘(就)要, (快)要, 將(要), 即將, 行將’과 결합제약이 없다. 행위동사는 동태성과 지속성이 있어 어떤 상황이나 사태가 출현하거나 발생하려는 예정상과 잘 어울린다.

4.4.2.2 ‘-어 지-’와 ‘起來’

행위동사는 동작의 시작을 나타내는 기동상과 자유롭게 결합한다. 기동상은 시작점과 동태성만 있으면 결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11) 가. 모두 기쁘게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나. 大家高高兴兴地唱起歌儿来。

(12) 가. 나는 그와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나. 我跟他喝起酒来。

(13) 가. 양양은 작년부터 중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다.

나. 样样从去年学起汉语来了。

(11)~(13)의 행위동사 ‘부르다(唱), 마시다(喝), 배우다(学)’는 기동을 나타내는 ‘-어 지-’, ‘起來’와 결합제약이 없다. ‘起來’가 목적어를 동반하거나 동사가 이합동사일 경우 기동상 표지 ‘起來’는 ‘동사+起+목적어+來’와 같은 형식으로 사용해야 한다.

4.4.2.3 ‘-고 있-’과 ‘正/在/正在’

행위동사는 [동태성, 비완성성, 지속성]을 가진 동사이다. 동작 빨달 단계에서 진행은 중간단계에서의 동태 상황의 내적 단계만 가시화하므로 [비완성성]인 점은 진행상의 의미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 행위동사의 [지속성] 자질은 또한 진행의 의미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진행상의 ‘-고 있-’, 正/正在/在’와 잘 어울린다. ‘在’가 내적 단계를 가시화하는 ‘진행’의 의미를 아래 예문으로 확인해 보자.

(14) 가. 그가 음악을 듣고 있다.

나. 他在听音乐。

(15) 가. 양양이 낮잠을 자고 있다.

나. 样样在睡午觉

(김은수 2006:73 예문 변형)

(16) 가. 두 사람은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있다

나. 那两个人互相在交换情报

(김은수 2006:73 예문 변형)

(14)의 ‘음악을 듣다(听音乐)’, (15)의 ‘낮잠을 자다(睡午觉)’, (16)의 ‘정보를 교환하다(交换情报)’는 ‘-고 있-’과 결합하여 행위 동사의 내적단계를 가시화한다. 따라서 이들은 모두 동작이 진행되는 과정 중에 있다. ‘在’와 결합한 내부구조를 살펴보면 현재 동작이나 상황이 진행 중임을 보장할 수는 없다. ‘在’가 비교적 긴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구와 함께 쓰이면 이러한 동작이 동질적으로 내부 단계를 이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在’의 의미 중심은 실제 발생한 상황의 진행보다는 과정의 진행에 있다고 보는 것이 더 적합하다. 실제 발생한 상황의 동질적인 내부 단계를 적시하여 명확한 진행임을 나타내고자 할 때는 ‘正’과 ‘正在’의 부사를 첨가해야 한다. 또한 진행은 현재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현재를 나타내는 시간명사나 시간부사와 함께 자주 쓰인다. 아래의 예문으로 확인해 보자.

(17) 가. 다들 지금 일하고 있는 중입니다. 들어가지 마세요!

나. 大家这会儿都在工作呢，別进去吧！

(18) 가. 마침 그가 나에게 오는 중이야.

나. 正好他向我正来呢。

(19) 가. 지금 한창 술 먹고 있는 중이야. 너도 올래?

나. 现在我们正喝酒呢。你也来吗？

(17)의 ‘일하다(工作)’는 현재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 ‘지금(这会儿)’이 진행을 나타내는 ‘在’와 함께 쓰여 더욱 생생한 현재의 진행을 보여준다. 이때 한국어 표현으로는 동일한 보조동사 ‘-고 있-’보다 더욱 생생한 진행의 의미를 부여하는 ‘-하는 중이다’와 더 가깝다. (18)의 ‘오다(來)’는 현재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 ‘正好’가 진행을 나타내는 ‘正’과 함께 쓰여 더욱 생생한 진행을 보여준다. (19)의 ‘마시다(喝)’는 현재 시간을 나타내는 시간명사 ‘지금(现在)’과 함께 쓰여 진행상을 강조한다.

이처럼 현재를 나타내는 시간 부사나 시간 명사와 함께 진행의 의미가 더욱 생생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는 모습을 표현할 때 중국어는 진행을 나타내는 ‘正/正在/在’와 지속을 나타내는 ‘着’이 함께 나타난다. 그러나 한국어는 현재 일점의 한 순간과 현재가 충돌하여 결합제약이 있다.

(20) 가. 그녀는 음악을 듣고 있다.

나. 她听着音乐。

(21) 가. 그녀는 음악을 듣고 있는 중이다.

나. 她在听着音乐。

(22) 가. *음악을 듣고 있는데.

나. 她正听着音乐。

(20나)의 ‘듣다(听)’는 동작의 지속을 나타내는 ‘着’과 함께 쓰여 듣는 동작의 지속을 나타낸다. 이때 (20가)의 ‘-고 있-’은 지속인지 진행인지 중의적이라 구별하기 어렵다. (21나)의 ‘听’는 동작의 진행을 나타내는 ‘在’와 지속을 나타내는 ‘着’가 함께 쓰여 현재 진행 중인 동작의 지속을

보여준다.

반면에 한국어는 [비완성성]을 가진 동사의 지속은 ‘-고 있다’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20가)의 ‘-고 있다’과 (21가)의 ‘-고 있다’이 구별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구별하기 위한 방편으로 ‘-고 있는 중이다’를 사용하여 ‘-고 있다’은 지속을, ‘-는 중이다’는 진행을 나타낸다. 즉, (22가)의 ‘-고 있다’에 ‘-는 중이다’의 의미가 첨가되고, (22나)의 ‘正’은 지속단계인 ‘V_n’과 ‘V_{n-1}’ 사이의 진행 중에 있는 특정한 일점을 나타낸다. 그러나 한국어는 현재를 나타내는 ‘-는’과 일점의 현재 순간의 모습을 나타내는 ‘正’이 충돌하여 비문이 된다.

행위동사 중 재귀동사에 해당하는 ‘입다, 쓰다, 안다’ 등은 ‘-고 있다’과의 결합에 있어서 진행과 지속의 중의성을 갖는다. 예문으로 확인해 보자.

(23) 가. 태민이가 산뜻한 옷을 입고 있다.

나. 太民穿着鮮亮的衣服。

(24) 가. 아이가 모자를 쓰고 있다.

나. 孩子戴着帽子。

(25) 가. 어머니가 아이를 안고 있다.

나. 妈妈抱着孩子。

(23)~(25)의 ‘옷을 입다(穿衣服)’, ‘모자를 쓰다(戴帽子)’, ‘아기를 안다(抱孩子)’는 ‘-고 있다’와 결합할 때 중의성을 갖는다. ‘-고 있다’의 중의성이란 ‘옷을 입는 행위’, ‘모자를 쓰는 행위’, ‘아기를 안는 행위’가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진행’의 상적 의미로 해석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옷을 입은 상태’, ‘모자를 쓴 상태’, ‘아기를 안은 상태’라는 결과상태의 의미로 해석되는 경우이다. 결과 상태는 행위가 완료된 후의 상태에 주목하는 것을 말하는데 주어의 결과상태를 나타낼 수도 있고, 목적어의 결과 상태를 나타낼 수도 있다.

예문(23)~(25)에서와 같이 재귀동사 구문의 경우는 주어의 행위결과가 주어에 영향을 미친 것이므로 ‘주어 결과 상태’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한동완(1999)에서는 ‘-고 있-’ 구성과 결합하여 중의성을 나타내는 동사들은 동작의 주체가 행한 행동이 동작의 대상에 변화를 가한 다음에 그 동작 변화가 다시 동작 주체에도 미치는 재귀적 상황을 나타낼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고 논의하였다.

4.4.2.4 ‘-어 가/오-’와 ‘下去’

행위동사는 종결점을 향해 나아가는 향진상의 ‘-어 가-’, ‘下去’와 결합 제약이 없다. 행위동사의 [동태성, 지속성]은 향진상의 방향성을 가지고 진행이 계속되는 향진상과 충돌이 없기 때문이다.

(26) 가. 독거 노인은 농촌에서 살아간다.

나. 孤寡老人在农村活下去。

(27) 가. 독거 노인은 힘들게 생활해 간다.

나. 孤寡老人艰难地生活下去。

(26)~(27)의 ‘살다(活), 生活(생활하다)’는 향진상의 ‘-어 가-’, ‘下去’와 결합제약이 없다. ‘-어 가-(下去)’가 결합하여 ‘살아가다’, ‘생활해 가다’가 되면 화자가 바라보는 어떤 시점으로부터 ‘서울에서 사-’는 행위와 ‘힘들게 생활하-’는 행위가 장기적인 시간을 거쳐 미래로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행위동사 구문에서는 (26)~(27)처럼 시간적 이행이 존재하기 때문에 ‘진행’의 의미를 나타낸다.

(28) 가. 어릴 적부터 중국에서 생활해 왔다.

나. 从小儿就在中国地生活下来。

(29) 가. 3년 전부터 그는 환경에 대한 글을 써 왔다.

나. 从三年前他对环境的论文写下来。

(28)~(29)는 ‘생활하다(生活)’와 ‘쓰다(写)’가 ‘-어 오-’, ‘下來’와 결합한 구문이다. ‘중국에서 생활하-’는 행위와 ‘쓰-’는 행위는 과거 어느 한 시점으로부터 화자가 바라보는 시점까지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4.4.2.5 ‘-어 버리-, 어 놓/두-’와 ‘掉/着/完’

행위동사는 [비완성성]이므로 종결의 의미를 강조하는 ‘버리다/놓다/두다’ 및 ‘掉, 着, 到’와 결합제약이 있다.

(30) 가. *강물이 흘러 버리다.

나. *江水奔流掉。

(31) 가. *태민이가 걸어 버리다.

나. *太民走掉。

(30)~(31)에서 ‘흐르다(奔流)’, ‘걷다(走)’는 [비완성성]이기 때문에 행위의 종결을 나타내는 ‘-어 버리-’와 결합하면 한국어와 중국어 모두 결합제약이 있다. 행위동사 구문이 최종점을 가지고 [완성성]을 갖추어 행위의 종결을 나타내려면 한계점을 표시하는 부加어가 있어야 한다.

(32) 가. 둑이 터져 강물이 하류 마을까지 흘러 버렸다.

나. 昨天晚上大坝破裂就江水到下游各村奔流掉。

(33) 가. 태민이가 5km를 걸어 버리다.

나. 太民走掉五公里的路。

(32)의 ‘흐르다(奔流)’는 [비완성성]이라 종결을 나타내는 ‘掉’과 결합제약이 있으나 ‘하류 마을까지(到下游各村)’라는 종결지표가 주어져 [완성성]을 갖게 되므로 결합제약이 해소된다. (33)의 ‘걷다(走)’는 [비완성성]이라 ‘掉’과 결합제약이 있으나 ‘5km’라는 종결지표가 부가되어 결합제약이 해소된다. 그러나 [비완성성]으로 종결의 의미를 강조하는 ‘버리다/놓다/두다’ 및 ‘掉, 着, 到’와 결합제약을 갖는 구문이 정문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예문으로 확인해 보자.

(34) 가. 내 동생은 케익을 다 먹어 버렸다.

나. 我弟弟把蛋糕吃{掉, 光}了。

(35) 가. 그 친구들은 모두 가 버렸다.

나. 朋友们都走掉{掉, 光}了。

(34)~(35)의 ‘먹다(吃), 가다(走)’는 행위동사로 [비완성성]을 갖지만 ‘-어 버리-’, ‘掉/光’과 결합제약이 없는 것은 ‘-어 버리-’, ‘掉/光’가 양태 의미에 초점을 두기 때문이다. 종결상을 나타내는 이들은 ‘종료’의 상적 의미와 더불어 화자의 심리를 나타내는 양태 의미도 부차적으로 갖는다. 종결의 의미를 나타내는 한국어 보조동사와 중국어 결과보어 구조가 어떠한 결합양상을 보이는지 아래 예문으로 확인해 보자.

(36) 가. 나는 집을 팔아 버리다.

나. 我卖{掉, *着}房子。

(37) 가. 그 편지를 태워 버렸다.

나. 把那封信烧{掉, *着}了。

(38) 가. 충치는 빼어 버리세요.

나. 请拔{掉, *着}龋齿!

(39) 가. 그 일을 다 해 냈다.

나. 做{光, 完}了那件事。

위의 예문을 살펴보면 한국어에서 보조동사 ‘버리다’의 의미는 중국어에서 대부분 동사 뒤의 결과 보어 ‘掉, 光, 完’ 등으로 표현된다. (36)의 ‘팔다(卖)', (37)의 ‘태우다(烧)', (38)의 ‘뽑다(拨)', (39)의 ‘하다(做)'는 행위동사로 양태적 의미가 중점적으로 부가되어 사용되었다. ‘-버리다’에 대응되는 중국어로 ‘掉, 光, 完’가 사용되는데 이들의 쓰임은 동사와 목적어의 관계에 따라 서로 결합하는 보어가 달라진다. (36나)의 ‘집을 팔다(卖房子)', (37나)의 ‘편지를 태우다(烧信)', (38나)의 ‘충치를 빼다(拔龋齿)'가 종결의 결과보어 ‘掉’와 결합하고, ‘着’와는 결합제약을 보이는 이유는 이들 동사와 목적어의 관계가 부착의 의미인 ’着‘와 서로 의미충돌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동사와 목적어의 관계가 ‘부담되는 것의 제거’라는 의미와 연결되기 위해서는 ‘掉’와의 결합이 의미 전달을 정확하게 해준다. (36)의 ‘그 일을 하다(做那件事)’는 이러한 의미충돌이 없기 때문에 ‘光, 完’과 모두 자연스럽게 어울린다.

그렇다면 동사가 취하는 목적어가 어떤 성질인 경우에 ‘着’와 결합하는지 예문으로 확인해 보자.

(40) 가. 그는 각서를 받아두었다.

나. 他把照会收着。

(41) 가. 나는 간식을 사 두었다.

나. 我买着点心了。

(40)~(41)의 ‘각서를 받다(收照会)', ‘간식을 사다(买点心)’는 동작의 결과로 말미암아 주어와 목적어가 서로 부착되는 특징을 갖는다. 반면에 (36)~(39)는 동작의 결과로 말미암아 주어와 목적어가 상호 분리되는 특징을 갖는다. 이는 결과보어 ‘着’은 동작의 결과로 목적어가 주어에 존재

하게 하는 동작동사와 결합하고, ‘掉’는 동작의 결과로 말미암아 주어와 목적어가 상호 분리되는 행위동사와 결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밝혀준다.

4.4.2.6 ‘-어 있-’과 ‘着’

행위동사는 지속상을 나타내는 ‘-어 있-’, ‘着’와 결합제약이 없다. 이는 [지속성]과 관련된 것으로 행위동사구의 과정이 임의적인 종결점으로 끝날 때까지 균질성을 가지고 지속되기 때문이다.

(42) 가. 그녀가 음악을 듣고 있다.

나. 她听着音乐。

(43) 가. 아이가 엄마를 기다리고 있다.

나. 孩子等着妈妈。

(44) 가. 그가 약을 먹고 있다.

나. 他吃着药。

(42)~(44)의 예문에서 ‘듣다(听), 기다리다(等), 먹다(吃)’는 ‘-고 있’, ‘着’의 사용으로 임의적 종결점으로 가는 각각의 단계에서 균질성(均質性)을 갖는다. 다시 말해 과정이 지속되는 전체 시구간 T에서 이를 구성하는 각각의 단계를 $T_1, T_2, T_3, \dots, T_{n-1}, \dots, T_n$ 이라 할 때, ‘听₁,, 听₂, 听₃…听_{n-1},…听_n’은 동일하다. 이러한 균질성 조건(homogeneous condition)은 행위동사를 다른 동사구와 구별할 수 있는 특징이 된다(Dowty 1977: 56 장호득 재인용).

다음으로 행위동사 중 자동사와 결합하는 ‘-어 있-’, ‘着’의 결합제약을 예문으로 살펴보자.

(45) 가. 소왕은 앉아 있다.

나. 小王坐着。

(46) 가. 나는 서 있다.

나. 我站着。

(45)~(46)에서 볼 수 있듯이 ‘넘어지다, 앉다, 서다’와 같은 자세를 나타내는 행위동사가 ‘-어 있-’, ‘着’와 결합해서 동작이 순간에 끝난 후 결과 상태가 지속됨을 나타낸다.

지속을 타나내는 ‘-아 있-’ 구문의 자동사 제약에 대한 한동완(2000)에서는 ‘결과상태성’ 동사의 정의로 동사의 수행이 완료되어 어떤 결과를 낳으면 그 상황이 끝난 후 아무런 근거 없이 그 상황 이전으로 환원될 수 없는 유형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결과상태성’의 상적 성격을 동시에 가지는 ‘-어 있-’이 통합되면 그 결과가 상태로 남아 지속되고 있다는 의미를 얻게 된다고 보았다. 이에 결과 상태를 나타내는 ‘-아 있-’은 결과를 낳을 수 없는 동사와 양립 불가능한 것이 당연한 귀결이라고 보고 있다(구종남 2013:62).

(47) 가. 그가 의자에 앉아 있다.

나. 他在椅子上坐着。

(48) 가. 아기가 잠들어 있다.

나. 小孩儿入眠着。

(49) 가. 벽에 그림이 걸려 있다.

나. 墙上挂着画。

(47)~(49)의 ‘앉다(坐), 잠들다(眠), 걸다(挂)’는 ‘-어 있-’, ‘着’과 결합제약이 없다.

(50) 가. *그는 웃어 있다.

나. 他笑着。

(51) 가. *강물이 흘러 있다.

나. 江水流着。

(50)~(51)에서 자동사인 ‘웃다(笑)’와 ‘흐르다(流)’는 ‘-어 있-’과 결합하면 모두 비문이 된다. ‘-어 있-’은 자동사와만 결합하는 통사적 제약을 갖고 있지만 모든 자동사와 결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의미적으로 볼 때 ‘결과 상태 지속’을 나타내는 ‘-어 있-’은 [-종결성]을 가지는 행위동사와 결합하지 못한다. 그러나 중국어의 ‘着’은 행위동사와의 결합은 가능하나 ‘결과상태 지속’을 나타내지 않으며 ‘존재 상태 지속’을 나타낸다.

(52) 가. *그는 밥을 먹어 있다.

나. ?他吃着饭。

(53) 가. *그는 집을 짓어 있다.

나. ?他建着房子。

(54) 가. *?아이들은 눈사람을 만들어 있다.

나. ?孩子们做着雪人。

(52)~(54)의 ‘먹다(吃), 짓다(建), 만들다(做)’와 같은 행위동사는 동작이 임의적으로 종결된 후 그 동작으로 인한 결과가 어떤 상태로 지속되는지 의미를 나타내지 않는다. 따라서 한국어에서는 ‘-어 있-’이 행위동사와 결합하기 어렵다.

4.5 완수동사의 상 실현 양상

완수동사는 [동태성, 지속성, 완성성]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한국어와 중국어가 비슷한 목록을 보인다. 이 세 가지 자질은 모두 동사가 동작이 이루어지는 최상의 조건이기 때문에 동작발달 단계상 거의 대부분과 잘 어울려 결합제약이 없다.

4.5.1 완결상 실현 양상

4.5.1.1 ‘-었’과 ‘了’

완수동사는 [지속성]과 [완성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상황의 시작점과 최종점이 갖추어져 있다. 이러한 완수동사는 ‘-었-’, ‘了’가 결합할 때 동작이 완결됨을 의미하며 한국어와 중국어 모두 특별한 결합제약이 없다.

(1) 가. 그들이 집을 짓다.

나. 他们造了一所房子。

(2) 가. 의자를 고치다.

나. 他修理了一把椅子。

(3) 가. 소설책 한 권을 읽다.

나. 他念了一本小說。

(1)~(3)의 ‘짓다(造), 고치다(修理), 읽다(念)’는 완결을 나타내는 ‘了’를 제외하면 ‘그들이 집을 짓다’라는 상황을 나타낸다. 시작점은 집을 짓기 시작하는 점이며 최종점은 집짓기가 끝나는 점이다. 집을 짓는 중간 과정이 지속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완수동사는 동사가 자연적인 종결점을

가지고 있어 ‘了’와 결합하여 완결성을 나타낸다.

4.5.1.2 ‘-었었-, -은 일/적이 있-’과 ‘-過’

변화동사는 지속성이 있는 것으로 ‘-고 있-’이 진행상 및 결과 상태상인 ‘-어 있-’과의 결합이 가능하다. 변화동사는 완성동사와 유사하나 완성동사가 유정물이 주체라면 변화동사는 무정물이 주체가 된다. 이런 변화동사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4) 가. *이 사과는 익었었다.

나. *这个苹果熟过了。

(5) 가. *이 책이 낡았었다.

나. *这本书旧过了。

(4)~(5)의 ‘익다(熟), 낡다(旧)’는 ‘-었었-’과 ‘過’와 결합제약이 있다.

4.5.2 동작의 발달 단계에 따른 상 실현 양상

4.5.2.1 ‘-게 되-/ -려고 하-’와 ‘將要’

동작 전 단계 예정상은 ‘-게 되다, -려고 하다’와 ‘(就)要, (快)要, 將要, 即將, 行將’ 등의 표지로 나타난다. 완수동사의 [지속성], [완성성]은 예정상의 상적 자질과 충돌하지 않아 결합제약이 없다.

(6) 가. 태민이 노래 한 곡을 부르게 되었다.

나. 太民将要唱一首歌儿了。

(7) 가. 꽃이 피려고 한다.

나. 花快要开了。

(8) 가. 꽃이 피게 되었다.

나. 花将要开了。

(9) 가. 그는 학교에 가게 되었다.

나. 他将要去学校。

(10) 가. 그는 학교에 가려고 한다.

나. 他快要去学校。

(6)~(10)의 ‘노래한 곡을 부르다(唱一首歌儿)’, ‘꽃이 피다(花開)’, ‘학교에 가다(去学校)’와 예정상 ‘(就)要, (快)要, 將(要), 即將, 行將’은 결합 제약이 없다. 이는 피동의 양태적 의미가 부가되어 어떤 사정으로 인하여 갈 수 없었던 학교가 이제 갈 수 있게 된 예정을 나타낸다. ‘快要’는 일상적인 상황의 출현이 곧 있을 예정임을 나타낸다.

4.5.2.2 ‘-어 지-’와 ‘起來’

동작 시작 단계의 기동상은 ‘-지다’와 ‘起來’ 등의 표지로 나타낸다. 기동상은 [동태성]과 동작의 시작점만 있으면 완수동사와 자유롭게 결합한다.

(11) 가. 내일 출발하기 때문에 짐을 꾸리기 시작하였다.

나. 明天出发我开始收拾起行李来。

(12) 가. 눈이 녹기 시작하였다.

나. 雪漸漸融化起来了。

4.5.2.3 ‘-고 있-’과 ‘正/在/正在’

완수동사는 [동태성, 지속성, 완결성]을 가진 동사로 ‘-고 있-’과 결합하여 내적 단계를 가시화하고 진행의 의미를 나타낸다.

- (13) 가. 그가 밥을 짓고 있다.

나. 他在做饭。

- (14) 가. 그가 짐을 꾸리고 있다.

나. 他在收拾东西。

- (15) 가. 나뭇잎이 점점 누렇게 변하고 있다.

나. 树叶在漸漸地发黃。

(13)~(14)의 ‘밥을 짓다(做饭), 짐을 꾸리다(收拾东西)’는 진행상의 ‘-고 있다’, ‘在’와 결합제약이 없다. ‘-고 있다’와 결합하여 ‘밥을 짓는, 짐을 꾸리는’ 진행을 나타내며, ‘在’와 결합하여 ‘在做饭, 在收拾东西’도 진행을 나타낸다. (15)의 변화동사 ‘변하다(发)’도 진행상의 ‘在’와 결합제약이 없다.

4.5.2.4 ‘-어 가/오-’와 ‘下去’

- (16) 가. 이 의자를 거의 다 고쳐가다.

나. 几乎把这椅子都修理下去。

- (17) 가. 태민이가 졸업 논문을 써 가다.

나. 太民把毕业论文写下去。

(16)~(17)의 완수동사 ‘고치다(修理), 쓰다(写)’는 ‘-어 가다’, ‘下去’

와 결합제약이 없다. 과정성이 약한 달성동사에 비해 완수동사는 과정을 전제로 하는 동사이기 때문에 ‘-어 가다’와 자연스럽게 공기한다. 완수동사는 [완성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행위는 목적어가 완성될 때까지 진행된다. (16)에서 ‘젖은 옷이 마르는 행위’, ‘논문을 쓰는 행위’는 화자가 바라보는 시점으로부터 대상이 완성될 때까지 주어의 행위가 최종점을 향해 계속됨을 나타내는 것이다.

(18) 가. 작년부터 그는 집을 짓고 있다.

나. 从去年, 他盖房子下来。

(19) 가. 태민이가 졸업 논문을 썼다.

나. 太民把毕业论文写下來。

(18)~(19)의 ‘집을 짓다(蓋房子)’, ‘논문을 쓰다(写论文)’는 ‘-어 오다’, ‘下來’와 결합제약이 없다. ‘짓는 행위’, ‘논문을 쓰는’ 행위는 과거 어느 한 시점으로부터 시작해서 화자가 바라보고 있는 시점까지 진행된다. 완수동사가 ‘-어 오다’와 결합하는 경우에는 화자가 바라보는 시점이 행위의 최종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즉 예문에서 보면 화자가 바라보는 시점까지 주어가 집을 짓는데 집이 완성되었을 가능성도 있고 완성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 다만 화자가 바라보는 시점까지 주어의 행위가 ‘계속’됨을 나타낸다.

다음은 동사 자체가 변화를 내포하고 있는 변화동사와 최종점을 향해 방향성을 가지고 움직이는 ‘下來’의 결합 제약을 예문으로 살펴보자.

(20) 가. 젖은 옷이 말라가다.

나. 瞭的衣服干下去。

(21) 가. 꽃이 시들어 가다.

나. 花儿蔫下去。

(22) 가. 비용을 점차 줄여 나가다.

나. 费用逐渐在减少下去。

(23) 가. 뾰루지가 사그라들다.

나. 小疙瘩消下去。

(20)~(23)의 ‘마르다(干), 시들다(蔫), 줄이다(減少), 사그라들다(消)’의 변화동사는 ‘下去’와 결합제약이 없다.

4.5.2.5 ‘-어 머리-, -어 놓-, -어 두-’와 ‘掉/着/完’

(24) 가. 날씨가 너무 추워 컵의 물이 얼어버렸다.

나. 天气太冷，杯子里的水冻掉了。

(25) 가. 내일 건강검진인데 방금 술을 마셔버렸다.

나. 明天检查体格 刚喝掉一杯酒了。

(26) 가. 밤새 안자고 그 영화를 봐 버렸다.

나. 成宿不睡就把那部电影看掉。

(24)~(26)의 ‘얼다(冻), 마시다(喝), 보다(看)’는 [완성성]이므로 ‘-어 버리-’와 결합제약이 없다. [완성성]을 지닌 동사라면 선행 동사에 대한 제약 없이 타동사나 자동사 대부분 연결이 가능하다. 완수동사는 과정에 초점을 두는 동사이기 때문에 ‘-어 버리-’가 결합되면 행위의 시작에서 종결에 이르기까지의 행위 과정이 완결되었음이 드러나므로 완결성에 초점이 놓이게 된다. 즉, ‘영화를 보다’는 영화 한 편을 다 보았는지 중간에 그만 둔 것인지 알 수 없으므로 행위의 완결성을 알 수 없다. 그러나 ‘영화를 한 편 봐 버렸다’는 행위의 완결을 나타낸다.

보조동사 ‘-어 내-, -어 놓-’는 [완성성]을 가진 완수동사와 결합제약

이 없다. ‘내다’는 ‘到’와 잘 어울리며, ‘놓다’는 ‘着’과 자연스럽게 어울린다. ‘-어 버리-’와 마찬가지로 선행동사가 [완성형]을 가졌다면 대부분 결합제약이 없다.

(27) 가. 골키퍼가 공을 차내다.

나. 守门员踢掉球。

(28) 가. 진통제를 먹어두다.

나. 吃着镇痛剂。

(29) 가. 이 여행 가방을 꾸려 놓아라.

나. 明天早早儿出发你把这个旅行包收拾着吧!

(27)~(29)의 ‘차다(踢), 먹다(吃), 꾸리다(收拾)’는 종결의 ‘-어 내-’, ‘-어 놓-’, ‘到, 着’과 결합제약이 없다. ‘-어 내다’와 ‘到’는 어떤 어려움을 극복하거나 어떤 노력을 통해 결과가 이루어진다. ‘양태’ 의미가 포함되어 있고, ‘-어 놓-’와 ‘着’은 어떤 행위를 수행함으로써 상황을 자신이 의도한 조건 하에 있게 한다는 의미를 부가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에 의도적인 행위를 나타내는 동작주성(agentive) 동사와만 결합한다.

4.5.2.6 ‘-어 있-’과 ‘着’

(30) 가. *나는 신발을 신어 있다.

나. 我穿着鞋。

(31) 가. *어머니가 스카프를 매어 있다.

나. 妈妈系着丝巾。

(30)~(31)의 ‘신다(穿)’, ‘매다(系)’는 지속을 나타내는 ‘-어 있다’, ‘着’

와 결합제약이 있다. 지속상은 [완성성]의 완수동사와 결합할 수 없으며 의미적 제약이 아닌 통사적 제약을 받는다. 이러한 재귀성 타동사는 ‘-고₂ 있-’과 결합해서 ‘결과상태지속’을 나타낸다. 반면에 ‘着₂’는 [결과성] 완성동사와 자연스럽게 결합되어 ‘결과 상태 지속’의 의미를 나타낸다.



제 5 장 결 론

본고는 한국어와 중국어의 상적 특성에 따른 동사 분류 체계를 검토하고, 두 언어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새로운 동사 분류 체계를 제안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시간적 양상과 관련된 상적 특성을 바탕으로 한국어와 중국어의 어휘상을 새로이 분류하여 동사구와 상 표지가 결합할 때 가지는 제약을 토대로 한국어와 중국어의 다양한 결합제약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는 한국어와 중국어의 어휘상을 대조하여 통사적·의미적 결합제약을 밝히기 위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 과제를 진행하였다.

첫째, 한국어와 중국어의 상적 특성에 따라 동사를 분류한 기준 연구를 살펴보고, 그 분류 체계를 분석하였다.

둘째, 2장에서는 본고의 논의를 위한 이론적 배경으로 상과 시제의 범주적 연관성을 살펴보고, 문법상과 어휘상의 발전 배경을 검토하였다. 또한 어휘상을 구성하는 자질들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상과 시제의 시간적 연관성은 Comrie(1976)의 이론을 중심으로 한국어와 중국어에 접목시킨 후 완결상(perfective)과 비완결상(imperfective)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연유를 추적해 보았다. 그 결과, 기준의 논의들에서 완결상과 완료상의 용어 및 개념을 일관되게 사용하고 있지 않음을 지적하였고, 이에 대해 체계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다음으로 Vendler(1967)의 연구에서 비롯된 어휘상이 Smith(1997)의 연구까지 이동하는 추이를 종적인 방향으로 고찰하여 각 어휘상의 개념과 체계의 변천 과정을 유기적으로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하여 어휘상의 자질로 [상태성], [완성성], [지속성]을 선정하여 한국어와 중국어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비교·대조하였다.

3장에서는 상 자질의 조합에 따라 상태동사, 순간동사, 달성동사, 행위동사, 완수동사로 어휘상을 범주화하였다. 상태동사는 [상태성, 지속성]을 가진 부류로 시작점과 최종점을 상정할 수 없어 내적 단계가 분화되지 못 한다. 영구적 속성이나 주관적 심리상태 및 판단동사, 존재동사, 소유동사 등 움직임이 없는 동사들이 포함되었다. 상태동사는 한국어와 중국어의

어휘상 분류에서 가장 많은 차이를 보이는 부분으로 인식류 동사가 한국어는 달성동사로, 중국어는 상태동사로 서로 다르게 분류된다. 이는 각 언어별로 상태의 정의를 다르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순간동사는 [동태성, 비완성성, 순간성]를 가진 부류로 아주 짧은 시간에 발생하는 순간적인 동사이다. 또한 사물이나 자연현상의 자연 발생적인 움직임을 나타낸다. 순간동사에는 최종점을 향해 접근성을 가지고 움직이는 이행동사를 포함시켰다. 순간동사의 가장 큰 특징으로 ‘시작점(I)=최종점(F)’을 들 수 있다.

이행동사는 시작점으로 가는 예비과정이 있다는 점에서 변화동사로 취급된다. 이는 주로 완수동사의 범주에 속하는 동사류이다. 본고에서는 비완성성에 주목하여 이행동사를 완수동사가 아닌 순간동사에 포함시켰다. 이행동사는 ‘시작점(I)=최종점(F)’ 이후 동작의 결과가 남아 있지 않아 완수동사의 범주로 들어갈 수 없음을 명백히 밝혔다.

달성동사는 [동태성, 완성성, 순간성]을 가진 부류이다. 동작이 순간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은 순간동사와 동일하나 완성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다르다. 최종점 도착 후 동작의 결과가 남아 있는 동사들이 이에 해당한다. 달성동사에서 시작점이 시작될 때까지 예비과정이 있는 부류와 예비과정이 없는 부류로 구별한 것은 특이할 만한 사항이다. 이에 대한 근거로 최종점의 성격을 유형별로 3.1.3에서 규명하였다.

행위동사는 [동태성, 비완성성, 지속성]을 가진 부류로 동질적인 내부단계를 가지며 지속되는 사건을 나타낸다. 행위동사는 목적어 논항이나 PP 논항에 따라 완수동사가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조건들을 유형별로 살펴보았다.

완수동사는 [동태성, 완성성, 지속성]을 가진 부류로 완성성을 부여하는 요소들을 부여받아 한계점을 지녀 완성성의 자질을 갖춘 것이다. 완성성을 부여하는 요소들을 유형별로 살펴보고, 이들이 완수동사로 전환되는 모습을 살펴보았다. 특히 하나의 상황에서 다른 상태나 상황으로 변화되는 변화동사를 완수동사의 범주에 포함시켰다.

어휘상과 함께 논의한 결합제약은 한국어와 중국어로 각각 나누어 고찰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기존의 동사분류를 검토한 후, 문제점을 분석하여 각각의 어휘상에 대한 목록을 제시하였다. 개별 동사가 특정한 어휘상으로 분류되는 이유와 그 문제점을 한국어와 중국어를 대조하여 다루었다. 결합제약은 완결상과 동작발달단계상으로 구분하여 상적 의미를 살펴보았다. 완결상은 ‘-었-’과 ‘了’, ‘-었었-’과 ‘過’를 중심으로 다루어 상적 자질을 분류하고, 어휘상과 결합제약의 양상을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었었-’과 ‘過’은 동작의 완결이 아닌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음을 나타내는 ‘완결단속상’으로 보았다.

기존의 연구에서 비완결상의 범주에서 다룬던 진행상, 지속상 등은 동작 발달단계상과 관련지어 이들의 상 자질을 살피었다. 동작의 발달 단계를 BS(Before Start)단계, S(Start)단계, M(Midum)단계, F(Finished)단계, AF(After Finished)단계 등으로 나누어 각 단계에 해당하는 동작의 모습을 상적 자질의 관점에서 논의하였다. 어휘상의 상 자질과 문법상 및 동작 발달 단계의 상적 자질의 조합을 상호 고려하여 통합적으로 다루어야 함을 지적하였다.

5.1 연구내용 요약 및 정리

3장과 4장에서 살펴 본 어휘상과 결합 제약의 결과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6> 상태동사의 상 실현 양상

| 상태동사 | | 완결상 | | | BS | | S | | M | | | F | | AF | | | |
|------|---|---------|---------|---------|----|----------|--------|----|--------|---------|---|----|--------|---------|--------|---------|---|
| 한 | 中 | -었 | 了 | -었 었 | 過 | -게 되다 | 將 要 | 자다 | 起 來 | -고 있 | 在 | 가다 | 下 去 | 버리 다 | 掉 着 | -어 있 | 着 |
| 높다 | 高 | ○ 과거 | ○ 기동 | ○ 단속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붉다 | 紅 | ○ 과거 | ○ 기동 | ○ 단속 | ○ | × | × | ○ | ○ | × | × | × | × | × | × | × | |
| 깨끗 | 干 | ○ 과거 | ○ 기동 | ○ 단속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하다 | 淨 | ○ 과거 | ○ 기동 | ○ 단속 | ○ | × | × | ○ | ○ | × | × | × | × | × | × | × | |
| 좋아 | 喜 | ○ 과거 | ○ 기동 | ○ 단속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하다 | 欢 | ○ 과거 | ○ 기동 | ○ 단속 | ○ | × | × | ○ | ○ | × | × | × | × | × | × | × | |
| 아프 | 痛 | ○ 과거 | ○ 기동 | ○ 단속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 | | | | | | | | | | | | | | | | | |
| 시리 | 冻 | ○ 과거 | ○ 기동 | ○ 단속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낯설 | 陌 | ○ 과거 | ○ 기동 | ○ 단속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 | 生 | | | | | | | | | | | | | | | | |
| 낯익 | 面 | ○ 과거 | ○ 기동 | ○ 단속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 | 熟 | | | | | | | | | | | | | | | | |
| 이다 | 是 | ○ 과거 | × | ○ 단속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있다 | 在 | ○ 과거 | × | ○ 단속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있다 | 有 | ○ 과거 | × | ○ 단속 | × | × | × | × | × | × | × | × | × | × | × | × | |

상태동사는 [상태성]으로 인하여 동작의 발달단계와 결합제약이 많다. 동작의 발달 단계라는 것은 이미 [동태성]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어는 ‘-었-’과 ‘-었었-’은 과거와 단속의 의미로 쓰이고, 중국어에서

상태동사와 ‘了’는 ‘기동’의 의미로 상의 의미가 변화한다. 이러한 이유는 한국어는 상태동사에 ‘-었-’이 결합하면 상태를 사건으로 전화시키는 의미작용이 발생한다. 따라서 이때는 하나의 사건처럼 상태의 사건화 기능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결합제약을 받지 않는다. 반면에 중국어의 상태동사는 시작점과 끝점을 상정할 수 없어 변화가 없는 항상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동작의 완결을 나타내는 ‘了’와 의미가 상충된다.

상태동사의 결합제약에 있어 특이할 만한 사항은 동사의 진행과 계속을 의미하는 M단계에서 ‘-어 가다’와 ‘下去’는 모두 결합제약이 있다. 이는 방향성을 가진 [동태성, 지속성]이 상태동사의 [상태성]과 충돌하기 때문이다.

국립국어원 초급동사 목록 중 기본적으로 상용되는 한·중 상태동사를 선정하면 아래와 같다.¹⁰³⁾

- (1) 상태동사: 높다(高), 붉다(紅), 길다(长), 크다(大), 많다(多), 깨끗하다(干净), 아름답다(美丽), 아프다(痛), 고프다(饿), 쑤시다(刺痛), 가렵다(痒痒), 결리다(胀痛), 시리다(冻), 싫다(讨厌), 좋다(喜欢), 무섭다((怕), 기쁘다(高兴), 슬프다(难受), 낯설다(陌生), 낯익다(面熟), 젊다(年轻), 늙다(老), 새롭다(新), 오래다(久), 박다(恨), 이다(是), 있다(有), 있다(在)

103) 본 고에서 국립국어원 초급동사 목록에 대응하는 중국어로 ‘HSK水平考试 4及’으로 한정한 이유는 일반 상용 동사 수준에서 발췌하기 위함이다.

<표7> 순간동사의 상 실현 양상

| 순간동사 | | 완결상 | | | | BS | | S | | M | | | | F | | AF | |
|------|----|---------|---|---------|---|----|----|----|----|---------|---|----|---|----|----|----|---|
| 한 | 중 | 었 | 了 | -였 | 遇 | -게 | 將要 | 지다 | 起來 | -고 | 在 | 가다 | 下 | 버리 | -어 | 着 | |
| 반짝이다 | 闪烁 | ○ 과거 | ○ | ○ 단속 | ○ | ○ | ○ | × | × | ○ 반복 | ○ | × | × | ○ | ○ | × | × |
| 기침하다 | 咳嗽 | ○ 과거 | ○ | ○ 단속 | ○ | ○ | ○ | × | × | ○ 반복 | ○ | × | × | ○ | ○ | × | × |
| 폭발하다 | 爆炸 | ○ 과거 | ○ | ○ 단속 | ○ | ○ | ○ | × | × | ○ 반복 | ○ | × | × | ○ | ○ | × | × |
| 던지다 | 扔 | ○ 과거 | ○ | ○ 단속 | ○ | ○ | ○ | × | × | ○ 반복 | ○ | × | × | ○ | ○ | × | × |
| 도착하다 | 到达 | ○ 과거 | ○ | ○ 단속 | ○ | ○ | ○ | × | × | ○ 예정 | × | ○ | ○ | ○ | ○ | ○ | ○ |
| 멈추다 | 停 | ○ 과거 | ○ | ○ 단속 | ○ | ○ | ○ | × | × | ○ 예정 | × | ○ | ○ | ○ | ○ | ○ | ○ |
| 떨어지다 | 斷 | ○ 과거 | ○ | ○ 단속 | ○ | ○ | ○ | × | × | ○ 예정 | × | ○ | ○ | ○ | ○ | ○ | ○ |

순간동사는 [동태성, 순간성, 비완성성]을 가지고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동사이다. 순간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완결상과 결합제약이 없이 가장 잘 어울린다. BS단계까지는 동작의 시작 전 단계에 해당하므로 ‘시작점=최종점’의 동시 발생 순간이라도 결합제약이 없다. 그러나 S단계부터 M단계까지는 결합하는 상 표지의 상적 자질 [동태성, 지속성]이 있어야 하므로 순간동사의 [순간성]과 충돌을 일으킨다.

M단계에서는 ‘-고 있’이 순간동사와 결합하면 어미가 전환되어 진행상이 아닌 반복상으로 상의 변화가 일어나고 ‘在’는 결합제약을 일으킨다. 이때 이행동사는 ‘시작점=최종점’으로 가는 예비과정을 지닌 동사이므로 이 단계에서 ‘-고 있’과 결합하여 예정상을 나타낸다. ‘下去’ 역시 최종점을 향해가는 동작의 단계이기 때문에 순간성과 충돌을 일으키나 이행동사는 예비단계와 결합하므로 제약이 해소된다. 순간 발생 동작은 종결을 의미하는 F단계의 잘 어울리나 AF단계에서는 이행동사만 다른 양상을 보인다. 이행동사는 하나의 동작에서 다른 동작으로 바뀌는 과정 자체를 내포하여 ‘-어 있다’, ‘着’과 결합되면 결과 과정의 지속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다.

국립국어원 초급동사 목록 중 기본적으로 상용되는 한·중 순간동사를 선정하면 아래와 같다.

(2) 순간동사: 반짝이다(闪灼), 깜빡이다(稀朗), 출렁이다(翻涌), 펼려이다(招展), 움찔하다(抽搐), 기침을 하다(咳嗽), 재채기를 하다(打喷嚏), 땀꾹질을 하다(打嗝), 폭발하다(爆炸), 뛰어오르다(跳跃), 때리다(打), 꼬집다(掐), (공을)차다(踢球), 쏘다(射), 두드리다(敲打), 던지다(扔), 도착하다(到达), 착륙하다(着陆), 이륙하다(起飞), 멈추다(停), (식량이)떨어지다(斷糧), (얼음이)녹다(冰化)

<표8> 달성동사의 상 실현 양상

| 달성동사 | | 완결상 | | | | BS | | S | | M | | | | F | | AF | | |
|------|----|---------|---|---------|---------|--------------|--------|---------|--------|---------|---|--------|--------|---------|--------|--------|---------|---|
| 한 | 중 | 었 | 了 | 였 | 過 | -게 되 다 | 將 要 | 지 다 | 起 來 | -고 있 | 在 | 가 다 | 下 去 | 버리 다 | 掉 到 | 着 完 | -여 있 | 着 |
| 묻다 | 附着 | ○ 과거 | ○ | ○ 경험 | ○ 단속 | ○ | ○ | ○ 반복 | ○ | ○ 반복 | × | × | × | ○ | ○ | ○ | ○ | |
| 잃다 | 丟 | ○ 과거 | ○ | ○ 경험 | ○ 단속 | ○ | ○ | ○ 반복 | ○ | ○ 반복 | × | × | × | ○ | ○ | ○ | ○ | |
| 죽다 | 死 | ○ 과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쓸다 | 倒 | ○ 과거 | ○ | ○ 경험 | ○ 단속 | ○ | ○ | ○ | ○ | ○ | × | ○ | × | ○ | ○ | ○ | ○ | |
| 알다 | 知道 | ○ 과거 | × | ○ 경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믿다 | 相信 | ○ 과거 | × | ○ 경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되다 | 当 | ○ 과거 | ○ | ○ 경험 | ○ 단속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붙다 | 合格 | ○ 과거 | ○ | ○ 경험 | ○ 단속 | ○ | ○ | × | × | × | × | × | × | ○ | ○ | ○ | ○ | |

달성동사는 한국어와 중국어가 가장 많은 차이를 보이는 어휘상이다. 인식류 동사에 해당하는 ‘알다(知道), 믿다(相信)’가 한국어는 달성동사에 속해 상 자질이 [동태성, 순간성, 완성성]으로 이루어져 있고, 중국어는

상태동사에 속해 [상태성, 지속성]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어휘상이 서로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결합제약 역시 차이를 보인다. 달성동사는 예비과정이 있는 유형과 예비과정이 없는 유형이 있으며, 이에 따라 결합제약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난다. ‘죽다, 쏟다’와 인식동사인 ‘알다, 믿다’는 예비과정이 있는 유형으로 S단계의 결합에서 반복을 나타낸다. 특히 ‘죽다(死)’는 ‘-었었-(過)’과 함께 쓰이면 의미적 결합제약을 받아 달성동사와 다른 양상을 보인다.

국립국어원 초급동사 목록 중 기본적으로 상용되는 한·중 달성동사를 선정하면 아래와 같다.

- (9) 달성동사: -가 드러나다(透露), -가 묻다(附着), -가 끊기다(斷线), -가 꺼이다(受挫), 죽다(死), 태어나다(生), (잠을)깨다(睡醒), -을 쏟다(倒), -을 다치다(碰伤), -을 잃다(丟). -을 끊다(斷), 알다(知道), 이해하다(了解), 믿다(相信), 인식하다(认为), 들기다(비밀을)(犯事), 상상하다(想象), 잊다(忘), 가정하다(假设), 생각하다(思考), 짐작하다(打量), 문제를 이해하다(理解), 잘못을 깨닫다(认识), 기억하다(记忆), -가 되다(当), -에 불다(合格),

<표9> 행위동사의 상 실현 양상

| 행위동사 | | 완결상 | | | | | BS | | S | | M | | | | F | AF | |
|------|---|-----|---|----|---|----------|--------|----|--------|---------|---|----|--------|---------|---|---------|---|
| 한 | 중 | 였 | 었 | 었었 | 과 | -게 되다 | 將 要 | 지다 | 起 來 | -고 있 | 在 | 가다 | 下 去 | 버리 다 | 掉 | -여 있 | 着 |
| 듣다 | 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먹다 | 吃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다리다 | 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웃다 | 笑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울다 | 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앉다 | 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서다 | 站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눕다 | 躺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행위동사는 [동태성, 지속성, 비완성성]으로 동작의 자연적 최종점이 없

다. 이에 행위가 시작된 후 어느 시점에서든지 임의적으로 종결시키면 하나의 완결된 동작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었-’, ‘了’ 결합은 동태성의 완전한 종결을 의미하고, ‘-었었-’, ‘過’의 결합은 완결된 동작이 과거 한동안 발생했음을 나타내어 완결상과 결합제약이 없다.

동작발달 단계상에 있어서는 시작점 이후와 관련된 ‘BS단계’, ‘S단계’, ‘M단계’는 결합제약이 없다. 그러나 ‘F단계’는 종결의 의미를 강조하여 최종점이 없는 행위동사는 원칙적으로 결합할 수 없다. 그러나 양태적 의미가 강조될 때는 결합이 가능하다. ‘AF단계’는 동작의 종결 후 그 결과가 남아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끝점을 상정할 수 없는 행위동사는 ‘-어 있-’, ‘着’와 결합제약이 있다. 그러나 일부 자세동사인 ‘앉다(坐), 서다(站), 눕다(躺)’는 동작 종결 후 상태의 지속을 나타낼 수 있어 결합제약이 해소된다. 다만 이때는 존재의 상태를 나타내며 결과가 지속되는 것은 아니다.

국립국어원 초급동사 목록 중 행위동사 중 기본적으로 상용되는 한·중 행위동사를 선정하면 아래와 같다.

- (4) 행위동사: 읽다(念), 그리다(画), 마시다(喝), 먹다(吃), 노래하다(唱), (자전거를)밀다(推车), 뛰다(跳), 달리다(跑), 가다(去), 오다(来), 웃다(笑), 울다(哭), 자다(睡), 쉬다(休息), 놀다(玩儿), 기다리다(等), 날다(飞), 닦다(擦), 돋다(帮助), 달리다(跑), 뛰다(跳), 만나다(见), 배우다(学), 보다(看), (바람이)불다(刮), 쉬다(休息), 싸우다(打架), 쓰다(写), 씻다(洗), 오다(来), 오르다(乘), 울다(哭), 웃다(笑), 일하다(工作), 읽다(念), 자다(睡), 잡다(抓), 찾다(找), (춤을)추다(跳舞), (담배를)피우다(抽烟), 산책하다(散步), 눕다(躺)

<표10> 완수동사의 상 실현 양상

| 완수동사 | | 완결상 | | | | | BS | | S | | M | | | | F | | AF | |
|-----------|---|-----|---|----|---|----------|----|----|----|---------|---|----|----|---------|---|---------|----|--|
| 한 | 중 | 었 | 了 | 었었 | 過 | -게 되다 | 將要 | 지다 | 起來 | -고 있 | 在 | 가다 | 下去 | 버리 다 | 掉 | -어 있 | 着 | |
| (NP2)먹다 | 吃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NP2)보다 | 看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과지다 | 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익다 | 熟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NP2)입다 | 穿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NP2)(매다) | 系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NP2)쓰다 | 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완수동사는 [동태성, 지속성, 완성성]으로 시작점과 최종점이 잘 갖추어져 있어 ‘-었-’, ‘了’와 결합제약이 없다. 과거에 이미 어떤 일이 있었음을 나타내어 현재와의 단절을 나타내는 ‘過’ 역시 거의 모든 상황과 결합제약이 없다. 완수동사의 자질은 명확한 시작점과 끝점이 있는 움직임이 이질적인 내부단계를 지속하고 있다는 의미이므로 BS단계에서 F단계까지 결합제약이 없다. 단지 재귀동사에 해당하는 ‘(옷을) 입다, (넥타이를) 매다, (모자를) 쓰다’는 ‘-고 있-’과의 결합에서 ‘진행’과 ‘지속’의 중의성을 나타낸다. AF단계는 동작이 끝난 후 단계이다. 이 단계는 완수동사의 [완성성]이 동작의 종결 후 그 결과가 남아 있다.

국립국어원 초급동사 목록 중 기본적으로 상용되는 한·중 완수동사 목록을 선정하면 아래와 같다.

- (5) 집을 한 채 짓다(他们造了一所房子). 책을 한 권 읽다(看一本书), 맥주 한 잔을 마시다(喝一杯酒), 의자를 고치다(修理一把椅子), 짐을 꾸리다(收拾行李), 배가 가라앉다(船沉了), 해가 뜨다(太阳升起),

빨래가 마르다(湿衣服干了), 얼음이 얼다(冰化), 눈이 녹다(雪化),
꽃이 피다(花开), (과일이)익다(水果熟), (입맛이)변하다(口味变),
(음식이)식다(饭菜凉), (꽃이)시들다(花儿蔫), 확장하다(扩张), 빨
효하다(发酵), 닫다(闭), 열다(开), 덮다(盖), 들다(提), 쥐다(抓),
학교에 가다(到学校走), 난간에 기대다(靠着栏杆), 김치를 그릇에
담다(泡菜碗里盛, 把水果放在器皿里), 바닥에 엎드리다(趴在地上),
부산까지 뛰다(跑到地铁站)



5.2 한국어교육 활용 방안

본고는 문법상의 연구에 부수적으로 가려져 있던 동사 분류를 한국어교육 연구의 영역으로 확대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어휘상을 분류하고, 그에 따른 통사적 구성 형식과의 상 실현 양상을 고찰하는 작업을 통해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교육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첫째, ‘-고₁ 있-’과 ‘-고₂ 있-’의 단일한 교수·학습 내용에서 벗어나 다양한 동사의 결합을 제시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된다.

둘째, 한국어와 중국어에서 문법적으로 동일한 통사 구성 형식이 서로 다른 의미를 지닐 수 있음을 예시를 통해 밝혀 실질적인 교육에 도움이 된다.

셋째, 한국어와 중국어의 상 실현 양상을 대조 분석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힘으로써 한국어교육 교재를 체계적으로 설계하는 데 기초가 된다.

이뿐만 아니라 동사의 상 자질을 분석한 결과를 통해 서법 요소와의 관계 및 부사어 학습에도 관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재 구성에서 상태동사, 순간동사, 달성동사, 행위동사, 완수동사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편중된 동사 사용을 지양할 수 있다.

특히 시제 우위 언어를 사용하는 한국인 중국어 학습자나 상 우위 언어를 사용하는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에게 본고는 동사 자질의 본질적 의미를 배재시킴으로써 가중되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1. 국내문헌

- 강현화,(1998), 『국어의 동사연결 구성에 대한 연구』, 한국문화사.
- 고영근,(2009), 『한국어의 시제 서법 동작상』, 태학사.
- 고영근·구본관,(2011), 『우리말 문법론』, 집문당.
- 고영진,(1997), 『한국어의 문법화 과정』, 국학자료원.
- 고창수,김원경,(2010), 『소통을 위한 한국어문법』, 박문사.
- 구정초,(2014), <한국어 ‘-아/어 있다’와 중국어 ‘着’의 용법 비교–성취동사
와의 결합을 중심으로–〉, 충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논문.
- 구종남,(1986), <보조동사의 統辭·意味 연구〉, 전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
사논문.
- 구종남,(2010), <‘-아 있다’구문의 통합 제약 현상에 대하여〉, 『어문연구』
63, 어문연구학회.
- 구종남,(2011), <‘-어 오다/가다’의 직시적 의미와 상적 특징〉, 『한국언어
문학』 76, 한국언어문학회.
- 구종남,(2013), <‘-고’ 통합 보조용언의 상적 의미에 대하여〉, 『한국언어문
학』 87, 한국언어문학회.
- 구종남,(2013), <국어 진행상의 형식과 특징, 『한국어문학』 85, 한국언어문
학회.
- 구종남,(2013), 『보조용언의 의미와 문법, 도서출판 경진.
- 구종남,(2013), <어미 ‘-어’의 성격과 기능〉, 『한민족어문학』 63, 한민족
어문학회
- 權熙祥,(1989), <英語의 相的 類型에 關한 연구〉, 충남대학교 영어영문학과
박사논문

- 金娜莉,(2011), 〈한·중 과거시제 비교 연구-‘了’와 ‘-었-’, ‘過’와 ‘-었었-’을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중국어교육 석사논문.
- 金琮鎬,(2003), 〈중국어 補語에 상응하는 한국어 성분의 위치문제〉, 《중국어문학논집》 22, 중국어문학연구회.
- 金鉉哲,梁英梅,(2011), <韓·中 對照言語學 研究 現況 考察>, 《중국어교육과 연구》 14, 한국중국어교육학회.
- 김건희,(2011), 《한국어 형용사의 논항구조 연구》, 월인.
- 김기혁,(1981), 〈국어 동사류의 의미구조〉,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6, 연세대학교 한국어 학당.
- 김문기,(2007), 〈한국어 매인풀이씨 연구〉, 부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논문.
- 김미영,(1996), 〈국어 용언의 접어화에 관한 역사적 연구〉, 동아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논문.
- 김석득,(1987), 〈‘완료’와 ‘정태지속’에 대한 역사적 정보〉, 《한글》 196, 한글학회.
- 김성화,(2003), 《국어의 상 연구》, 한신문화사.
- 김연희,(2009), 〈현대 한국어 종결상 보조동사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논문.
- 김영옥,(2011), <한·중 대조언어학 연구 현황에 대한 고찰>, 《중국어문학논집》 68, 중국어문학연구회.
- 김영태,(1997), 《현대 국어 보조용언 연구》, 문창사.
- 김윤신,(2000), 〈파생동사의 어휘의미구조-사동화와 피동화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박사논문.
- 김윤신,(2004), 〈한국어 동사의 사건구조와 사건함수 ‘-고 있다’의 기능〉, 《형태론》 6, 도서출판 박이정.
- 김윤신,(2008), 〈상 보조 용언 구성‘-어 가다’/‘-어 오다’의 의미〉, 《언어

- 학》 52, 한국언어학회.
- 김윤신,(2013), 〈생성 어휘부 이론과 합성성의 기체〉, 《한국어 의미학》 41, 한국어의미학회.
- 김은자,(2006), 〈現代中國語 進行相 研究－‘正/正在/在’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석사논문.
- 김의수(,2002), 〈형식동사 ‘이다’의 문법〉, 《어학연구》 38, 서울대학교언어교육원.
- 김정애,(2013), 〈한국어 결과성 ‘–고 있다, –아/어 있다’ 구문과 중국어 ‘着’ 구문 대조 연구〉, 경희대학교 국제 한국언어문화학과 석사논문.
- 김정오,(2004), 〈영어 시제·상과 시간부사구와의 상관관계〉, 조선대학교 영어영문학과 박사논문.
- 김종도,(1992), 〈우리말의 상 연구〉, 《畿甸語文學》 7. 수원대학교 국어국문학회.
- 김종혁,(2009), 〈중국어와 한국어의 시제/상 표지 대응관계 고찰〉, 《중국학논총》 27, 高麗大學校 中國學研究所.
- 김차균,(1999), 《우리말의 시제구조와 상 인식》, 태학사.
- 김천학,(2006), 〈국어의 동작상과 동작류〉, 《국어교육》 120, 한국어교육학회.
- 김천학(2007), 〈국어의 동사와 상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논문.
- 김천학,(2012), 〈동사와 상에 관한 유형론적 연구－한국어의 완망상과 비완망상에 대하여－〉, 《한국어학》 57, 한국어학회.
- 김천학,(2013), 〈상태와 상태변화〉, 《형태론》 15권 2호,
- 김천학,(2014), 〈한국어 동사의 종결성(telicity)에 대한 연구〉, 《언어와 정보 사회》 21, 서강대학교 언어정보연구소.
- 김현철,진화진,(2012), 〈현대중국어 ‘형용사(A)+起來’구문의 상태변화 의미와

- 한국어 대응형식 연구〉, 『중국언어연구』 43, 한국중국언어학회.
- 김혜경,(2010), 〈현대중국어 ‘着(Zhe)’에 관한 소고〉, 『중국어문학논집』 65, 중국어문학연구회.
- 김홍실,(2008), 〈한국어 ‘–었–’과 중국어 ‘了’의 대조 연구〉, 『이중언어학』 38, 이중언어학회.
- 남기심,고영근(1993), 『표준국어 문법론』, 탑출판사.
- 남승호,(2003), 〈한국어 이동 동사의 의미구조와 논항교체〉, 『어학연구』 39,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 남승호,(2004), 〈한국어 술어의 사건 구조와 상적 의미〉, 『인문논총』 52,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소.
- 노성,(2014), 〈한국어와 중국어 진행상(進行相) 표지 ‘–고 있다’와 ‘在’ 대조 연구〉, 한양대학교 국어교육학과 석사논문.
- 도원영,(2008), 『국어 형용성동사 연구』, 태학사.
- 羅遠惠,(2001), 〈現代漢語 ‘了’在韓國語中的對應〉, 『한중인문학연구』 7, 中韓人文科學研究會.
- 리명화,(2008), 〈한·중 진행상 표현형식 대비연구〉, 인천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논문.
- 마홍염,(2004), 〈한국어와 중국어의 시간 표현 요소 대조 연구〉,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 석사논문.
- 문숙영,(2007), 〈‘–고 있–’의 기능 부담량 차이에 관한 시론〉, 『국어학』 50, 국어학회.
- 문숙영,(2009), 〈한국어의 시제 범주〉, 『국어학총서』 66, 국어학회.
- 민현식,(1991), 『국어 문법 연구』, 역락
- 박덕유,(2006), 『한국어와 몽골어의 동사상에 대한 비교 연구』, 한국문화사.
- 박덕유,(2007), 『한국어의 상 이해』, 제이 앤 씨.
- 박덕준,박종한,(1996), 〈한국어와 중국어에서 동사와 목적어의 의미 관계 대

- 조 연구〉, 《중국언어연구》 4, 한국중국언어학회.
- 朴珉娥,(2010), 〈현대중국어의 상 결합모형 연구〉, 서울대학교 중어중문 석사논문
- 박선희,(2011), 〈어휘상과 담화구조에 따른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시제상 습득 연구〉, 《외국어교육》 18, 한국외국어 교육학회.
- 박소영,(2003), 〈한국어 동사구 수식 부사와 사건 구조〉,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박사논문.
- 박원기,(2012), 《중국어와 문법화》, 학고방.
- 朴正九,(1998), 〈현대중국어 보어분류의 재고〉, 《중국언어연구》 7, 한국중국언어학회.
- 박정희,(1997), 〈영어와 한국어의 동사의 상 분류 체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외국어교육학과 석사논문.
- 박종한,(1990), 〈동사 “進行”의 문법적 특성과 기능〉, 《중국문학》 18, 한국중국어문학회.
- 박종한,(1990), 〈명사구의 한정성과 중국어의 주제〉, 《성심여대 논문집》 제22집, 5- 20.
- 박종한,(1993a), 〈중국어 동사 분류 연구사 소고〉, 《중국언어연구》 제2, 한국중국언어학회.
- 박종한,(1998), 〈중국어와 한국어의 문법적 특성 대조 연구〉, 《외국어교육》 4, 한국외국어 교육학회.
- 박종한,(2004), 《한국어에서 중국어 바라보기》, 학고방.
- 박종환 외,(1999), 《표준 중국어 문법》, 한울 아카데미.
- 박진호,(2003), 〈한국어의 동사와 문법요소의 결합양상〉,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논문.
- 方金花,(2008), 《現代 中國語 趨向補語 ‘起來’}, 충북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석사논문.

- 송장수,(1998), 〈영어 진행형의 의미 분석〉, 연세대학교 영어영문학과 박사 논문.
- 송창선,(2007), 〈현대국어 ‘이다’의 문법적 처리–‘아니다’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어문학》 98. 한국어문학회.
- 송창선,(2014), 〈국어동사와 형용사의 구분 문제〉, 《국어연구회》 54, 국어 교육학회.
- 송향근,(2011), 〈한국어 교육의 대조 연구 동향 분석〉, 《이중언어학》 47, 이중언어학회.
- 신경미,(2009), 〈현대중국어 ‘起來/V起來’ 구문 연구〉, 고려대학교 중일어문학 석사논문.
- 안동환,(1991), 〈영어의 상적 체계에 관한 연구〉, 《새한영어영문학》 25, 새한영어영문학회.
- 양단,(2011), 〈한·중 시간부사의 상적 특성에 대한 대조 연구〉, 한양대학교 국어국문학 석사논문.
- 양정석,(1997), 《국어동사의 의미 분석과 연결이론》, 도서출판 박이정.
- 양정석,(2000), 〈‘이다’의 문법범주와 의미〉, 국어학회 공통토론회 발표논문.
- 염신현,(2003), 〈종결상 함의 정도에 의한 한국어 동사 분류–통계적 방법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박사논문.
- 오려려,(2011), 〈한국어와 중국어의 과거 상황 표현 대조 연구〉, 영남대학교 국어국문학 석사논문.
- 오충연,(2006), 《상과 통사구조》, 태학사.
- 옥태권,(1988), 〈국어 상조동사의 의미 연구〉, 부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논문.
- 왕례량,(2006), 〈한국어 보조용언과 중국어와의 대조연구〉, 《문법교육》 5, 한국문법교육학회.
- 왕례량,(2010), 〈한국어와 중국어의 시간 요소 연구에 대하여〉, 《중국학연

- 구》 52, 중국학연구회.
- 왕례량,(2010), 〈한국어와 중국어의 시간요소 연구에 대하여〉, 《중국학연구》 52, 중국학연구회.
- 왕례량,(2012), 〈한국어와 중국어의 상 범주 대조 연구〉,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논문.
- 왕리,(2013), 〈한·중 상 형식 대조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논문
- 왕방,(2006), 〈한국어와 중국어 시제의 대조 연구〉, 상지대학교 국어국문학 석사논문.
- 王芳,(2006), 〈한국어와 중국어 시제의 대조연구〉, 상지대학교 석사논문.
- 王波,(2013), 〈한국어와 중국어의 시제와 상 대조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논문.
- 王波,(2013), 〈한국어와 중국어의 시제와 상 대조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논문.
- 우창현,(2003), 〈국어 상 해석에 있어서의 중의성 문제〉, 《국어국문학》 133, 국어국문학회.
- 우창현,(2003), 〈국어의 상 해석 과정에 대하여〉, 《언어학》 4, 대한언어학회.
- 우창현,(2003), 〈문장차원에서의 상 해석과 상 해석 규칙〉, 《국어학》 41, 국어학회.
- 우형식,(1998), 《국어 동사 구문의 분석》, 태학사.
- 魏蛟,(2013), 〈한국어와 중국어 상의 문법화 대조연구-‘-(고) 있-’과 ‘着’을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논문
- 유목상,(2007), 《한국어의 문법구조》, 한국문화사.
- 劉偉,(2011), 〈현대중국어 결과보어 ‘着’, ‘到’, ‘了’, ‘完’의 의미기능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논문.
- 윤유정,(2008), 〈현대중국어의 보어 분류 제 문제 고찰〉, 《중국언어연구》

- 26, 한국중국언어학회.
- 이기동,(1981), <조사 ‘에’와 ‘에서’의 기본 의미>, 《한글》 173, 174, 한글 학회.
- 이기동,(1990), <동사 의미분석 서설>, 《인문과학》 63, 연세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 이기용,(2001), <대조언어학: 그 위상과 새로운 응용>, 《언어과학연구》 19, 언어과학회.
- 이명정(,2010), <현대중국어 상 체계 분석>, 고려대학교 박사논문.
- 이상대,(1998), <영어의 시제와 상의 의미연구>, 《현대문법연구》 12, 현대 문법학회.
- 이상도,(1996), <韓·中 對照 研究에 대한 通時的 考察>, 《중국연구》 18, 한국외국어대학교 종합연구 센터.
- 이선웅,(2012), 《한국어 문법론의 개념어 연구》, 월인.
- 이설,(2013), <한국어와 중국어의 동작상에 대한 대조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소연,(2012),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진행상 습득 연구–보조용언 ‘–고 있다’, ‘–어 가다’, ‘–어 오다’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한국학 석사논문.
- 李迎春,(2007), <事態的時間義漢語兩語對比>, 한국외국어대학교 중어중문학 박사논문.
- 이은수,(2003), <현대 중국어 상 표지 연구 –‘了’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중어중문학과 박사논문
- 이은수,(2003), <현대중국어 선시성 표지 ‘了’>, 《중국어문논총》 24, 중국어문연구회.
- 이은수,(2004), <현대 중국어 상 표지 ‘了’의 시간 의미>, 《중국언어연구》 19, 한국중국언어학회.

이은수,(2008), 〈중국어 상황상과 了, 부정사〉, 《중국어문논역총간》 23,
중국어문논역학회.

이은수,(2009), 〈현대중국어의 상황상 연구〉, 《중국학논총》 26, 고려대학교
중국학연구소.

이익섭,이상역,(1997), 《한국의 언어》, 신구문화사.

이익환,(1994), 〈국어 심리동사의 상적 특성〉, 《애산학보》 15, 애산학회.

이재성,(2001), 《한국어의 시제와 상》, 국학자료원.

이정민,(19940), 〈심리술어의 상에 관한 연구〉, 《애산학보》 15, 애산학회.

이정택,(2004), 《현대 국어 펴동 연구》, 도서출판 박이정.

이종각,(1993), 〈英語 時相 表現의 意味〉, 한국교원대학교 영어교육학과 박
사논문

이지양,(1998), 〈국어의 융합현상〉, 《국어학총서》 22, 국어학회.

이지혜,(2010), 〈한국어와 중국어 시간표현 대비 연구〉, 충남대학교 국어국
문학 석사논문

이지혜,(2010), 〈한국어와 중국어 시간표현 대비연구〉, 충남대학교 석사논
문.

이창학,(1994), 〈英語 時制·相의 概念構造的 記述〉, 충남대학교 영어영문학
과 박사논문.

이창호,(2000), 〈중국어 ‘V+결과보어’의 상적 특성 – ‘V+oRVC’구문의 번역
양상을 통한 시론〉, 《중국어문논총》 18, 중국어문연구회.

이창호,(2001), 〈현대중국어의 보어문제〉, 《중국어문학논집》 18, 중국어문
학연구회.

이호승,(1997), 〈현대국어의 상황유형 연구〉,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
논문

이효상,(1995), 〈다각적 시각을 통한 국어의 시상체계 분석〉, 《언어》 3,
한국언어학회.

- 임상순,(1982), 〈영어 진행형의 시제와 상에 관하여〉, 《논문집》 16, 서울 시립대학교.
- 장은숙,(1998), 〈영어의 상황상과 의미역 체계〉, 부산대학교 영어영문학과 박사논문.
- 장천,(2014), 〈한·중 지속상에 대한 비교 연구, ‘-고 있다’, ‘-어 있다’와 ‘着’, ‘在’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국어교육전공 석사논문.
- 장호득,(2013), 〈현대중국어 상 표지 ‘着’ 의미소 관련 한중 대조 분석〉, 《동북아문화연구》 37, 동북아시아문화학회.
- 전정림,(2014), 〈보조동사 ‘-어 놓(다), -어 두(다), -어 가지고’의 한·중 대조 연구〉, 경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논문.
- 정언학,(2006), 《상 이론과 보조용언의 역사적 연구》, 태학사.
- 정용구,(2006), 〈현대 국어 상 해석 연구-상황상과 관점상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논문.
- 정윤철,(2000), 〈韓·中 對照言語學 小考〉, 《중국연구》 25,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문연구소
- 鄭池秀,(2010), 〈현대중국어의 상(aspect)과 부정(negation)〉, 고려대학교 박사논문.
- 조경숙,(2003), 〈영·한 시상체계에 관한 유형적 비교 연구〉, 《언어학》 4, 대한언어학회.
- 조경숙,(2006), 〈유형론에서 본 영어와 한국어의 상〉, 《언어학》 46, 한국언어학회.
- 조경환,(2009), 〈중국어의 상 합성에 관한 소고〉, 《중국언어연구》 30, 한국 중국언어학회.
- 조경환,(2010), 〈중국어 상의 객관성과 주관성〉, 《중국학논총》 27, 고려대학교 중국학 연구소.
- 조경환,(2015), 《중국어의 상 안과 밖》, 역락.

- 趙나영,(2011), 〈현대중국어 지속 의미 ‘V着’의 한국어 대응 형식 연구〉, 연세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석사논문.
- 조민정,(2007), 《한국어에서 상의 두 양상에 대한 고찰》, 한국문화사.
- 조서형,(2014), 〈언어 접촉의 관점에서 본 원본 『노절대』의 언어 양상 연구〉, 《민족문화연구》 65,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 조석종,(1994), 〈영어의 相(Aspect)에 관한 연구〉, 《논문집》 35, 경기대학교 연구교류처.
- 조영화,(2003), 〈현대 한국어와 현대 중국어의 시상에 관한 대조연구〉, 상명대학교 한국학 석사논문.
- 지성녀,(2006), 〈한·중 시제 대조 연구〉, 국민대학교 국어학 석사논문
- 지성녀,(2006), 〈한·중 시제 대조 연구 – ‘–었–’을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석사논문.
- 진남남,(2009), 〈한국어와 중국어 상 체계 대조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박사논문.
- 陳明舒,(2005), 〈現代中國語 補語‘上·下·起來’의 의미기능 연구〉, 서울대학교 중어중문학과 박사논문.
- 쭈즈웨이,(2013), 〈문장 차원에서 바라본 상표지 ‘–고 있–’과 ‘在’, ‘着’의 대조 연구〉,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논문.
- 채의나,(2010), 〈한국어 시상 형태소 ‘–고/어 있–’의 의미 분석 연구–중국어 대응 표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국어교육학과 석사논문.
- 최규발 외,(2012), 《중국언어학 입문》, 한국문화사.
- 최규발,(1995), 〈現代漢語 結果補語의 意味指向 分析〉, 고려대학교 박사논문.
- 최규발,(1999), 〈중국어 결과보어 구문의 보어위치 이동과 빈어문제〉, 《중국학논총》, 중국학연구소
- 최규발,(2002), 〈현대 중국어 相의 제문제 고찰〉, 《중국학논총》 15, 고려대

학교 중국학 연구소.

- 최규발,(2006), <방향보어의 문법적 의미-'起來'를 중심으로>, 《중국학논총》 24, 고려대학교 중국학연구소.
- 최규발,(2007), <한국어와 중국어 경험 표지 대조>, 《중국인문학회 정기학술대회 발표논문집》, 중국인문학회
- 최규발,(2011), <현대중국어 상 표지로의 문법화 조건-존재동사와 이동동사를 중심으로>, 《중국학논총》 31, 고려대학교 중국학연구소.
- 최규발,(2013), <中·韓 ‘성취’유형과 미완료상표지 간의 결합대조>, 《중국학논총》 42, 고려대학교 중국학 연구소.
- 崔圭鉢, 朴珉娥,(2012), <현대 중국어 완료상 표지 ‘了’와 ‘완수’유형의 분류 문제>, 《중국어문논총》 53, 중국어문연구회.
- 崔圭鉢, 鄭池秀,(2010), <현대 중국어 사건의 고정화와 상(aspect)>, 《중국학논총》 28, 고려대학교 중국학연구소.
- 崔圭鉢, 鄭池秀,(2006), <현대 중국어 상(相)표지의 부정>, 《중국인문과학》 34:75-98
- 최규발,정지수,(2007), <한중 경험상 대조분석>, 《중국언어연구》 25, 한국 중국언어학회.
- 최규발,조경환,(2010), <중국어의 PVC에 관한 소고>, 《중국어문논총》, 중국어문연구회
- 崔明溫,(1999), <상적 특성에 의한 한국어 동사의 분류>,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논문.
- 최성훈,(1996), <영어 진행형의 의미 분석>, 조선대학교 영어영문학과 박사 논문.
- 최신혜,최규발,(2012), <소유·존재동사 ‘有’의 문법화와 정도 표현-‘有点’을 중심으로->, 《중국언어연구》 41, 한국중국언어학회.
- 최영,(2014),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보조용언 연구>, 인하대학교 국

어교육학 한국어교육 박사논문.

최해영,(1992), <영어 진행형의 연구(동사 분류를 중심으로)>, 『논문집』20, 서경대학교.

최해영,(1996), <영어의 상 연구>, 경기대학교 영어영문학과 박사논문.

최혜영,(1997), <Aktionsart의 문법성(grammaticality)에 관한 연구>, 『대학원논문집』19, 경기대학교 연구교류처.

최환,신미섭,(2009), 『한어어법 분석의 이론과 실천』, 이담.

해가림,(2012), <한·중 지속상의 대조 연구－‘-고 있다’, ‘-어 있다’, ‘在’, ‘着’을 중심으로>, 숭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논문.

허성도,(1992), <한국어와 중국어의 대조분석－동작동사를 중심으로>, 『이중언어학』9, 이중언어학회.

허용,(2008), <한국어 교육에서의 대조언어학과 보편문법의 필요성 연구>, 『이중언어학』36, 이중언어학회.

허주희,(2002), <동작상과 사건 구조를 통한 영어 심리 동사 분석>, 연세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석사논문.

호광수,(2003), 『국어 보조용언 구성 연구』, 도서출판 역락.

호선희,(2012),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시제표현 교육 연구－과거시제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박사논문.

호선희,(2012),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시제표현 교육연구－과거시제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전공 박사논문.

홍윤기,(2002), <국어문장의 상적 의미>, 경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논문.

홍종선 외,(2009), 『국어의 시제, 상, 서법』, 박문사.

황병순,(1994), 『현대국어 동사의 상 연구』,

황병순,(2000), <상 의미로 본 국어 동사의 갈래>, 『한글』250, 한글학회.

CHEN LIXIA,(2014), <한국어 보조용언 구성 ‘-고 있다’, ‘-어 있다’와 중

국어 대응 양상 연구, 경희대학교 국제한국언어문화학과 석사논문.
WANG PINGPING,(2014), <보조용언 구성 ‘-아 있다’와 ‘-고 있다’의 분
포 제약 연구>, 아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논문.
XU XI MEI,(2012), <한국어 ‘-었-’과 중국어 ‘了’의 의미 기능에 대한 대
조 연구>, 아주대학교 국어국문학 석사논문.



2. 국외문헌(영문)

- Bennett, M & B. Partee(1978), *Toward the Logic of Tense and Aspect in English*, Unpublished manuscript, Indiana University Linguistics Club, loomington.
- Carlson, L. (1981). *Aspect and Quantification*. In Philip J. Tedeschi & Anni Zaenen (eds), *Syntax Semantics 14*, New York: Academic Press.
- Chierchia, G. (1991), *Anaphora and Dynamic Binding*, Linguistics and Philosophy 15.
- Chomsky, N. (1965), *Aspects of the Theory of the Syntax*, Cambridge: MIT Press.
- Comrie, B. (1976), *Aspec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omrie, B. (1985), *Aspec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urme, G. O. (1931), *Syntax: A Grammar of the English Language*, Boston: Heath and Company.
- Declerck, R. (1979), *Aspect and the Bounded/Unbounded(Telic/Atelic) Distinction*, Linguistics 17.
- Depraetere, I . (1995), *On the Necessity of Distinguishing between (Un)Boundedness and (A)Telicity*, linguistics and philosophy.
- Dowty, D. (1977) *Toward a Semantic Analysis of Verb Aspect and the English ‘Imperfective’ Progressive*, Linguistics and Philosophy 1.
- Dowty, D. (1979), *Word Meaning and Montague Grammar*, Dordrecht: Reidel.
- Dowty, D. (1982), *Tenses, Time Adverbs, and Compositional*

- Semantic Theory*, Linguistics and Philosophy 5.
- Groenendijk, J. & M. Stokhof. (1991), *Dynamic Predicate Logic*, Linguistics and Philosophy 5.
- Jespersen, O. (1924), *The Philosophy of Grammar*, London: Allen & Unwin.
- Killby, D. (1984), *Descriptive Syntax and the English Verb*, London: Croom Helm Ltd.
- Kruisinga, E. (1931) *A Handbook of Present-Day English, Part II*, Groningen: Noordhoff.
- Langacker, R. W. (1982), Remarks on English Aspect, In P. J. Hopper ed., *Tense-Aspect: between Semantics & Pragmatics*. Amsterdam: John Benjamins Publishing Co.
- Lyons, J. (1977), *Semantics I, II*. London: Cambridge Univ. Press.
- Montague, R. (1974), *Formal Philosophy*, Selected Papers of Richard Montague. R. H. Thomson, ed., New Haven: Yale Univ. Press.
- Mourelatos, A(1978), *Events, Processes and States*. Linguistics and Philosophy 2.
- Partee, B. (1984), *Nominal and Temporal Anaphor*. Linguistics and Philosophy. 7.
- Poutsma, H. (1926), *A Grammar of Late Modern English, Part II*. Groninger: Noordhoff.
- Quirk, R., S. Greenbaum, G. Leech, and J. Svartvik. (1985), *A Comprehensive Grammar of the English Language*, London: Longman Group, Ltd.
- Reichenbach, H. (1947), *Elements of Symbolic Logic*, New York: Dover Publications.

- Scheffer, J. (1975), *The Progressive in English*, Amsterdam: North-Holland Publishing Co.
- Smith, C. (1986), *A Speaker-Based Approach to Aspect*, Linguistics and Philosophy 9.
- Smith, C. S. (1978), *The Syntax and Interpretation of Temporal Expressions in English*. Linguistics and Philosophy 2.
- Vendler, Z. (1967), *Linguistics in Philosophy*,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 Verkuyl, H. (1972), *On the Compositional Nature of the Aspects*. Reidel, Dordrecht.
- Verkuyl, H. (1989), *Aspectual Classes and Aspectual Composition*, Linguistics in Philosophy 12.

3. 국외문헌(중문)

- 姜柄圭,,(2005), <漢韓語言對比與機器翻譯>, 中國語言研究 第20집
- 高明凱,(1948/1986), 《漢語語法論》, 商務印書館.
- 高順全,(2001), 體標記‘下來’, ‘下去’補議, 《漢語學(習)》第3期.
- 龔千炎,(1991), 論現代漢語的時制表示和時態表達系統, 《中國語文》第4期.
- 龔千炎,(1995), 《漢語的時制, 時相, 時態》, 商務印書館.
- 郭昭軍,(2003), 《漢語情態問題研究》, 南開大學博士學位論文.
- 郭銳,(1993), 漢語動詞的過程研究, 《中國語文》第6期.
- 郭志良,(1991), 時間副詞‘正’, ‘正在’和‘在’的分布情況, 《世界漢語教學》第3期.
- 郭風嵐,(1998), 論副詞‘在’與‘正’的語義特征, 《語言教學(與研究)》第2期.
- 金立鑫,(1998), 試論‘了’的時體特征, 《語言教學(與研究)》第1期.
- 金立鑫,(2002), 詞尾‘了’的時體意義及其句法條件, 《世界漢語教學》第1期.
- 金立鑫,(2004), 漢語時體表現的特點及其研究方法, 《漢語時體系統國際研討會論文集》, 百家出版社.
- 金昌吉·張小蔭,(1998), 現代漢語時體研究述評, 《漢語學習》第4期.
- 唐正大,(2005), 從獨立動詞到話語標記, 《語法化與語法研究(二)》第2輯.
- 戴耀晶,(1991), 現代漢語表示持續體的‘着’的語義分析, 《語言教學(與研究)》第2期.
- 戴耀晶,(1997), 《現代漢語時體系統研究》, 浙江教育出版社.
- 董秀芳,(2010), 漢語光桿名詞指稱特性的歷時演變, 《語言研究》第1期.
- 鄧守信,(1985), 漢語動詞的時間結構, 《語言教學(與研究)》第4期.
- 黎錦熙,(1924/2007), 《新著國語語法》, 湖南教育出版社.
- 呂叔湘,(1942), 《中國文法要略》, 商務印書館.
- 劉月華,(1987), 表示狀態意義的‘起來’與‘下來’之比較, 《世界漢語教學》第

1期.

- 劉月華,(1988), 動態助詞‘過2，過1，了1’用法比較， 《語文研究》第1期.
- 劉月華·盧英順,(1991), 談談‘了1’和‘了2’的區別方法， 《中國語文》第4期.
- 劉勳寧,(1988), 現代漢語詞尾‘了’的語法意義， 《中國語文》第5期.
- 劉勳寧,(2002), 現代漢語句尾‘了’的語法意義及其解說， 《世界漢語教學》第3期.
- 李訥·石毓智,(1997), 論漢語體標記誕生的機制， 《中國語文》第2期.
- 李臨定,(1990), 《現代漢語動詞》， 中國社會科學出版社.
- 李敏,(2005), 論‘V起來’結構中‘起來’的分化， 《煙台師範學院學報》第3期.
- 李鐵根,(1992), ‘了1,、‘了2’區別方法的一點商榷， 《中國語文》第3期.
- 李鐵根,(1997), ‘了’，‘着’，‘過’與漢語時制的表達， 《語言研究》第3期.
- 李鐵根,(1998), 《現代漢語時制研究》， 遼寧大學出版社.
- 李鐵根,(1998), 連動式中‘了，着，過’的單用和連用， 《漢語學習》第2期.
- 馬建忠,(1898/1998), 《馬氏文通》，商務印書館.
- 馬慶株,(1981) 時量賓語和動詞的類， 《中國語文》，第 2 期
- 馬慶株,(1981), 時量賓語和動詞的類， 《中國語文》第2期.
- 萬波,(1996), 現代漢語體範疇研究評述， 《江西師範大學{學{報》第1期.
- 潘海華,(1997), 詞匯映射理論在漢語句法研究中的應用， 《現代外語》第4期.
- 房玉清,(1992b), ‘起來’的分佈和語義特徵， 《世界漢語教學》第1期. 商務印書館.
- 尚新,(2004a), 體的語法本質與漢語語法體的分類， 《現代中國語研究》第6期.
- 尚新,(2004b), 突顯理論與漢英時體範疇的類型學差異， 《語言教學{與研究》第6期.
- 石毓智,(1992), 論漢語的體標記， 《中國社會科學》第6期.
- 石毓智,(2010), 《漢語語法》，商務印書館.
- 石毓智·李訥,(2001), 《漢語語法化的曆程》，北京大學出版社.

- 石毓智·白解紅,(2007), 將來時標記向認識情態功能的衍生, 《解放軍外國語學院學{報》
- 孫英杰,(2006), 《現代漢語體系統研究》, 北京語言大學博士學位論文.
- 宋文輝,(2007), 《現代漢語動結式的認知研究》,北京大學出版社.
- 宋玉柱,(1991), 經曆體存在句, 《漢語學習》第5期.
- 雅洪托夫,(1957), 《漢語的動詞範疇》, 中華書局.
- 楊素英,(2000), 當代動貌理論與漢語, 《語法研究和探索》第9輯, 商務印書館.
- 楊素英·黃月圓·王勇,(2009), 動詞的情狀分類及分類中的問題, 《語言學{論叢》第39輯,
- 楊平,(2000), 副詞‘正’的語法意義, 《世界漢語教學》第2期.
- 揚華,(1994), 試論心理狀態動詞及其賓語的類型, 漢語學習,
- 王金鑫,(1998), 動詞時間分類系統補議, 《漢語學習》第5期.
- 王力,(1943/1985), 《中國現代語法》, 中華書局.
- 王力,(1980), 《漢語史稿》, 中華書局.
- 王媛,(2011), 《事件分解和持續性語義研究》,北京大學{博士學位論文.
- 張國憲,(1998), 現代漢語形容詞的體及形態化曆程, 《中國語文》第6期.
- 張萬禾·石毓智,(2008), 現代漢語將來時範疇, 《漢語學習》第5期.
- 張秀,(1957), 漢語動詞的‘體’和‘時制’系統, 《語法論集》第1集, 中華書局.
- 張秀,(1957), 漢語動詞的‘體’和‘時制’系統, 《語法論集》第1集, 中華書局.
- 張濟卿,(1996), 漢語並非沒有時制語法範疇—談時體研究中的幾個問題, 《語文研究》
- 左思民,(1998), 試論‘體’的本質屬性, 《漢語學習》第4期.
- 左思民,(1999), 現代漢語中‘體’的研究, 《語文研究》第1期.
- 朱德熙,(1982), 《語法講義》, 商務印書館.
- 朱德熙,(2001), 《現代漢語語法研究》, 商務印書館.

- 周磊磊,(1999), ‘V掉{’的語法意義及其他, 《六安師專學報》第2期.
- 周小兵,(1995), 談漢語時間詞, 《語言教學與研究》第3期.
- 陳立民,(2002), 漢語的時態和時態成分, 《語言研究》第3期.
- 陳前瑞,(2003), 《漢語體貌系統研究》, 華中師範大學博士學位論文.
- 陳前瑞,(2006), ‘來着’補議, 《漢語學習》第1期.
- 陳前瑞·張華,(2007), 從句尾‘了’到詞尾‘了’, 《語言教學與研究》第3期.
- 陳忠,(2009), ‘着’與‘正’、‘在’的替換條件及其理據, 《語言教學與研究》第3期.
- 陳平,(1988) 論現代漢語時間系統的三元結構, 《中國語文》, 第3期.
- 陳平,(1988), 論現代漢語時間系統的三元結構, 《中國語文》第6期.
- 肖奚強,(2002), ‘正(在)’, ‘在’與‘着’功能比較研究, 《語言研究》第4期.
- 彭利貞,(2005), 《現代漢語情態研究》, 復旦大學博士學位論文.
- 彭利貞,(2007b), 論情態與‘着’的分化, 《語言研究》第2期.
- 彭利貞,(2009), 論一種對情態敏感的‘了₂’, 《中國語文》第6期.
- 胡明揚,(1981), 北京話的語氣詞和嘆詞, 《中國語文》第5—6期.
- 胡裕樹·範曉,(1995), 《動詞研究》, 河南大學出版社.

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n the Categorization of verbs and Combination constraints in Korean and Chinese: Focused on the lexical aspect and realization pattern of syntactic configuration formats

Lee, Seung-hee

Major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Dept. of Korean Language & Literature

The Graduate School

Hansu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is categorize lexical aspects according to the aspect in Korean and Chinese, and to compare and contrast the categorized verbs and realization pattern of the syntactic components. There is no objection in that aspects are categorized to the grammatical aspect and the lexical aspect, and the aspect is realized through interaction between the two. However, due to categories of the grammatical aspect, categories of the lexical aspect, and signs of the grammatical aspect, it is not easy to compare and contrast the realization of aspects in Korean and Chinese. In both languages, Korean and Chinese, there are varied opinions over the categories of the grammatical aspect. Also, due to the transitional characteristics of the process to develop into an aspect sign, it is

hard to confirm their categorical status. For such reasons, the present study dealt with realization with the lexical aspect based on the syntactic composition format.

The second chapter presents why the lexical aspect must be included in the grammatical aspect study and how the aspect in Vendler(1967) and Smith(1997) influenced aspects in Korean and Chinese individually. The lexical aspect targets verbs and it categorizes semantic features based on [Stative], [Durative], [Telic]. As the lexical aspect has different features and characters, when it combines with a syntactic components, it combines with the aspect features of the syntactic component and realizes a new aspect.

The third chapter comprehensively analyzed patterns of the lexical aspect and meaning of the aspect in syntactic component type. In the lexical aspect type analysis, time structure diagram, time-based characteristics, syntactic and semantics characteristics are handled in combination with the aspect character. When it comes to the Stative, the difference of Stative in Korean and Chinese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Stative] and [Durative]. In Semelfactives, conditions of Completive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of [Dynamic], [punctual] and [-Telic], and how to resolve the issues related to the Completive. In regards to Achievements, this study analyzed where the lexical point is located, the status change or the result,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Dynamic], [Punctual] and [Telic]. Activity verbs have characteristics of [Dynamic], [Durative] and [-Telic]. The study showed the consistency in the internal processes and phased characteristics which are used differently in Korean and Chinese. About the accomplishment verbs which have characteristics of [Dynamic], [Durative] and [Telic], this study analyzed the consequentiality as the character to categorize the verbs with mobility. Also, about the syntactic composition pattern which is

related to the combination limitation, we discussed it based on the aspect character. Through such discussions, we found the two languages have a consistent corresponding relationship realization of the aspect, which can be explained by the aspect character.

In the fourth chapter, we analyzed detailed patterns of realization of aspects of the syntactic composition format according to the lexical aspect. As the syntactic composition format, we took an example of the perfective in Korean ‘-었-(-eot-)’ and ‘-었었-(-eot eot-)’. About the movement development stages according to the time passage, we analyzed ‘-게 되-(-ge doi-), -려고 하-(ryeogo ha-)’ in the meaning of schedule, ‘-아 지-(-eo ji-)’ in the meaning of movement, ‘-고 있- (-go eet-)’ in the meaning of progression, ‘-어 가/오- (-eo ga/o-)’ in the meaning of direction and movement, ‘-어 벼리-(-eo beori-), -어 놓/두-(-eo noh/du-)’ in the meaning of completion, and ‘-어 있-(-eo eet-)’ in the meaning of continuation. In Chinese, we analyzed ‘了’ and ‘過’ as the perfective. About the movement development stages according to the time passage, ‘將要’ in the meaning of schedule, ‘起來’ in the meaning of inchoative, ‘正/在/正在’ in the meaning of progression, ‘下去’ in the meaning of direction and movement, ‘掉/着/完’ in the meaning of completion, and ‘着’ in the meaning of continuation. Based on this, we analyzed the factors to change the meaning of aspect according to the lexical aspects and their impact. In the fifth chapter, as a conclusion, we provided a chart for comparison to show that the aspect realization patterns change according to the lexical aspect and analyzed the importance to apply this to Korean language education.

KEYWORD: Korean, Chinese, Aspect, Lexical aspect, Grammatical aspect, Categorization of verbs, Aspect character, Perfective, Progressive aspect, Continuative aspect, Contrastive analysis